

서울대학교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30
년사



서울대학교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3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30년사**

서울대학교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3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정하우

부위원장 이정재

위원 이중용

최진용

김학진

송인홍

서울대학교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30년사

인쇄 2024년 9월 25일

발행 2024년 9월 30일

발행인 김성민

엮은이 서울대학교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30년사 편찬위원회

발행처 (재)서울대학교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02-876-8983

인쇄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02-880-5220)

서울대학교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30
년사

발간사

서울대학교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이사장
서울대학교 농공동창회 회장

김성민

서울대학교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은 1990년 3월 28일에 농공장학재단으로 출발하여 2020년 3월 13일 현 명칭인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으로 개명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농공학과의 동창회였던 농공동창회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에게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학재단은 이 장학금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농공동창회가 출연한 5,000만 원을 기금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약 117억 원의 기금을 가진 큰 장학재단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장학재단은 지난 33년간, 농공동창회가 지급한 장학금을 포함하여, 약 49억 원의 장학금을 1,800여 명의 농공학 분야 학사 및 대학원 과정의 후배들에게 등록금 전액 또는 그 일부로 지원하였습니다. 대학의 한 학과의 동문들이 이룩한 이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장학금 지원 사업과 장학재단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애써 키워 주신 초대 이사장 이철주 교수님을 비롯한 역대 이사장님과 이사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947년에 설립된 농공학과는 1970년부터 농업토목전공과 농업기계전공을 두었고, 대학의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1997년부터 생물자원공학부의 농업토목전공과 농업기계전공으로 개편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농업토목전공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의 지역시스템공학전공으로 농업기계전공은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의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으로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학재단은 이러한 학사 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공학과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농공학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장학금 지급 규모도 많은 농공 동문들의 후원과 지원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기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농공학과 동문들의 기여와 후원이 있었습니다만 성보실업주식회사의 윤대섭 회장님의 헌신적인 기여와 관심이 없었다면 장학재단의 발전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윤대섭 회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 재학 시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으나, 당시 농공학과의 이창구 교수님께서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졸업 후 개인 사업이 성공하면서, 학창 시절의 고마움을 잊지 못해 장학재단 설립을 지원하셨고, 농공학과 재학생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학재단을 발전시키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기부하신 금액은 장학재단 기금의 95%에 이르며 그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숭고한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윤대섭 회장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이를 내색하거나 자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름을 내면 소액 기부자들이 민망해한다고 하시면서 일체 홍보를 하지 못하도록 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30년사』를 발간하면서 윤대섭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장학재단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수많은 농공 동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정확히는 30년이 지났습니다만 늦게나마 『서울대학교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3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은 재단 설립과 재단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많은 농공 동문들의 고난과 노력의 역사를 기록하고,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장학재단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수한 후배들이 농공학 분야의 학문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서울대학교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30년사』 발간의 뜻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공학 분야의 후배들에게 길이길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대학교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30년사』 발간을 지원해 주신 역대 재단 이사장님, 이사님, 역대 동창회장님, 동창회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기록과 자료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30년사』 집필의 책임을 기꺼이 맡아 주신 정하우 명예교수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머리말

편집위원장
제19대 농공동창회 회장

정하우

서울대학교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의 장학사업 30년을 돌아보며

서울대학교의 농공인으로서 우리들의 농공학과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태생은 1943년 4월 농업토목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원고등농림학교에 농업토목학과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46년 10월 국립서울대학교의 발족할 때 수원농전문림학교(전 수원고등농림학교)이 농과대학으로 국립서울대학교의 조직에 합류하고, 학과 명칭은 농공학과로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농공학과는 학문 영역은 농업토목, 농업기계, 농업건축, 농산가공, 농업전기 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 3월부터 농공학과에 농업토목전공과 농업기계전공으로 분리하여 전문성을 심화하도록 발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다양한 학문적 도전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수호되기를 바랍니다.

농공학의 발전을 위해 후배의 장학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1966년에 농공동창회가 창립하였고, 1967년 농공동창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열망에 따라 후대 양성을 위한 동창회 장학기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동창회원들 중에서 직장을 가지신 분들에게서 모금을 하다가, 1978년도부터 모든 동창회원들에게 입학연도에 따라 배정금액을 정하여 입학 연도별로 배정금액을 정하여 모금하는 공동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1989년에 이르러 모금액이

1억 원이 넘으면서 장학기금 관리를 합리화를 위해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90년 3월에 농공동창회 회장이 겸임하는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을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농공동창회 회칙 “제13조 1항에 재단 이사장은 동창회장이 겸임한다.”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발전적 조직개편과 학과의 명칭도 자연스럽게 변경됨에 따라 농공장학재단의 명칭도 “서울대학교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이란 명칭(2020. 3.)으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농공장학기금 모금상황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단계는 농공동창회가 장학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이끌어 가던 시기(1967~1990. 2.)로 농공동창회원 1,012명이 참여하여 후배들의 농공학 교육에 열중하도록 하기 위한 고귀한 정성이 담긴 모금으로써 1억여 원을 조성하였던 시기였습니다. 여기에는 농공동창회의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과 기별간 사님들의 수고와 회원님들의 헌신의 산물이었습니다.

둘째 단계는 농공장학재단 장학기금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는 단계로서 장학기금 모금방식을 이전과 달리 회원들 중에서 독지가들의 특별출연을 통하여 장학기금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었습니다. 1990년에 5,000만 원의 장학기금을 기반으로 하여 2000년에 4억 8,300만여 원을 조성되었으며, 2010년에 50억 원을 넘어서게 되었고, 2012년에는 약 23억 원과 연속적으로 거액의 출연금을 얻게 되어 2020년에는 114억 9,5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동창회원들의 특별한 출연금과 끊임없는 후배 사랑의 성원, 그리고 농공장학재단의 임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셋째 단계는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의 장학기금을 점진적인 확보와 장학금 지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는 운영 관리하는 단계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에 장학기금으로 약 23억 원을 확보하며, 점진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한편 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생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농공동창회가 주관하던 1968년부터 1990년까지는 185명에 이르렀습니다. 1991년부터 대학원생들에게도 장학혜택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등록금 전액을 지급받은 자는 1988년까지 10명 미만이었습니다. 농공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들의 수는 2001년까지 16-22명, 2007년까지 12-18명, 2008년 이후부터 장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 2011년까지 40-60명으로, 2020년까지 110-140명까지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액 장학금 지급과 일부장학금 지급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장학생 숫자의 증감은 장학기금 기본재산의 이자율에 따른 변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장학금 지급 외에도 농공학을 바탕으로 하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꿈을 넓혀 주기 위하여

농공창의경진대회(AGENC FAIR)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2018~2019).

이들 장학기금의 조성과 학구열을 장려하려는 선배 동창님들의 간절한 사랑은 길이길이 빛날 것이며, 또한 후진들도 이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 주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30년사』를 발간하면서 남다른 감회에 젖어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겪었던 날을 돌아보면, 농공동창회의 6·7대 남영희 회장(1976~1980)을 모시고 상임간사를 할 때에 장학기금을 증대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모금 제도를 바꾸어 생존하신 농공학과 졸업생 전원을 대상으로 기별단위로 일정액을 정하여 모금하여 농공동창회 기금액을 1,170만 원으로, 첫 1천만 원대를 넘겨 기뻐했던 일,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재임 시(2002~2004)에 농공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이 9억 원이 넘었을 때는 이제 모든 재학생들이 농공장학금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 후 농공장학재단 설립 20년사의 편집위원장으로 집필할 당시 돌아보면, 농공장학재단 기본재산이 50억 원(2010. 9.)을 돌파하였고, 설립 30주년에 이르러서는 농공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이 117억 1,600만 원(2021)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놀라운 발전이며 단일 학과단위(지금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상태이지만)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유례없는 자랑스러운 일이라 큰 자부심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농공동창회가 설립된 이후 1989년까지 1,012명의 동문들의 정성과 농공장학재단이 설립된 이후 개별 동문들의 각별한 애정의 출연금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에 참여하신 동문들 중에는 윤대섭 동문(농대 1949)님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윤대섭 동문님은 개성 땅에서 오셔서 어려운 환경으로 대학 4학년 때 등록금이 없어 휴학해야 할 처지에 있었는데, 당시 학과장이신 이창구 교수님의 노력으로 등록금을 받아 공부를 이어 가셨고 이때의 고마움을 잊지 못해 본인과 가족들이 합심하여 거액의 장학기금을 출연해 주셨습니다. 윤대섭 동문님은 저희 농공장학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 추대(2012)되어 후진 양성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시고 계시며, 농생대에도 같은 정성을 쏟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 농공인의 귀감 되는 일로 본받을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학재단의 30년사를 마무리하면서 변치 않는 것은 농공학을 전공하는 모든 학생들이 학비로 어려움 없도록 우리 장학재단으로부터 나오는 장학금만으로 수학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식량이 없이 살 수 없고, 식량생산에 필연으로 기술발전과 삶의 환경이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역할에는 영원히 존재하게 될 농업분야에 유능한 농공인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막으시고, 농공학을 하도록 이끌어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주가 각자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충실히 그 분야를 발전시키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업무를 완수하였다는 자랑스러운 긍지를 가지시고, 남은 생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진들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배님들의 사랑에 감사하며, 미래의 사랑을 내다보는 풍성한 감사의 복된 삶을 향유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끝으로 감격스러운 『서울대학교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30년사』를 발간하기 위해 배려해 주신 농공동창회 회장 겸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이사장님과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후배의 미래를 위한 특별한 사랑으로 장학제도를 이끌어 주신 전임 농공동창회장님들과 이사장님들, 장학기금을 출연해 주신 모든 분들과 거액을 아낌없이 출연해 주신 윤대섭 명예이사장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번 30년사 발간에 축하해 주신 농생대 장판식 학장님과 양 전공주임이신 송인홍 교수님과 김학진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전임 이사장님들과 장학금 수혜자들의 격려와 감사를 표해 주신 농공동창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집필해 주신 부위원장님 이정재 명예교수님과 이중용 교수님, 최진용 교수님, 김학진 교수님, 송인홍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궂은 일을 맡아 수고해 주신 장학재단의 박혜영 실장님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축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장판식

『서울대학교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30년사』 발간에 즈음하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장판식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울대학교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30년사』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축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식품공학을 전공하였지만, 학부 재학 시절 농공학과에서 개설된 수업을 수강하는 등 농공학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 주변에서는 수원캠퍼스에서 있었던 농공학 관련의 재미난 추억들을 함께 떠올리곤 합니다. 저는 농업생명과학대학의 학장으로서는 물론이거니와 개인적으로도, 농공장학재단이 이와 같은 깊은 역사와 훌륭한 전통을 가지게 된 것에 매우 부럽고, 감사드리며, 또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이 설립된 지도 어언 3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967년 시작된 농공동창회의 장학 사업이 1990년 농공장학재단으로 발전하였으며, 2020년에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본 장학재단은 3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선배님들의 기여와 후원을 통해 꾸준히 성장해서 현재 그 기금이 약 116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학과 단위의 장학재단으로서는 서울대학교 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장학재단은 그 설립목적에서 명료하게 밝히고 있듯

이, 사회 전반의 공공 이익에 기여하고 공공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영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취지에 걸맞게 농공학을 전공하는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수님들의 학문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농공학 분야의 인재 양성 및 학문 발전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재학생들은 수많은 선배님들의 각별한 애정으로 등록금 전액을 제공받음으로써 재정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우수한 학업성취도 달성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농업의 주요 과제는 식량 자급의 달성이었습니다. 농공학 분야는 농업 기반 구축과 농업의 기계화를 통해 이러한 목표를 이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물결의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어 농업 분야는 새로운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의 상황에서 농공학 분야의 우리 인재들은 AI, IoT, 빅데이터, 드론, 로봇 등 새로운 기술들을 농공학에 접목하여 급격한 시대적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농촌의 고령화, 기후변화 등과 같이 농업과 농촌이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다시 한번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농공학과는 현재 지역시스템공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의 두 학과로 나뉘어 각각 다른 학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해 같은 농공학 분야의 일원이라는 연대감이 다소 약해질 수 있겠지만, 장학재단은 이에 굴하지 않고 여러 활동과 행사를 통해 농공 인으로서의 동질감과 자긍심, 그리고 끈끈한 소속감을 고취하고, 우리나라 농업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재를 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장학재단은 2018년부터 농공창의경진대회(ACENC FAIR)를 개최하여,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는 농공분야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진취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실용화 및 비즈니스화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윤대섭 명예이사님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출연해 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은 늘 뜻깊고 소중합니다. 우리의 자랑찬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장학재단이 지속 가능하고 번영하는 하나의 동일한 개체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함께 정진할 것을 강하게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서울대학교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30년사』의 발간을 거듭 축하드리오며, 농공학과 장학재단의 앞날에도 무궁하고 무진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지역시스템공학 전공주임
송인홍

『서울대학교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30년사』 발간을 축하합니다

장학재단이 또 10년을 더하여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장학재단 30년의 역사를 책자로 발간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장학재단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모든 선후배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장학재단이 서울대는 물론 우리나라 어디서도 유례없이 성장해 왔고, 그 과정에서 농공분야의 후학 양성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지난 20년사의 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비록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은 올해로 30년을 맞지만, 농공분야의 장학사업은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 1960년대 후반 농공동창회의 설립과 함께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초대 동창회장인 이창구 교수님을 비롯한 뜻 있는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것이 씨앗이 되어 더 많은 농공 선배들이 동참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름 풍족한 시기를 보낸 세대로서 반세기 이전의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눔을 실천하신 선배동문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러한 선배님들의 희생으로 현재 장학재단의 기금은 117억여 원으로 늘었고, 기금수익에 따라 변동은 있으나 매년 장학금으로 1억 6,000만 원가량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의 규모와 학생들에 대한 혜택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로 서울대학교의 많

은 전공으로부터 부러움을 사 왔습니다. 동문님의 기여와 타 전공의 부러운 눈길에 보답하는 길은 바로 우리 장학금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늘 감사한 마음과 함께 더 높은 목표를 향해 꿈꾸고 도전해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의 학생들의 도전이 먼 훗날에 결실을 맺고 다시 미래의 후배들이 꿈꿀 수 있는 굳건한 토대로 돌아와 선순환되길 기대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장학재단을 만드신 선배동문님들의 뜻이 현실이 되고, 장학재단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공학과는 해방되기 전인 1943년에 수원고등농립학교의 농업토목학과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식량안보를 굳건히 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모교에 몸담은 입장에서 유장한 역사에 기록된 사회적 기여를 발판으로 우리 후학들이 더욱 농공분야에서 매진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첨단 기술과 지식을 농업분야에 접목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의 기반을 구축하여 더 많은 작물을 더 적은 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여 정부와 국민이 요구에 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학재단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동문 선후배님들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장학기금 확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윤대섭 명예이사장님의 헌신적인 지원에 특별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0년사에 이어 30년사 발간에도 특별한 기여해 주신 정하우 명예교수님께 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역대 농공동창회와 장학재단을 위해 애써 주신 회장님과 임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동문 선후배님의 열정과 기여가 바로 장학재단의 역사와 궤를 같이해 왔고, 지난 30년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뜻깊은 일입니다.

장학재단 30주년을 거듭 축하하며, 앞으로도 성공과 번영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의미 있는 여정에 동문 여러분이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거듭 장학재단의 30년사 발간을 축하합니다.

축사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주임

김학진

『서울대학교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30년사』 발간을 축하합니다

농공장학재단 20년사가 발간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훌쩍 지나 30년사의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967년 몇몇 농공동문들의 모금으로 시작된 농공동창회는 1985년 윤대섭 동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부터 큰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1990년 3월 서울대학교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 당시 농공동창회가 출연한 5,000만 원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1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매년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역시스템공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의 학사 및 대학원 과정의 약 15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의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는 서울대학교는 물론 대한민국 어느 대학의 학과와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는 큰 규모이며 학생들에게 귀한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장학재단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은 지역시스템공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 두 전공에 보다 더 우수한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두 전공은 현재 스마트농업과 기후변화 대응 기반기술 분야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로서 BK21 글로벌 스마트팜 혁신인재양성연구단의 주관학과로서 우리나라 스마트농업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있고 농업 AI와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담당하는

교수도 초빙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한 노력과 헌신, 그리고 학과 발전을 위한 지지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원과 더불어 학사와 대학원 과정 학생들의 농공분야 발전에 필요한 실무와 국제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국내외 연수 또는 인턴십 프로그램 활동 지원 방향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는 수업과 실습 수강에 필요한 기본적인 등록금 지원 외에도 국제학술 대회 참여, 산업과 연구기관, 그리고 세계 유수대학 또는 국제 농업기구 인턴십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농공분야 학사와 대학원과정의 학생들은 타 학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수한 능력배양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의 대한민국 농업을 이끄는 데 우리 농공학도가 예전보다 더욱 그 중심에 설 것으로 믿습니다. 이는 장학재단의 주목적인 농공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학생을 양성을 지원하는 데 그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공주임의 자격으로서 장학재단과 함께 발전을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10년이 지나 장학재단 40년사가 발간될 쯤에는 더욱 성장하고 발전한 장학재단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례

발간사	장학재단 이사장 김성민	4
머리말	장학사업 30년을 돌아보며(편집위원장 정하우)	6
축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장판식	10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지역시스템공학 전공주임 송인홍	12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주임 김학진	14
	농공장학사업의 연혁	18
	역대 동창회장 및 장학재단 이사장	22

제I장 농공장학사업의 발자취

1.	농공동창회 장학사업의 태동기	29
2.	장학재단의 설립 및 성장기(1990~2009)	34
3.	장학재단의 성숙기(2012~현재)	40

제II장 농공장학금 수혜자의 수와 활동

1.	장학금 수령자의 추이	45
1)	농공동창회 장학사업의 장학생 수의 추이	46
2)	장학재단 장학사업의 장학생 수 추이	47
2.	장학금 수령자의 학위과정	49
1)	장학생의 학위과정 분포	49
2)	농업토목(현 지역시스템공학)전공의 장학생 학위과정 분포	50
3)	농업기계(현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의 장학생 학위과정 분포	51

제III장 농공장학기금의 확충과 장학금의 지급상황

1.	농공장학기금의 확충	55
1)	농공동창회 농공장학기금의 형성	55
2)	장학재단 장학기금의 확충과정	59

3) 장학재단의 기본재산 및 장학지원 추이	60
4) 농공장학기금의 기부자와 금액	66
2. 장학금 지급액의 추이	71
1) 대학 등록금 변동과 장학금 지급의 동향	71
2) 농공동창회의 기금 및 장학지원 추이(1968~1990)	71
3) 장학재단의 기본재산 및 장학지원 추이(1991~2022)	74
3. 농공장학금 수혜자 명단 및 지급 금액의 추이	78

제IV장 역대 임원

1. 농공동창회의 역대 임원진	89
2. 장학재단의 역대 이사회 임원진	91
3. 장학재단의 역대 임원 임기	93

제V장 농공시스템공학의 미래 전망과 장학재단의 발전 방안

1. 지역시스템공학의 미래와 전망: 이정재 명예교수	99
2.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의 발전 방안: 이중용 교수	107

부록 1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의 회고담

특별대담	127
농공동창회 역대회장 회고담	135
장학금 수혜자 소감	156
대학원생	156
학부생	181

부록 2 장학재단의 정관과 각종 기록물

장학재단의 정관 및 규정	201
장학재단 설립 과정 및 관련 기록물	217
연도별 장학생 명단 및 장학금 지급액 통계	222
농공동창회 및 장학재단의 장학기금 모금 자료	239
장학증서의 변천	264

농공장학사업의 연혁

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공동창회

1966. 1. 29.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 동창회가 창립총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초대 동창회장으로 이창구 동문을 선출함.
1967. 2. 4.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 동창회의 제2회 정기총회에서 장학금 1차 모금할 것을 의결함.
1967. 9. 9. 농공학과동창회의 장학기금 제1차 모금액이 25만 1,100원에 달함.
1968. 8. 농공학과동창회에서 제1차로 1명의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1972. 3. 25. 농공학과동창회에서 제2차로 장학기금 44만 9,000원을 모금함.
1973. 1. 23. 농공학과동창회에서 제3차로 장학기금 18만 3,000원을 모금함.
1976. 9. 15. 농공학과동창회에서 제4차로 장학기금 291만 원을 모금함.
1979. 2. 15. 농공동창회에서 제5차 장학기금의 모금을 입학기별 전 회원 대상으로 배정금액 (입학년도 1959년 이전: 3만 원, 1960년 이후: 2만 원)을 정하고, 기별간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금하기로 결정함.
1982. 12. 17. 농공동창회 확대임원회의에서 출연자 명의 또는 단체 명의의 특별장학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1985년도부터 특별 장학기금의 이자이익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함.
1987. 10. 18. 농공동창회 정기총회에서 1988년도부터 특별장학금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1989. 2. 10. 농공동창회 확대임원회의에서 재단 설립 추진을 발의함.
1989. 10. 9. 농공동창회 총회에서 재단 정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토의하고 추진위원을 의결함.
1989. 11. 9. 재단 창립이사회에서 정관을 의결하고, 향후 2년간 재단사업계획서 및 재단설립취지문 작성과 신청서류 등을 검토함.

2. 서울대학교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1990. 1. 8. 수원시교육청에 농공장학재단 재단법인 설립 신청서를 접수함.
1990. 3. 29.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재단설립허가서를 취득함에 따라 이철주 농공동창회장 겸 농공장학재단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함.
1990. 4. 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재단설립 등기부 등본을 취득함.
1990. 4. 17. 수원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취득함.
1990. 8. 9. 장학재단에서 2명에게 첫 장학금을 지급함.
1991. 3. 12. 수원시교육청으로부터 장학재단의 정관 중 이사 정수를 9인에서 11명으로의 증원과 기본재산을 1억 1,200만 원으로 하는 정관의 변경을 허가받음.
1991. 3. 26. 수원시교육청의 관서명칭이 경기도수원교육청으로 변경됨.
1992. 2. 24. 경기도수원교육청으로부터 장학재단의 정관 중 이사 정수를 11인에서 13인으로의 증원과 기본재산을 1억 3,7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정관의 변경을 허가받음.
1992. 3. 1. 대학 명칭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변경됨.
1993. 3. 2. 경기도수원교육청으로부터 이후 농공동창회장이 임원(이사)의 취임 승인을 받아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함.
1994. 5. 24. 경기도수원교육청으로부터 장학재단의 정관 중 이사 정수를 13인에서 15인으로 증원하는 정관의 변경을 허가받음.
1994. 6. 2. 경기도수원교육청으로부터 기본재산을 2억 원으로 증액하는 정관의 변경을 허가받음.
1995. 1. 24. 경기도수원교육청으로부터 엄태영 농공동창회장이 임원(이사)의 취임 승인을 받아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함.
1997. 3. 1. 학부제 도입에 따라 농공학과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자원공학부 내에 농업토목 전공, 농업기계 전공, 천연섬유 전공, 임산가공 전공으로 전환됨.
1997. 6. 7. 경기도수원교육청으로부터 유근학 농공동창회장이 임원(이사)의 취임 승인을 받아 제4대 이사장으로 취임함.
1998. 12. 11. 경기도수원교육청으로부터 농공장학재단의 정관 중 제1조 목적의 1항에서 “농업생명과학대학 내의 농공학을 전공하는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과 제2조 사무소

- 의 소재지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내에”로 바꾸는 정관의 변경을 허가받음.
1998. 12. 22. 경기도수원교육청으로부터 홍승만 농공동창회장이 임원(이사)의 취임 승인을 받아 제5대 이사장으로 취임함.
1999. 10. 8. 농공동창회에서 제6차로 장학기금 955만 원을 모금하여 장학재단에 이관함.
2000. 11. 3. 경기도수원교육청으로부터 조범호 농공동창회장이 임원(이사)의 취임 승인을 받아 제6대 이사장으로 취임함.
2002. 12. 22. 경기도수원교육청으로부터 정하우 농공동창회장이 임원(이사)의 취임 승인을 받아 제7대 이사장으로 취임함.
2003. 9. 23.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소재지가 서울시 관악구 신림 9동 산 56-1번지로 변경됨.
2004. 6. 23. 장학재단의 관할 교육청이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으로 변경됨.
2004. 7. 2.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으로부터 장학재단의 정관 제2조의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9동 산 56-1번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상록관으로 변경 허가를 받음.
2004. 8. 18. 장학재단의 관할 세무서가 서울특별시 양천세무서로 변경됨.
2004. 12. 22.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으로부터 허유만 농공동창회장이 임원(이사)의 취임 승인을 받아 제8대 이사장으로 취임함.
2005. 3. 1. 학부제 변경에 따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자원공학부는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지역지역시스템 전공, 생태조경학 전공)와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 바이오소재공학 전공)으로 분리 전환됨.
2006. 12. 22.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으로부터 권상필 농공동창회장이 임원(이사)의 취임 승인을 받아 제9대 이사장으로 취임함.
2009. 3. 30.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으로부터 박승우 농공동창회장이 임원(이사)의 취임 승인을 받아 제10대 이사장으로 취임함.
2010. 9.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의거하여 관할 교육청이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변경됨.
2011. 1. 6.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김경욱 농공동창회장이 임원(이사)의 취임 승인을 받아 제11대 이사장으로 취임함.
2011. 6. 1.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장학재단의 정관 제1조 중 1항을 “농업생명과학대학 내의 농공학(지역시스템공학, 바이오시스템공학)을 전공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으로 그리고 2항을 “농공학(지역시스템공학, 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의 연구활동 및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으로 정관의 변경을 허가받음.
2012. 6. 22. 윤대섭 이사를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 명예 이사장으로 추대.
2012. 9. 30. 제11대 김경욱 이사장이 『농공장학재단 20년사』 책자를 발간함.

2012. 11. 29.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이정재 농공동창회장이 임원(이사)의 취임 승인을 받아 제12대 이사장으로 취임함.
2015. 1. 19.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장세권 농공동창회장이 임원(이사)의 취임 승인을 받아 제13대 이사장으로 취임함.
2016. 12. 1.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김승 농공동창회장이 임원(이사)의 취임 승인을 받아 제14대 이사장으로 취임함.
2017. 11. 21.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남상일 농공동창회장이 임원(이사)의 취임 승인을 받아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함.
2018. 10. 3. 제1회 농공창의경진대회(AGENC FAIR 2018) 개최 및 주관.
2019. 1. 3.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고덕구 농공동창회장이 임원(이사)의 취임 승인을 받아 제16대 이사장으로 취임함.
2019. 10. 25.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윤효철 농공동창회장이 임원(이사)의 취임 승인을 받아 제17대 이사장으로 취임함.
2020. 3. 13.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으로 재단명칭변경 승인됨.
2020. 5. 22.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박관우 수석부회장이 임원(이사)의 취임 승인을 받아 제18대 이사장으로 취임함.(윤효철 전임동창회장 4월17일 별세로 2020년 10월 5일 동창회장 취임)
2020. 10. 5.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 개설됨.(www.ase.or.kr)
2022. 12. 12.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김성민 농공동창회장이 임원(이사)의 취임 승인을 받아 제19대 이사장으로 취임함.

역대 동창회장 및 장학재단 이사장

1. 농공동창회 회장(1966~1992)



이창구
제1~4대 농공동창회 회장
(1966. 1. 28.~1974. 10. 9.)



임영춘
제5대 농공동창회 회장
(1974. 10. 9.~1976. 10. 9.)



남영희
제6~7대 농공동창회 회장
(1976. 10. 9.~1980. 10. 9.)



고재운
제8대 농공동창회 회장
(1980. 10. 9.~1982. 10. 9.)



정진호
제9대 농공동창회 회장
(1982. 10. 9.~1984. 10. 9.)



윤오섭
제10대 농공동창회 회장
(1984. 10. 9.~1986. 10. 9.)



안재숙
제11대 농공동창회 회장
(1986. 10. 9.~1988. 10. 9.)



이철주
제12대 농공동창회 회장
(1988. 10. 9.~1990. 10. 9.)



이희영
제13대 농공동창회 회장
(1990. 10. 9.~1992. 10. 3.)



이철주
제1대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1990. 3. 29.~1993. 3. 1.)
제12대 농공동창회 회장
(1988. 10. 9.~1990. 10. 9.)



이상호
제2대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1993. 3. 2.~1995. 1. 23.)
제14대 농공동창회 회장
(1992. 10. 3.~1994. 10. 3.)



엄태영
제3대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1995. 1. 24.~1997. 6. 6.)
제15대 농공동창회 회장
(1994. 10. 3.~1996. 10. 3.)



유근학
제4대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1997. 6. 7.~1998. 12. 21.)
제16대 농공동창회 회장
(1996. 10. 3.~1998. 10. 3.)



홍승만

제5대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1998. 12. 22.~2000. 11. 2.)
제17대 농공동창회 회장
(1998. 10. 3.~2000. 10. 3.)



조범호

제6대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2000. 11. 3.~2002. 12. 21.)
제18대 농공동창회 회장
(2000. 10. 3.~2002. 10. 3.)



정하우

제7대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2002. 12. 22.~2004. 12. 21.)
제19대 농공동창회 회장
(2002. 10. 3.~2004. 10. 3.)



허유만

제8대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2004. 12. 22.~2006. 12. 21.)
제20대 농공동창회 회장
(2004. 10. 3.~2006. 9. 9.)



권상필

제9대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2006. 12. 22.~2009. 3. 29.)
제21대 농공동창회 회장
(2006. 9. 9.~2008. 10. 11.)



박승우

제10대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2009. 3. 30.~2011. 1. 5.)
제22대 농공동창회 회장
(2008. 10. 11.~2010. 10. 9.)



김경욱

제11대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2011. 1. 6.~현재)
제23대 농공동창회 회장
(2010. 10. 9.~현재)



이정재

제12대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2012. 11. 29.~2015. 1. 19.)
제24대 농공동창회 회장
(2012. 10. 3.~2014. 10. 9.)



장세권

제13대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2015. 1. 19.~2016. 12. 1.)
제25대 농공동창회 회장
(2014. 10. 9.~2016. 10. 8.)



김승

제14대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2016. 12. 1.~2017. 11. 21.)
제26대 농공동창회 회장
(2016. 10. 8.~2017. 10. 14.)



남상일

제15대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2017. 11. 21.~2019. 1. 3.)
제27대 농공동창회 회장
(2017. 10. 14.~2018. 10. 3.)



고덕구

제16대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2019. 1. 3.~2019. 10. 25.)
제28대 농공동창회 회장
(2018. 10. 3.~2019. 10. 5.)



윤효철

제17대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2019. 10. 25.~2020. 4. 17.)
제29대 농공동창회 회장
(2019. 10. 5.~2020. 4. 17.)



박관우

제18대 농공시스템공학
장학재단 이사장
(2020. 5. 22.~2022. 12. 12.)
제30대 농공동창회 회장
(2020. 10. 5.~2022. 10. 15.)



김성민

제19대 농공시스템공학
장학재단 이사장
(2022. 12. 12.~현재)
제31대 농공동창회 회장
(2022. 10. 15.~현재)

| 일러두기 |

1. 장학재단은 1990년에 “농공장학재단”으로 출범하여 2020년에 “서울대학교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본문에는 재단의 명칭을 “장학재단”으로 통일하여 표기하였다.
2. 전공의 명칭도 “농(업)토목”과 “농(업)기계”에서 2003년에 각각 현재의 “지역시스템공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으로 바뀌었다.

I

농공장학사업의 발자취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는 1943년 4월에 수원고등농립학교의 농업토목학과의 설립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듬해인 1944년에 수원농립전문학교의 농업토목학과로 학교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1945년 광복과 함께 국가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미군정 아래 산재되어 있던 여러 전문학교를 모아 1946년 10월 22일에 국립 서울대학교로 통합되었다. 이때 수원농립전문학교의 농업토목학과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업토목학과로 합류하였고, 1947년 4월 1일에 농공학과로 개명되었다.

농공동창회 장학사업의 태동기는 농공장학재단이 설립(1990. 1. 18.)되어 장학기금이 전문적으로 운용되기 전까지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장학사업은 농공동창회의 발족과 궤를 같이 하는데, 수원고등농립학교 농업토목학과가 설립된 지 약 23년 후인 1966년 1월 29일에 서울시 중구 북창동에 있는 한국회관에서 재경 농공학과 동문 101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농공학과 동창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출발하였다. 1966년 농공동창회의 창립을 시점으로 이듬해인 1967년 제2회 농공동창회에서 처음 모금한 장학기금으로 1968년 제2학기부터 장학금으로 지급하기 시작해서 장학재단의 설립된 1990년까지 약 24년간의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의 연도별 장학금 수혜학생들과 장학금액 그리고 농공동창회 임원들과 여러 동문들의 기금 조성내역은 [표 3-2]와 [그림 3-1]을 참조할 수 있다. 이는 농공동창회가 회원친목보다 장학사업을 우선에 두고 장학기금 모금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급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동창회 임원들과 회원의 눈물겨운 땀방울의 결실임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것은 농공인이 농공동창회에 갖는 애정의 깊이가 여타 학과동문회와는 남다른 게 아닐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과 함께 자랑스럽게 기리고자 한다.

태동기 동안의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간략히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세부적인 사항은 10년 전의 기록인 『농공장학재단 20년사』를 참조할 수 있다. 장학사업의 태동기는 농공학과 학과장으로 계시던 이창구(수원고농, 1925) 교수의 노력과 헌신을 빼놓을 수가 없다. 초대 농공학과 동창회 회장으로 추대되어 8년여 동안 당시의 거금인 200만 원을 회사하는 등 장학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점을 특별히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더불어 1973년 '농공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면도 특기할 만하다. [표 1-1]을 보면 한때 장학기금이 일반기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되는 등 여러 모습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오로지 학생들에게 혜택이 더 많은 돌아갈 수 있도록 선배 동문들이 끊임없는 모금의 연속이었고 이러한 노력이 오늘의 농공장학재단의 밑거름이 된 것은 자명하다.

[표 1-1] 농공동창회를 통한 장학사업 개괄(태동기, 1968~1989)

연도	차수	동창회장	주요 사업내용
1966	1대	이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공학과장 이창구 교수 초대 동창회장으로 추대 • 장학기금 설립 및 징수사항 논의 • 대한수리조합연합회 중심 기금모금(53만 7,500원 목표)
19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장학기금 모금: 25만 1,100원 모금
1968	2대	이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창구 교수 제2대 동창회장 재추대 • 장학회 지급규정 제안 및 임원회의 위임: 학과장 추천에 의해 1968년부터 지급 결의 • 윤병호(4학년)에게 첫 장학금 지급 1만 5,000원(등록금전액)
19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기금 기금 35만 9,800원, 장학금 지급(2명×2학기 6만 원)
1970	3대	이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창구 교수 제3대 동창회장 재추대 • 동창회 연회비 500원 각출 및 친목도모 강화 결의 • 이창구 교수 정년퇴임에 따른 임원회 구성 논의 • 2차장학기금모금: ~1970년 졸업동문 대상, 243명 참여(1·2차누적 42만 1,900원 모금)
19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기금 47만 8,854원 이월
1972	4대	이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창구 교수 제4대 동창회장 재추대 • 3차장학기금모금결의: 모교교수 포함 ~1972년 졸업동문 대상(목표 209만 8,700원), 182명의 동문이 44만 7,000원 모금

[표 1-1] 농공동창회를 통한 장학사업 개괄(태동기, 1968~1989)(계속)

연도	차수	동창회장	주요 사업내용
1973	4대	이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공의 날’ 개최 결의 및 첫 행사: 매년 10월 9일, 첫 행사에 졸업생 90명과 재학생 60명이 참여해 체육활동 등 친목도모 동창회회원규정개정: 명예 회원제도 도입, 농업교육학과의 농공학전공자에게 준회원 부여 장학금 신청서류: 성적증명서, 등록금 납입서 첨부 1970년 전공 분리 → 전공별 1명에 장학금 분리 지급
1974	5대	임영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창구 재임 8년 9개월 업적: 동창회 운영체계 제도화, 장학기금과 동창회 회계 분리, 동창회 활성화, 장학기금(장학기금 104만 5,034원)을 확충해 13학기 동안 총 25명에 장학금 지급 등 임영춘 동문(농대 전문부, 1945) 제5대 동창회장 피선(1974. 10. 9.) 박사학위·기술사 취득자 축하파 수여시작, 성금 35만 원 모금(이후 관례가 됨) 장학기금 운용강화: 고이율 대출 및 어음구입, 극동건설 선이자대출 등
19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학기금 확충: 198만 7,500원 모금(장학기금 총액 363만 8,168원) 사업결의: 장학기금 500만 원으로 확충, 장학생 선발도 3명으로 증원
1976	6대	남영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 장학기금 모금: 7개 농대 동문(35만 6,000원)과 농업진흥공사(37만 6,500원) 장학기금총액 552만 2,441원 이월, 장학생 3명 선발(농토목 2, 농기계 1) 및 장학금 지급 남영희(수원고농, 1927) 제6대 동창회장 피선(1976. 10. 1.) 동창회 뉴스레터 발간, 회원주소록 수첩 제작 기금운용 안정화: 고율대출 위험 회피, 안전 자산인 한전 주식투자운영 동창회와 장학기금 통합관리 결정
19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학기금 확충: 모금 46만 원 포함 농공동창·장학 기금 600만 7,616원 이월 장학생 선발 인원 4명 확대, 장학생 4명(농토목 2, 농기계 2) 선발 및 장학금 지급
1978	7대	남영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학기금 확충: 모금 51만 원 포함 농공동창·장학 기금 674만 8,236원 이월 장학생 4명(농토목 3, 농기계 2)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남영희(수원고농, 1927) 제7대 동창회장 재선(1978. 10. 10.) ‘농공동창회’로 명칭 통일: 기존 ‘농공학과동창회’ 또는 ‘농공동창회’ 혼용 입학20년 주관기수제 도입(58학번 시작): 정기총회 후 2부 진행 기금 목표액 1,000만 원, 대출이자율 30% 이상 결의 기금확충 방안 변화: 평생 동창회비 부과(59학번 이전: 3만 원, 60학번 이후: 2만 원) 및 기별 간사 모금 → 기별모임 활성화 기여, 모교교수 찬조(내년 총회에서 1인당 10만 원)
19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 목표액 1,500만 원 결의 장학생 4명(농토목 2, 농기계 2)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표 1-1] 농공동창회를 통한 장학사업 개괄(태동기, 1968~1989)(계속)

연도	차수	동창회장	주요 사업내용
1980	8대	고재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금 256만 7,000원 포함 1,225만 6,228원을 농공동창회 기금으로 이월(1980. 10. 9.) • 고재군 교수 제8대 농공동창회장 피선(1980. 10. 9.) • 농창회 기금 1,800만 원 확대 의결: 한전 주식투자 회수 및 임원 책임하 증식 방안 강구, 기별간사에 기금 모금 독려 • 회원 규정 개정: 농공학과 대학원생 준회원, 비회원 협직 또는 재직교수 명예회원 • 수혜자에 장학증서 수여: 장학생 4명(농토목 2, 농기계 2) 선발 및 장학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창구 명예교수 40만 원 회사 포함 기금 157만 9,000원 모금, 동창회 기금 1,785만 1,867원 이월 • 장학생 4명(농토목 2, 농기계 2) 선발 및 장학금 지급
1981	9대	정진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창구 명예교수 60만 원 회사 포함 기금 97만 2,000원 모금, 동창회 기금 2,173만 1,102원 이월 • 장학생 4명(농토목 2, 농기계 2)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정진호(농대(전), 1946) 동문 제9대 농공동창회 회장 피선(1982. 10. 9.) • 기금 목표액 2,600만 원 결의, 동창회장학금을 '일반기금'과 '개인명장학금'인 '특별장학금'으로 명칭을 구분하고 기금 확충 노력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창구 명예교수 100만 원 회사 포함 기금 184만 4,000원 모금, 동창회 기금 2,580만 4,356원 이월 • 장학생 4명(농토목 2, 농기계 2)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기금목표액 3,200만 원 결의: 기별간사모금 및 특별장학금모금독려
1982	10대	윤오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 441만 5,000원 모금, 동창회 기금 3,547만 125원 이월 • 장학생 4명(농토목 2, 농기계 2)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윤오섭(농대, 1948) 동문 제10대 농공동창회 회장 피선(1984. 10. 9.) • 장학생 선발 확대 및 장학금 지급: 일반기금 4인, 특별기금 4인(농토목 4, 농기계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대섭 동문(농대, 1949) 200만 원 포함 313만 원 모금, 동창회 기금 4,382만 1,974원 이월 • 장학생 8인 선발(농토목 4, 농기계 4) 및 장학금 지급: 일반기금 4인, 특별기금 4인
1984	11대	안재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대섭 동문 2,000만 원 포함 2,240만 7,146원 모금, 동창회 기금 7,400만 533원 이월 • 장학생 4명(농토목 2, 농기계 2)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안재숙(농대, 1948) 동문 제11대 농공동창회 회장 피선(1986. 10. 9.) • 동창회장 선거제도 개선: 기별간사회에서 차기 동창회장 선출 → 정기총회에 서 승인하는 방식 • 장학생 선발 확대 및 장학금 지급: 일반기금 4인, 특별기금 6인(농토목 5, 농기계 5) • 동창회 기금 운용 변화: 모교의 연구시설물 투자 포함, 일반기금과 특별기금의 통합(1987년 이후), 입학 30주년 모교 농공학과 교육시설 지원

[표 1-1] 농공동창회를 통한 장학사업 개괄(태동기, 1968~1989)(계속)

연도	차수	동창회장	주요 사업내용
1987	11대	안재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성우 명예교수 200만 원 포함 310만 9,619원 모금, 동창회 기금 8,195만 3,107원 이월 • 장학생 10인 선발(농토목 5, 농기계 5) 및 장학금 지급: 일반기금 4인, 특별기금 6인
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생 지급 방안 변경: 기존의 일반기금과 특별기금 → 동창회 장학금으로 통합 • 서울대총동창회에서 농공동창회 소개: 농공동창회장·간사장 참여 기자간담회(1988. 3. 2.) • 기금 116만 원 모금, 동창회 기금 9,058만 4,712원 이월 • 이철주(농대, 1949) 동문 제12대 농공동창회 회장 피선(1988. 10. 9.) • 장학재단 설립 검토 의결 • 장학생 10명(농토목 5, 농기계 5) 선발 및 장학금 지급
1989	12대	이철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및 재단설립추진위원회의 개최(1989. 7. 14.): 기금관리 현황 및 운용 방안 논의 • 2차 확대 임원회의(1989. 9. 28.) 개최: 장학재단설립(안) 마련과 총회 논의 결정 • 고재군 교수 200만 원 포함 314만 1,000원 모금, 동창회 기금 1억 166만 1,474원 이월 • 장학생 6명(농토목 3, 농기계 3) 선발 및 장학금 지급(1, 2학기 2회) • 제25회 정기 총회(1989. 10. 9.): 장학재단설립(안) 추인, 농공장학재단이사회에서 정관 확정

지금까지 농공장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 22년 반(1968년 2학기~1990년 2학기) 동안 농공동창회의 기금을 확장하고 그의 운용 이익금을 가지고 지급해 왔었다. 반면 농공동창회의 기금운용 총액이 1억 원을 넘기면서 장학기금을 모금하는 데 있어서나 기금의 운용을 통하여 수익금을 확대하는 데 있어 점차 어려움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철주 농공동창회 회장은 1989년도에 들어와서 제1차 확대임원회의(1989. 2. 10.)를 소집하여 농공장학기금의 확충과 기금의 운용을 제도적으로 안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재단법인 농공장학재단의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고, 제25회 농공동창회 정기총회(1989. 10. 9.)에서 이를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1989년 11월 9일에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의 정관을 제정하였고, 기본재산의 재원은 농공동창회의 기금 중에서 5,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제반 경비는 농공동창회의 기금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 1990년 1월 8일에 장학재단법인 설립의 신청서를 감독관청인 수원시 교육청에 접수하여 심의를 거쳐 1990년 3월 29일에 장학재단의 설립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세부적인 추진 경과는 『농공장학재단 20년사』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장학재단 설립과정과 관련 서류는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따라서 여기는 1990년 장학재단 설립부터 장학기금 과실금이 현재 수준인 3억 원을 넘어서기 전인 2011년도까지 성장기로 정하고 연도별 장학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표 1-2]에 수록하였다. 역대 농공동창회 임원과 장학재단 이사 구성은 IV장에 수록했고, 역대 장학금 수혜자 명단은 부록으로 정리했으니 참조할 수 있다.

[표 1-2] 장학재단 설립 및 장학사업(성장기, 1990~2011)

연도	차수	동창회장	주요 사업내용
1990	13대	이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재단 설립 신청서 접수 및 허가서 취득(1990. 1. 8.): 수원시 교육청 • 장학재단 발족과 기금 출연 가속화: 고임영춘(농전, 1944) 동문 3,000만 원, 유한홍(농대, 1949) 동문 1,000만 원, 윤대섭(농대, 1949) 동문 2,000만 원 등 회사 • 동창회기금(1억 166만 1,474원)에서 5,000만 원을 장학재단 기본재산으로 이관(1989. 12. 13.)하고 4,946만 9,440원을 농공동창회 회계로 이월 • 장학생 6명(농토목 3, 농기계 3) 선발 및 장학금 지급(1, 2학기 2회) • 이희영(농대, 1950) 동문 제13대 농공동창회 회장 피선(1990. 10. 9.) • 농공학과 개관 및 장학재단 설립 축하 기념식수와 현판 행사 개최 • 농공동창회와 장학재단 이사회 별도 조직운영(농공동창회장 이희영 동문, 장학재단 이사장 이철주 동문) • 장학재단 설립에 따라 장학금 지급은 장학재단에서 전담
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 180만 원 모금 포함 농공동창회 회계로 5,168만 1,068원 이월 • 농공동창회와 장학재단의 관계 일원화 논의: 농공장학재단 이사장 임기조정을 통해 농공동창회장이 장학재단의 이사장을 겸임하는 방안 • 장학재단 기본재산 6,200만 원 증자로 1억 1,200만 원, 보통재산 3,102만 989원을 이월 • 장학생 16명(농토목 8, 농기계 8) 선발 및 장학금 지급
1992	14대	이상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공동창회 회칙 개정: 장학재단의 농공동창회 산하기관으로 설정(1992. 9. 16.), 총회 상정 • 장학재단 이사 정수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 • 이상호(농대, 1952) 동문 제14대 농공동창회 회장 추대(1992. 10. 3.) • 농공동창회와 장학재단의 관계 일원화를 위한 회칙 개정 총회 승인, 농공동창회 회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학 명칭 변경에 따른 회칙 개정(농과대학 → 농업생명과학대학) • 장학재단 기본재산 1억 3,700만 원, 보통재산 1,335만 6,936원 이월 • 장학생 20명(농토목 10, 농기계 10) 선발 및 장학금 지급
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호 농공동창회 회장의 재단 이사장 취임(1993. 3. 2.): 이철주 전임 이사장과 이상호 신임이사장의 인수인계(1993. 9. 22.) • 이철주 전임 이사장에 공로패 수여: 장학재단의 기초 다진 공로 • 장학기금 출연: 윤대섭(농대, 1949) 이사 1,000만 원, 이상호(농대, 1952) 이사장이 100만 원(1993. 10. 10.) • 장학재단 기본재산 1억 3,700만 원, 보통재산 1,920만 3,785원 이월: 장학생 20명(농토목 10, 농기계 10) 선발 및 장학금 지급
1994	15대	엄태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재단 기본재산 2억 원 확충: 6,300만 원 증자(윤대섭 이사 1,000만 원, 고재군 전회장 300만 원, 유화증권 만기이자 1,000만 원, 농공동창회 기금 3,300만 원) • 엄태영(농대, 1953) 동문 15대 농공동창회 회장 추대(1994. 10. 3.) • 보통재산 2,306만 9,619원 이월 • 장학생 20명(농토목 10, 농기계 10)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표 1-2] 장학재단 설립 및 장학사업(성장기, 1990~2011)(계속)

연도	차수	동창회장	주요 사업내용
1995	15대	엄태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태영 동문 장학재단 제3대 이사장 선임(1995. 1. 24.) • 고 이창구 교수 추모기념사업의 경과 보고 및 동상제작 • 장학재단 기본재산 2억 원, 보통재산 2,956만 7,380원 이월 • 장학생 20명(농토목 10, 농기계 10) 선발 및 장학금 지급
1996	16대	유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재단 기본재산 2억 5,000만 원 확충: 5,000만 원 증자(농공동창회 기금 1천만원, 고 이창구 교수 추모기금 1,000만 원, 김환종 이사 500만 원, 윤대섭 이사 2,000만 원, 장학재단 보통재산 500만 원 출연) • 유근학(농대, 1955) 동문 16대 농공동창회 회장 추대(1995. 10. 3.) • 보통재산 1,987만 7,737원 차기 이월 • 장학생 20명(농토목 10, 농기계 10) 선발 및 장학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생 선발 절차 모교 재직 교수에 일임 의결 • 장학재단 기본재산 3억 500만 원 확충: 5,500만 원 증자(유한홍 동문 1,000만 원, 윤대섭 이사 3,500만 원 출연) • 유근학(농대, 1955) 동문 장학재단 제4대 이사장 선임(1997. 8. 29.) • 보통재산 1,942만 5,202원 차기 이월 • 장학생 20명(농토목 10, 농기계 10) 선발 및 장학금 지급
1998	17대	홍승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정례화 결정 및 장학생 수 2명 추가 결의 • 장학재단 기본재산 3억 5,500만 원 확충: 5,000만 원 증자(윤대섭 이사 5,000만 원 출연) • 홍승만(농대, 1957) 동문 제17대 동창회장 추대 및 장학재단 제5대 이사장 선임(1998. 10. 3.) • 보통재산 1,614만 4,940원 차기 이월 • 장학생 21명(농토목 11, 농기계 11) 선발 및 장학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교 학제개편에 따른 장학재단 정관변경 의결 • 기본재산 이자율 감소로 장학생 수혜자 1명 축소 • 장학재단 기본재산 4억 1,330만 원으로 증액: 5,830만 원 증자(윤대섭 이사 5,000만 원, 농공동창회 모금액 830만 원 출연) • 보통재산 2,160만 9,282원 이월 • 장학생 20명(농토목 10, 농기계 10)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000	18대	조범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생 수 증원: 학기당 11명 • 장학재단 기본재산 4억 8,330만 원으로 증액: 7,000만 원 증자(윤대섭 이사 7,000만 원) • 조범호(농대, 1958) 동문 제18대 동창회장 추대 및 장학재단 제6대 이사장 선임(2000. 10. 3.) • 보통재산 94만 4,312원 차기 이월 • 장학생 22명(농토목 11, 농기계 11)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표 1-2] 장학재단 설립 및 장학사업(성장기, 1990~2011)(계속)

연도	차수	동창회장	주요 사업내용
2001	18대	조범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재단 기본재산 5억 6,330만 원으로 증액: 8,000만 원 증자(윤대섭 이사 8,000만 원 출연) • 보통재산 596만 4,279원 이월 • 장학생 22명(농토목 11, 농기계 11)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002	19대	정하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생 수 조정(이자수익 감소): 학부 12명, 대학원 6명 • 학과지원금 포함 목적사업비 비율 70.27% 지원 의결 • 정하우(농대, 1959) 동문 제19대 동창회장 추대 및 장학재단 제7대 이사장 선임(2002. 10. 3.) • 장학재단 기본재산 6억 3,330만 원으로 증액: 7,000만 원 증자(윤대섭 이사 7,000만 원) • 보통재산 233만 3,267원 이월 • 장학생 18명(농토목 9, 농기계 9) 선발 및 장학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생 수 조정(이자수익 감소 · 등록금 인상): 학기당 7명 • 장학재단 자문위원회 구성: 재단운영 자문 • 농업생명과학대학 관악이전에 따른 정관변경: 재단 소재지 변경 • 『농공 60년사』 편찬 결의: 추경예산 편성 • 장학재단 기본재산 7억 1,630만 원으로 증액: 8,300만 원 증자(윤대섭 이사 8,000만 원, 이종용 동문 100만 원, 정하우 동문 200만 원) • 보통재산 500만 1,677원 이월 • 장학생 14명(농토목 7, 농기계 7)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003			
2004	20대	허유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재단 정관 제4조 사항 개정 결의: 목적사업에 농공학과 전공지원금 추가 • 장학생 수 조정(등록금 인상): 학기당 6명 • 허유만(농대, 1963) 동문 제19대 동창회장 추대 및 장학재단 제8대 이사장 선임(2004. 10. 3.) • 장학재단 기본재산 9억 430만 원으로 증액: 1억 8,800만 원 증자(윤대섭 이사 1억 7,000만 원, 최찬식 이사 500만 원, 이병철 동문 200만 원, 장길평 동문 1,000만 원, 이종용 동문 100만 원 출연) • 보통재산 342만 5,927원 이월 • 장학생 12명(농토목 6, 농기계 6) 선발 및 장학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생 선정에 대학원생 배려 확대 결정 • 농업생명과학대학 관악이전에 따른 정관변경: 재단 소재지 변경 • 『농공 60년사』 편찬 결의: 추경예산 편성 • 장학재단 기본재산 11억 3,530만 원으로 증액: 2억 3,100만 원 증자(윤대섭 이사 2억 3,000만 원, 장병욱 동문 100만 원 출연) • 보통재산 93만 8,623원 이월 • 장학생 12명(농토목 6, 농기계 6)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005			

[표 1-2] 장학재단 설립 및 장학사업(성장기, 1990~2011)(계속)

연도	차수	동창회장	주요 사업내용
2006	21대	권상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상필(농대, 1964) 동문 제21대 동창회장 추대 및 농공장학재단 제9대 이사장 선임(2006. 9. 9.) 장학재단 기본재산 14억 1,530만 원으로 증액: 2억 8,000만 원 증자(윤대섭 이사 2억 8,000만 원 출연) 보통재산 137만 8,193원 이월 장학생 12명(농토목 6, 농기계 6)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교육청 지시: 채권 매도 후 RP(환매조건부채권)로 전환 장학재단 기본재산 18억 7,530만 원으로 증액: 4억 6,000만 원 증자(윤대섭 이사 4억 6,000만 원 출연) 보통재산 718만 6,253원 이월 장학생 12명(농토목 6, 농기계 6)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008	22대	박승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학생 수 조정: 1학기 6명, 2학기 16명(이자수익 증가) 박승우(농대, 1967) 동문 제22대 동창회장 추대 및 장학재단 제10대 이사장 선임(2008. 10. 11.) 장학재단 기본재산 28억 2,303만 4,107원으로 증액: 9억 4,773만 4,107원 증자(윤대섭 이사 9억 4,773만 4,107원 출연) 보통재산 3,146만 1,143원 이월 장학생 22명(농토목 11, 농기계 11)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학생 수 조정: 학기당 10명 증원 주식 시가액이 장부액보다 클 경우 매각 후 정기예금 예치 의결 장학재단 기본재산 38억 3,180만 9,307원으로 증액: 10억 2,520만 8,000원 증자(윤대섭 이사 10억 2,520만 8,000원 출연) 보통재산 12억 1,080만 3,963원 이월 장학생 40명(농토목 20, 농기계 20)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010	23대	김경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학생 수 조정: 1학기 24명 증원 ‘윤대섭 강의실’(상록관 3220호) 현정: 윤대섭 동문의 장학기금 조성에 헌신적 기여를 감사하는 의미 김경욱(농대, 1968) 동문 제23대 동창회장 추대 및 장학재단 제11대 이사장 선임(2010. 10. 9.) 장학재단 기본재산 50억 8,725만 2,907원으로 증액: 12억 5,544만 3,600원 증자(윤대섭 이사 12억 5,544만 3,600원 출연) 보통재산 17억 4,331만 223원 이월 장학생 48명(농토목 24, 농기계 24)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표 1-2] 장학재단 설립 및 장학사업(성장기, 1990~2011)(계속)

연도	차수	동창회장	주요 사업내용
2011	23대	김경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사업 규모 조정: 전공 교육 및 연구지원금 1,000만 원 • 장학생 수 조정: 1학기 30명 증원 • 장학재단 정관 개정: 모교 전공명칭 변경에 따라 기존 '농공학'을 '농공학(지역 시스템공학, 바이오시스템공학)'으로 변경 • 「농공장학재단 20년사』 발간 의결: 3,000만 원 예산 책정 • 장학재단 기본재산 67억 6,379만 6,827원으로 증액: 16억 7,654만 3,920원 증자(윤대섭 이사 16억 7,654만 3,920원 출연) • 보통재산 26억 4,371만 9,633원 이월 • 장학생 60명(농토목 30, 농기계 30) 선발 및 장학금 지급

3

장학재단의 성숙기 (2012~현재)

장학재단은 1990년 설립 후 많은 동문들의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해 왔고, 2011년에 장학생의 수가 연 60명에 달하고 총 장학금 지급액도 2억 2,000여 만 원을 지급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재단의 기본재산은 성장을 거듭해서 2022년 기준 장학기금이 117억여 원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장학금 지급액에서 2012년을 기점으로 3억 5,000만 원 수준으로 한 단계 올라서고 장학생 수도 근 100명에 육박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 기간을 장학재단의 성숙기로 구분하였다.

2019년에는 모교의 전공 명칭이 바뀐 점을 반영해서 농공장학재단의 명칭도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으로 변경하였다. 2012년 이후 장학재단의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 재단이사 회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표 1-3]에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표 1-3] 장학재단 장학사업(성숙기, 2012~현재)

연도	차수	동창회장	주요 사업내용
2012	24대	이정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학재단 사무국의 전담 직원 채용 추진: 장학재단 사업과 농공동창회 업무 전담• 윤대섭 이사 명예이사장으로 추대• 장학재단 기본재산 92억 2,447만 4,039원으로 증액: 25억 3,930만 원 증자 (윤대섭 이사 25억 3,230만 원, 이홍주(농공, 61) 동문 500만 원, 윤병호 동문 100만 원, 정종훈 동문 100만 원 출연)• 이정재(농대, 1969) 동문 제24대 동창회장 추대 및 장학재단 제12대 이사장 선임(2012. 10. 9.)• 보통재산 23억 3,214만 2,466원 이월• 장학재단 직원 채용: 유미영• 장학생 89명(농토목 45, 농기계 44)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표 1-3] 장학재단 장학사업(성숙기, 2012~현재)(계속)

연도	차수	동창회장	주요 사업내용
2013	24대	이정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선배의 날 지원 결정: 2013년 5월 • 장학재단 기본재산 114억 6,446만 450원으로 증액: 22억 9,107만 5,000원 증자 • 보통재산 2억 3,738만 9,863원 이월 • 장학생 99명(농토목 54, 농기계 45)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014	25대	장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재단 기본재산 114억 6,746만 450원, 보통재산 2억 2,720만 9,466원 이월 • 장세권(농대, 1970) 동문 제25대 동창회장 추대 및 장학재단 제13대 이사장 선임(2014. 10. 9.) • 장학생 98명(농토목 47, 농기계 51) 선발 및 장학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선배의 날 지원 결정: 2015년 5월 • 재단 직원 변경: 이윤희→박혜영 • 장학재단 기본재산 114억 6,746만 450원, 보통재산 1억 5,825만 1,404원 이월 • 장학생 94명(농토목 51, 농기계 43)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015	26대	김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재단 기본재산 114억 8,746만 450원 증액: 2,000만 원 • 전공지원금 축소: 1,000만 원 → 400만 원 • 2016년 대선배의 날 계획 논의 • 김승(농대, 1972) 동문 제26대 동창회장 추대 및 장학재단 제14대 이사장 선임 (2016. 10. 9.) • 보통재산 1억 3,535만 1,666원 이월 • 장학생 72명(농토목 37, 농기계 35)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016	27대	남상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 확대: 보험상품(A등급 이상) 투자 허용(삼성생명연금 보험 신규 예치, 14억 8,000만 원) • 재단 인장관리 상임이사에 위임: 업무 효율성 증대 목적 • 농공 창의경진대회 지원(안) 논의: 1,500만 원 예산 지원 • 남상일(농대, 1972) 동문 제27대 동창회장 추대 및 장학재단 제15대 이사장 선임(2017. 10. 9.) • 장학재단 기본재산 114억 8,746만 450원, 보통재산 1억 8,964만 3,720원 이월 • 장학생 83명(농토목 41, 농기계 42)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017	28대	고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전결 규정 신설: 200만 원 이하 상임이사 전결(업무 효율) • 재단 인장관리 상임이사에 위임: 업무 효율성 증대 목적 • 제1회 농공 창의경진대회 추진: 17개팀 참가신청, 5팀 선정 및 시상 • 고덕구(농대, 1975) 동문 제28대 동창회장 추대 및 장학재단 제16대 이사장 선임(2018. 10. 9.) • 장학재단 기본재산 114억 8,746만 450원, 보통재산 1억 3,215만 433원 이월 • 장학생 84명(농토목 42, 농기계 42)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표 1-3] 장학재단 장학사업(성숙기, 2012~현재)(계속)

연도	차수	동창회장	주요 사업내용
2019	29대	윤효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공 창의경진대회 추진 계속 여부 논의: 이자수익 감소로 재정 상황 감안하여 축소 지속 의결(예산 800만 원) • 제2회 농공 창의경진대회 추진: 4개팀 본선진출 및 시상 • 윤효철(농대, 1975) 동문 제29대 동창회장 추대 및 농공장학재단 제17대 이사장 선임(2018. 10. 9.) • 재단명칭 변경 의결: 농공장학재단 →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 장학재단 기본재산 114억 8,746만 450원, 보통재산 1억 5,578만 9,331원 이월 • 장학생 83명(농토목 42, 농기계 41)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020	30대	박관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회 농공 창의경진대회 추진 의결했으나 코로나로 취소됨. • 윤효철 이사장 별세(2020. 4. 17.) • 박관우(농대, 1979) 동문 장학재단 제18대 이사장 선임(2020. 5. 14.)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에 따른 정관변경: 홈페이지 통한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시 • 장학재단 기본재산 114억 8,746만 450원, 보통재산 1억 4,415만 6,156원 이월 • 박관우(농대, 1979) 동문 제30대 동창회장 추대(2020. 10. 5.) • 장학생 80명(농토목 34, 농기계 46)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에 따른 정관변경: 홈페이지 통한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시 • 장학재단 기본재산 114억 8,746만 450원, 보통재산 3억 8,199만 5,061원 이월 • 장학생 80명(농토목 37, 농기계 43)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022	31대	김성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재단 기본재산 117억 1,591만 4,850원 증액: 2억 2,045만 4,400원 증자 (윤대섭 이사 ((주)동원통상 보통주) 2억 2,045만 4,400원 출연) • 김성민(농대, 1980) 동문 제31대 동창회장 추대 및 장학재단 제19대 이사장 선임(2021. 10. 14.) • 장학재단 30년사 발간 승인: 책임자 선정(정하우 명예교수) • 보통재산 2억 3,207만 8,263원 이월 • 장학생 79명(농토목 40, 농기계 40) 선발 및 장학금 지급

II

농공장학금 수혜자의 수와 활동

이 장은 농공동창회의 회원들이 늘 궁금해하시는
장학금 수혜자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와
그들이 사회에 나아가 얼마나 농공학 분야에서 활동하고,
농공학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 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해를 돋고자 마련하였다.

장학금의 액수와 장학생의 숫자의 증대에는 상반된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공동창회가 설립된 이후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숫자적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장학기금을 모금하는 데 있어 의의가 있다.

1968년 2학기에 처음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해서 연수로는 54년 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 동안의 장학금 수령자(중복 수령횟수 포함)는 총 1,478명에 이른다. 이 중에 농업토목전공의 수혜자는 742명이고 농업기계전공의 수혜자는 736명이다. 여기서 두 전공의 수혜자의 숫자가 상이한 것은 장학금을 지급할 초기에는 전공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 4학년을 대상으로 선별하였기 때문이다. 양 전공이 분리 운영되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부터였다.

제1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농공동창회를 통한 장학 사업이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진다. 첫 단계는 장학재단 설립 이전인 1968~1990년의 시기로 농공학과 동창회가 직접 장학사업을 펼쳤다. 이 기간의 장학금 수령자 수는 연인원 185명으로 농업토목전공의 학생 100명 그리고 농업기계전공의 학생 8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장학생들 중에는 농업기계전공의 석사과정의 대학원생 1명(1976)을 제외하면 모두 학부 학생들이며 4학년생을 주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농공동창회 산하에 ‘농공장학재단’을 설립하여 1991년에서 2022년까지 31년간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시기로, 이 기간의 장학금 수령자의 수는 총 1,295명인데, 농업토목전공의 학생 642명과 농업기계전공의 학생 65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 기간 중에는 졸업 후 농공학 분야의 발전과 활동에 더 많은 활동과 기여를 바라는 뜻을 담아 1991년부터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선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장학기금의 출연금이 급격히 증대되고, 과실금도 증대하면서 장학재단의 목적사업비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장학생의 숫자도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장학재단이 출범하면서 목표로 삼았던 농공학을 전공하고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모든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희망의 뒤에는 말없이 정성을 쏟아 주신 선배님들의 고귀한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가슴속에 새겨야 할 것이다.

1) 농공동창회 장학사업의 장학생 수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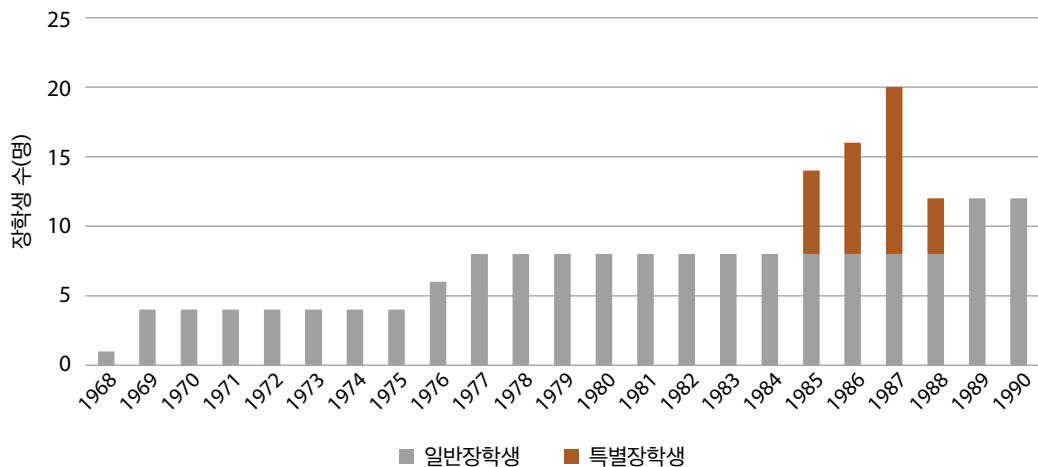
1968년부터 1990년까지의 장학금은 농공동창회의 장학기금에서 얻어지는 이자이익금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장학기금을 계속 축적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장학기금의 확충에 맞추어 장학생의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였고, 그 추이는 [표 2-1]과 [그림 2-1]에서 볼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1984년에서 1988년까지는 농공동창회가 장학기금의 확충을 위해 개인 또는 단체 명의로 특별장학금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장학생에게 등록금을 전액으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연도에 따라 다른 금액이었지만 농공동창회 일반장학 기금에서 25~50만 원씩 지급하였고, 특별장학기금에서는 15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장학생의 숫자는 많아졌지만 개인이 받은 금액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는 장학금액을 등록금 전액으로 목표를 삼았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겨 1989년부터는 특별장학금 제도를 폐기하고, 다시 장학생의 수는 줄이되 장학금액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표 2-1] 농공동창회 장학사업의 연도별 장학생 수의 변화

(단위: 명)

연도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학생	1	4	4	4	4	4	4	4	6	8	8	8
연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합계
학생	8	8	8	8	8	8/14	8/16	8/20	8/12	12	12	185

주: /는 전체 장학생 중에서 일반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수



[그림 2-1] 농공동창회 장학사업의 연도별 장학금 수령자의 추이

2) 장학재단 장학사업의 장학생 수 추이

장학재단이 5,000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1990년 3월에 출범되었지만, 장학기금의 과실소득금(기본재산의 이자이익금)이 당해 연도에는 적었기 때문에 농공동창회의 기금에서 12명 중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장학재단에서는 2명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장학금 운용은 농공장학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1억 원 이상의 장학기금에서 얻어지는 과실소득금에서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과 학과 지원금을 50% 이상 할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공동창회의 기금에서 지급하던 규모보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따라서 1991년에는 16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1997년 IMF가 발생하기 전까지 매년 2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1997년에 IMF 발생한 환란으로 인해 과실소득금의 변동이 2006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대학의 등록금도 계속 상승하여 장학생 수에 변동이 다소 있었다. 2006년에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이 약 19억 원으로 늘어나서 2007년부터 과실소득금액이 정상화되었지만 대학등록금이 크게 증가하여 2008년도 제2학기에 이르러서야 장학생 숫자를 늘릴 수 있었다. 2009년에는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이 38억 원을 넘어섰고, 과실소득금액이 1억 9,700만 원에 달해 장학금 지급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4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10년에는 48명, 그리고 2011년에는 6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 윤대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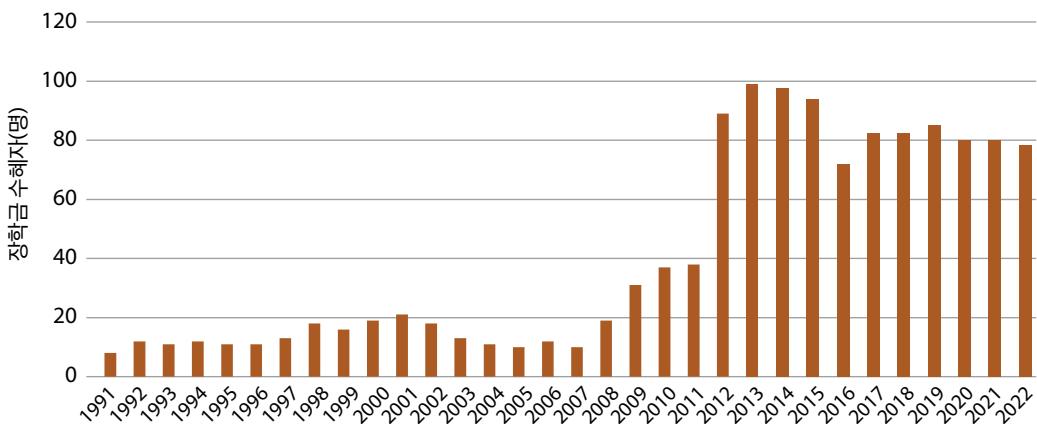
[표 2-2] 장학재단 장학사업의 연도별 장학생 수의 변화

(단위: 명)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학생	8	12	11	12	11	11	13	18	16	19	21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학생	18	13	11	10	12	10	19	31	37	38	89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학생	99	98	94	72	83	84	85	80	80	80	1,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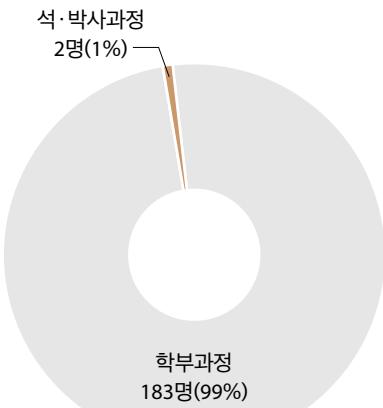
[그림 2-2] 장학재단 장학사업의 연도별 장학금 수령자의 추이

명예이사장님의 지속적인 기부로 기본재산이 115억 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따른 과실소득도 이자율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매년 3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장학생 수도 많게는 99명까지 늘어난 때가 있을 만큼 양적인 성장을 달성했다.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의 확충에 맞추어 장학생의 수가 늘어나는 추이는 [표 2-2]와 [그림 2-2]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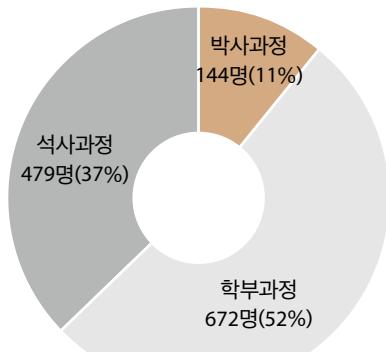
1) 장학생의 학위과정 분포

초창기(1986~1990)에 농공동창회가 장학사업을 펼칠 때 학부 학생들 중 고학년을 우선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였다. 1976년에는 예외적으로 1명의 석사과정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1968년 제2학기부터 1990년까지 농공동창회에서 수여한 장학생 수는 총 185명이었고, 그중 학부학생이 183명(99%)으로 대부분이고 2명(1%)의 석사과정학생이 있었다. 이를 분포도를 표현하면 [그림 2-3]과 같다.

농공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장학 사업(1991~2011)이 추진되면서 장학기금의 확충과 장학 재단의 목적사업 비율이 증대함에 따라 장학생의 수적 증가도 이루어졌다. 또한 대학원 재학생들의 수가 증가되면서 1991년부터 작은 수이지만 석사과정의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1996년에 들어오면서 대학원 박사과정의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대상자를 넓혔다. 이는 장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 농공학의 학문과 기술발전에 활동하는 기대가 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더 많아지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2000년에 이르러서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비중이 약 반반으로 이루어졌다. 1991년부터 2022년도까지 농공장학재단에서 지급한 장학금 수령자 수가 총 1,295명에 이르렀고, 그중에서 학사과정의 학생들은 672명(52%)에 이르렀고, 석사과정의 학생들은 479명(37%)이었으며, 박사과정의 학생들은 144명(11%)에 달하였다. 이의 분포도를 보면 [그림 2-4]와 같다.



[그림 2-3] 장학생의 학위과정 분포(1968~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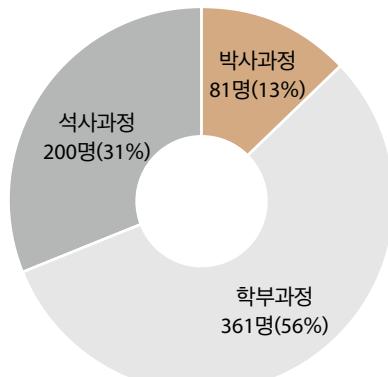
[그림 2-4] 장학생의 학위과정 분포(1990~2022)

2) 농업토목(현 지역시스템공학)전공의 장학생 학위과정 분포

초기 농공동창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 전공분리가 되지 않았다. 1970년부터 전공이 분리되어 교육이 이루어졌고, 장학생은 1973년부터 분리되어 선발되었다. 그러므로 전체 농업토목학을 전공한 장학생은 1968년부터 1990년까지 100명(100%)이었고 모두 학부생들이었다. 그리고 장학재단에서 1991년부터 2022년까지 장학금을 지급한 장학생의 수는 총 642명이었다. 그중에서 학사과정의 학생은 361명(56%)이었고, 석사과정의 학생은 200명(31%)이었으며, 박사과정의 학생은 81명(13%)에 이르렀다. 이의 분포도를 보면 [그림 2-5], [그림 2-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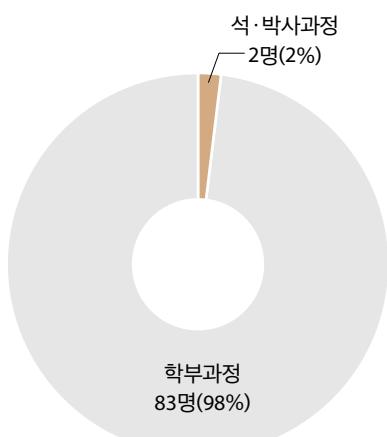
[그림 2-5] 농토목전공 장학생의 학위분포(1968~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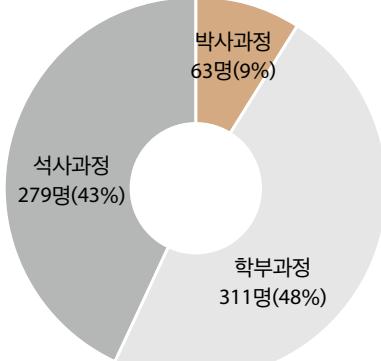
[그림 2-6] 농토목전공 장학생의 학위분포(1991~2022)

3) 농업기계(현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의 장학생 학위과정 분포

초기 농공동창회에서 농업기계전공의 장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한 시기는 1973년부터였다. 그 이후 전체 농업기계학을 전공한 장학생은 1973년부터 1990년까지 85명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 학사과정의 장학생이 83명(98%)이었고, 석사과정 장학생이 2명(2%)이었다. 농공장 학재단 설립 후인 1991년부터 2022년까지 장학금을 지급한 장학생의 수는 총 653명이었다. 그중에서 학사과정의 학생은 311명(48%)이었고, 석사과정의 학생은 279명(43%)이었으며, 박사과정의 학생은 63명(9%)이었다. 이를 분포도로 보면 [그림 2-7]과 [그림 2-8]과 같다.



[그림 2-7] 농기계전공 장학생의 학위분포(1968~1990)



[그림 2-8] 농기계전공 장학생의 학위분포(1991~2022)

III

농공장학기금의 확충과 장학금의 지급상황

1) 농공동창회 농공장학기금의 형성

농공동창회의 창립이 1966년 1월 29일에 있은 이듬해 1967년 2월 4일 제2차 정기총회에서 모교의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장학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GNP가 4만 3,000원인 상황에서 당해 연도에 25만 1,100원이란 거금을 단시간에 모금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동창애가 발동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금액을 한국은행의 경제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해 보면 현재 화폐가치는 677만 3,749원에 해당한다. 초대 농공동창회 회장이셨던 이창구 모교 교수님이 약 8년에 걸쳐 장학기금의 기틀을 다져 주셨고, 이를 계기로 1, 2차 그리고 3차에 걸쳐 졸업생을 대상으로 모금하게 되었는바 1974년 9월에 이르러서는 104만 5,034원이란 기금을 모금하게 되었다([부록 표 4-1], [부록 표 4-2] 참조). 이 기간 동안에는 기록이 농공동창회 일반회계와 장학재단의 기금의 관리가 혼합되기도 했으며, 불확실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장부기록과 회의록 기록이 일치하지 않아 장부기록을 우선으로 계수가 조정되기도 했다. 제5대 농공동창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임영춘 회장은 재임 2년에 걸쳐 주요 정부기관과 대학교와 농어촌진흥공사 등의 상위 직급에 해당하는 동문을 대상으로 하여 제3차 장학기금모금을 펼쳐 장학기금을 1976년 9월에는 552만 2,441원으로 증대시켰다([표 1-1], [부록 표 4-5-1] 참조). 제6대 농공동창회 회장으로 남영희 회장이 취임한 후에 모금 대상을 특정인에게 국한 하지 않고 모든 졸업생을 대상으로 배정액(59학번 이전: 5만 원, 60~80학번: 3만 원, 81학번 이후: 2만 원)을 정하고, 각 입학기별 간사를 임명하여 각 기별 모금목표액을 정하여 독려하였는바 1980년 9월에는 농

[표 3-1] 장학기금 모금액의 2010년 기준의 화폐가치 비교표

(단위: 원)

연도	장학기금 모금 금액	현재 화폐가치	비고
1967	251,100	6,733,749	
1974	1,045,034	11,936,378	
1976	5,522,441	43,665,941	
1980	12,256,228	50,495,659	
1982	21,731,102	68,844,131	
1984	35,470,125	106,233,024	
1986	74,000,533	210,531,526	
1989	101,661,474	247,749,01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이용한 2010년도 기준의 화폐가치임.

공동창회의 기금이 1,225만 6,228원에 이르렀다([부록 표 4-6]~[부록 표 4-9] 참조). 제8대 고재균 농공동창회장이 취임한 후에 기금 모금이 더욱 활발하여 1982년 9월에는 21,731,102원에 이르렀다([부록 표 4-10]~[부록 표 4-11] 참조). 제9대 정진호 농공동창회 회장이 취임하여 특별장학금제도를 도입하여 기금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1984년 9월에는 농공동창회 기금으로 3,547만 125원을 확보하게 되었는바([부록 표 4-12]~[부록 표 4-13] 참조) 2010년도 기준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1억 6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었다. 제10대 윤오섭 농공동창회 회장이 취임한 후에 개별적인 노력으로 동문들 중에서 특별한 모금운동을 펼쳐 1986년 9월에는 7,400만 533원을 농공동창회의 기금으로 조성하였다([부록 표 4-14]~[부록 표 4-15] 참조). 제11대 안재숙 농공동창회 회장이 취임한 후에 특별장학기금제도의 개선과 함께 장학금 지급액을 등록금 전액으로 하는 결정하였다. 1988년 9월에 이르러서는 농공동창회 기금액이 9,058만 4,712원에 달했고([부록 표 4-16]~[부록 표 4-17] 참조), 1989년 9월에는 농공동창회의 장학기금이 1억 166만 1,474원에 이르렀다([부록 표 4-18] 참조). 농공동창회의 회장 임기에 따른 기금 총액을 2010년도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표 3-1]과 같다. 비록 현금 관리 측면에서 보면 1억 원의 장학기금이 1989년에 되어서 확보되었지만,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본다면 우리 농공동창회에서는 1984년에 이미 1억 원의 장학기금을 초과 확보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제12대 이철주 농공동창회 회장이 취임한 후에 농공동창회의 기금의 실제 관리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기금모금의 한계성을 가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기금의 운영에

[표 3-2] 농공동창회 장학기금의 재산결산표(1967~1990)

(단위: 원)

구분	1967	1968	1969	1970	1971
동창회 기금	251,100	273,900	359,800	501,775	478,854
이월금	251,100	273,900	359,800	501,775	478,854
이자이익금	-	15,000	145,900	102,555	45,454
장학금 모금	251,100	22,800	미상	64,100	10,100
기타	-	251,100	273,900	426,620	523,900
수입합계	251,100	288,900	145,900	593,275	579,454
일반지출	-	-	-	7,500	600
장학금 지급	-	15,000	60,000	84,000	100,000
학과 지원금	-	-	-	-	-
지출합계	-	15,000	60,000	91,500	100,600
장학생 수	-	1	4	4	4
구분	1972	1973	1974	1975	1976
동창회 기금	860,070	1,043,070	1,045,034	3,638,168	5,522,441
이월금	860,070	1,043,070	1,045,034	3,638,168	5,522,441
이자이익금	75,640	미상	164,622	446,596	1,580,863
장학금 모금	447,000	183,000	69,000	1,987,500	671,300
기타	483,890	991,470	963,412	2,067,487	3,795,778
수입합계	1,006,530	1,174,470	1,197,034	4,501,583	6,047,941
일반지출	10,660	미상	2,000	575,715	14,400
장학금 지급	135,800	131,400	150,000	287,700	511,100
학과 지원금	-	-	-	-	-
지출합계	146,460	131,400	152,000	863,415	525,500
장학생 수	4	4	4	4	6

도 개인 및 기업체 대출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공동창회의 정기총회에서 농공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확정하고,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농공동창회의 기금 5,000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이관하였으며, 1990년 3월 29일에 재단 설립에 관련한 허가를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아 법인체 등록을 마쳤다.

1967년부터 1990년까지의 농공동창회의 장학기금의 축적과정, 기본재산의 변동상황, 장학기금의 이자이익금, 장학금 지급 및 학과지원금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은 [표 3-2]에 수

[표 3-2] 농공동창회 장학기금의 재산 결산표(1967~1990)(계속)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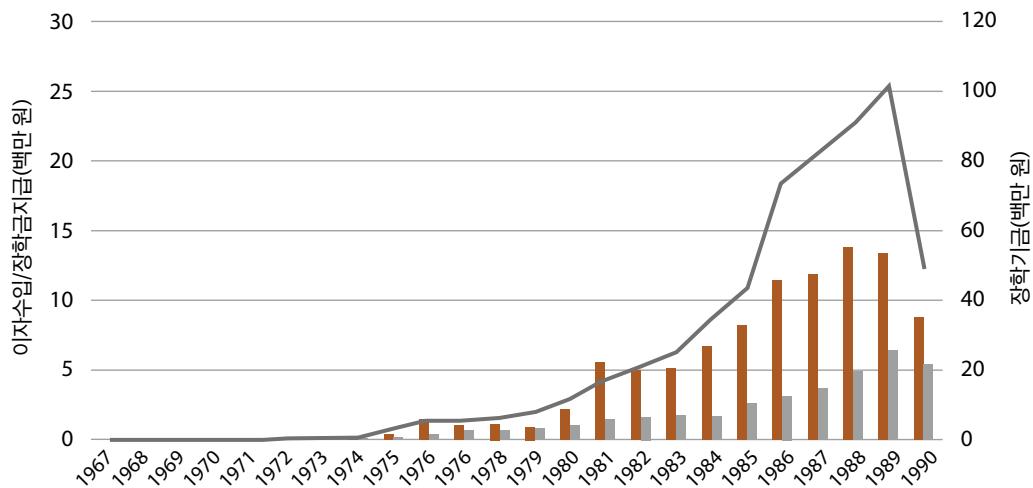
구분	1977	1978	1979	1980	1981
동창회 기금	6,007,616	6,748,236	8,323,701	12,256,228	17,851,867
이월금	6,007,616	6,748,236	8,323,701	12,256,228	17,851,867
이자이익금	1,100,237	1,270,085	1,049,950	2,330,597	5,649,109
장학금 모금	460,000	510,000	1,590,000	2,567,000	1,579,000
기타	5,754,441	6,358,616	7,791,736	9,418,701	13,721,228
수입합계	7,314,678	8,138,701	10,431,686	14,316,298	20,949,337
일반지출	559,062	579,265	1,242,385	974,070	1,602,270
장학금 지급	748,000	811,200	865,600	1,086,000	1,495,200
학과 지원금	-	-	-	-	-
지출합계	1,307,062	1,390,465	2,107,985	2,060,070	3,097,470
장학생 수	8	8	8	8	8
구분	1982	1983	1984	1985	1986
동창회 기금	21,731,102	25,804,356	35,470,125	43,821,974	74,000,533
이월금	21,731,102	25,804,356	35,470,125	43,821,974	74,000,533
이자이익금	5,020,785	5,148,754	6,760,209	8,286,929	11,466,773
장학금 모금	972,000	1,844,000	4,150,000	3,130,000	22,407,146
기타	19,761,867	22,820,102	28,609,356	37,230,125	46,711,974
수입합계	25,754,652	30,412,856	39,519,565	48,647,054	80,585,893
일반지출	2,235,550	2,732,500	2,249,440	2,125,080	3,385,360
장학금 지급	1,788,000	1,876,000	1,800,000	2,700,000	3,200,000
학과 지원금	-	-	-	-	-
지출합계	4,023,550	4,608,500	4,049,440	4,825,080	6,585,360
장학생 수	8	8	8	14	16

록되어 있다. 또한 [그림 3-1]에서 보면 농공동창회에서는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증대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었던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 주고 있다. 즉 농공동창회 기금액이 증가하는 데 따라 이자이익금도 증가하였지만 그중에서도 장학금 지급액은 크게 늘리지 못한 것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그림 3-2]에서 보면 이자이익금 중에서 목적사업비(장학금 지급과 학과지원비)에 큰 것이 3회(1987, 1988, 1990)에 걸쳐 보여 주고 있는바 이는 학과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큰 지원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표 3-2] 농공동창회 장학기금의 재산 결산표(1967~1990)(계속)

(단위: 원)

구분	1987	1988	1989	1990
동창회 기금	81,953,107	90,584,712	101,661,474	49,469,440
이월금	81,953,107	90,584,712	101,661,474	49,469,440
이자이익금	11,958,110	13,840,045	13,408,462	8,822,859
장학금 모금	3,409,619	1,160,000	3,141,000	1,240,000
기타	77,491,754	85,108,977	95,619,712	73,782,192
수입합계	92,859,483	100,109,022	112,169,174	66,199,333
일반지출	3,256,250	3,524,310	4,099,700	6,269,893
장학금 지급	3,800,000	5,000,000	6,408,000	5,460,000
학과 지원금	3,850,126	1,000,000	-	5,000,000
지출합계	10,906,376	9,524,310	10,507,700	16,729,893
장학생 수	20	12	12	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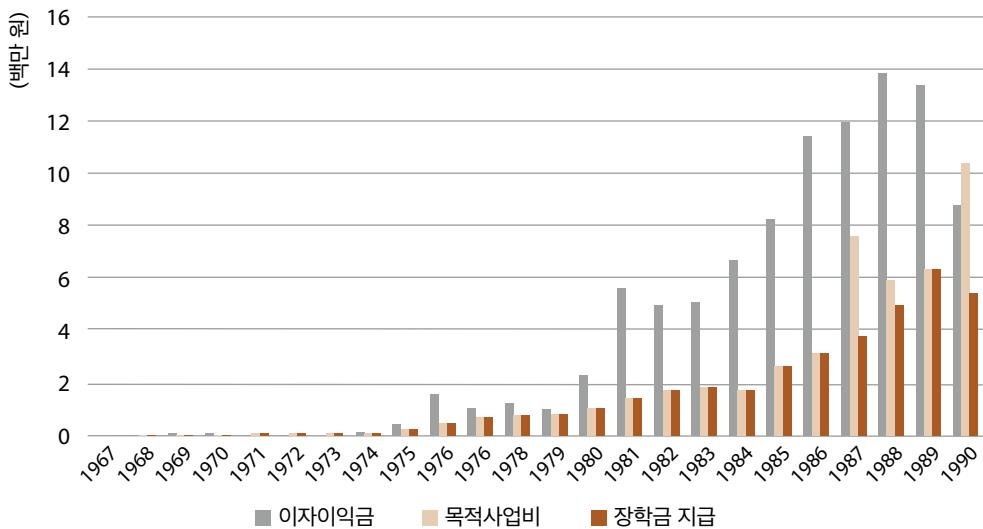


주: 10/12는 12명 중에서 10명은 농공동창회 장학금에서 지급됨.

[그림 3-1] 농공동창회 기금, 이자이익금 및 장학금 지급액의 비교(1967~1990)

2) 장학재단 장학기금의 확충과정

장학재단이 1990년 3월 29일에 농공동창회에서 지원한 장학기금 5,000만 원을 기반으로 출범하면서 초대 이사장에 이철주 농공동창회 회장이 취임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윤대섭 재



[그림 3-2] 이자이익금, 목적사업비 및 장학금 지급액의 비교(1967~1990)

단이사, 유한홍 재단이사, 이창구 명예교수 등 많은 동문들이 증자에 동참하였다.

이에 대한 각 연도별 기본재산 현황과 보통재산의 운용, 장학금 기금의 모금현황, 장학금 지급액, 학과 지원금 등에 관한 내역은 [표 3-3]에 수록하였다. [표 3-3]과 [그림 3-3]에서 보면 1990년에서 2004년까지는 IMF 환란 이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 미미한 상태이면서도 꾸준하게 기본재산액이 증가하다가 2005년에 기본재산액이 10억 원을 넘으면서 서서히 약동하는 모습을 드러내었다. 2008년 2학기부터 기본재산액이 38억 원을 넘으면서 과실소득금액도 증대하여 장학생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장학금의 지급액도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 지금까지 목적사업 중의 하나인 모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전공 지원을 시작하는 계기도 마련하게 되었다. 2022년 기준으로 장학재단은 기본재산액이 117억 원을 넘어섰고 우리나라에 유래가 없는 성공한 재단으로 성장하였다. 이는 장학재단을 설립할 당시의 꿈이었던 농공학을 전공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굳건한 기반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큰 감격을 느낀다.

3) 장학재단의 기본재산 및 장학지원 추이

장학재단이 설립한 이후 당해 년에 기본재산액이 1억 원을 넘겼고, 3년 후에 1억 원을 증자

[표 3-3] 장학재단 재산결산표(1990~2022)

(단위: 원)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기본재산	50,000,000	112,000,000	137,000,000	137,000,000	200,000,000
보통재산이월	5,527,724	31,020,989	13,356,963	19,203,785	23,069,619
과실소득금	3,704,354	15,855,680	20,846,849	21,726,000	22,623,320
재산증자기부	62,000,000	23,064,934	2,000,000	(11,000,000)	56,000,000
기타	6,088,070	71,204,955	37,158,974	6,993,510	35,295,206
보통수입합계	71,792,424	110,125,569	60,005,823	42,076,235	113,918,526
일반지출	989,184	5,759,930	5,658,860	4,963,450	7,348,907
장학금 지급	3,276,000	9,608,000	12,990,000	14,909,000	17,500,000
학과 지원금	-	2,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기본재산증자	62,000,000	62,000,000	25,000,000	(11,000,000)	63,000,000
보통지출합계	66,265,184	79,104,580	46,648,860	22,872,450	106,569,619
장학기금모금	62,300,000	24,064,934	2,000,000	11,000,000	56,000,000
장학생 수	2/12	16	20	20	20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기본재산	200,000,000	250,000,000	305,000,000	355,000,000	413,300,000
보통재산이월	29,567,380	19,877,737	19,425,202	16,144,940	21,609,282
과실소득금	22,389,660	22,379,502	42,218,430	27,781,490	41,171,200
재산증자기부	6,500,000	46,000,000	45,000,000	50,000,000	58,300,000
기타	29,757,710	38,437,360	25,669,842	29,721,890	28,976,367
보통수입합계	58,647,370	106,816,862	112,888,272	107,503,380	128,447,567
일반지출	6,053,990	13,518,125	10,853,070	11,969,440	16,480,285
장학금 지급	20,026,000	23,421,000	25,610,000	29,389,000	28,058,000
학과 지원금	3,000,000	-	2,000,000	-	4,000,000
기본재산증자	-	50,000,000	55,000,000	50,000,000	58,300,000
보통지출합계	29,079,990	86,939,125	93,463,070	91,358,440	106,838,285
장학기금모금	15,000,000	50,000,000	45,000,000	50,000,000	129,550,000
장학생 수	20	20	20	22	20

주: 1990년도의 장학생은 12명 중에서 2명은 장학재단의 장학금에서 지급됨.

() 안에 있는 금액은 증자 대기상태로 입출로 잡히지 않음.

[표 3-3] 장학재단 재산결산표(1990~2022)(계속)

(단위: 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기본재산	483,300,000	563,300,000	633,300,000	716,300,000	904,300,000
보통재산이월	944,312	5,964,279	2,333,267	5,001,677	3,425,927
과실소득금	33,831,777	51,808,970	36,422,718	45,654,401	39,645,270
재산증자기부	70,000,000	80,000,000	70,000,000	83,000,000	188,000,000
기타	28,458,255	11,414,039	14,250,759	23,561,427	10,960,737
보통수입합계	132,290,032	143,223,009	120,673,477	152,215,828	238,606,007
일반지출	16,756,720	13,372,730	11,737,210	29,619,151	14,370,080
장학금 지급	39,589,000	41,886,000	34,603,000	29,595,000	28,810,000
학과 지원금	5,000,000	2,000,000	2,000,000	5,000,000	4,000,000
기본재산증자	70,000,000	80,000,000	70,000,000	83,000,000	188,000,000
보통지출합계	131,345,720	137,258,730	118,340,210	147,214,151	235,180,080
장학기금모금	80,000,000	70,000,000	81,000,000	190,000,000	231,000,000
장학생 수	22	22	18	14	12
구분	2005	2006	2007	2008	
기본재산	1,135,300,000	1,415,300,000	1,875,300,000	2,823,034,107	
보통재산이월	938,623	1,378,193	7,186,253	31,461,143	
과실소득금	38,570,240	44,846,431	60,095,000	119,374,160	
재산증자기부	231,000,000	280,000,000	460,000,000	947,743,107	
기타	9,279,163	6,733,273	15,463,573	23,908,333	
보통수입합계	278,849,403	331,579,704	535,558,573	1,091,025,600	
일반지출	13,823,780	14,146,511	27,988,320	30,180,350	
장학금 지급	33,087,000	36,055,000	40,384,000	81,641,000	
학과 지원금	-	-	-	-	
기본재산증자	231,000,000	280,000,000	460,000,000	947,743,107	
보통지출합계	277,910,780	330,201,511	528,372,320	1,059,564,457	
장학기금모금	280,000,000	460,000,000	447,734,107	1,525,208,000	
장학생 수	12	12	12	22	

하였으며, 다시 3년 후에 1억 원씩 증자하게 되어 1997년에는 3억 원에 이르렀다. 이후에는 2년에 1억 원을 그리고 2년 후에 1억 5,000만 원을 증자하여 2001년에는 기본재산액이 5억 6,000만 원에 이르렀다. 이후 4년에 걸쳐 5억 7,000만 원을 증자하여 2005년에는 11억 원의

[표 3-3] 장학재단 재산결산표(1990~2022)(계속)

(단위: 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기본재산	3,831,809,307	5,087,252,907	6,763,796,827	9,224,474,039	11,464,460,450
보통재산이월	1,210,803,963	1,743,310,223	2,643,719,633	2,328,492,466	237,389,863
과실소득금	197,445,412	195,430,358	417,652,923	317,181,856	399,869,969
재산증자기부	1,055,443,600	1,798,631,905	2,539,300,000	2,291,075,000	203,000,000
기타	1,135,211,681	1,210,826,259	1,637,467,210	41,223,890	24,257,900
보통수입합계	2,388,100,693	3,204,888,522	4,594,420,133	5,409,535,552	3,138,331,108
일반지출	16,080,530	28,234,699	39,867,580	71,488,101	51,114,252
장학금 지급	152,441,000	177,900,000	224,289,000	356,167,000	375,255,000
학과 지원금	-	-	10,000,000	10,000,000	10,000,000
기본재산증자	1,008,775,200	1,255,443,600	1,676,543,920	2,460,677,212	2,239,986,411
보통지출합계	1,177,296,730	1,461,578,299	1,950,700,500	5,409,535,552	3,138,331,108
장학기금모금	1,055,443,600	1,653,180,000	2,539,300,000	2,511,203,200	461,975,400
장학생 수	40	48	60	89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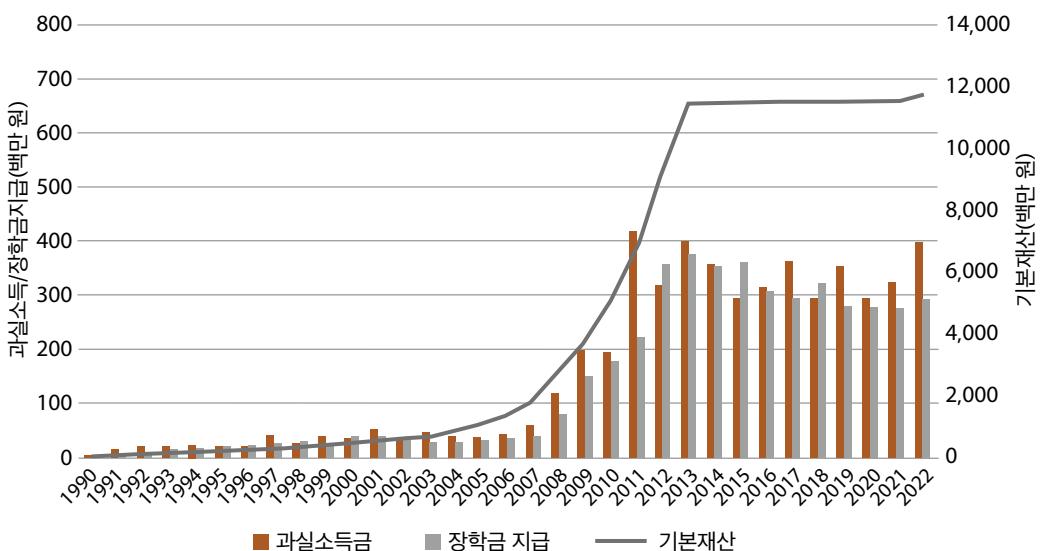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기본재산	11,467,460,450	11,467,460,450	11,487,460,450	11,487,460,450	11,487,460,450
보통재산이월	227,209,466	158,251,404	135,351,666	189,643,720	132,150,433
과실소득금	357,429,9730	294,725,736	314,257,132	361,813,394	294,968,719
재산증자기부	32,751,880	20,000,000	0	0	8,000,000
기타	852,157,298	32,000,253	31,043,865	22,728,710	21,298,090
보통수입합계		798,679,707	709,963,203	725,919,936	718,237,350
일반지출	32,739,580	41,692,540	34,585,371	33,249,395	22,018,807
장학금 지급	354,464,000	358,896,000	310,000,000	295,000,000	320,000,000
학과 지원금	10,000,000	10,000,000	4,000,000	4,000,000	16,700,000
기본재산증자	3,000,000	0	20,000,000	0	0
보통지출합계	852,157,298	98,679,707	709,963,203	725,919,936	718,237,350
장학기금모금	451,953,700	385,485,586	341,377,800	393,670,500	336,862,600
장학생 수	98	94	72	83	84

기본재산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후 2년 동안에 7억 4,000만 원을 증자하였고, 다시 2년 동안에는 매년 10억 원이란 금액을 출연받아 2009년에는 38억 원의 기본재산을 갖게 되었다. 이후에는 12억 원, 17억 원 그리고 25억 원의 출연금을 얻어 2012년에는 약 91억 원의 기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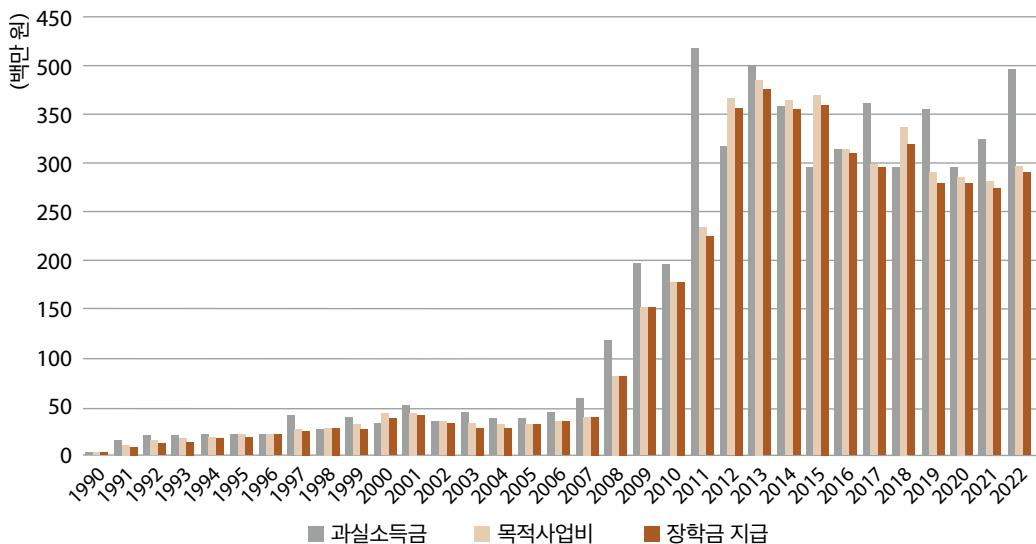
[표 3-3] 장학재단 재산결산표(1990~2022)(계속)

(단위: 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기본재산	11,487,460,450	11,487,460,450	11,487,460,450	11,715,914,850
보통재산이월	155,789,331	144,156,156	381,995,061	232,078,263
과실소득금	354,532,309	295,583,073	324,024,709	396,305,222
재산증자기부	0	0	220,454,400	5,000,000
기타	18,117,650	21,925,380	19,602,501	22,070,649
보통수입합계	709,512,626	691,101,896	924,695,901	1,032,569,617
일반지출	43,749,173	34,628,797	32,898,283	37,585,019
장학금 지급	280,000,000	280,000,000	274,659,110	290,921,670
학과 지원금	10,320,000	6,000,000	6,000,000	6,000,000
기본재산증자	0	8,000,000	0	220,454,400
보통지출합계	709,512,626	691,101,896	924,695,901	1,032,569,617
장학기금모금	373,593,400	360,614,291	609,193,700	475,715,500
장학생 수	85	80	80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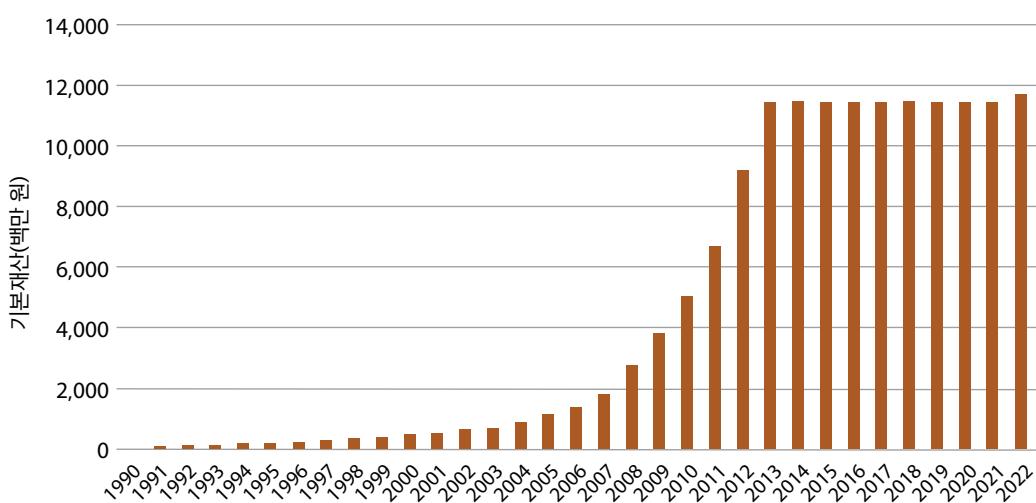


[그림 3-3] 장학재단 기본재산, 과실소득 및 장학금 지급액 비교(1990~2022)



[그림 3-4] 과실소득금, 목적사업비 및 장학금지급액 비교(1990~2022)

농공동창회 회원들은
지금까지 정성을 쏟아 주신 동문들과
특히 윤대섭 재단이사님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림 3-5]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의 변동 추이

[표 3-4] 장학재단의 기본재산 변동 추이

(단위: 원)

연도	기본재산액	연도	기본재산액
1990. 3. 29.	50,000,000	2005. 5. 9.	1,135,300,000
1991. 3. 12.	112,000,000	2006. 4. 3.	1,415,300,000
1992. 2. 24.	137,000,000	2007. 8. 9.	1,875,300,000
1994. 5. 26.	200,000,000	2008. 5. 29.	2,823,034,107
1996. 4. 14.	250,000,000	2009. 3. 19.	3,831,809,307
1997. 4. 16.	305,000,000	2010. 9. 30.	5,087,252,907
1998. 4. 10.	355,000,000	2011. 8. 17.	6,763,796,827
1999. 7. 14.	413,300,000	2012. 6. 22.	9,224,474,039
2000. 1. 14.	483,300,000	2013. 3. 8.	10,215,424,039
2001. 1. 12.	563,300,000	2014. 7. 7.	11,467,460,450
2002. 1. 11.	633,300,000	2016. 6. 10.	11,487,460,450
2003. 2. 5.	716,300,000	2020. 3. 13.	11,495,460,450
2004. 9. 10.	904,300,000	2022. 5. 23.	11,715,914,850

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를 그림으로 보면 [그림 3-5]와 같으며, 관할 교육청에서 증자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본재산액은 [표 3-4]에 수록하였다.

4) 농공장학기금의 기부자와 금액

농공동창회의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시기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에는 1차와 2차에 걸쳐 졸업생을 대상으로 배정액을 정하여 모금을 하였다. 1975년부터는 특정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3차 배정액을 정하여 모금을 추진하였고, 1977년 이후에는 모든 동창회원을 대상으로 입학단위별로 4차 배정액을 정하여 기별간사를 통해 독려하였다. 1983년 이후에는 특별장학제도를 도입하여 개인 또는 단체 명의의 장학기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별장학제도는 기금모금의 부진과 소액 장학금액으로 인하여 본래의 장학금액이 등록금 전액이란 목표에 미치지 못하여 이 제도를 폐기하게 되었다. 1985년 이후에는 동창회장이 농공동창회 회원 중에서 특정 독지자를 찾아 장학기금을 확보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

한 농공동창회의 기금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공동창회원을 대상으로 대부분이자로 중식을 해 왔었다. 1987년 이후에는 농공동창회의 기금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장학기금의 모금과 함께 기금관리 문제가 시급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농공장학재단의 법인체 운영을 모색하게 되었고, 장학재단의 정관에 따라 재산관리와 함께 장학제도가 안정화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개인 또는 기업의 세금감면이란 이점을 활용하여 다액의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의 제1차에서 제5차까지의 특별모금 시에 참여하신 동창회원 명단과 모금액 그리고 제4차 배정 시의 규칙에 따라 농공동창회의 입회비와 성금에 대한 회원들의 명단과 금액은 회의록과 기록에 남아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하여 [부록 표 4-1]~[부록 표 4-19]에 수록하였다. 이 중에서 [부록 표 4-4-2]는 별도로 기록된 자료임을 알린다. 1967년부터 1990년까지의 장학기금 조성에 참여하신 분은 총 1,012명으로 학과 졸업생이 1,009명이고, 고농 졸업생이 4명이었으며, 모과의 교수가 5명이었다. 그리고 1990년 3월부터 2011년까지 농공장학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에 참여하신 분은 1999년 농공동창회의 제5차 장학기금 모금을 포함하여 총 64명으로 학과 졸업생이 60명이고, 고농 졸업생이 1명이며, 윤대섭 재단이사의 가족 3명이었다. 1999년 제5차 장학기금 모금에 참여한 내역은 [부록 표 4-20]에 수록하였다. 또한 연도별 농공동창회 및 농공장학재단의 장학기금 다액 출연자와 기부금액을 정리하면 [부록 표 4-21]~[부록 표 4-22]와 같다. 여기서는 그중에서 거금을 출연해 주신 분들의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별도의 명단과 출연금을 [표 3-5]에 수록하였다. [표 3-5]의 금액은 출연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의 기본재산과는 차이가 있다. 1991년 이후의 동기회에서 후원한 장학기금은 농공장학재단의 출범 이후 이므로 농공동창회에서 받아 농공장학재단으로 이첩하게 됨에 따라 농공장학재단에서 직접 기부금을 받은 내역에서 생략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공동창회의 기금모금으로 약 4,100만 원과 특별장학기금 출연으로 약 1억 4,400만 원 그리고 윤대섭 회원과 가족의 출연으로 116억 6,000여 만 원을 합하여 2022년 현재 약 117억여 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여기서 특별히 조심스러운 것은 기본 자료의 오류로 인하여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표 3-5] 농공장학기금 기부내역(개인, 단체)

(단위: 1,000원)

성명	기부금 및 납부시기	합계
농공동창회	50,221(1989/12), 33,000(1994/3), 10,000(1996/2), 9,550(1999/12)	102,771
이창구(고농6)	400(1981/6), 600(1982/3), 1,000(1983/10), 10,000(1996, 가족과 기념사업회)	12,000
남영희(고농10)	500(1979/8), 150(1980/10)	650
박성우(명예)	2,000(1986/10)	2,000
고 임영춘(이상춘)	30,000(1990/10)	30,000
김환종(46)	1,000(1983/12), 5,000(1995/8), 5,000(1996/2)	11,000
이봉국(46)	172(1986/7), 255(1987/3)	427
정진호(46)	1,000(1983/3), 1,000(1983/10), 1,000(1985/11), 3,000(1989/12)	6,000
유한홍(49)	10,000(1990/7), 10,000(1996/8)	20,000
윤대섭(49)	2,000(1985/9), 20,000(1985/12), 22,000(1989/12), 10,000(1990/10), 10,000(1990/12), 10,000(1991/12), 10,000(1993/3), 10,000(1994/3), 20,000(1996/2), 20,000(1997/2), 25,000(1997/3), 50,000(1998/3), 50,000(1999/3), 70,000(1999/12), 80,000(2000/12), 70,000(2001/12), 80,000(2002/12), 170,000(2003/12), 230,000(2004/12), 280,000(2005/12), 460,000(2006/12), 447,734(2007/12), 500,000(2008/3), 1,025,208(2008/12), 1,055,443(2009/12), 200,000(2010/3), 1,453,180(2010/12), 200,000(2011/3), 2,334,300(2011/12), 200,000(2012/3), 200,000(2012/12), 729,000(2012/12), 38,950(2012/12), 219,625(2012/12), 778,100(2012/12), 100,400(2012/12), 200,000(2013/3), 220,454(2021/9)	11,601,394
이철주(49)	2,000(1990/7)	2,000
고재군(51)	2,000(1989/2), 1,000(1992/3), 3,000(1994/6), 3,000(1996/2)	9,000
이상호(52)	1,000(1993/10)	1,000
정창주(53)	1,000(1992/9), 1,000(1999/6)	2,000
유근학(55)	1,000(1991/7), 1,000(1999/3)	2,000
권오완(56)	300(1990/12), 1,000(1999/5)	1,300
최찬식(56)	5,000(2003/11)	5,000
김원세(57)	10,000(1991/10)	10,000
홍승만(57)	1,000(1999/5)	1,000

[표 3-5] 농공장학기금 기부내역(개인, 단체)(계속)

(단위: 1,000원)

성명	기부금 및 납부시기	합계
지근진(58)	2,000(1996/2)	2,000
이병철(59)	2,000(2003/12)	2,000
정하우(59)	2,000(2003/1)	2,000
배정길(61)	1,000(1991/11)	1,000
이홍주(61)	5,000(2011/12)	5,000
장길평(62)	10,000(2003/10)	10,000
김철중(64)	2,500(1999/3)	2,500
장병욱(64)	1,000(04/12)	1,000
이진우(65)	1,065(1991/10)	1,065
이중용(77)	1,000(2002/12), 1,000(2003/12)	2,000
56 동기회	200	200
57 동기회	1,000(1987/10)	1,000
59 동기회	2,000(1989/10)	2,000
61 동기회	1,000(1991/11)	1,000
63 동기회	1,000(1983/10)	1,000
64 동기회	1,000(1984/10)	1,000
65 동기회	1,000(1985/10), 1,000(1999/11)	2,000
66 동기회	1,000(1986/10)	1,000
67 동기회	300(1987/10)	300
68 동기회	1,000(1988/10)	1,000
69 동기회	1,000(1989/10)	1,000
70 동기회	1,000(1990/10)	1,000
정종훈	1,000(2012/3)	1,000
윤병호	1,000(2012/3)	1,000
구본무	10,000(2012/11)	10,000
손영환	500(2012/12)	500
정종훈	500(2012/12)	500

[표 3-5] 농공장학기금 기부내역(개인, 단체)(계속)

(단위: 1,000원)

성명	기부금 및 납부시기	합계
윤병호	500(2012/12)	500
배정길	500(2012/12)	500
이정원	500(2012/12)	500
정하우	500(2012/12)	500
나우정	1,000(2012/12)	1,000
박원규	3,000(2013/10)	3,000
(주)세영티엠(이정원)	5,000(2015/10)	5,000
장세권	10,000(2015/10)	10,000
노상하(김숙)	5,000(2015/10)	5,000
(주)쏘일테크엔지니어링(윤상목)	5,000(2018/12)	5,000
문성채	3,000(2018/12)	3,000
홍순호	5,000(2022/8)	5,000
합계		11,798,242

1) 대학 등록금 변동과 장학금 지급의 동향

1960년대의 화폐가치에 대한 비교가 쉽지 않아 등록금과 1인당 국민총소득액과 대비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그런데 1969년 이전에는 GNI(1인당 국민총소득)에 대한 자료가 없어 GNP(국민총생산액)로 비교하고, 1970년 이후에는 GNI의 값과 비교하기로 한다. 이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주요연간지표에서 1인당 국민총소득액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2) 농공동창회의 기금 및 장학지원 추이(1968~1990)

1969년도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농공학과 1, 2학기 등록금은 GNP의 44.1%에 해당하였으며, 1970년의 농과대학의 농공학과 1, 2학기 등록금은 GNI의 46.7%에 해당하였다. 1975년도의 농공학과 1, 2학기 등록금은 GNI의 52.2%에 해당하였고, 1980년도의 등록금은 GNI의 26.9%에 해당하였다. 1985년도의 농공학과 1, 2학기 등록금은 GNI의 43.3%에 해당하였고, 1990년도의 등록금은 GNI의 24.5%에 해당하였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1968년부터 1977년도까지의 대학생 등록금의 차지하는 비율은 GNI의 약 55~41%에 해당하였던바 학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던 생활환경이었으며,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이 절실히 필요했던 시기였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의 등록금과 1인에게 지급된 장학금과 장학생 숫자에 따른 총장학금 지급액, 우리나라의 경제규모(1인당 GNP 또는 GNI)의 값을 [표 3-6]에 그리고 [그림 3-6]에 수록하였다.

[표 3-6] 연도별 및 학기별 등록금(납입금)과 장학금 지급액 비교(1968~1990)

(단위: 원)

연도	학기	등록금액	1인 장학금	장학지급총액	학생 수(명)		1인당 GNI(원)
					학기	연간	
1968	1		-	-	-	1	54,000(GNP)
	2	15,000	15,000	15,000	1		
1969	1	15,000	15,000	30,000	2	4	68,000(GNP)
	2	15,000	15,000	30,000	2		
1970	1	20,000	20,000	40,000	2	4	88,676
	2	22,000	22,000	44,000	2		
1971	1	23,000	23,000	46,000	2	4	115,723
	2	27,000	27,000	54,000	2		
1972	1	34,300	34,000	68,000	2	4	135,626
	2	33,900	33,900	67,800	2		
1973	1	33,800	35,700	71,400	2	4	170,925
	2	34,050	30,000	60,000	2		
1974	1	47,850	35,000	70,000	2	4	266,200
	2	47,650	40,000	80,000	2		
1975	1	68,500	68,850	137,700	2	4	319,440
	2	83,000	75,000	150,000	2		
1976	1	85,300	85,300	255,900	3	6	392,040
	2	85,300	85,300	255,200	3		
1977	1	93,500	93,500	374,000	4	8	469,480
	2	93,500	93,500	374,000	4		
1978	1	101,400	101,400	405,600	4	8	619,520
	2	101,400	101,400	405,600	4		
1979	1	108,200	108,200	432,800	4	8	813,120
	2	108,200	108,200	432,800	4		
1980	1	132,750	132,750	531,000	4	8	1,234,013
	2	138,750	138,750	555,000	4		
1981	1	167,800	186,800	747,600	4	8	1,422,015
	2	167,800	186,800	747,600	4		

[표 3-6] 연도별 및 학기별 등록금(납입금)과 장학금 지급액 비교(1968~1990)(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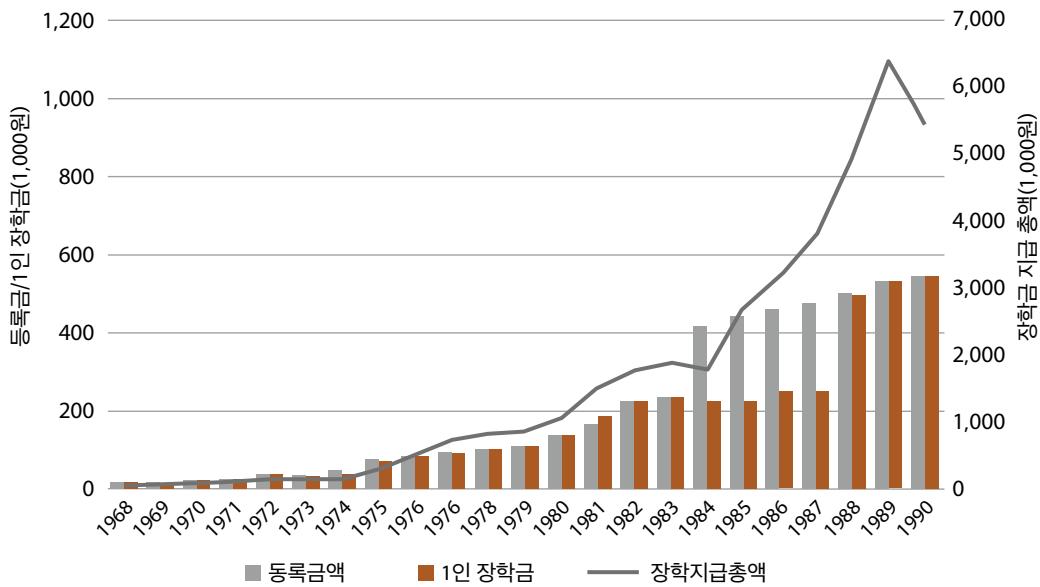
(단위: 원)

연도	학기	등록금액	1인 장학금	장학지급총액	학생 수(명)		1인당 GNI(원)
					학기	연간	
1982	1	223,500	223,500	894,000	4	8	1,535,040
	2	223,500	223,500	894,000	4		
1983	1	234,500	234,500	938,000	4	8	1,726,235
	2	234,500	234,500	938,000	4		
1984	1	418,000	225,000	900,000	4	8	1,936,116
	2	418,000	225,000	900,000	4		
1985	1	444,000	225,000 (150,000)	1,500,000	4(4)	14	2,207,696
	2	444,000	225,000 (150,000)	1,200,000	4(2)		
1986	1	460,000	250,000 (150,000)	1,600,000	4(4)	16	2,454,990
	2	460,000	250,000 (150,000)	1,600,000	4(4)		
1987	1	478,500	250,000 (150,000)	1,900,000	4(6)	20	2,796,819
	2	478,500	250,000 (150,000)	1,900,000	4(6)		
1988	1	501,500	500,000 (250,000)	2,500,000	4(2)	12	3,092,132
	2	501,500	500,000 (250,000)	2,500,000	4(2)		
1989	1	534,000	534,000	3,204,000	6	12	3,656,248
	2	534,000	534,000	3,204,000	6		
1990	1	546,000	546,000	3,276,000	6	10/12	4,622,715
	2	546,000	546,000	2,184,000	4		

자료출처: 서울대학교 예산과에서 제공(농생대의 자연계열 4학년의 기준으로 한 등록금).

(): 특별장학기금에서 지급된 금액과 학생 수.

/: 농공동창회에서 장학지급 학생 수/대상 학생 수.



[그림 3-6] 등록금과 장학금 지급과 전체 장학금액의 추이(1968~1990)

3) 장학재단의 기본재산 및 장학지원 추이(1991~2022)

1990년도의 농과대학의 농공학과 1, 2학기 등록금은 GNI의 24.5%에 해당하였으며, 1995년의 농과대학의 농공학과 1, 2학기 등록금은 GNI의 21.3%에 해당하였다. 2000년도의 농공학과 1, 2학기 등록금은 GNI의 22.9%에 해당하였고, 2005년도의 등록금은 GNI의 26.4%에 해당하였으며, 2010년도의 농공학과 1, 2학기 등록금은 GNI의 26.0%에 해당하였다. 이 기간에도 대학 등록금이 국민소득과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를 넘나드는 중요한 지출의 대상이다. 이후 이 비율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에 따라 2022년에는 학부생 등록금이 1인당 GNI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장학금에 더불어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장학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일찍부터 시작해 온 데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의 등록금과 1인에게 지급된 장학금과 장학생 수자에 따른 총장학금 지급액, 우리나라의 GNP와 GNI의 값을 [표 3-7]에 그리고 [그림 3-7]에 수록하였다.

[표 3-7] 연도별 및 학기별 등록금(납입금)과 장학금 지급액 비교(1991~2022)

(단위: 원)

연도	학기	등록금액	1인 장학금	장학지급총액	학생 수(명)		GNI(원)
					학기	연간	
1991	1	600,500	600,500	4,804,000	8	16	5,749,415
	2	600,500	600,500	4,804,000	8		
1992	1	649,500	649,500	6,495,000	10	20	6,535,815
	2	649,500	649,500	6,495,000	10		
1993	1	731,000	731,000	7,310,000	10	20	7,272,872
	2	731,000	731,000	7,599,000	10		
1994	1	831,500	831,500	8,857,000	10	20	7,955,965
	2	831,500	831,500	8,643,000	10		
1995	1	965,500	965,500	10,013,000	10	20	9,168,774
	2	965,500	965,500	10,013,000	10		
1996	1	1,108,000	1,108,000	11,753,000	10	20	11,244,744
	2	1,108,000	1,108,000	11,786,000	10		
1997	1	1,200,000	1,200,000	12,862,000	10	20	22,967,250
	2	1,200,000	1,200,000	12,776,000	10		
1998	1	1,200,000	1,200,000	12,834,000	10	22	12,437,320
	2	1,234,000	1,234,000	16,555,000	12		
1999	1	1,257,000	1,257,000	13,850,000	10	20	11,869,340
	2	1,306,000	1,306,000	14,208,000	10		
2000	1	1,463,000	1,463,000	20,086,000	11	22	13,947,435
	2	1,463,000	1,463,000	19,503,000	11		
2001	1	1,527,500	1,573,000	21,145,500	11	22	15,696,325
	2	1,527,500	1,527,500	20,740,500	11		
2002	1	1,668,000	1,668,000	17,122,000	9	18	15,242,670
	2	1,668,000	1,668,000	17,481,000	9		
2003	1	1,822,000	1,822,000	14,629,000	7	14	16,445,954
	2	1,822,000	1,822,000	14,966,00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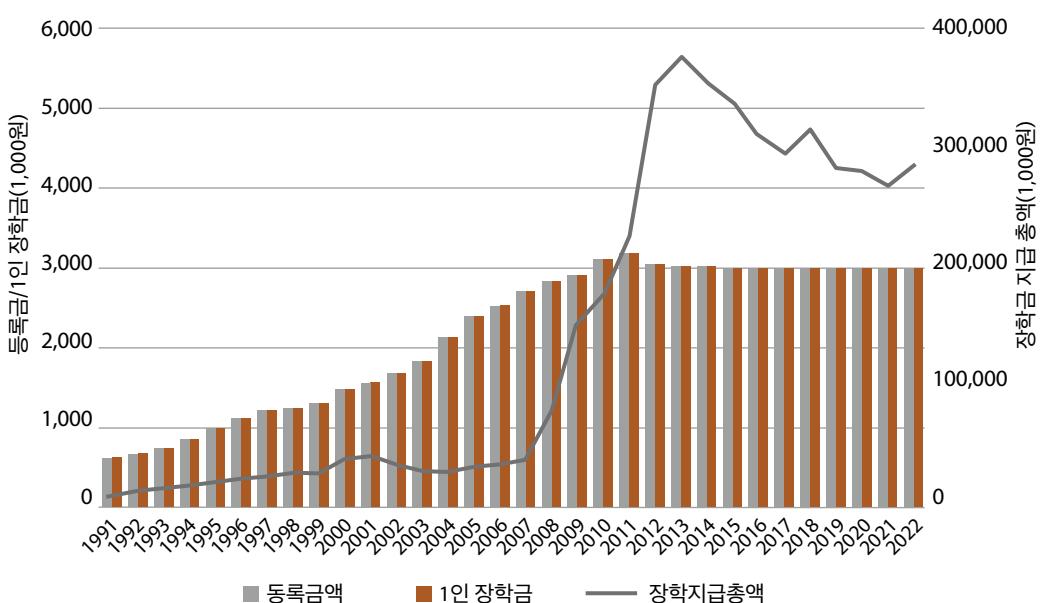
[표 3-7] 연도별 및 학기별 등록금(납입금)과 장학금 지급액 비교(1991~2022)(계속) (단위: 원)

연도	학기	등록금액	1인 장학금	장학지급총액	학생 수(명)		GNI(원)
					학기	연간	
2004	1	2,114,000	2,114,000	14,361,000	6	12	16,768,620
	2	2,114,000	2,114,000	14,449,000	6		
2005	1	2,370,000	2,370,000	15,769,000	6	12	18,734,832
	2	2,370,000	2,370,000	17,318,000	6		
2006	1	2,511,000	2,511,000	18,302,000	6	12	19,339,840
	2	2,511,000	2,511,000	17,753,000	6		
2007	1	2,685,000	2,685,000	20,274,000	6	12	21,942,184
	2	2,685,000	2,685,000	20,110,000	6		
2008	1	2,821,000	2,821,000	21,830,000	6	22	30,051,670
	2	2,821,000	2,821,000	59,811,000	16		
2009	1	2,889,000	2,889,000	76,121,000	20	40	25,665,580
	2	2,889,000	2,889,000	76,628,000	20		
2010	1	3,087,000	3,087,000	88,575,000	24	48	25,294,692
	2	3,087,000	3,087,000	89,325,000	24		
2011	1	3,179,000	3,179,000	111,470,000	30	60	27,170,962
	2	3,179,000	3,179,000	112,819,000	30		
2012	1	3,021,000	3,021,000	352,805,000	89		27,471,596
	2	3,021,000	3,021,000				
2013	1	3,013,000	3,013,000	375,235,000	99		28,474,692
	2	3,013,000	3,013,000				
2014	1	3,005,000	3,005,000	354,464,000	98		30,956,288
	2	3,005,000	3,005,000				
2015	1	2,996,000	2,996,000	337,028,000	94		33,674,200
	2	2,996,000	2,996,000				
2016	1	2,986,000	2,986,000	310,000,000	72		35,421,841
	2	2,986,000	2,986,000				

[표 3-7] 연도별 및 학기별 등록금(납입금)과 장학금 지급액 비교(1991~2022)(계속)

(단위: 원)

연도	학기	등록금액	1인 장학금	장학지급총액	학생 수(명)		GNI(원)
					학기	연간	
2017	1	2,975,000	2,975,000	295,000,000	83		32,436,150
	2	2,975,000	2,975,000				
2018	1	2,975,000	2,975,000	317,025,000	84		36,539,175
	2	2,975,000	2,975,000				
2019	1	2,975,000	2,975,000	282,975,000	85		39,121,012
	2	2,975,000	2,975,000				
2020	1	2,975,000	2,975,000	280,000,000	80		35,891,352
	2	2,975,000	2,975,000				
2021	1	2,975,000	2,975,000	269,611,070	80		41,738,768
	2	2,975,000	2,975,000				
2022	1	2,975,000	2,975,000	287,456,670	80		45,509,355
	2	2,975,000	2,975,000				



[그림 3-7] 등록금과 장학금 지급과 전체 장학금액의 추이(1991~2022)

농공장학금 수혜자 명단 및 지급 금액의 추이

농공동창회 장학사업의 출범에 따라 수혜를 받은 전체 수령자들과 장학금액을 살펴보면 54년간에 걸쳐 수령한 연인원은 1,478명이고, 지급된 장학금액은 총 45억 9,000만여 원에 이른다. 여기에 장학생 명단과 학생들의 소속된 전공과 학위과정 그리고 학기별 지급금액을 농공동창회에서 지급한 대상과 장학재단에서 지급한 대상으로 나누어 [표 3-8]과 [표 3-9]에 수록하였다. 1968년에서 1990년까지의 장학금 수령자는 연인원 185명 중에서 학사과정 장학생이 183명이었고, 석사과정 장학생은 2명이었다. 1991년부터 2022년까지의 장학금 혜택을 받은 자는 연인원 1,295명 중에서 학사과정 장학생은 672명이었고, 석사과정 장학생이 479명이었으며, 박사과정 장학생이 144명이었다.

[표 3-8] 농공동창회와 장학재단의 농업토목전공 수혜자 명단과 지급액(1968~2022)

연도	농업토목(지역시스템공학)전공	지급액(원)
1968	윤병호(4)	15,000
1969	이재영(4), 김철중(3)	60,000
1970	김철중(4), 권희교(3)	84,000
1971	유철근(4), 오병환(3), 윤재호(3)	100,000
1972	윤재호(4), 김동환(3)	135,800
1973	이승우(4)	65,700
1974	전재화(4)	75,000
1975	고홍석(4)	143,850

[표 3-8] 농공동창회와 장학재단의 농업토목전공 수혜자 명단과 지급액(1968~2022)(계속)

연도	농업토목(지역시스템공학)전공	지급액(원)
1976	박한기(4)	170,600
1977	권진봉(4), 박광수(4)	374,000
1978	윤치욱(4), 이종식(4)	405,600
1979	안치일(4), 이봉영(4)	432,800
1980	김근원(4), 이용직(4)	543,000
1981	박병태(4), 신태은(4)	747,600
1982	박병훈(4), 이무종(4)	894,000
1983	이환우(4), 허선후(4)	938,000
1984	김춘삼(4), 이병국(4)	900,000
1985	권기대(4), 김현준(4), 김석철(4), 이상진(4), 이한구(4)	1,350,000
1986	문병두(4), 박종민(4), 이기은(4), 최장호(4)	1,600,000
1987	김종덕(4), 성근열(4), 신경수(4), 이두철(4), 조정목(4), 최은철(4) 한광훈(4)	1,900,000
1988	윤성수(4), 이은재(4), 우유진(4)	2,500,000
1989	김광수(4), 김민근(4), 송한용(4)	3,204,000
1990	김광오(4), 김윤용(4), 나정균(4), 박대현(4)	3,276,000
1991	김동선(4), 손옥주(4), 정상호(4), 최병옥(4)	4,804,000
1992	신상호(4), 신형주(4), 임효선(4), 하좌근(4), 윤성수(석2), 이도섭(석2)	6,495,000
1993	강민구(4), 이강민(4), 정형석(4), 우철웅(석2), 최병옥(석2)	7,472,000
1994	김강석(4), 박수훈(4), 배연정(4), 유기섭(4), 정종홍(4), 고광돈(석1)	8,714,000
1995	박우식(4), 배승종(4), 장주흠(4), 최승만(4), 고광돈(석2)	10,013,000
1996	김성일(4), 김성필(4), 라준엽(4), 이대희(4), 엄명철(박1)	11,904,000
1997	김대일(4), 김준희(4), 박승찬(4), 서 교(4), 서동욱(4), 이강민(4), 강문성(박1)	12,843,000
1998	김성태(4), 김형진(4), 전종안(4), 조 운(4), 편기현(4), 원정윤(박1), 이호재(박1), 권명준(석1)	14,753,000
1999	김기성(4), 이경도(4), 이동호(4), 이호상(4), 최용준(4), 김성필(박1), 송인홍(석1)	13,998,000
2000	김은수(4), 김재형(4), 임재천(4), 조호석(4), 황선일(4), 강민구(박1), 장민원(박1), 송인홍(석2)	19,804,000

[표 3-8] 농공동창회와 장학재단의 농업토목전공 수혜자 명단과 지급액(1968~2022)(계속)

연도	농업토목(지역시스템공학)전공	지급액(원)
2001	김만수(4), 전기설(4), 정형택(4), 최은호(4), 김락중(3), 이민권(3), 배승종(박1), 김재형(석1), 조영현(석1), 허 준(석1)	21,136,500
2002	강동성(4), 김만수(4), 장태일(4), 정명재(4), 한이철(4), 황세운(3), 서 교(박1), 박미정(박1), 심상원(석1)	17,534,000
2003	황세운(4), 권성길(3), 박성직(3), 이은정(3), 장태일(석1), 한이철(석1)	14,966,000
2004	김태곤(4), 신정범(3), 김웅구(석1), 조영경(석1)	14,644,000
2005	신정범(4), 황종섭(3), 김옥경(석1), 오윤경(석1)	16,566,500
2006	박종욱(4), 송익균(3), 이은정(석2), 함영주(석2), 서일환(석1), 이창구(석1)	17,872,000
2007	김종곤(3), 노수각(박1), 이상현(석1), 정한석(석1), 흥은미(석1)	20,274,000
2008	황순호(3), 남원호(박1), 이제명(박1), 이창구(박1), 이성용(석2), 흥은미(석2), 김용희(석1), 유재인(석1), 윤득노(석1)	40,973,000
2009	황순호(4), 남원호(박2), 이은정(박2), 이형진(박2), 흥은미(박1), 권경석(석2), 김용희(석2), 김현정(석2), 유재인(석2), 윤득노(석2), 이상현(석2), 이성용(석2), 한용운(석2), 흥은미(석2), 박정안(석1), 정기웅(석1), 최지선(석1)	75,783,000
2010	이현우(4), 정다운(4), 이영연(3), 정찬민(3), 흥민기(3), 이형진(박2), 이성용(박1), 흥은미(박1), 박정안(석2), 윤득노(석2), 최지선(석2), 김재현(석1), 송상현(석1), 은상규(석1), 이성복(석1), 이태석(석1), 이한귀(석1), 최순군(석1), 하태환(석1)	88,421,000
2011	김계웅(3), 이상현(박2), 이성용(박2), 송상현(석2), 은상규(석2), 이성복(석2), 이태석(석2), 이한귀(석2), 최순군(석2), 하태환(석2), 황순호(석2), 강진규(석1), 김광민(석1), 김지혜(석1), 박나영(석1), 박지훈(석1), 송정현(석1), 이 인(석1)	115,480,000
2012	김진환(4), 유진명(4), 윤석환(4), 김계웅(4), 민경민(4), 박병필(4), 이교영(4), 전강배(4), 채승훈(4), 임동수(4), 신우철(3), 이상협(3), 이호식(3), 김진욱(3), 위문규(3), 윤민용(3), 이병화(3), 류정훈(3), 이상협(3) 정일웅(3), 채종성(2), 강병우(2), 김마가(2), 박성호(2), 류혜선(2), 배연정(박2), 배연정(박1), 이윤희(석2), 김재현(석2), 이한귀(석2), 하태환(석2), 황순호(석2), 강진규(석2), 김지혜(석2), 박나영(석2), 박지훈(석2), 송정현(석2), 이 인(석2), 안지현(석1), 최우석(석1), 김태완(석1), 윤서영(석1), 이현만(석1), 전상민(석1), 민슬기(석1)	181,300,000
2013	김영현(4), 신우철(4), 위문규(4), 유강환(4), 윤민용(4), 이병화(4), 이상협(4), 이호식(4), 정일웅(4), 한현상(4), 강병우(3), 김귀훈(3), 김태진(3), 박성호(3), 박원일(3), 이상호(3), 이용근(3), 이종환(3), 전지훈(3), 김계영(2), 김도연(2), 김우재(2), 김준서(2), 박관용(2), 윤후른(2), 이건용(2), 이민형(2), 이상익(2), 이예슬(2), 이태훈(2), 정승연(2), 정하중(2), 조경현(2), 최혜숙(2), 한승현(2), 배연정(박2), 황순호(박2), 은상규(박2), 강진규(박1), 황순호(박1), 김태완(석2), 민슬기(석2), 안지현(석2), 윤서영(석2), 윤주열(석2), 이현만(석2), 전상민(석2), 김계웅(석1), 김락우(석1), 민슬기(석1), 박세준(석1), 박하아린(석1), 여욱현(석1), 하정수(석1)	190,000,000

[표 3-8] 농공동창회와 장학재단의 농업토목전공 수혜자 명단과 지급액(1968~2022)(계속)

연도	농업토목(지역시스템공학)전공	지급액(원)
2014	이상호(4), 박원일(4), 김귀훈(4), 전지훈(4), 이상익(3), 윤푸른(3), 박관용(3), 이도길(3), 정하중(3), 김우재(3), 정승연(3), 한상현(3), 김계영(3), 조경현(3), 김범준(2), 윤상원(2), 정다현(2), 박은지(2), 강솔뫼(2), 김정민(2), 이현무(2), 최민용(2), 한상현(2), 송우진(2), 이현지(2), 강진규(박), 박지훈(박), 송정현(박), 이상연(석), 김락우(석), 여육현(석), 조예슬(석), 손정우(석), 이인걸(석), 김계웅(석), 윤태강(석), 이상협(석), 김솔희(석), 박세준(석), 하정수(석), 민슬기(석), 최혜숙(석), 박진석(석), 최승필(석), 김연욱(석), 신혜수(석), 방재홍(석)	180,000,000
2015	윤푸른(4), 김준규(4), 박관용(4), 김연욱(4), 조승래(4), 최솔아(4), 이지후(4), 박영재(4), 정하중(4), 김우재(4), 김준서(4), 이용근(4), 박혜민(3), 정다현(3), 이현지(3), 한상현(3), 박은지(3), 최혜숙(3), 김창범(3), 강솔뫼(3), 하승아(3), 이현무(3), 김준서(3), 박진석(3), 김태진(3), 박성호(3), 장호영(2), 이탁규(2), 송은한(2), 김동욱(2), 김주형(2), 양영진(2), 전성호(2), 이민재(2), 박세준(박), 김락우(박), 김계웅(박), 하태환(박), 이승노(석), 흥민기(석), 방재홍(석), 류정훈(석), 이상연(석), 김락우(석), 여육현(석), 조예슬(석), 손정우(석), 이인걸(석), 김계웅(석), 윤태강(석), 김동근(석)	176,500,000
2016	김준규(4), 김준서(4), 김창범(4), 김태진(4), 박은지(4), 윤푸른(4), 이지수(4), 전지훈(4), 정다현(4), 하승아(4), 한상현(4), 양영진(3), 이건용(3), 장호영(3), 전성호(3), 강진수(2), 류제연(2), 박성범(2), 양경모(2), 오석주(2), 유석현(2), 하재민(2), 여육현(박), 이상연(박), 김락우(박), 박세준(박), 박관용(석), 신샛별(석), 신용훈(석), 심은혜(석), 이도길(석), 이민형(석), 정승연(석), 류정훈(석), 방재홍(석), 이승노(석), 흥민기(석)	155,000,000
2017	김석현(4), 이건용(4), 이민재(4), 이태훈(4), 채종성(4), 최혜숙(4), 강솔뫼(3), 강진수(3), 김우진(3), 김재석(3), 김정환(3), 김지현(3), 박마음(3), 박성범(3), 송우진(3), 양경모(3), 조경현(3), 고석우(2), 곽지혜(2), 김승언(2), 김시내(2), 김영민(2), 민준기(2), 이재원(2), 정연호(2), 조상범(2), 오부영(박), 김귀훈(석), 김마가(석), 김태진(석), 신샛별(석), 윤푸른(석), 이도길(석), 이승찬(석), 이현지(석), 전지훈(석), 김준규(석), 박관용(석), 신용훈(석), 이민형(석), 정승연(석)	147,500,000
2018	강진수(4), 김우진(4), 양경모(4), 김정민(4), 김주형(4), 김지현(4), 한상현(4), 김재석(4), 고석우(3), 김승언(3), 정효혁(3), 류제연(3), 이병연(3), 김시내(3), 김영인(2), 손재민(2), 구경희(2), 김용준(2), 김진섭(2), 박종원(2), 이은준(2), 김다인(2), 나소진(2), 이해민(2), 임형규(2), 한창희(2), 신용훈(박), 류정훈(박), 이상연(박), 이승찬(박), 방재홍(박), 윤푸른(박), 이태훈(석), 김준규(석), 김태진(석), 김석현(석), 김귀훈(석), 이종혁(석), 김마가(석), 이현지(석), 전지훈(석), 이상익(석)	157,025,000

[표 3-8] 농공동창회와 장학재단의 농업토목전공 수혜자 명단과 지급액(1968~2022)(계속)

연도	농업토목(지역시스템공학)전공	지급액(원)
2019	김지현(4), 정연호(4), 김동욱(4), 장성주(4), 곽지혜(4), 김시내(4), 전성호(4), 김다인(3), 김용준(3), 김진섭(3), 이기훈(3), 임형규(3), 김정환(3), 박성범(3), 유석현(3), 이은준(3), 전병호(3), 김동희(3), 박종원(3), 이해민(3), 황유진(2), 김영현(2), 김주석(2), 박성재(2), 장주환(2), 고재준(2), 김지환(2), 임지환(2), 정승주(2), 정영준(2), 김귀훈(박), 김마가(박), 김석현(박), 김준규(박), 김지혜(박), 김태진(박), 윤푸른(박), 이현지(박), 전지훈(박), 최영배(박), 강솔뫼(석), 박유미(석), 박진석(석), 이상익(석), 이종혁(석), 장호영(석)	142,975,000
2020	김동희(4), 이해민(4), 고재준(3), 정승주(3), 신정우(3), 고륜영(2), 정영훈(2), 이다연(2), 임수혁(2), 김동욱(2), 문채윤(2), 서원찬(2), 신영수(2), 장유창(2), 전혁진(2), 정예은(2), 최우석(2), 윤푸른(박), 이현지(박), 김귀훈(박), 김마가(박), 김석현(박), 김준규(박), 김지혜(박), 김태진(박), 조정화(박), 최영배(박), 김시내(석), 장성주(석), 곽지혜(석), 박유미(석), 이종혁(석), 정영준(석), 정효혁(석)	140,000,000
2021	김지환(4), 홍주표(4), 고륜영(3), 임수혁(3), 구경희(3), 김용준(3), 김진섭(3), 도연희(3), 문채윤(3), 성민수(3), 임형규(3), 김동욱(3), 이다연(3), 장유창(3), 정예은(3), 차준현(3), 조민경(2), 한성민(2), 길도형(2), 이승상(2), 임재열(2), 장은혁(2), 이상익(박), 최영배(박), 박진석(박), 이종혁(박), 김석현(박), 조정화(박), 서병훈(석), 장성주(석), 정효혁(석), 곽지혜(석), 김동수(석), 김시내(석), 서예진(석), 유석현(석), 정영준(석)	133,223,000
2022	구경희(4), 김동욱(4), 도연희(4), 문채윤(4), 박성범(4), 서창민(4), 정휘환(4), 김동희(4), 임지환(4), 김용준(4), 김태준(4), 정예은(4), 임재열(3), 장은혁(3), 고재준(3), 김주석(3), 이나경(3), 한성민(3), 김동현(2), 윤득경(2), 이윤근(2), 박선재(2), 윤득경(2), 박진석(박), 정효혁(박), 이민형(박), 곽지혜(박), 김시내(박), 장성주(박), 정영준(박), 김시내(석), 서예진(석), 유석현(석), 장성주(석), 강솔뫼(석), 김동수(석), 김다인(석), 서병훈(석), 이혁진(석), 조상범(석)	142,844,900
합 계	653명	2,320,732,850

[표 3-9] 농공동창회와 장학재단의 농업기계전공 수혜자 명단과 지급액(1968~2022)

연도	농업기계(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지급액(원)
1973	이정원(4)	65,700
1974	김경욱(4)	75,000
1975	이대연(4)	143,850
1976	김상현(4), 박경구(석1)	340,500
1977	남상일(4), 이원남(4)	374,000
1978	김석진(4), 김찬영(4)	405,600
1979	이종갑(4), 장광윤(4)	432,800
1980	문성채(4), 이중용(4)	543,000
1981	강영선(4), 김용현(4)	747,600
1982	나용운(4), 한철수(4)	894,000
1983	김치환(4), 이영권(4)	938,000
1984	유의경(4), 이환승(4)	900,000
1985	송석한(4), 이비용(4), 국인석(4), 김기영(4), 박복응(4)	1,350,000
1986	유한상(4), 정길호(4), 조상기(4), 차재윤(4)	1,600,000
1987	백주형(4), 정승영(4), 변창덕(4), 손영선(4), 오동환(4), 임동수(4)	1,900,000
1988	권순환(4), 김기웅(4), 박권재(4)	2,500,000
1989	심규돈(4), 이승훈(4), 이종순(4), 진제용(4)	3,204,000
1990	김한태(4), 민 곤(4), 이기택(4), 이상주(4)	3,276,000
1991	고국원(4), 정용철(4), 최원익(4), 우상하(석1)	4,804,000
1992	김국환(4), 연홍석(4), 유동호(4), 이광제(4), 조병관(4), 우상하(석2)	6,495,000
1993	김대호(4), 신상규(4), 류일훈(3), 정영주(3), 임도형(2), 김채주(석2)	7,437,000
1994	김민수(4), 류일훈(4), 이동열(4), 신유성(2), 전성필(2), 김대호(석1)	8,786,000
1995	이재훈(4), 신동준(3), 신유성(3), 이성욱(3), 박주현(2), 김대호(석2)	10,013,000
1996	박정인(4), 신유성(4), 이성욱(4), 최창호(4), 김종순(석2), 김우기(석1)	11,635,000
1997	김종언(4), 임정호(4), 김경출(3), 현충호(3), 최현준(석2), 정병학(석1)	12,795,000
1998	남기찬(4), 박영준(4), 정철호(4), 현충호(4), 구승범(3), 이기재(3), 이호석(3), 이종수(석2), 이정엽(석1), 이주완(석1)	14,636,000

[표 3-9] 농공동창회와 장학재단의 농업기계전공 수혜자 명단과 지급액(1968~2022)(계속)

연도	농업기계(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지급액(원)
1999	공대광(4), 구승범(4), 김정욱(4), 윤승환(4), 제영호(4), 최선종(4), 이광희(3), 조훈구(3), 안은수(석1)	14,060,000
2000	김상범(4), 박종혁(4), 조정효(4), 조훈구(4), 이대웅(3), 정왕조(3), 김유용(박1), 채희연(박1), 백승규(석2), 최상현(석1), 황진성(석1)	19,785,000
2001	가상현(4), 권상욱(4), 박기준(4), 박종혁(4), 임수인(3), 전홍규(3), 김유용(박1), 박영준(석2), 모창연(석2), 안용구(석2), 김은수(석1)	20,749,500
2002	김민정(4), 이덕호(4), 진우성(4), 박백순(3), 이왕희(3), 최상명(3), 장금송(박2), 이호상(석2), 서 민(석1)	17,069,000
2003	이왕희(4), 정훈의(4), 최준호(4), 백영기(3), 이상훈(3), 이희영(박1), 황성규(석1)	14,629,000
2004	윤준호(4), 이상훈(4), 한 성(4), 이민욱(3), 황성규(석2)	14,166,000
2005	양재일(4), 이동욱(4), 송황재(3), 심성보(석1), 이기욱(석1), 이상훈(석1)	16,520,500
2006	송황재(3), 심민진(3), 박세홍(석1), 이성대(석1), 주창규(석1), 황기영(석1)	18,183,000
2007	김준용(4), 김효진(4), 김수철(석1), 심민지(석1), 임애리(석1)	20,110,000
2008	박진혁(4), 천세환(4), 남주석(석2), 임애리(석2), 박수현(석1), 서현권(석1), 손현목(석1), 오주선(석1), 조현호(석1), 최진웅(석1)	40,668,000
2009	강병곤(4), 현은제(4), 박수현(석2), 손현목(석2), 오주선(석2), 최진웅(석2), 김소희(석1), 김준용(석1), 백수정(석1), 서현권(석1), 심동국(석1), 이재정(석1), 이진웅(석1), 이춘구(석1)	76,966,000
2010	권혁정(4), 김 협(4), 흥성표(4), 김현재(3), 조윤수(3), 김송현(2), 박수현(박1), 김소희(석2), 김준용(석2), 백수정(석2), 신창섭(석2), 이진웅(석2), 조현호(석2), 김동현(석1), 박성민(석1), 심동국(석2), 양민호(석2), 장정욱(석2), 최종우(석1)	89,479,000
2011	조윤수(4), 김송현(3), 손대식(3), 이윤주(3), 이준민(3), 남주석(박2), 선우훈(박2), 신창섭(박1), 이진웅(박1), 이춘구(박1), 김동현(석2), 김준용(석2), 박성민(석2), 심동국(석2), 양민호(석2), 장정욱(석2), 최종우(석2), 김원경(석1), 정 수(석1), 최규정(석1)	108,809,000
2012	김지환(4), 박재현(4), 백가영(4), 이다경(4), 송대섭(4), 이규석(4), 백승환(4), 박가현(3), 박수용(3), 오근찬(3), 전찬우(3), 양명균(3), 정조애(3), 김용운(3), 유승아(2), 유지혁(2), 김선미(2), 이소희(2), 이정환(2), 이종안(2), 정현용(2), 김병창(2), 김용찬(2), 김준용(박2), 김준용(박1), 김영림(박1), 김장호(박1), 하종우(박1), 선우훈(석박), 신창섭(석박), 이진웅(석박), 장경제(석박), 박성민(석박), 장정욱(석2), 최규정(석2), 김원경(석2), 김동현(석2), 정 수(석2), 장지훈(석1), 조우재(석1), 권태형(석1), 정 수(석1), 정대현(석1), 안성욱(석1)	171,505,000

[표 3-9] 농공동창회와 장학재단의 농업기계전공 수혜자 명단과 지급액(1968~2022)(계속)

연도	농업기계(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지급액(원)
2013	강동협(4), 김라리(4), 박수용(4), 박재현(4), 소인섭(4), 송대섭(4), 이윤주(4), 전찬우(4), 김승환(3), 김병창(3), 김선미(3), 김성은(3), 류고운(3), 유승아(3), 이소희(3), 정현용(3), 강다은(2), 고현훈(2), 김도엽(2), 김성민(2), 박상배(2), 박찬훈(2), 박찬희(2), 신주연(2), 윤상우(2), 이경진(2), 이승진(2), 이예솔(2), 정효림(2), 최세은(2), 홍석주(2), 김준용(박2), 김영림(박2), 김장호(박2), 김영림(박1), 김장호(박1), 장경제(석박), 박성민(석박), 정 수(석2), 조우재(석2), 백승환(석1), 염승민(석1) 최정문(석1), 추 선(석1), 하종우(석1)	185,235,000
2014	유승아(4), 한성수(4), 박가현(4), 김성은(4), 이재은(4), 정현용(4), 김선미(4), 형건우(4), 안길환(4), 류고운(4), 김병창(4), 최세은(3), 홍석주(3), 이예솔(3), 심유승(3), 이승진(3), 신주연(3), 이소희(3), 김용운(3), 박찬훈(3), 박상배(3), 정우진(2), 손관희(2), 박성훈(2), 김덕진(2), 이재민(2), 김지은(2), 황인호(2), 문민기(2), 이창협(2), 조현문(2), 이아영(2), 정 수(박), 김홍배(박), 김장호(박), 박지운(박), 장경제(석박), 정혜승(석), 이명철(석), 정세웅(석), 백승환(석), 정예솔(석), 홍원선(석), 정은성(석), 양명균(석), 안성욱(석), 정대현(석), 노영민(석), 염승민(석), 최정문(석), 추 선(석)	174,464,000
2015	박상배(4), 고현훈(4), 신주연(4), 정상진(4), 이예솔(4), 홍석주(4), 이상훈(4), 고동주(4), 이재은(4), 강다은(4), 조현문(3), 손관희(3), 김덕진(3), 최세은(3), 이아영(3), 정우진(3), 배진석(2), 유호길(2), 정혜린(2), 이윤지(2), 안길준(2), 조수현(2), 강승훈(2), 양승보(2), 문민기(2), 김홍배(박), 오주선(박), 박지운(박), 조우재(박), 이명철(박), 장경제(박), 주경선(석), 윤희섭(석), 전찬우(석), 박신재(석), 홍원선(석), 정예솔(석), 정은성(석), 이명철(석), 양명균(석), 정세웅(석), 정혜승(석), 조윤수(석)	160,528,000
2016	손관희(4), 이정환(4), 정우진(4), 배진석(3), 안종석(3), 이창협(3), 장미리(3), 정혜린(3), 최원준(3), 김영현(2), 남궁휴(2), 송유리(2), 이수아(2), 박지운(박), 박하나(박), 양명균(박), 오주선(박), 이명철(박), 장경제(박), 정은성(박), 조우재(박), 구종범(석), 박상배(석), 박희수(석), 신인경(석), 정상진(석), 김동욱(석), 박신재(석), 윤희섭(석), 이창주(석), 임재운(석), 전찬우(석), 정혜승(석), 조봉진(석), 주경선(석)	155,000,000
2017	정혜린(4), 이소희(4), 손관희(4), 박찬훈(4), 한현우(3), 이준영(3), 이재민(3), 윤상우(3), 양승보(3), 남궁휴(3), 김영현(3), 김상연(3), 김도엽(3), 한경범(2), 최혜지(2), 이건하(2), 안세범(2), 박효진(2), 노길호(2), 남규현(2), 김채영(2), 김 선(2), 정대현(박), 전찬우(박), 이명철(박), 박신재(박), 김동욱(박), 정우진(석), 이정환(석), 이아영(석), 윤창호(석), 박희수(석), 박동혁(석), 조봉진(석), 정상진(석), 임재운(석), 이창주(석), 신인경(석), 박혜린(석), 박선영(석), 박상배(석), 구종범(석)	147,500,000

[표 3-9] 농공동창회와 장학재단의 농업기계전공 수혜자 명단과 지급액(1968~2022)(계속)

연도	농업기계(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지급액(원)
2018	김덕진(4), 심소희(4), 윤상우(4), 이수아(4), 김범수(4), 이재민(4), 이준영(4), 한현우(4), 김 선(3), 김채영(3), 한경범(3), 문지현(3), 유호길(3), 윤순규(3), 류지원(2), 이재우(2), 정조현(2), 지세민(2), 송해원(2), 윤철환(2), 조대호(2), 황희지(2), 김슬기(2), 김동욱(박), 임재운(박), 박상배(박), 손현목(박), 최규정(박), 박희수(석), 이정환(석), 정우진(석), 강민석(석), 강지현(석), 안다빈(석), 김재은(석), 박동혁(석), 박선영(석), 박혜린(석), 윤창호(석), 이아영(석), 손관희(석), 한희조(석)	160,000,000
2019	이준영(4), 유호길(4), 이호성(4), 이승윤(4), 문지현(4), 윤철환(3), 오주이(3), 김경민(3), 선명훈(2), 김예슬(2), 정기성(2), 전우상(2), 이유진(2), 김용현(2), 김민재(2), 강태호(2), 임재운(박), 손현목(박), 윤창호(석), 김정선(석), 김상연(석), 홍은미(석), 이지영(석), 양도이(석), 신혜정(석), 김범수(석), 한현우(석), 정우진(석), 장규진(석), 이가언(석), 안다빈(석), 손관희(석), 박지용(석), 김지태(석), 김재은(석), 김재석(석), 강지현(석), 강민석(석), 한희조(석)	140,000,000
2020	유현재(4), 김슬기(4), 박효진(4), 류지원(4), 강태호(3), 김민재(3), 노길호(3), 김용현(3), 최종훈(2), 한윤석(2), 안지현(2), 이현우(2), 최영한(2), 한규하(2), 양현서(2), 임재운(박), 윤창호(박), 최수정(석박), 김응찬(석박), 김재은(석박), 김지태(석박), 박정호(석박), 양도이(석박), 이지영(석박), 이창협(석박), 임동우(석박), 한현우(석박), 강민석(석), 강지현(석), 이윤홍(석), 김다빈(석), 김경대(석), 김대현(석), 김범수(석), 김재석(석), 김정선(석), 박지용(석), 신혜정(석), 안다빈(석), 유정상(석), 유호길(석), 이가언(석), 최우리(석), 한진섭(석), 홍은미(석), 황인호(석)	140,000,000
2021	남규현(4), 이현우(3), 고명진(3), 박수빈(3), 윤철환(3), 김태현(2), 탁 훈(2), 김병진(2), 이수빈(2), 이수현(2), 박동혁(박), 김정선(박), 안다빈(박), 윤창호(박), 김응찬(석박), 김주신(석박), 김지태(석박), 노승우(석박), 류지원(석박), 박병주(석박), 박정호(석박), 양도이(석박), 이창협(석박), 임동우(석박), 김범수(석), 신혜정(석), 이지영(석), 최원준(석), 홍은미(석), 강경민(석), 조솔지(석), 김경대(석), 김다빈(석), 김대현(석), 김성제(석), 박승진(석), 유정상(석), 유호길(석), 이윤홍(석), 최우리(석), 한진섭(석), 황예빈(석), 황인호(석)	135,388,070
2022	박규민(4), 정수민(4), 탁훈(3), 강태호(3), 전우상(3), 강경민(2), 안다빈(박), 유정상(박), 김경대(박), 김범수(박), 김정선(박), 김대현(박), 김응찬(석박), 양도이(석박), 노승우(석박), 박병주(석박), 박찬우(석박), 황희수(석박), 강민우(석박), 김용현(석박), 류지원(석박), 박정호(석박), 이창협(석박), 임동우(석박), 장규진(석박), 김다빈(석), 최원준(석), 김채영(석), 강경민(석), 김다래(석), 김대영(석), 김성제(석), 김주신(석), 노정민(석), 박승진(석), 변서정(석), 성세정(석), 송지수(석), 조솔지(석), 황예빈(석)	144,611,770
합계	650명	2,281,716,890

IV

역대 임원

농공동창회의 장학 사업에 수고하였던 역대 임원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농공동창회의 장학 사업은 초기에 농공동창회 회장을 중심으로 여러 임원들이 협력하면서 이루어졌다. 초대 이창구 회장은 1966년 1월 29일부터 1974년 10월 9일까지 약 8년 8개월에 걸쳐 제1차와 제2차의 모금을 포함해 장학기금 조성과 전체적인 기틀을 다져 놓으셨다. 이후 장학기금의 확충이 동창회장단의 주요 임무로 입학기별 모금, 특별장학금제도 등 다양한 방식의 모금운동이 진행되었다. 동창회 중심의 장학사업은 많은 동문들의 노력으로 장학기금이 1억 원을 넘어서면서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장학재단의 설립을 추진했고, 1990년 3월 재단법인 농공장학재단을 출범하게 되었다. 그 후 농공동창회 정관을 수정하여 장학재단을 농공동창회 산하 기관으로 규정하고, 농공동창회 회장이 장학재단의 이사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장학재단의 성장은 그동안 사심 없이 농공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농공동창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고, 이를 [표 4-1]에 기록으로 남겨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표 4-1] 농공동창회 임원진(1990~1992)

대수	기간	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장	상임간사
1대	1966~1968	이창구	박기승, 임영춘	이재기, 장재중	이희영	이상호
2대	1968~1970	이창구	박기승, 임영춘	이재기, 장재중	이희영	이상호
3대	1970~1972	이창구	임영춘, 이한영	이재기, 장재중	이상호	신동수

[표 4-1] 농공동창회 임원진(1990~1992)(계속)

대수	기간	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장	상임간사
4대	1972~1974	이창구	정진호, 최현국	이희영, 이상호	고재군	이종호
5대	1974~1976	임영춘	노태래, 김시원	김재곤, 김종성	고재군	이종호
6대	1976~1978	남영희	안재숙, 오완수	엄태영, 유근학	정창주	정하우
7대	1978~1980	남영희	안재숙, 오완수	엄태영, 유근학	정창주	정하우
8대	1980~1982	고재군	이기준, 김시원, 유근학	엄태영, 최찬식	신동수	고학균
9대	1982~1984	정진호	윤오섭, 김재곤, 정창주	김남혁, 이재기	황경구	김문기
10대	1984~1986	윤오섭	김환종, 윤선병, 이희영	김윤태, 이계홍	류관희	남상일, 김용환
11대	1986~1988	안재숙	윤대섭, 이재기, 한상옥	최찬식, 조수형	권순국	이용직, 이신호
12대	1988~1990	이철주	신동수, 오무영, 최찬식	신현주, 황경구	노상하	이용환
13대	1990~1992	이희영	이종기, 이계홍, 김정한	홍승만, 민병선	장병욱	남상운

장학재단이 출범하면서 기존의 농공동창회의 임원체계와는 별도의 이사회가 구성되었다. 농공장학재단의 출범 초기에 농공동창회의 장학사업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도기가 있었고, 이사진의 재임기간과 임면에 원칙도 정립되는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이사진의 임기 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후 농공동창회장이 장학재단의 이사장을 겸임하는 방식으로 관계가 정립됨으로써 장학재단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지난 30여 년 동안 모교의 농공학 발전과 후학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정성을 쏟았던 장학재단의 임원들과 모교 교수들, 그리고, 장학기금을 출연해 주신 모든 동문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표 4-2]는 장학재단의 역대 임원 명단을 보여 주고 있다.

[표 4-2] 장학재단 이사회 임원진(1990~2022)

대수	기간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1대	1990. 3.~ 1993. 3.	이철주	정창주	정진호, 안재숙, 윤오섭, 유한홍, 윤대섭, 고재군, 신동수, 이희영, 유근학	김재곤, 배정길
2대	1993. 3.~ 1995. 1.	이상호	김경욱	정진호, 안재숙, 윤오섭, 유한홍, 윤대섭, 이철주, 고재군, 정창주, 신동수, 유근학, 김원세	김재곤, 배정길
3대	1995. 1.~ 1997. 6.	엄태영	박승우	김환종, 정진호, 윤오섭, 윤대섭, 유한홍, 이철주, 고재군, 이상호, 정창주, 신동수, 유근학, 김원세, 지근진	조범호, 정하우
4대	1997. 6.~ 1998. 12.	유근학	이정재	김환종, 정진호, 윤오섭, 유한홍, 윤대섭, 이철주, 고재군, 이상호, 엄태영, 정창주, 신동수, 김원세, 지근진	조범호, 정하우
5대	1998. 12.~ 2000. 11.	홍승만	조성인	정진호, 유한홍, 윤대섭, 이희영, 고재군, 이상호, 엄태영, 정창주, 신동수, 유근학, 고학균, 지근진, 박원규, 허유만	변양석, 정하우

[표 4-2] 장학재단 이사회 임원진(199~2022)(계속)

대수	기간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6대	2000. 11.~ 2002. 12.	조범호	이종용	정진호, 유한홍, 윤대섭, 이희영, 이상호, 엄태영, 정창주, 신동수, 유근학, 고학균, 지근진, 박원규, 허유만	변양석, 정하우
7대	2002. 12.~ 2004. 12.	정하우	이종용	정진호, 유한홍, 윤대섭, 최찬식, 홍승만, 고학균, 조범호, 지근진, 박원규, 허유만, 김철중, 장병욱, 서병륜	변양석, 장정수
8대	2004. 12.~ 2006. 12.	허유만	최진용	정진호, 유한홍, 윤대섭, 최찬식, 홍승만, 고학균, 조범호, 지근진, 변양석, 김철중, 장병욱, 장정수, 서병륜	장정수, 권진봉
9대	2006. 12.~ 2009. 3.	권상필	최진용	유한홍, 윤대섭, 조범호, 지근진, 변양석, 류관희, 김철중, 장병욱, 장정수, 정진구, 최현섭, 김현영, 서병륜	권진봉, 서택동
10대	2009. 3.~ 2011. 1.	박승우	최진용	유한홍, 윤대섭, 이석우, 류관희, 권상필, 장병욱, 정진구, 이창구, 최현섭, 윤여두 노상하, 김현영, 이정재, 홍병만, 최은수	김풍진, 윤춘경
11대	2011. 1.~ 2012. 12.	김경욱	정종훈	윤오섭, 유한홍, 윤대섭, 이석우, 박원규, 장병욱, 이창구, 윤여두, 노상하, 이정재, 홍병만, 장석호, 권진봉, 이성호, 최은수	김풍진, 윤춘경
12대	2012. 12.~ 2015. 1.	이정재	정종훈(1) 강문성(2) 손영환(3)	윤오섭, 윤대섭, 유한홍, 정창주, 이석우, 박원규, 류관희, 장병욱, 노상하, 장석호, 권진봉, 장세권, 이봉훈, 정종훈, 최은수, 최용석, 강문성	김풍진, 윤춘경
13대	2015. 1.~ 2016. 12.	장세권	김학진	윤오섭, 윤대섭, 유한홍, 정창주, 이석우, 정하우, 박원규, 류관희, 장병욱, 권진봉, 이봉훈, 정종훈, 최용석, 최진용	김풍진, 고재영
14대	2016. 12.~ 2017. 11.	김승	송인홍	윤대섭, 유한홍, 정창주, 이석우, 정하우, 박원규, 류관희, 장병욱, 권진봉, 이봉훈, 남상일, 정종훈, 최진용	서상교, 고재영
15대	2017. 11.~ 2019. 1.	남상일	송인홍	윤대섭, 유한홍, 정창주, 이석우, 정하우, 박원규, 류관희, 장병욱, 권진봉, 이봉훈, 고덕구, 정종훈, 최진용	서상교, 강영선
16대	2019. 1.~ 2019. 10.	고덕구	박영준	윤대섭, 유한홍, 정창주, 이석우, 정하우, 박원규, 류관희, 장병욱, 권진봉, 윤효철, 정종훈, 김성환, 최진용	서상교, 강영선
17대	2019. 10.~ 2020. 4.	윤효철	박영준	윤대섭, 유한홍, 정창주, 이석우, 정하우, 박원규, 류관희, 장병욱, 권진봉, 이봉훈, 고덕구, 정종훈, 김성환, 최진용	서상교, 강영선
18대	2020. 5.~ 2022. 12.	박관우	박영준(1)	윤대섭, 정창주, 이석우, 정하우, 박원규, 류관희, 장병욱, 권진봉, 고덕구, 정종훈, 김병관, 김성환, 홍순호, 최진용	김병진, 강영선
			최 원(2)		
19대	2022. 12.~ 현재	김성민	송인홍(1)	윤대섭, 정창주, 이석우, 정하우, 박원규, 류관희, 장병욱, 노상하, 권진봉, 김병관, 정종훈, 김성환, 홍순호, 최진용	김병진, 강영선
			최 원(2)		

임원들의 협력과 수고로 장학재단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장학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목적사업에 적극 적용함으로써 오늘의 튼튼한 장학재단으로 도약 궤도에 올려놓게 되었다. 그동안 수고하신 장학재단 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임원들의 각 기능별 활동 내용을 담기 위하여 역대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의 개인별 임기를 정리하여 [표 4-3], [표 4-4], [표 4-5] 및 [표 4-6]에 소개한다.

[표 4-3] 장학재단의 역대 이사장 임기

대수	성명	임면 일자		실제 집행		비고
		시작	종료	시작	종료	
1대	이철주	1990. 3. 29.	1993. 4. 1.	1990. 3. 9.	1993. 4. 1.	
2대	이상호	1993. 9. 6.	1995. 1. 23.	1993. 4. 2.	1995. 1. 23.	
3대	엄태영	1995. 1. 24.	1997. 7. 4.	1995. 1. 24.	1996. 12. 18.	
4대	유근학	1997. 7. 4.	1998. 11. 22.	1996. 12. 19.	1998. 12. 21.	
5대	홍승만	1998. 12. 22.	2000. 11. 3.	1998. 12. 22.	2000. 12. 21.	
6대	조범호	2000. 11. 3.	2002. 12. 21.	2000. 12. 22.	2002. 12. 21.	
7대	정하우	2002. 12. 22.	2005. 7. 15.	2002. 12. 22.	2004. 12. 21.	
8대	허유만	2005. 7. 15.	2006. 12. 21.	2004. 12. 22.	2006. 12. 21.	
9대	권상필	2006. 12. 22.	2009. 3. 30.	2006. 12. 22.	2008. 12. 21.	
10대	박승우	2009. 3. 30.	2010. 12. 21.	2008. 12. 22.	2010. 12. 21.	

[표 4-3] 장학재단의 역대 이사장 임기(계속)

대수	성명	임면 일자		실제 집행		비고
		시작	종료	시작	종료	
11대	김경욱	2011. 1. 6.	2012. 11. 29.	2010. 12. 22.	2012. 12. 21.	
12대	이정재	2012. 11. 29.	2015. 1. 19.	2012. 12. 22.	2014. 12. 21.	
13대	장세권	2015. 1. 19.	2016. 12. 1.	2015. 12. 22.	2016. 12. 21.	
14대	김 승	2016. 12. 1.	2017. 11. 21.	2016. 12. 22.	2017. 12. 21.	
15대	남상일	2017. 11. 21.	2019. 1. 3.	2017. 12. 22.	2018. 12. 21.	
16대	고덕구	2019. 1. 3.	2019. 10. 20.	2018. 12. 22.	2019. 10. 25.	
17대	윤효철	2019. 10. 25.	2020. 4. 17.	2019. 10. 25.	2020. 4. 17.	별세
18대	박관우	2020. 5. 22.	2022. 12. 12.	2020. 5. 22.	2022. 12. 21.	
19대	김성민	2022. 12. 12.	-	2022. 12. 22.	-	

[표 4-4] 장학재단의 상임이사 임기

임기	성명	취임 일자	퇴임 일자	임기	성명	취임 일자	퇴임 일자
1대	정창주	1990. 3. 29.	1993. 6. 6.	5~6대	조성인	1999. 8. 2.	2001. 2. 23.
2대	김경욱	1993. 6. 7.	1995. 1. 24.	6~7대	이중용	2001. 2. 23.	2005. 7. 15.
3대	박승우	1994. 7. 16.	1997. 7. 4.	8~10대	최진용	2005. 7. 15.	2010. 7. 15.
4~5대	이정재	1997. 7. 4.	1999. 7. 15.	11~12대	정종훈	2010. 9. 10.	2013. 5. 14.
12대	강문성	2013. 5. 14.	2013. 11. 21.	12대	손영환	2013. 11. 22.	2014. 12. 31.
13대	김학진	2015. 1. 19.	2016. 12. 1.	14~15대	송인홍	2016. 12. 1.	2018. 11. 29.
16~18대	박영준	2019. 1. 3.	2020. 12. 4.	18~19대	최원	2020. 12. 4.	2022. 5. 19.
18~19대	송인홍	2022. 5. 19.	2023. 10. 31.				

[표 4-5] 장학재단의 역대 이사 임기

임기	성명	취임 일자	퇴임 일자	임기	성명	취임 일자	퇴임 일자
1~8대	정진호	1990. 3. 29.	2006. 4. 10.	9~19대	류관희	2007. 4. 6.	2023. 1. 18.
1~2대	안재숙	1990. 3. 29.	1994. 3. 5.	9~11대	이창구	2007. 10. 2.	2011. 10. 1.

[표 4-5] 장학재단의 역대 이사 임기(계속)

임기	성명	취임 일자	퇴임 일자	임기	성명	취임 일자	퇴임 일자
1~5대	윤오섭	1990. 3. 29.	1998. 3. 29.	9대	박승우	2007. 10. 2.	2009. 3. 29.
1~14대	유한홍	1990. 3. 29.	2020. 5. 30.	9~11대	홍병만	2007. 10. 2.	2011. 10. 1.
1대~	윤대섭	1990. 3. 29.	2026. 8. 31.	10대~	이석우	2008. 5. 30.	2024. 5. 29.
1~5대	고재군	1990. 3. 29.	2000. 3. 30.	10~11대	윤여두	2008. 5. 30.	2012. 5. 29.
1~7대	정창주	1990. 3. 29.	2004. 3. 29.	10~11대	권상필	2009. 11. 13.	2011. 5. 3.
1~7대	신동수	1990. 3. 29.	2004. 3. 29.	10~11대	이정재	2009. 11. 13.	2012. 11. 29.
1~2대	이희영	1990. 11. 23.	1993. 4. 1.	11~12대	노상하	2010. 5. 28.	2014. 5. 27.
1~3대	유근학	1991. 4. 2.	1997. 7. 3.	11~12대	최은수	2010. 5. 28.	2014. 5. 27.
1~5대	김원세	1992. 4. 1.	1999. 7. 15.	10~12대	정종훈	2010. 9. 10.	2013. 5. 14.
1대	이상호	1993. 3. 2.	1993. 4. 1.	11~13대	윤오섭	2011. 5. 3.	2015. 5. 18.
2대	김경욱	1993. 6. 7.	1995. 1. 24.	11대~	박원규	2011. 5. 3.	2027. 5. 6.
2~4대	이철주	1993. 4. 1.	1997. 9. 5.	11대~	권진봉	2011. 5. 3.	2027. 5. 6.
2~3대	박승우	1994. 7. 16.	1997. 7. 4.	11~12대	장석호	2011. 10. 21.	2013. 5. 14.
3~5대	김환종	1995. 6. 20.	1999. 6. 19.	11~12대	이성호	2011. 10. 21.	2015. 1. 19.
3~9대	지근진	1995. 6. 20.	2007. 8. 17.	12대~	정창주	2012. 5. 30.	2024. 5. 29.
4~5대	이정재	1997. 7. 4.	1999. 7. 15.	12대	강문성	2013. 5. 14.	2013. 11. 21.
4~6대	이상호	1998. 4. 10.	2002. 4. 9.	12대	손영환	2013. 11. 22.	2014. 12. 31.
5~7대	엄태영	1998. 12. 22.	2003. 1. 23.	12대	장세권	2013. 5. 14.	2015. 1. 19.
5~8대	박원규	1998. 12. 22.	2005. 8. 16.	12~13대	최용석	2014. 6. 3.	2016. 12. 1.
5~7대	유근학	1999. 7. 14.	2003. 7. 13.	12대~	정종훈	2014. 6. 3.	2026. 6. 31.
5~6대	이희영	1999. 7. 16.	2003. 7. 15.	12~15대	이봉훈	2013. 11. 21.	2018. 8. 27.
5~8대	고학균	1999. 7. 16.	2007. 1. 8.	13대	김학진	2015. 1. 19.	2016. 12. 1.
5~6대	조성인	1999. 8. 2.	2001. 2. 23.	13대~	최진용	2015. 1. 19.	2025. 11. 24.
6~8대	허유만	2000. 3. 30.	2005. 7. 15.	13대~	정하우	2015. 8. 19.	2025. 11. 24.
6~7대	이종용	2001. 2. 23.	2005. 7. 15.	14~15대	송인홍	2016. 12. 1.	2018. 11. 29.
7~8대	홍승만	2002. 4. 10.	2006. 4. 10.	14대	남상일	2016. 12. 1.	2017. 11. 21.
7~9대	최찬식	2003. 1. 24.	2007. 1. 23.	15대	고덕구	2017. 10. 25.	2019. 1. 3.

[표 4-5] 장학재단의 역대 이사 임기(계속)

임기	성명	취임 일자	퇴임 일자	임기	성명	취임 일자	퇴임 일자
7~9대	조범호	2003. 8. 18.	2007. 8. 17.	9~11대	정진구	2007. 2. 22.	2011. 2. 21.
7~9대	김철중	2003. 8. 18.	2007. 8. 17.	16대 ~	김성환	2018. 8. 27.	2026. 8. 31.
7대 ~	장병욱	2004. 3. 30.	2024. 5. 29.	16대	윤효철	2019. 1. 3	2019. 10. 25.
7~8대	서병륜	2004. 3. 30.	2008. 3. 29.	17~18대	고덕구	2019. 11. 1.	2021. 11. 30.
8~9대	장정수	2005. 9. 5.	2009. 9. 4.	17~18대	박영준	2019. 10. 25.	2020. 12. 4.
8~9대	변양석	2005. 7. 15.	2008. 3. 29.	18대~	김병관	2020. 5. 30.	2024. 5. 29.
8~10대	최진용	2005. 7. 15.	2010. 7. 15.	18~19대	최 원	2020. 12. 4.	2022. 5. 9.
8~10대	최현섭	2006. 5. 19.	2010. 4. 9.	18대~	홍순호	2021. 11. 25.	2023. 10. 31.
8~10대	김현영	2006. 5. 19.	2010. 4. 9.	18~19대	송인홍	2022. 5. 19.	2023. 10. 31.

[표 4-6] 장학재단의 역대 감사 임기

임기	성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임기	성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1~2대	김재곤	1990. 3. 29.	1994. 3. 29.	7~8대	장정수	2002. 12. 22.	2005. 8. 21.
1~3대	배정길	1990. 3. 29.	1995. 6. 6.	8~9대	권진봉	2005. 1. 10.	2007. 1. 9.
3~4대	조범호	1994. 8. 3.	1998. 8. 2.	9~10대	서택동	2005. 10. 1.	2009. 10. 1.
4~6대	정하우	1995. 8. 22.	2002. 12. 21.	10~14대	김풍진	2009. 3. 30.	2017. 5. 14.
5~7대	변양석	1998. 12. 22.	2004. 12. 21.	11~12대	윤춘경	2009. 11. 13.	2015. 11. 20.
13~14대	고재영	2015. 11. 21.	2017. 11. 20.	14~17대	서상교	2017. 5. 15.	2021. 5. 14.
15~19대	강영선	2017. 11. 21.	2023. 12. 3.	18대~	김병진	2021. 5. 15.	2025. 5. 14.

V

농공시스템공학의
미래 전망과 장학
재단의 발전 방안

1) 지역시스템공학

인류의 역사에서 국가나 지도자의 위엄을 세우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이용된 정책이 전쟁과 토목사업이다. 이 두 가지 정책의 근간에 효율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여 이 부문의 전문 지식이 출현하게 되었고, 이 부문을 공학(Engineering)이라고 불렀다.

피라미드, 대운하 또는 만리장성 등은 이 결과물인데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사람인 왕이 국가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달성하였다. 그러나 유럽에서 부유한 부르주아 그룹이 생겨나고 독자적인 영토를 가진 사회, 소위 시민사회가 구성되자 시민의 편의와 필요에 대응하는 기술과 토건사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전쟁을 주도하는 기술그룹은 군체계로 편성되어 공병(Military Engineering)이 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한 공학 부문은 Civil Engineering으로 편성되었다. 이후 시민사회가 민주사회로 발전하면서 Civil Engineering이 공학을 통칭하게 된다.

최초의 공과대학은 그냥 Engineering College(School)였는데, 공학의 수요가 커지고,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공학의 분화가 시작되어 기계, 전기, 화공, 섬유, 재료 등등의 분야가 창출되고, 별도의 공학 분야로 분기되면서 기존의 Engineering은 Civil Engineering이 되었다. 이 과정은 지금도 미국 공과대학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역학, 수학 등 기초과목은 Civil Engineering에서 가르치고, 타 학과는 전문분야를 가르친다.

농공학은 농학과 공학이 결합된 학문인데, 규격화된 것은 미국이 효시라고 생각한다.

1860년을 전후해 미국은 독립 등 국토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토지 또는 토지관련 수익을 보조금으로 제공하는 Land Grant School을 지정하고자 하였다. 처음에는 광활한 대지와 노동인구의 부족으로 조방적 농업이 불가피한 미국은 ‘농학과 공학’이 결합되는 A & M(Agricultural and Mechanical)으로 제한을 하였으나, 여러 반대에 부딪쳐 과학, 군사과학도 수용하는 안을 1862년 링컨의 서명으로 확정하였고, 후일 주립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미국 모든 주에 106개의 학교가 이 일환으로 지정되었으며 유명한 사립대학인 코넬, MIT도 이 학교들에 포함된다. 지금도 몇몇 대학, 예를 들면 Texas, Florida, Alabama A & M 등은 초기의 대학교명을 유지하고 있다.

주립대학교가 되면서 농과대학이 독립하게 되자, 대학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화학, 생산, 식품산업으로 분화된 공학분야를 농학과 결부시켜 농공학이라 하고, 공대에서 기초교육을 받고 전문교육을 농과대학이 계속하는 제도를 적용하였다. USNews 와 같은 미국 대학 평가기구는 Agricultural Engineering을 공학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04년 고종황제께서 창립하신 농학교가 농학, 임학, 축산으로 세분화된 후 가장 먼저 공학을 도입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공학의 발전에 힘입은 바 있다. 그러나 독립 이후 우리나라는 식량의 자주확보가 절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농업정책은 쌀 생산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농공학도 쌀 생산 기반과 쌀 생산 성력화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토목과 기계 중심의 교육이 자리 잡았다.

21세기에 들어 산업의 변화가 빠르고 다양해지면서 대학의 교육 과정도 이에 발 맞춰 빠르게 변하였다. 미국의 경우 Agricultural Engineering은 Agricultural, Biological, Biomedical Engineering 및 Bioengineering 등으로 분화되었다. 불행하게도 서울대학교는 학제 개편에 어려움이 많아 다양한 학과로 분화되는 대신 농업토목, 농업기계로부터 지역 시스템(Rural Systems), 바이오시스템(Bio Systems)공학으로 학과명을 개편하고, 내부적으로 국제표준을 따르는 제도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2) 변화의 조짐

우리나라 농공학의 학문체계가 대략 정비된 20세기 말부터 국가의 신속한 발전에 힘입어 농공학을 필요로 하는 환경은 엄청난 변화를 맞이한다. 초기에는 전천후 영농 등 생산에 필요한 학문을 필요로 했으나 WHO 등 국제 환경이 변화되고, 첨단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커

다란 변화에 직면하였다.

가) 농정의 변화

농정의 극적인 변화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겪으며 맞게 되었다. 이중 곡가제를 통하여 가격을 보장받으면서 무역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되던 농업이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자 국제쌀 가격의 5배가 넘는 우리나라 쌀 가격이 극명한 문제로 노출되었다. 그러나 식량을 모두 수입할 수 없는 정부는 이중 곡가제 중심의 가격지지를 직불제 등 소득지지 정책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고, 농업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업생산 중심에서 농촌환경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농촌의 낙후성으로 인해 도농 간의 소득과 인구 및 복지 격차가 커지게 되어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공동체가 파괴되는 심대한 손실이 나타나고 있어 국가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심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나) 농촌지역의 변화

1970년대에는 전 국민의 7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35%가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농촌은 그야말로 농업생산기지였다. 그러나 고도성장과 맞물려 농촌의 노동력이 도시로 진출하면서 새마을 사업 등 농업 성력화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현재는 전 인구의 2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지만 7%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인구밀집 지역인 읍면의 거주민 대부분이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게 되었으므로 지역의 정책수립 등에서 농업의 중요도는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다) 생산수단의 변화

쌀 중심의 농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직불제는 고령화 되는 농촌인력의 피난처가 되고 있다. 신선식품의 가치가 급등하고, 정부의 오랜 복합영농정책에 힘입어 밭농사는 쌀농사에 비하여 4~5배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지만 노동 투하량도 많아진다. 농업 종사자는 사실상 정년이 없지만 가구주의 연령이 60세 전후가 되면 노동력 감소로 복합영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불제가 보장하는 쌀농사에 의지하게 되고, 소득은 1/5로 감소한다. 그러므로 품종 다양화와 자동화 및 농지이용의 고도화 등 새로운 생산수단이 제공되지 않으면 농촌은 소멸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 투자되는 직불금은 낭비하는 셈이 될 것이다.

라) 소비환경의 변화

우리나라의 식량소비는 쌀과 밀이 반반이다. 쌀 생산이 많아져 쌀값이 떨어지면 직불금은 늘어나게 되고 쌀은 남게 된다. 여기에 더해서 소비자의 입맛은 더욱 빠르게 변하고 있다. 농산물은 먹거리에서 식문화 소재로, 영양중심에서 만족중심으로, 대규모 소비에서 다양한 소량 소비로 급히 변하고 있다. 이 변화는 기술 중심이기 때문에 전통 농업기술이 적응하기 매우 어렵다. 특히 SNS의 발달과 함께 찾아온 배달체계는 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마) 국제상황의 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사우디의 반목, 이스라엘의 전쟁 등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정하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에 식량과 에너지에 관한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에 대한 우려가 큰 지역은 중국, 일본, 한국,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이고, 여기에 식량을 공급하는 나라는 미국과 호주 및 우크라이나 등에 불과하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 식량소비 패턴은 이미 서구화되었다. 우리나라는 겨우 쌀 소비를 충당할 뿐 소비하는 곡물(식량과 사료 등)의 80%, 식량의 50%를 이미 수입하고 있다. 고난의 시기가 온다면 쌀 소비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미 쌀 재배 기반이 대폭 감소된 형편이어서 별 효과는 없을 것이다. 1990년 5,400만 섬이었던 쌀 생산이 2023년 2,600만 섬으로 줄면서 경지면적도 꾸준히 줄여 왔기 때문이다. 한국, 일본, 중국은 아래저래 식량과 에너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미국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3) 정부의 비전, 농림축산식품기본법

정부도 이런 문제에 등한시하지 않았다.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의도와 같이 추진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지 못할 뿐이다. 정부는 정책의 방향을 법으로 말한다. 농림축산식품기본법을 살펴보면 정부의 비전을 잘 알 수 있다.

가) 농산업의 기반

종래 농산업의 기반은 농업생산기반이었지만, 농림축산식품기본법은 세 가지 기반을 제시하였다. 첫째 농업 기반은 고도화, 다양화, 자동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둘째 농민은 교육과 지원을 통해 농업생산을 담당하는 노동력에서 농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마지막 농촌공간은 생산공간에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삶의 터전과 문화 및 복지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나) 중요한 시책

농업, 농민, 농촌의 세 기반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 여덟 가지 시책을 제시하였다.

- (1) 식품공급: 종래 곡물중심의 양적 공급에서 품질과 다양성을 고려한 안전한 식품공급
- (2) 농업인력: 노동중심의 농민에서 경연자로의 농민교육
- (3) 자연자원의 이용과 보전: 환경 변화에 걸맞도록 토양, 수자원을 보호하고 보전
- (4) 생산구조고도화: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성력화하도록 규격화, 기계화, 자동화, 전동화
- (5) 전원의 공익기능 함양: 농업, 환경, 공간, 수자원 토양자원 등에 의한 공익기능을 적극 함양
- (6) 농촌 삶의 질 향상: 문화, 복지 조건을 향상
- (7) 통일대비: 통일과 함께 올 부담을 사전에 대비
- (8) 국제협력: 안정적인 식량의 공급과 함께 농업에 관한 교육과 외교 등 협력 능력을 향상

다) 실효적 법체계

기본법은 선언법이므로 법적 절차나 구속력 등 행정법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본법은 법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법이나 사업법을 갖추게 되는데, 농림축산식품 기본법의 산하에 있는 80여 개의 농업관련 행정법을 살펴보면 개별 사업을 지원하는 법이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기본법의 목적인 농업, 농민 및 농촌의 정비와 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법은 「농어촌정비법」이 가장 돋보인다. 자연자원의 이용과 보전, 생산고도화, 공익기능의 향상, 삶의 질의 보장 및 국제협력 등 정부주도의 실질 사업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시스템공학은 「농어촌정비법」을 지원하는 학문분야로 오래 자리 잡아 왔다. 「농어촌정비법」도 대한민국 건국초기 「토지개량사업법」에서 「농촌근대화촉진법」을 지나 「농어촌정비법」으로 변화해 왔으며, 같은 법의 이름으로도 많은 사업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다음 다섯 가지 공익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인허가, 교육 및 계획 수립 등으로 지원한다.

-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어촌용수 개발, 농업생산기반 개량, 농지확대 개발, 영농 시설 확충, 수질오염 방지와 수질개선 사업, 토양개선사업 등
- (2)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마을 건설 및 재개발, 마을정비,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사업,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 빈집의 정비,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 농어촌 주택의 개량, 슬레이트의 해체, 제거 및 처리 등
- (3) 농어촌 산업: 농어촌의 특산물, 전통문화, 경관 등 유형, 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 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관련된 산업을 위한 산업
- (4)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주말농원, 농어촌민박사업 등
- (5) 한계농지 등 정비사업: 한계농지를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

이 다섯 분야는 실물 농업에 대한 Hard Ware에 해당하는 농업생명기반 조성사업의 고도화와 농촌, 농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및 보전 등 Soft Ware에 해당하는 농촌환경 시스템의 개선으로 대별할 수 있다.

4) 지역시스템공학의 체계와 발전방향

서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농공학은 Agricultural, Biological, Biomedical Engineering 및 Bioengineering 등으로 발전되고 있으나 서울대학의 경우 전통적 역할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먼저 학과의 미래 비전을 정부의 기본법 체계와 농촌정비법 체계의 의미를 받아들여 농업생명기반조성과 농촌환경시스템의 개선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농업생명기반조성은 농업과 농촌에 대하여 기존의 생산기반과 지역민의 삶의 기반 및 산업기반 등 산업간접자본의 확충을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의 시설과 함께 정보 및 복지시설의 확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농촌환경시스템은 농민이 지역민과 경영인으로 발전하도록 사회적 간접자본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 중요한 사회 환경은 (1) 개인적 삶의 환경, (2) 취미 환경, (3) 지역공동체 환경, (4) 생산 환경, (5) 네트워크 환경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각 경우에 대한 시설과 제도 및 규정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5) 비전의 변화에 따른 교육강화에 대한 기대

현재의 교과목은 두 세대 전의 Agricultural Engineering이 대부분이다. 현재의 과목을 합병 조정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농업생명기반조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생산기반정비와 환경관리 학문에 (1) System 통합기술, (2) 인공지능의 이용, (3) 전천후 및 국제화 기술, (4) 전역관리와 개별관리 기술 등이 보강이 필요하다.

농촌환경시스템과 관련하여 기존의 농촌계획과 환경조절 등에 (1) Bio Informatics, (2) 자료의 축적, (3) 제어계측 기술의 향상, (4) 상황예측과 의사결정, (5) 유비쿼터스 환경, (6) 자동제어와 계측 이론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선진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당연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일어나야 한다. 국제적으로 농과대학은 점차 힘을 잃고 있다. 그러나 관련 산업은 오히려 번창하고 있는 점은 숙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간 세계 총 식량생산은 1조 달러에 달하지만 거래규모는 1,000억 달러 대에 불과하다. 연간 세계 교역량은 50조 달러 정도인데, 이 중 농산 및 식품산업의 국제거래 규모는 9조 달러로 자동차 시장의 3배, 반도체/가전 시장의 8배, 조선/항공 시장의 13배, 콘텐츠 시장의 3배가 넘는 슈퍼시장이다.

우리나라의 농림축산식품산업의 규모는 학자에 따라 GDP 18~28%로 추산하고 있어 국가산업으로 손색이 없다. 다만 농림축산기본법이 농업을 “재배업”으로 축소 고정하고 있고, 학계에서 이 관점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해서 농산업이 2%대에 정체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그럼에도 정부의 미래 비전이 과거의 의식주로부터 미래의 의식주로 발전하려 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에 필요한 기술이 꽂피어 가기를 바란다.

6) 교육개선과 재단에 대한 기대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엄청난 변화에 직면해 있고, 서울대학교는 그 선두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입장이다. 정부의 발표, 대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발전방향, 여론이 전하는 사회의 요구는 학과중심 교육을 학생중심 또는 수요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본보기인 미국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학과별 모집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서울대학교도 초기에 교양과정을 두어 이를 반영하고자 했다는 경험을 되돌려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만약에 수요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는 경우 입학생의 선발은 학부 전체 통합 또는 단대중심으로 통합 등을 생각할 수 있고, 전공교육은 미국의 공립대학과 같이 3학년에 진입하면서 선택하게 하거나 아예 무전공으로 둘 수도 있을 것 같다.

더욱이 저출산 세대가 다가오면서 학생이 줄어드는 경우에 무전공 학생이 농공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얼마일지는 불문가지다. 그간 농공장학재단은 농공학의 발전에 필요한 능력 있는 학생의 확보에 중추적 역할을 해 왔다. 재단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듯이 농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다. 수요중심 교육에서는 자칫 장학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재단은 전공 학생의 확보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세계화된 농업은 해외진출이나 세계 농산업 마켓의 확보와 참여 등 미래지향적인 깊은 충의 기호에 맞기도 하고, 첨단 공학이 적절히 소화해야 되는 분야로 인식을 전환할 수도 있는 점을 백분 활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고,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 깊은 충의 기대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과를 개발하거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도록 해외 유수대학과의 교류 등을 보장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 등이 학생들의 인식 전환에 필요할 것이다.

학교재정에서 이와 같은 투자를 마련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고, 교수님들의 연구비로 충당할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동문제위와 재단의 도움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 재단도 부디 농공학이 세계의 농공학으로 발전하도록 의견도 모으고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1) 들어가며

이 글은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30주년 발간에 있어서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고 칭함)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글을 게재할 필요가 있다는 정하우 고문과 이정재 고문의 의견에 따라 준비한 것이다. 재단설립 이후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장학재단의 발전 방향을 새삼스럽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그럴만한 외부환경의 변화나 내부적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장학재단의 발전 방향 제시는 어렵고 복잡하다. 서울대학교의 발전 방향과 정부의 대학 정책, 농공학과와 재학생의 상황은 물론 미래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농공학과와 농공장학재단의 현황을 둘러보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대학이 당면한 환경변화와 위기 등은 『서울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2022.7.)을 참고하였고 장학재단의 사업성과는 『농공장학재단20년사』를 비롯하여 장학재단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글은 개인의 글이므로 장학재단 발전을 위한 논의의 첫 단추로서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모교의 학과를 학과 분리 이전의 명칭인 ‘농공학과’를 사용하였으며 전공 명칭은 현재 사용하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2) 대학교 현황

대학은 인류가 발전시켜 온 고등교육기관이다. 최초의 대학으로 인정받는 볼로냐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 길드(guild) 형태로 시작되었다. 훔볼트가 1806년에 베를린대학을 설립하기 이전까지 대학에서 철학, 신학, 법학, 의학 등을 중심으로 교육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공학이나 농학 등 실용적 학문과 예술과 체육까지도 포함하여 시민 양성과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였다. 대학은 국가의 경쟁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대학교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급변하고 있다.

선진국 대학들은 과거에 없던 글로벌 이슈 해결에 참여를 요청받고 있다.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지구온난화, 디지털 전환 등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이슈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유엔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 지속가능보고서(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ESG 등 여러 사회적 가치 관련 규범,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며 이는 공공·시장·시민사회 전 영역을 아우른다.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들까지도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확산하고 통합적 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The Times Higher Education은 기준 수월성 위주의 '세계 대학 순위'에 더하여 대학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평가하는 '세계대학 영향력 순위(University Impact Rankings)'를 발표하면서 대학의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변화 가운데 자율성이 높은 선진국의 대학들은 각자의 환경 속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한편, 대학은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그 위치를 위협받고 있다.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인 구글(Google)은 2020년부터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관리, 사용자 경험(UX) 디자인, IT 지원 및 자동화 부문에 대해 구글 커리어 자격증을 제공한다고 밝히면서 구글의 온라인 커리어 자격증은 4년제 대학 졸업장과 같이 취급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이 제공하는 6개월 과정의 온라인 수업을 들은 후 최종시험까지 통과해 수료증을 받으면 150개 구글 협력기업에서 4년제 대학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디지털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대기업도 등장하였다. 2012년에 설립된 코세라(Cousera)는 기업이나 개인, 정부는 물론 대학에도 디지털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에 회원 수가 9,0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높은 교육열 덕분에 빠르게 성장하여, 취학률과 진학률을 보면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1990년 33.2%로 집계된 대학진학률은 빠르게 상승하여, 2005년에 역대 최고치인 82.1%를 기록하고, 이후 줄곧 70~80%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1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가 없는 저출산을 기록하여 합계출산율이 2023년 현재 0.7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합친 입학정원은 2021년 기준으로 47만 3,000명으로서 대학진학률을 고려하면 입학할 학생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 사회는 디지털경제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으나 대학 졸업자와 산업체 인력 수요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첨단분야 융합인재 10만 명을 육성하기 위해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나노 4분야의 인력 수급을 위해 서울대학교가 주관으로 총 7개 대학이 참여하여 전공학과와 무관하게 학생이 참여하는 ‘혁신적 공유대학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2022년 통계에 의하면 전임교원 2,299명, 비전임교원 및 연구원 4,582명, 직원 3,191명, 조교 169명, 학생 4만 2,60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의 관악과 연건, 평창, 시흥에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 대학의 총 예산은 9,410억 원(산학협력재단 제외)으로서 이 중에 정부출연금이 5,380억 원, 등록금이 1,807억 원이다.

서울대학교는 1998년부터 연구중심대학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22년 현재 전체 재학생 4만 2,603명 중에 대학원생이 2만 1,661명으로 4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성을 갖춘 국제화된 연구중심 대학을 향하여 발전하고 있다. 2022년 서울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보고서에서 제시된 첫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전공·학과(부)·단과대학(원) 간 장벽 없애기이다.

서울대학교는 2010년에 법인화하면서 모집단위를 광역화한 자유전공학부가 시도되었다. 입학생은 4학기를 마친 이후 전공을 선택하는데 의학계열과 사범계열을 제외한 서울대학교 내의 어느 학과를 선택하거나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졸업할 수도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혁신적 지식생태계의 융합형 리더를 양성하고자 2024년 3월 첨단융합학부를 설립하고 디지털헬스전공, 융합데이터과학전공, 지속가능기술전공, 차세대지능형반도체전공, 혁신신약전공 5개 전공에 218명을 모집하였다.

3) 농공학과 현황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공학과는 2023년 현재 지역시스템공학전공(농업토목)과 바

이오시스템공학전공(농업기계)으로 각각 다른 학부에 소속되어 있다. 농공학과 교수 수는 지역시스템공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 모두 8명이다. 학부생 정원은 지역시스템공학 18.5명, 바이오시스템공학 18명이고, 대학원 정원은 지역시스템공학이 석사 5명, 박사 8명, 바이오시스템공학이 석사 9명, 박사 3명, 석·박사통합 4명이다. 교수의 숫자는 전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재학생 숫자는 크게 줄었다. 학부 재학생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소위 졸업정원제(1981~1988)가 시행되던 시기로서 전공별로 학부 모집정원 52명, 졸업정원 40명이었다. 대학원 석사과정은 최대로 입학한 시기가 1997년으로서 지역시스템전공 입학생이 12명, 바이오시스템이 18명이었다.

학부생은 학부 단위로 모집되어 1학년 기간은 전공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양과목을 이수하고 30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은 학부 내에서 전공을 배정받아 2학년부터 전공별 교과과정을 이수한다. 전공 배정에서, 지원자가 많은 전공은 정원의 10% 이내에서 더 많은 학생을 받는데 배정된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다음 연도에 전공을 포기하고 재배정 받을 수 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학부생들에게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연합전공 등 제2전공을 권장하고 있다. 바이오시스템공학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이 타 대학의 전공을 제2전공으로 선택한 데 비하여 타 대학의 학생들이 제2전공으로 바이오시스템전공을 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농업생명과학대학 내 타 전공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존재한다.

또한, 학부생이 입학 후 5년 만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학·석사통합과정’이 있으나 농공학과의 경우 지원자가 거의 없다. 농업계 고등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과정도 있지만, 이 역시 지원자가 거의 없다. 한편 2학년을 마친 학생은 전과를 신청할 수 있는데 농공학과에서 지정한 유사학과(예: 공대 기계공학부)로의 전과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공별로 허용 인원은 모집정원의 10~20%까지 다르다. 학부생의 경우 입학 직후에 휴학을 신청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소위 ‘반수’를 위하여 휴학하고 다시 수능을 준비하는 경우다. 대학졸업생의 학사과정 편입은 허용되지만, 농생대 전체에 6명이 입학할 수 있으므로 학사편입에 의한 학부생 충원은 미미하다. 편입이나 대학입시와 별도로, 국내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외국인 학생이나 해외에서 12년 교육을 받은 한국인 학생에 대한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제도가 있으나 기본 조건을 만족하는 이가 많지 않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은 학부생들이 모집 분야에 관심을 두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외 견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5~7개 팀을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해외 농업관련 기관이나 시설 등을 견학할 기회를 제공하며, 졸업논문 작성이나 전공탐색을 위하여 학부연구생

제도를 통하여 경제적인 지원도 제공하며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농업 분야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대학 내부와 외부의 각종 장학금도 있지만, 근로 장학생을 신청할 수도 있다.

대학원의 경우 지역시스템공학은 대학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의 한 전공으로 석·박사과정을 두고 있으나 바이오시스템공학은 대학원 바이오시스템공학과로 분리되어 석·박사과정을 두고 있다. 전공별 대학원 모집정원은 이전 3년간의 지원자 통계 등을 기반으로 농업생명과학대학차원에서 매년 조정한다. 대학원 입시는 매년 2회씩, 학기 말에 시행되며 외국인 유학생은 정원 외로 관리된다.

졸업생들의 진출분야를 농업분야로만 본다면 학부생보다는 대학원생의 전공분야 진출 비율이 훨씬 높다. 학부 졸업생의 진로는 크게 세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농촌진흥청, 기술고시나 변리사와 같은 전문직 분야가 있고 한국농어촌공사나 토목·건축, 기계·전자업체와 같은 산업체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대학원 진학이다. 최근에는 벤처 창업을 하는 학생이 극소수 존재한다. 진출하는 비율은 해마다 변하지만, 최근의 평균적인 동향을 말한다면 전문직과 산업체, 대학원으로 구분할 때 지역시스템전공은 30:40:30이며 바이오시스템전공은 20:40:40 정도다. 대학원 진학의 경우 자과 진학과 타 학과 또는 타대 진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역시 해마다 다르지만 자과대 타과비율이 지역시스템전공은 70:30이며 바이오시스템전공은 40:60 정도다.

농공학과 교수로서 체감하는 위기는 장학재단이 추구하는 ‘인재양성’ 이전에 ‘인재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이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2003년 이래 신입생들은 종합캠퍼스에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이 형성되었고 2005년부터 농업생명과학대학이 6개 학부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전공을 배정받지 않은 신입생에 대한 전공 차원의 관리는 약해졌다. 특히,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거의 2년간 비대면 교육을 하면서 재학생들 간 및 교수와 학생 간 유대가 약해졌다. 개인주의와 경쟁에 익숙한 신세대들은 대학 입학 후 여유를 즐길 틈도 없이 전공과 진로선택에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교수들이 어렵게 여기는 것은 학생들이 농공 분야에서 비전을 찾도록 돋는 것인데 그것은 그들에게 이미 형성되어 있는 농업에 대한 선입관을 바꾸어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신입생들은 전공 교수들이 만날 기회가 거의 없다. 학생지도가 중요한 신입생 시기에 지도할 방법이 제한된 것이다. 이 시기에 전공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

한 학생은 전공과 거리가 먼 교과목을 이수하면서 소위 스펙을 쌓는 데 집중하고 전공 학생들과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 되고 만다. 학부생의 전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간접적이지 만 모교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로 나타난다.

농공학은 그 역할에 대한 위기도 맞고 있다. 농공학의 핵심 기술인 경지정리나 간척지 개간 등은 이미 상당 수준 완성되어 정체되거나 신규 대상지를 선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벼농사는 거의 100%의 기계화율에 도달하여 새로운 농기계에 대한 요구가 낮아졌다. 다만, 시설농업을 자동화하고 정보화하여 편리하게 수익성 있는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농업 또는 스마트팜이 현재 국가적으로 집중 투자를 받는 상황이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국내 식품이나 농산물 시장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농공학 관련 내수 산업의 축소와 전문 인력 수요의 감소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농공학이 미래에도 중요한 학문으로서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하려면 농공학에 관한 비전이 필요하다. 농공학의 발전 방향은 여러 측면에서 발견된다. 농공학의 이론이나 설계기준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인구절벽과 차세대 농업후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 보급과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 우주개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우주농업을 위한 농공학이 필요하며,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작물이나 가축이 아닌 세포배양을 통해 식품을 생산하는 세포농업 시대의 농공학이 필요하다. 강대국 간의 경쟁이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활동 무대를 해외로 넓히려면 국제화된 농공학이 필요하다.

농공학의 국제화는 재학생들의 국제화 역량을 향상하는 한편 해외의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에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하고, 후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꾸준히 늘리고 있으며 2022년 ODA 예산을 전년 대비 12.4% 증가한 4조 425억 원을 책정하였다. ODA사업 중에 농업부문 특히 농공 분야에 대한 수혜국들의 요청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국제농업으로서 농공학에 대한 개념정리와 필요한 학술적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

2022학년도 농공학과의 교과과정은 [표 5-1]과 같다. 1학년 교과목은 교양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공과목은 2학년부터 배우게 된다. 전공과목은 수학(통계학), 전산 및 소프트웨어공학, 기초 공학, 응용 공학, 기초역량 과목으로 구분되는데, 농업경제학 개론이 표준이 수체계에 포함된 이유는 경제학이나 경영학적 지식이 공학도에게도 필요하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은 표준이수체계에 제시된 교과목이 많다. 그 이유는 전

공 내규에 농업생산 기계나 전기·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기계 트랙과 농산가공기계나 식품공정, 바이오센서 등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생물공학 트랙으로 사실상 두 개의 학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전공 모두 공학 프로그램이므로 2~3학년에 수학이나 기초 역학을 배치하고 전공 교과목은 3~4학년에 배치하였다.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의 경우에 ‘응용공학수학 2’와 ‘농촌지리정보시스템 및 원격탐사’는 지역시스템공학전공에서 개설한 것을 들게 함으로써 전공 간 학점교류를 시행하고 있다.

양 전공의 교과목 명칭은 과거에 비하면 길어졌고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포함한 교과목이 늘어났다. 대학의 교과과정은 미래 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에 현재 교과과정이 디지털농업이나 기후변화대응농업, 국제농업, 우주농업이나 세포농업 등을 주도

[표 5-1] 2022학년도 지역시스템공학전공과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의 학부 표준이수체계

학년	지역시스템공학		바이오시스템공학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2	측량학 및 실습 응용공학수학 1 정역학 지역컴퓨터설계	재료역학 및 실험 응용공학수학 2 환경유체역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개론 유기화학 응용해석 1 생물재료역학 식품생화학 1	응용공학수학2 생체분자개론 동역학 유체역학 및 기계 바이오열역학
3	수문학 및 실험 수처리공학 및 실험 응용시설구조공학 토질역학 및 실험	수리학 및 실험 철근콘크리트공학 지역개발관리공학 지역수자원시스템설계 생물환경조절공학 및 실험 지역시스템공학전공학사 논문연구	농업경제학개론 기계요소설계학 생체열물질전달 바이오시스템실험 농업기계분석과설계	통계학개론 및 실험 전기전자응용 및 실험 농업동력 및 트랙터 생체역학 및 실험 정밀농업시스템공학
4	관개배수공학 및 실험 지역자원보전공학 및 실습 지역시스템공학 지역시스템설계 및 실험 지역시스템공학전공학 사논문연구	지역기반조성공학및설계 그린지역계획론 농촌지리정보시스템 및 원 격탐사	생체물성공학 및 실험 바이오시스템제어 및 실 험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생물환경시스템설계 바이오시스템공학연급 농업인공지능개론	식품공정학 바이오센서, 생체계측 및 실험 수학후공정공학및실험 농촌지리정보시스템 및 원격탐사 바이오시스템공학세미나
계	25과목		31과목(2과목은 지역시스템 개설)	

출처:『2022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하는 데 필요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졸업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해결형 인재’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지금의 이수체계로 함양할 수 있는지를 전공 내부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량 강화는 교과목명이나 교육 콘텐츠보다는 교육 방법의 개선에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에 적합한 교육여건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4) 장학재단 장학사업의 현황

장학재단은 후배를 사랑하는 동문들의 사랑의 결정체다. 장학재단의 기본자산은 설립된 1990년 5,000만 원에서 출발하여 2013년 102억 원에 도달할 때까지 빠르게 축적되었으며 2022년에는 117억 1,591만 원을 기록하였다. 장학재단이 성장하는 데에는 116억 원이라는 거액을 희사하신 윤대섭 동문의 공로가 지대하다.

장학재단은 정관이나 사업내용을 감독관청의 통제를 받으므로 법률적으로 보면 친목 단체인 농공동창회보다 위상이 확고하며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된다. 따라서 농공동창회가 장학재단의 운영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1992년(이상호 동창회장)부터 농공동창회 회칙과 장학재단의 정관을 수정하여 동창회장이 장학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다. 1997년(유근학 동창회장)부터 장학생선발 절차를 모교 재직 교수에게 일임하는 결정을 한 바 있으며, 2002년(정하우 동창회장)부터 학과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2004년(허유만 동창회장)부터 학과지원금을 정관에 명시하였고 장학생 선정에서 대학원생의 비중을 늘리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남상일 동창회장)부터 재학생들의 대상으로 하는 ‘농공창의경진대회’를 지원하여 장학재단의 사업이 더욱 풍성하게 되었다.

장학재단은 기금마련에 헌신하신 동문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였다. 1990년(이희영 동창회장)에 수원의 농공학관 앞에 기념 식수와 현판식을 거행하고, 윤대섭 동문에게 감사의 표시로 2010년(김경욱 동창회장)에 관악캠퍼스 상록관 3220호실을 윤대섭 강의실로 현정하였으며, 2012년(이정재 동창회장)에는 윤대섭 동문을 장학재단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하였다. 또한 2013년(이정재 동창회장)부터 장학재단에 기여한 농공동창회 대선배를 예우하는 대선배의 날을 장학재단이 지원하기 시작했다. 장학재단은 재단 설립 이전 농공동창회의 장학사업과 재단의 발전과정을 정리하여 2021년(김경욱 동창회장)에 『농공장학재단20년사』 발간을 지원하였고, 2022년(김성민 동창회장)에 『농공장학재단30년사』 발간을 결정하였다.

장학재단의 장학생은 1968년에 1명이 선발되었으나 재단이 설립된 1990년에는 12명을

선발하였고, 계속된 기금확충을 통하여 2022년에는 총 79명으로 누적 장학생 수는 1,293명에 달한다. 학과 단위의 장학재단으로서 120억 원에 가까운 기금과 55년의 역사를 가지고 1,293명에서 장학금을 지원한 곳은 물론 해외에서도 그 예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66년에 농공동창회를 설립하시고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오신 이창구 명예교수님과 장학기금 모금에 참여하신 모든 동문께 감사드린다.

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은 1992년 3월 25일 제정된 장학생 선발 규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 조문이 수정되었으나 기본적인 틀에는 큰 변화가 없이 시행되고 있다. 장학생은 학과장이 추천하되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학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로서 직전 학년 2개 학기의 평균성적이 4.3 기준으로 3.0(Bo) 이상으로 제한된다. 이 규칙에 따르면 장학금 수혜 기간에 장기간 휴학하는 경우나 장학금을 타 장학재단에서 중복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장학생은 1990년까지는 학부 재학생을 선정하였으나 1991년부터 석사과정을 포함하고 1996년부터는 박사과정까지 포함하여 농공학과 학부와 대학원 재학생 전체로 확대되었다.

성적을 기준으로 장학생 자격을 정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비와 생활비를 얻기 위해 성적을 관리하지 못한 학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성적에 대하여 예외적 경우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학생의 사정을 잘 파악하는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의견서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인정해 주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장학재단은 실질적으로 농공학과 재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재단이 설립된 1990년 당시만 하더라도 장학금은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대학에서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교외에서 제공되는 장학금이 매우 미비하였으므로 농공장학재단의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1997년 IMF사태(외환위기)를 맞아온 국민이 경제적 고통을 당할 때 농공장학금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재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게 하였다. 또한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원까지 늘린 결과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는 데에 큰 효과를 얻고 있다.

장학금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농공장학금의 위상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교내장학금의 규모가 이전보다 많이 늘어났으며 거의 모든 전공에서 외부장학금이 교내장학금보다 액수가 크다. 그만큼 외부장학금의 종류가 다양해진 것이다. [표 5-2]는 2022년도 농업생명과 학대학 주요 전공의 학부생에게 지급된 장학금 현황이다.

농공학과는 농공장학금이 있으므로 장학금이 많은 학과이지만 표에서 보듯이 1인당 장

[표 5-2] 2022학년 농업생명과학대학 주요 학과 학부 장학금 현황

(단위: 1,000원)

	학기	재학생 수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합계	1인당장학금
지역시스템공학	1	53	47,700	62,146 (32,100)	109,845	2,073
	2	62	50,228	69,344 (33,082)	119,572	1,929
바이오시스템 공학	1	57	58,398	79,645 (8,925)	138,042	2,422
	2	58	56,534	86,761 (8,925)	143,294	2,471
식품생명공학	1	64	57,679	93,104	150,783	2,356
	2	63	71,019	63,794	134,813	2,140
동물생명공학	1	80	61,203	79,255	140,458	1,756
	2	83	87,358	75,263	162,621	1,959
원예생명공학	1	58	46,502	51,075	97,576	1,682
	2	69	60,050	48,969	109,018	1,580
작물생명과학	1	76	65,486	81,147	146,633	1,929
	2	66	80,141	62,838	142,978	2,166
환경재료과학	1	61	64,469	75,200	139,669	2,290
	2	54	66,609	68,196	134,805	2,496
산림환경학	1	70	81,484	97,746	179,230	2,560
	2	70	77,219	92,606	169,824	2,426

출처: 서울대학교 통계연보(2022)

※ () 안의 숫자는 장학재단에서 학부생에게 지급한 금액

학금을 보면 산림환경학전공이 가장 많다. [표 5-2]에 제시된 팔호 안의 숫자는 농공동창회에서 학부생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학원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포함하면 2022년도 농공시스템장학재단의 장학금은 지역시스템공학전공이 1억 4,284만 원이고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은 1억 4,235만 원으로서 양 전공 모두 대학원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이 학부생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크다.

5) 장학재단의 발전방향

장학재단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추진해야 할 시급한 일은 우수한 학생유치다. 입학생 숫자가 줄고 모집단위가 광역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 문제를 논하려면 대학에 입학을 앞둔 고교 졸업생들의 농업 또는 농공학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일반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과정에서 농업에 대해 배울 기회가 거의 없으며 농공학은 더욱 그럴 것이다. 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은 뉴스나 부모들의 선입관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진로 탐색을 위하여 독서를 하고 정보를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농업에 대한 사명감이나 도전의식을 일깨우고 보람을 알려 주는 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서울대학교의 모집단위 광역화를 예단할 수는 없으나, 그 방향은 정해진 것과 다름이 없다. 단과대학의 벽을 허물고 자유전공처럼 모집하거나, 융합학부를 중심으로 하는 학부대학을 설립하는 방법과 단과대학 내에서 전공/학과의 벽을 제거하고 전공 없이 모집하는 경우 또는 이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경우를 농공학과나 장학재단은 대비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장학재단이 추구해야 할 발전계획을 [표 5-3]과 같이 제시한다. 장학재단의 목표별로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이다.

장학재단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목표는 인재 유치다. 인재 유치 없이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재 유치는 장학재단이나 농공학과 차원에서 접근하기에 어려운 일로서, 사회의 보편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홍보하여 입학생을 확보하는 것이다. 입학생들이 대학과 학과를 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사항은 해당 분야의 보편적인 소득 수준이나 대학 졸업까지 공부의 난이도, 취업의 난이도와 직업의 안전성 등이 우선일 것이다. 인재 유치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고 모집단위가 광역화되거나 무전공 입학이 늘어날수록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우수인재 유치 방안 중에는 국내 인재만이 아니라 해외 인재도 고려할 수 있는데 해외 인재는 학부생보다는 대학원생 유치가 현실성이 높다. 단, 대학원에 우수학생을 유치하는데에는 농공학과 재직 교수들의 판단이 중요할 것이다. 이것은 유치할 명분이나 실질적 지원책 확보와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재단의 사업으로 대중적 교양서적 개발을 지원하거나 농공학개론 교재개발을 지원하는 학술활동지원 사업을 제안한다. 대중 교양서적을 발행하는 경우 독자층은 진로를 정해야 하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들은 남의

[표 5-3]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의 발전방향

목표		추진 전략	프로젝트
목표 1	우수인재 유치	농업/농공학 인식 개선	대중적 교양서적 개발 농공학 개론 개발
목표 2	효과적 인재양성	동창회/장학재단 참여 활성화	학부생 참여 활성화 대학원생 참여 활성화 당연직 재단이사 추가
		제도 개선	학부 장학생 선발기준 대학원 선발기준 유학생 참여 활성화와 장학금 지원
		동기부여와 지원	학술동아리 지원 해외 교류 지원 인턴 경력 지원 동문의 교육참여 지원 동창회/장학재단 명칭 장학기금 모금 활성화
목표 3	교육혁신 지원	교과과정 개발 교과목 및 교재 개발 학부 통합 추진 연구비 지원	교과과정 개발 교과목 및 교재 개발 학부 통합 추진 연구비 지원

시선이나 가치관보다 자기 자신의 관심과 편리, 가치관을 중요시하므로 ‘포미(for me)’족이라고도 한다. 이들에게 농업 또는 농공학의 중요성을 홍보하려면, 이런 세대의 특징을 잘 알고 설득할 수 있는 저술가가 필요하다.

대학 교재를 발행하는 경우 대상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광역으로 모집되어 전공을 정해야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본인의 전공을 충실히 파악하기 위해 농공학 분야를 알고 싶어 하는 타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교재를 각각 개발하는 것이 어렵다면 하나의 교재로 겸할 수도 있다.

전공선택을 위한 교재는 학생들이 전공 선택할 때 고려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한다. 즉, 농공학 분야의 중요성과 비전을 제시하고, 농공분야의 생태계(대학, 연구소, 관련 기업 등)를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설명하고, 실제 해당 분야에서 연구하는 영역을 구체적 사례로 설명하고, 이러한 영역의 산업 현황과 취업 가능성을 소개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교재에서 제시되는 데이터는 인터넷과 하이퍼링크되어 학생들 스스로 농

공학을 탐색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타 학과생을 위한 농공학 교재는 농·림·축으로 대표되는 농업생산과 농공학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분야별로 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대표적 주제를 실습이나 견학, 세미나 등을 중심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스마트농업이 농기계나 농업 시설(온실과 축사)을 중심으로 농림축의 재배 및 사양기술, 식품공학의 가공과 유통기술, 환경 관리기술 등이 융복합되고 있으며 전 국민에게 익숙하므로 스마트농업의 비전을 중심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의 두 번째 목표는 효과적 인재양성으로서 농공학과와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장학재단은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장학생들이 농공분야의 인재로 활약하고, 장학금에 대한 감사함을 훗날 장학재단에 표시하기를 바라고 있다. 과거 장학금이 부족하던 시기에 장학금은 경제 여건이 열악한 학생이 졸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경제적 발전을 이룬 오늘날 장학금의 의미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농공장학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그만큼 약해진 것이다. 농공장학금 외에도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 다양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농공장학금을 학과장이 추천하는 외부장학금 중 하나로만 여긴다면 최악의 상황이다. 이 점에서 현재와 같이 등록금만을 지원하는 장학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인재양성의 추진 전략으로서 우선 동창회/장학재단의 참여 활성화를 제시한다. 그 이유는 장학재단이 의도하는 인재, 즉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려면, 농공학과의 선배들이 어떤 목적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어떻게 키워 왔는지가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야 한다. 장학금을 필요한 사람 또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 제도의 개선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재학생들이 졸업 후 농공 분야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동기부여를 촉발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장학재단이나 동창회에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의 참여가 활성화되었는지 진단하여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동창회와 장학재단의 운영방식에 있어서 개선점을 찾고 실행하여야 한다. 재학 중인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이 동창회나 장학재단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일부 학생만 동창회 행사에 행사진행 보조자로서만 참여하는 것은 아닐까?

농공동창회는 농공학과 학부 졸업생을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졸업 기수별로 간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동창회칙은 대학원에 1년 이상 재적한 경우 준회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들을 대표할 간사직이 없다. 현재 장학생 중

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졸업 후 농공 분야로 진출하는 대학원생들이 동창회의 관리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농공학과를 위하여 평생을 일하는 재직 교수 중에 타 학부 출신 교수들의 동창회 참여기회 보장도 재고해야 한다. 동창회칙에서 명예 회원으로 인정하지만, 동창회나 장학재단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동창회의 중요한 행사인 “농공의 날” 진행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농공동창회 준비는 간사장이 주도하다 보니 간사장의 소속 전공 학생들이 행사 보조에 동원되는 것이 현실이다.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낮출 수는 있지만, 특정 전공이 동창회 준비를 주도하지 않고, 전공 간에 담당업무를 분담하고 교체하면서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이 재학생과 졸업생들 간의 유대를 강화할 것이다. 동창회 또는 장학재단이 농공학과 양 전공에 존재하는 학부 학생회와 대학원 원우회의 활동을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이 단체들이 동창회의 준비를 주도하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장학재단의 이사 구성도 변화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장학 사업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려면 재학생을 관리하는 농공학과와 장학재단의 긴밀한 의견 교환이 필요한데 이것을 제도화하려면 농공학과의 전공 주임들이 장학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동창회와 장학재단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회칙이나 정관개정이 필요하므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인재양성의 추진 전략으로서 장학생 선발제도를 비롯한 제도 개선을 제시한다. 장학금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과 장학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는 것이다. 학부생의 경우에 학점이 선정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고 대학원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한, 외부장학금이나 교내장학금이 많다 보니, 농공장학금이 등록금 중 부족액을 충당하는 형식으로 지급된다. 외부장학금 중에는 등록금 외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도 있음을 참고해 보아야 한다. 또한, 취득한 성적이 낮은 학생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학생의 생활여건을 파악하여 학업에 전력할 수 있도록 돋는 방법이 필요하다. 대학원생도 균등분배보다는 차등을 둔다면 장학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방안 중에는 농공학과의 연구실별로 일정액을 배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교수별 연구 분야가 사회적 주목이 낮은 경우에 대학원생 지원자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농공학과의 교육을 국제화시키려면 해외 인재를 유치하여야 하는데 해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필요하다. 서울대학교 차원의 해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있으나 경쟁률이 너무 높으므로,

농공학 분야의 국제적 인재육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즉 외국인 학생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는 것이다. 장학생 선발기준을 학부와 대학원별로 재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 인재양성의 추진 전략으로서 동기부여와 지원을 제시한다. 이것은 인재 양성이전에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기초한 것이며 농공학과의 입학생이라 하더라도 농공분야의 인재로 배출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다시 말해 입학생들이 전공을 정한 이후에 전공 분야 밖에서 미래의 진로를 구상하지 않고 전공 분야로 진출하게 하자는 것이다. 학술동아리 지원이나 해외 교류 지원, 인턴 경력 지원은 그 예로서 제시된 것이다. 학술동아리의 경우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이지만 실제로 교과목에서 배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전공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고 진로를 선택하는 데도 유익하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추진하는 해외 견학이나 탐방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국제교류를 지원하거나 우수 학사 논문 제출자나 국내외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국제교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선배들이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직장에서 인턴 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 선배들이 모교 재학생들의 수업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나 교과목을 개발하여야 한다. 단, 재학생들에 대한 모든 지원은 학과를 통하여 시행제안서를 접수하고 장학재단이 직접 심의하거나 농공동창회가 심의하고 장학재단이 지원하는 형태가 될 때 상호유대 강화와 우수 인재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장학재단이 지원하는 창의경진대회는 평가자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경진대회 참가자들은 이를 통하여 동창회에 참석도 하고 선배들과 만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동기부여 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장학재단이 장학금 지급이 아닌 동기부여 지원에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는가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학재단 정관에 있는 목적사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 목적사업에 동기부여 지원책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장학재단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법률적으로 크게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학재단의 목적을 일부 수정하거나 더 나아가 장학재단의 명칭에서 장학이라는 용어 대신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장학재단 기금 모금에 있어 이자로 운영되는 장학사업과 별개로 재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모금을 추진하여 기금으로 축적하지 않고 원금을 직접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농공시스템 공학장학재단이 추가해야 할 세 번째 목표는 교육 혁신 지원이다. 이미 정관에서도 언급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환경에서 부응하는 실질적인 교육 혁신이다. 이 목표

는 장학재단이 주체가 되어 추진할 수 없으므로 농공학과 재직 교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안하는 방향은 교과과정 개발과 교과목 개발, 모집단위 광역화, 연구비 지원 등이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공학과의 상위기관인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연관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접근할 사항이다.

학부 통합은 농공학과를 구성하는 지역시스템공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의 통합 또는 과거 시행되었던 생물자원공학부와 같이 공학을 다루는 전공들이 하나의 학부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장학재단으로서 양 전공의 통합을 당연히 선호하겠으나 서울대학교나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입장에서는 후자가 더 현실적인 방법이다. 농공학과가 교육단위로서 상황변화에 대처할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학문의 시대별 위상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모집단위는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농공학과 각 전공의 규모는 한 학년이 17~18명 정도로 매우 작다. 입학생 감소가 예상되고 무전공 학부대학 등으로 정원이 빼앗기는 경우를 가정할 때에, 학생을 유치하는 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농공학과 설립 이래, 두 전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학생들의 지원이 시기별로 등락이 있었음을 이미 경험하였다.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한 뿌리인 지역시스템공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은 미래 닥쳐오는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모집단위 광역화를 통하여 통합을 시도해야 한다.

학부 통합은 시간이 걸리지만, 통합의 명분이나 비전 제시 및 그에 따른 학부 소속 전공의 교과과정과 교과목이 준비되어야 한다. 새로운 교과목 개발은 모집단위 광역화 또는 학부 통합 이전에라도 전공별로 준비할 여지가 있으므로 차분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교과과정 개발을 재직 교수별로 담당 교과목을 할당하고 단순히 취합해서는 안 된다. 비전과 현실적 고민 위에 교과과정이 재설계되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 외에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장학재단은 농공학과가 농업생명과학대학 내에서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농업생명과학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비 지원은 제한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 정책이나 연구비 공여기관에서 지원하지 않거나 연구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국제 농업으로서 농공학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될 수 있다. 장학재단 입장에서 연구비 지원을 예산에 미리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차년도 예산 확정 이전에 농공학과로부터 각종 프로젝트를 접수하고 재단이 사회에서 심의를 거친다면 가능할 것이다.

6) 마감하며

장학재단의 발전 방향을 정리하면,

첫째, 장학재단의 목표는 인재양성이지만, 환경변화로 인해 인재 유치가 중요해졌다. 따라서 장학금 지급을 지속하되, 재학생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여 농공 분야에 헌신할 동기를 부여하자.

둘째. 장학재단과 농공학과, 농공동창회의 유기적 협력기반을 시스템화하고, 농공학과에 속한 양 전공은 재통합을 추구하는 한편 농공학의 비전을 개발하고 수월한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농공학 인재를 양성하자.

장학재단이 선제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자고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농공동창회와 장학재단을 이끌고 헌신하신 동문 여러분의 덕분이다. 동창회와 장학재단의 역사 정리에 앞장서신 정하우 고문께 감사드리며 장학재단과 농공학과의 발전을 기원한다.

부록 1

농공시스템공학 장학재단의 회고담

특별대담*

윤대섭(농공49) 장학재단 명예이사장



2022년 2월 24일 성보화학 집무실에서

구순의 연세가 지난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지난 2009년 12월 30일에 최진용 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동창회보』 63호의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코너에 소개된 후 어느새 10여 년이 지났군요.

지난 2009년 인터뷰 당시엔 팔순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농공학과 골프모임인 화홍회

* 본 원고는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보』 99호(2022년 5월 1일)에 실린 커버스토리 “모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성보회장 윤대섭”의 인터뷰 내용을 편집한 내용임(인터뷰어: 김옥순(원예84))



(2017년 4월 25일) 농공동창 골프모임 '화홍회', 윤대섭 회장(오른쪽에서 네 번째) 미수 기념 골프모임

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골프를 치고, 비닐하우스로 만든 낚시터에서 낚시도 하며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만, 이제는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고, 코로나와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피해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농대에 들어오실 때는 농화학과로 입학하셨는데 전공을 농공학과로 바꾸신 동기와 학창 생활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황해도 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삼포(인삼밭)도 농사도 하시고 정미소도 하시고 하니 자연스럽게 농대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농화학과로 갔는데 주로 실험실에서 실험만 해서 운동하고 들판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제 성격과 맞지 않아 2학년 올라가면서 농공학과로 바꾸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유도, 검도, 기계체조 등 운동을 잘하고 또 좋아했었습니다. 대학시절에 대학별 배구시합 결승에 오를 정도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캠퍼스는 학생운동, 친탁/반탁, 국내안 반대 등 정치적 격동기에 동맹휴업으로 어수선했습니다. 그러던 중 3학기째에 6·25사변이 났고, 그 혼란 중에 문관으로 특채 돼 병참사령부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1953년에 복학해 2년 후 졸

업했어요. 중전 후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이창구 교수님의 추천으로 장학금을 받아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열심히 읽고, 다 못 읽은 책은 그 당시는 대출이 어려웠는데도 간청해서 대출받아 모두 읽었습니다. 측량기 등 실습장비도 빌려다가 익숙하게 다루게 될 때까지 반복 연습했습니다. 교수님들이 저의 실력을 보시고 실습생들에게 시범을 보여 주게 했습니다. 교수의 강의교재를 미리 받아 출판(가리방)으로 긁은 프린트교재를 매번 급우들에게 나눠 주기도 했습니다.

졸업 후 사업가로 출발하게 된 당시의 주요 활동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출발은 보성전문(고려대 전신)상과를 졸업한 장형 윤장섭 회장(1922년생)과 함께였습니다. 저는 성보화학의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고향이 개성인지라 6.25 전쟁 전에 인민군이 개성시내를 점령했던 소위 5·4사건, 7·25사건의 혼란을 피해 먼저 서울에 온 형님이 섬유 사업을 시작했고, 55년부터는 서울 소공동에 자리 잡고 각종 수입물자의 무역대행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956년 6월에 성보실업을 창업했지요. 물자가 귀했던 때라 1960~70년대 호황 까지 주로 비철금속류, 종이 펠프류, 잉여농산물 자금에 의한 곡물류, 각종 화공약품, 의약품, 비료, 농약 등 만물상 수입이었습니다. 1950년대 이후 성보실업은 동해 오징어를 500만 불 어치 수출하고, 남해안 김을 500만 불 어치 수출하는 등 80년대까지 호황을 누렸습니다. 당시 비료, 농약취급은 농림부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성보실업이 농약수입을 하다가 직접 농약제조업을 하기로 하고 당시 보광동 주택가에 있던 서울농약(1961년 설립)과 부천의 대풍신약을 인수하여 1964년 서울농약(주)로 새롭게 발족했습니다. 서울농약(주)은 1976년에 자본금 11억 원으로 기업공개 및 주식 상장한 후 시약, 조제 등 종합화학을 목적으로 1990년 1월에 현재의 성보화학(주)으로 상호를 바꿨습니다.

성보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농대를 졸업한 윤대섭 동문님의 사업 방안들은 무엇이었나요?

당시 농약이라면 천막공장에서 모래에다 가루약을 섞어 봉지로 파는 정도였는데, 농약관리법의 기준을 만들 때 서울농약의 매뉴얼을 참고할 정도로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서울농약은 서울 보광동 주택가에 있어서 공해에 따른 민원도 많았지만, 농약 입제코팅을 위해 최적의 깨알 같은 모래가 필수였기에 한강변을 살살이 조사해 고른 곳이 국방대학원 뒤인 난지도, 현재의 고양시 덕은리 부지였습니다. 난지도는 1977~1993년까지 쓰레기 매립장

이었지만 당시는 아름다운 섬이었고 모래가 지천이라 몇십만 톤을 공장마당에 산처럼 쌓아놓고 연간 2~3만 톤을 썼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과의 부지매입 줄다리기, 저지대 부지조성 매립공사, 달구지길 확장 진입로공사, 수색역에서 공장까지 겨울철 언 땅에 전신주를 세우던 일, 공업용수개발, 군사제한구역 인허가 문제 등 우여곡절과 고생담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신축한 서울농약 덕분에 지역이 개발되고 덕은리와 수색일대 주민들은 일자리를 얻는 등 혜택도 컼습니다. 그러나 원시적 봉지농약 수준에서 서울농약의 합성화학공장에서 생산된 원료로 입제, 유제, 분제, 액제 등의 근대적 농약제품이 나오자 각광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히트 친 상품이 ‘다이아톤 입제’와 ‘네오아소진’ 등입니다. 1973년에 합성한 다이아톤은 벼멸구, 이화명나방 등에 효능이 뛰어난 데다 값도 저렴해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까지 수도농약의 30%를 점유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농약을 국산화 한다면서 수입농약원제는 면세가 되고 국내 합성농약은 세금을 물던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농수산담당 윤근환 동문이 박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해서 국내 합성제품도 면세가 되는 등 서울농약의 다이아톤합성은 농약업계에 공헌도 했습니다. 기술적인 성과로는 다이아톤 합성 시 미량요소인 염소발생장치가 필수적인데 일본에서 수입하던 것을 일본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연구 개발해 국산화를 한 것입니다. 서울농약 직원들은 일본에서 수입해 쓰던 ‘교반기(반응조)’라는 설비와 모래 코팅설비 등을 일본이나 다른 농약사들이 탐낼 정도로 훌륭하게 신규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성보화학(서울농약)은 1970년대 후반 공업단지인 반월 신도시에 제2공장을 지으면서 시설현대화로 도약기를 맞았습니다. 인건비 상승과 노동력부족, 농약회사 간의 치열한 경쟁을 자동화를 통한 시설현대화로 극복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산최적화와 매출최대화’를 목표한 제2공장은 당시 정치상황과 맞물려 공장부지 확보나 정밀화학 설비 등 신축이전에 따른 예상치 못한 애로가 컼습니다. 그럼에도 1985년 완공된 반월 제2공장은 최신설비에다 안전관리, 폐수처리 환경모범 업체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1979년에 성보학원을 설립해 육영사업과 인재양성에 힘쓰시고, 거액의 장학금도 내셨는데 누구에게도 내색하거나 자랑하지 않으셨지요. 모교 후배들이나 동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데 모교 농공장학재단 육성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서울 신림동에 성보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성보장학재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개성 출신으로 동향의 선배와 친지의 권유로 문화재를 수집하게 되었는데 광복 직후

와 6·25 동란의 혼란기에 쏟아져 나온 많은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 소실되어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수집·보존해야겠다는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문화보존과 고미술진흥을 위해 1981년에 형 윤장섭 회장이 성보문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사업이 성공하면서 학창 시절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고마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공동창회 장학재단 등록을 하는데 5,000만 원이 되어야지 장학재단 등록을 받아 주는 겁니다. 2,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선 냈습니다. 그리하여 농공장학재단은 1990년 3월 28일 설립되었습니다. 5,000만 원 기본자금이 있으니 그때는 이자의 8할을 목적사업에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자의 8할을 쓰려니까 그땐 장학금을 꽤 많이 줄 수 있었습니다. 한 10명 줬던 것 같습니다. 전액장학금 주는데 그때는 등록금이 7만 원도 안 되던 때였어요. 그런데 점차 이자율은 자꾸 줄어들고 등록금은 기하급수로 늘어나니 나중엔 두세 명밖에 못 주었죠. 회비나 운영비 쓸 돈 없으니까 이사끼리 밥값은 각자가 내는 걸로 하고 이사들끼리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밥값을 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재단이 더 활성화되고 좋아질지 매달 모여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키워 온 겁니다. 그 후 점차 여기저기서 재단에 기부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제가 농공장학재단에 그동안 기부한 금액이 약 120억 정도 되서 농공학과는 학부에서 박사까지 전원이 학비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하고 연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서울대 총동창회 발전기금을 통해서도 모교농생대 후배들을 위해 거액을 기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농공장학재단을 통한 기부가 소문이 나서 농생대 골프모임인 대지회에서도, 농공과 외 교수들이 농공과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농생대 학생들에게도 장학금 혜택이 돌아가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총 약 339억 원을 서울대 발전기금에 기부하고 과실금은 농생대로 지정하여 모교 장학사업을 함께 해 오고 있습니다. 1989~1993년에는 모교의 교육연구재단에 이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공동창회 부회장, 1986년부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 부회장 및 상임부회장으로 동창회 발전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참고로 윤대섭 명예이사장님은 그 간의 장학금 기부 등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6년 06월 28일에 서울대학교 발전공로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동문이나 후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느덧 농공장학재단이 설립된 지 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창구 교수님께서 마



(2014. 4. 11.) 윤대섭 동문 기념식수 행사, 앞줄 가운데
꽃다발을 든 윤대섭 동문



윤대섭 동문 기념식수 행사 포석

련해 준 장학금으로 학업을 마쳤습니다. 오늘날 그 고마움을 서울대학교발전기금과 농공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 출연으로 후배들에게 되돌려 주었듯, 장학금을 받아 공부했던 후배분들도 앞으로 모교 재학생들을 잊지 말고 모교 재학생들을 내리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교는 더욱 탄탄하게 발전해 갈 것이라 봅니다. 모쪼록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시길 바라며 동문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뵙습니다.



윤대섭 동문의
가족사진

※ 윤대섭 명예이사장님은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에 117억여 원(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30년 사 본문 표 3-5 농공장학기금 기부내역 참조, 주식의 현금화 과정으로 인해 금액의 차이가 다소 발생될 수 있음)에 더하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구재단에 장학기금(일동 또는 동원장학기금)으로 414억여 원을 회사하셨다.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구재단 기부 내역과 장학금 수혜 통계는 다음의 표에 제시하였다.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구재단 연도별 기부 내역

(단위: 원)

기부일자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액
1987.05.28.	10,000,000	2018.12.21.	5,819,428,000
2013.12.19.	1,866,981,500	2019.12.20.	3,582,840,000
2014.12.23.	3,022,500,000	2020.12.21.	4,143,150,000
2015.12.23.	3,392,600,000	2021.12.20.	4,200,391,900
2016.12.22.	2,760,910,000	2022.12.20.	7,288,969,660
2017.12.20.	5,369,192,500	기부금 총 합계	41,456,963,560

연도별 농공장학금과 동원장학금 지급현황(2014~2023년 기준)

(단위: 1,000원)

연도	장학금명		전체 장학금 합계액
	농공장학금	동원장학금	
2014	354,464	21,200	375,664
2015	337,028	71,820	408,848
2016	310,000	158,345	468,345
2017	295,000	309,264	604,264
2018	317,025	453,750	770,775
2019	282,975	676,739	962,714
2020	280,000	885,386	1,165,386
2021	268,611	650,795	919,406
2022	287,457	913,797	1,201,254
2023	306,953	508,763	815,716
합계	3,039,513	4,649,849	7,689,372

윤대섭 명예이사장 기여분: 농공장학금 약 98%, 동원장학금 약 12.7%(농공 양전공 수혜분)

농공동창회 역대회장 회고담

제5대 장학재단 이사장 홍승만(농공57)

지금 팔월달이 되었는데, 내 생일이 팔월이란 말이에요. 이정재 선생을 앞에 두고도 몰라봤는데 동안이라서 그런 모양이에요. 나도 젊었을 땐 동안이었는데, 이젠 지팡이 친구가 생겼네요.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면도하면 얼굴에 상처가 나서, 바람 좀 쏘이고 얼굴에 마사지를 하고 나서 면도를 해요.

내가 농공장학재단을 만든 지 한참 된 거 같은데, 내년이면 재단이 서른 살이 되고 30년사를 발간한다니 감회가 새로워요. 내가 처음 맡았을 때가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래도 기억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처음 동창회장이라고 들어갔더니 (당시는 장학재단과 동창회의 구분이 안 된 시기여서) 장학기금을 어떻게 쓰고, 동창회비를 어떻게 쓰는지 체계가 전혀 없었어요. 한번은 회장 맡고 초창기에 있었던 일인데, 동창회 기금에 교육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었는데, 이건 나중에 신청하면 반환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당시 돈으로 사백오십만 원인가 했으니 꽤 큰 금액이었지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결국 신청 기한을 놓쳐 돌려받질 못했어요. 그래서 동창회 운영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때 농공학과 교수들과 논의해서, 장학기금과 동창회의 장부를 구분하도록 회계 기준을 세우고, 기금 운영을 구분한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리고 동창회장으로 와 보니 동창회 기금도 많지 않았는데, 이걸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내가 윤대섭 회장님께 좀 도와 달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윤 회장님이 1자로 시작하는 돈을 내겠다 하셔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1자는 안 된다고 했더니 첫 해에 4억인가를 주신 거예요. 그 어른이 내 응석어린 요청을 잘 받아 주셨는데, 거기에 대고 차마 교육청에 돈 날린 소리는 못했어요. 당시에 동창회 장학기금이 열악해서 학생 두셋에게 겨우 주는 수준이었는데, 절반 정도는 줘야지 않겠냐 생각했던 거였지요. 농공장학금 외에도 정부에서 주는 여러 장학금이 있었지만, 그 농공장학금이 학생들이 흡족해할 만한 수준은 안 됐어요. 또 기부자에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하여간 장학기금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내가 나서서 정리하겠다고 설치니 덜 좋아 하는 분들도 있었지요. 그래도 미래를 생각해서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는 매주 출근하다시피 동창회에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정재 박사가 동창회 간사였는데 얘를 많이 먹었지요.

동창회 장학기금을 늘리려고 동창회 명부에 있는 전국에 있는 동창들에게 두세 번 간곡하게 편지로 뿐렸어요. 장학금을 기부해 달라는 내용이었지요. 그런데 답신이 온 분이 딱 한 분 있었어요. 경상도 산청에 사시고 농업진흥공사에도 근무하신 송아무개 선배님 한 분이 부모님 병간호 차 고향에 가 계셨는데 답신하신 거였어요. 그분 말씀이 ‘동창회의 존재를 몰랐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시골에서 편지를 받고 알게 되니 너무 반갑고 해서 얼마를 보냅니다’하면서 그때 돈으로 오만 원인가를 동봉해서 보내주신 게 아직 기억에 나네요. 그때 그 편지를 초안한 사람이 박승우 교수였는데, 손 편지가 아니라 컴퓨터에 쓰는 것이 외국 다녀온 사람이라 다르더군요.

옛날 동창회 이야기하다 보니 동문과 얹힌 일화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지금은 부처 이름이 다 바뀌었지만 예전에 건설부는 농림부에서 나와서 생긴 거란 말이예요. 그 당시에 하구둑이고 방조제 공사 준공할 때 건설부가 농진을 애지간히 애를 먹였어요. 그때 내가 농진에서 금강 하구둑 준공처리를 맡았는데, 방조제 위치가 하천이니 해안이니 하는 미묘한 문제가 있었어요. 하구둑을 당시의 하천구역 종점에서 팔백칠십 미터 정도 바다 쪽으로 나간 곳에 만들었는데, 이게 준공허가 받는데 문제 소지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 입단속하고 건설부와 협의하려 갔더니 마침 동문 선배인 최찬식 씨가 지방관리청장으로 와 있는 거예요. 마침이다 싶어 내가 준공서류를 이것저것 준비해 가서 “동창 좋은 게 뭐니까”라고 하면서 준공 허가를 내달라고 속된 말로 막무가내로 들이댔지요. 그분이 “허허 이것 봐라, 생짜로 허가서류 만들어 주게 생겼네” 하시면서도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도와주신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하도 고마워서 아직도 이름이 생생한데 당시 지방청 담당과장이었던 김달

충 씨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전주에 어느 식당에서 저녁을 대접해 드렸지요. 그러면서 저녁 자리에서 직원들에게는 함구시켰던 방조제의 위치가 하천구역 밖에 있다고 넘지시 알려 주었는데 청장님이 바로 알아차리시고는 도면에서 하천종점을 방조제를 포함하게 1km 내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상부상조(?)가 된 거지요. 아무튼 지금은 역사가 되었지만 동창이 좋다는 게 뭔지, 특히 우리 농공동문들의 끈끈한 유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지요.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지만 한 가지 덧붙이면, 동창회 장학기금을 많이 늘어서 좋았는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두 개로 나눠진 전공에 배분하는데 말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공이 갈라지기 전에는 동문 대다수가 농업토목에 몸담고 있다 보니 장학기금에 기여한 사람들들도 대부분 토목 쪽이었어요. 그래서 기계 쪽 교수님들께, 당시에 고참 교수가 정창주 교수였는데, 상황이 이러니 기계 쪽에서도 기여를 조금 해야 이야기가 되지 않겠나 했더니 백만 원을 기부하더라구요. 그래서 동창기금 임원으로 정창주 교수, 독일 다녀온 고학균 교수 해서 기계 쪽 교수 대여섯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앞서 말한 최천식 선배가 칠백만 원을 내면서 임원에 기계 쪽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며 불만이 나오고 하는데 내가 귀를 꽉 닫고 그대로 밀어 붙였지요. 그때 그럴 수 있었던 게 장학기금의 대부분을 기여한 윤대섭 회장님이 옆에서 “술이나 한 잔 따려! (그 양반이 맥주를 좋하시거든!) 이 사람아, 내가 6·25 전쟁 때 부산 가서 장학금 받았어. 그런데 토목이면 어떻고, 기계면 어때? 대한민국 청년이면 되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두 번 다시 말 나오지 않게 일단락 지었던 기억이 나네요.

내가 회장을 마친 후에도 농공학이 농토목과 농기계로 나뉘지면서 동창회나 장학재단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오늘의 모습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내가 재수가 좋았던 건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동창회를 막 만들어 가던 시절이라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또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만큼 농공학에 대한 애착과 보람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거 같아요. 다행히도 우리 장학재단이 크게 성장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수준의 장학금을 줄 수 있다고 무엇보다 기쁜 마음이에요. 장래에도 농공장학재단이 더욱 발전해서 장학금을 매개로 동문들이 더 많이 교류하고 또 받은 만큼 배풀 수 있는 동문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면서 옛 생각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내가 농공장학재단을 이사장을 맡은 지 까마득한데 내년에 벌써 30년이라니 가는 세월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더구나 먼저 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안 계시고 내가 고참이라니 당황스럽기도 하구요. 그래도 나는 바로 전임이신 흥승만 이사장님께서 농공장학재단과 동창회의 체계를 정비하고 기반을 잘 닦아 놓으셔서 한결 수월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내가 오디오 북을 듣는데, 나이가 드니 눈이 잘 안보이니깐 셀록홈즈 같은 소설을 소리로 듣는 거지요. 이게 추리 소설이다 보니 사건 전개가 빠른데, 이야기 흐름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돼요. 그럴 때 술 한 잔 들이키면 긴장이 딱 풀어지는 것이 편안해지지요. 오래된 일이라 가물가물한데 기억도 더듬을 겸 소맥 한잔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농업기반공사에서 새만금 사업을 담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새까만 지프차를 운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사업단에 농림부나 어디서 손님이 오면 현장을 안내하기에 좋았지요. 당시만 해도 새까만 지프차는 별난 이미지가 있었는데, 재미있는 일화 하나 소개하지요. 그 때 내가 살던 동네에 하수도가 자주 탈이 나서 아주 골칫거리였어요. 한번은 출장에서 돌아오는데 통장이 하수구 공사한다고 토목업자 데려와서 견적을 내고 동네 돈 걷는 거예요. 나도 비용을 부담하고 고쳤는데, 이게 글쎄 얼마 안 가서 또 말썽이 난 거예요. 그래 사고현장에 구청직원하고 동네 반장이 업자 하나를 데려와서 또 돈 계산을 하고 있길래 내가 “괜히 업자 끼어서 돈 받고 그러지 말고, 구청에서 직접 업자 선정해서 제대로 하셔라” 하고는 까만 차로 돌아왔지요. 이게 소문이 나서 통장이 자전거에 쌀 싣고 가다가도 날 보면 내려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땐 까만 지프차가 한 수 먹고 들어가던 시절이거든요. 공사하는 사람들도 덩달아 터진 하수구도 금방 고치고, 그 뒤로는 동네 사람들도 나만 보면 인사를 해요. 그렇게 지내다가 동네에 또 무슨 일이 생겼는데, 동네 사람이 나한테 전화로 민원을 넣는 거예요. 안기부 정도는 될 줄 알고 줄을 댈 요량이었던 거죠. 그래 어쩔 수 없이 사실 이렇다 했더니 공기업 과장 나부랭이가 까만 차 타고 다니면 다냐고 노발대발인 거예요. 내 실체가 공개적으로 들통 났죠. 아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뭐라도 안 하면 험한 꼴 당할 거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때가 아시안 게임 때고 마침 선거가 있었는데, 마침 동네 국회의원이 미국서 공부하고 온 화성 사람인데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 전화해서 동네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표 받으려면 이거 빨리 해결하라고 했더니 다행히 바로 처리하데요. 물론 그 담부턴 지프차 효과가 영 사라져 버렸지만요.

내가 동창회장 할 때 기억은 그리 많지는 않은데 전임이신 홍 회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셔서 그래도 편하긴 했지만, 그때도 동창회 기금 운영 관련해서 임원에 농기계 쪽 인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당시는 조성인 교수가 간사를 했는데, 다른 일들 많아서였는지 오히려 이중용 교수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았어요. 임원회의를 하면 농기계 쪽 최고참 교수님이 와서 동창회 기금에 공헌한 거에 비해서 발언도 많으시고 동창회를 뒤흔들고 해서 애먹은 기억이 있어요. 또 한 번 임원이 되면 임기를 오랫동안 하려는 문제도 있었어요. 멀리 보면 당장 혹은 좀 먹더라도 이 문제는 매듭짓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 임원진을 정비했었지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게 ‘대선배의 날’을 자리매김 한 일이예요. 이 건 사실 홍 회장님의 더 많이 기여하셨는데, 이게 원래는 ‘노선배의 날’로 행해지고 있었어요. 모임 이름이 어감도 그렇고 해서 ‘대선배의 날’로 바꾸고, 그때까지 비정기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모처에 모여 밥 먹곤 하던 거였죠.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하루 날 잡아서 견학도 하고 해 보자고 의기투합이 된 거죠. 그래 첫 해 모임을 새만금에 근무하던 장정수 씨가 많이 도와줘서 새만금 현장도 견학하고 식사도 거나하게 성황리에 마무리했죠. 그런데 첫 해는 홍보도 덜 되고 말도 좀 있고 해서 버스 한 대 정도였는데, 이듬해부턴 소문이 나서 버스 두 대도 모자랄 정도로 인기가 좋아졌죠. 그때는 기관이나 회사에 동문들이 찬조가 잘 돼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매년 동창회하고 하면 늘 참석하지만 예전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때는 어릴 때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한 세대라 돈 벌 생각보다는 명예나 이런 걸 중요하다고 배웠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법 낭만이 있던 시절이었던 거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먹고 사는 게 많이 꽉꽉해져서 안쓰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출세하고 명예도 얻고 돈도 버는 게 중요하겠지만 동문들 간에 인정으로 대하는 그런 낭만적인 면모도 좀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 때는 동창회장도 서로 하겠다고 선거운동도 하고, 임원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았지요. 동창회나 장학기금이 동문들 사이에 정이 오가는 유대의 중심인데 이게 갈수록 힘이 빠져 가니 고민이긴 해요. 동창회장도 다들 부담스러워 하고 임원임기도 짧게 하려는 분위기가 안타깝죠.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다들 힘들겠지만 동창회가 중심을 잡아서 동문들의 구심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장학 기금 이야기하다 보니 나도 학교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은 기억이 없네요. 내가 공

부를 열심히 안 해서라기보단 우리 땐 이런 장학금이 많지 않았어요. 풍족한 시절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땐 농공의 사회적 역할이 명확했고 그래서 낭만적일 수 있었던 게 같아요. 다행히 동문들의 십시일반에 윤대섭 회장님의 많이 도와주셔서 동창회 기금도 몰라보게 커졌고, 또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니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윤대섭 회장님이 하신 말씀을 끝으로 회고에 갈음할까 합니다. “내가 학교에다가 낸 다음부턴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와” 하시네요. 아무쪼록 동문님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제10대 장학재단 이사장 박승우(농공67)

“감사하는 마음”, 농공장학재단의 시작이었다

나는 2008년 10월 11일 관악캠퍼스 모교에서 개최된 농공의날, 농공동창회장으로 선임되고, 이듬해 3월부터 2011년 1월 가까이 제10대 농공장학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우리 학과 졸업생이나 재학생 모두 농공장학재단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사실 특정대학, 학과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재단은 과히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지급 사례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농공동창회로부터 장학기금으로부터 시작하여 장학재단에 이르기까지 내가 경험한 일을 소개하고, 몇 가지 단상을 정리해 본다.

농공학과의 장학기금의 시발점은 1970년 정년하신 고 이창구(李昌九) 교수님께서 퇴직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셨던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고인께서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전신인 수원농림전문학교 농업토목과를 졸업한 원로이셨다. 교수님은 집안사정이 어려운 재학생을 많은 배려를 해 주셨다. 내가 현직에 근무할 때 교수님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해결했다는 일화를 졸업생들의 회고를 듣기도 했다. 지금도 고인의 흥상을 학과에서 보전하고 그분의 도움을 기리고 있음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 한다.

농공동창회에서는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의 모금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1970년대에는 장학기금의 모금을 기별로 배정하고, 졸업식 후에 농공동창회 가입비를 각출하는 수준으로 출발하였다. 내가 대학원 재학시절인 1973~1977년 무렵, 농공동창회에서는 졸업생 기

별로 일정한 목표액을 배정하고, 기별 간사의 책임하에 모금했다. 나는 장학기금의 수금을 위해 동문들이 근무하는 직장을 찾아가곤 했다. 당시에는 은행에 일일이 입금해야 했기에 수금액을 간수해 와서 은행에 넣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농공장학재단의 설립과 발전은 1949년 입학하신 윤대섭(尹大燮) 선배님께서 수차례에 걸쳐 거금을 출연하신 이후 가능하였다. 사실 저금리 상황에서 장학 기금을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윤 선배님께서 사재를 털어서 거금을 출연해 주신 것은 은행 이자를 이용하여 학과 후배들께 장학금을 지급해 주려면 원금이 많아야 하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선배님께서는 장학기금으로부터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다.

농공장학재단 이사회는 연 2~3차례 정기 모임을 갖고, 모교 교수회의(농토목, 농기계전공)에서 추천한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 선정 심의를 하였다. 그렇게 선정된 장학생은 재단으로부터 등록금 전액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이 재단법인의 회계는 매년 농공의날에 회계업무 보고회를 가지며, 관련 교육청(양천구 교육청 소관)의 감사를 받는 등 투명하게 운영했다. 이러한 절차는 지금까지 지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공장학재단이 지금의 큰 성과를 갖게 된 것은 윤대섭 선배님의 모교에 대한 애정과 사랑에 기인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윤 선배님은 농공장학재단에 기여한 것 이외에도 그 분 가족들이 출연한 장학재단도 지원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신의 학창시절은 6·25동란 기간 중에 학업을 계속하셨기에 남다른 애착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결국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후배들의 장학사업을 지원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농공장학재단의 또 다른 기부자들은 우리 학과 동문들이다. 그분들도 성금을 내고, 기부하였고, 그리고 재단의 발전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런 선행의 뒤에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한다. 모교 은사이신 이창구 교수님께서 배풀어 주신 배려에 감사하고, 농공학과 학부생이고, 대학원생이기에 받은 장학금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농공장학재단을 키워 가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농공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시절, 재단에 사재를 출연해 주신 윤대섭 선배님께 모교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감사의 뜻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했었다. 학과 교수님들과 상의해서 우리 학과 세미나실을 “윤대섭강의실”로 명명하도록 했다. 그분의 양력을 담은 현판을 제작하여, 윤대섭 선배님과 재단 이사님들, 모교 교수임, 학부와 대학원



윤대섭 강의실의 현판과
설치 모습

재학생들을 모시고 현판 증정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서는 특별한 이벤트도 있었다. 농공장학생들이 모두 단정한 차림으로 참가하여 장학재단이사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재학생 대표는 준비한 ‘감사의 글’을 낭독했다.

현판식과 후배 장학생들의 감사하는 행사는 참석자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 일은 우리 학과와 동창회, 농공장학재단의 출연자 여러분께 전해지는 감사의 마음이었으리라. 감사의 마음이 이어지면, 작게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주위 친지들, 크게는 우리 사회가 더 풍요롭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 믿고 있다.

제11대 장학재단 이사장 김경욱(농공68)

『서울대학교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30년사』 발간을 축하하며

2010년 10월 9일 제23대 농공동창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당시 당연직으로 되어 있던 농공장학재단의 이사장을 겸직하게 되었다. 1993~1994년 농공동창회장으로 이장호 회장이 취임하면서 당시 농공학과 재직 교수가 농공동창회와 농공장학재단의 실무를 보았던 관례에 따라 한때 그 일을 한 적이 있었으니 농공장학재단과는 17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그사이 농공장학재단의 기본 재산은 50여 억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이사장직에서 퇴임한

2012년에는 93여 억 원에 이르렀다. 많은 농공 동문들의 기부와 성보실업 윤대섭 회장님의 헌신적인 기부 덕분이 아닌가 한다.

2년간 농공장학재단의 일을 맡으면서 그동안 관례로 이어졌던 몇 가지 업무를 조정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농공장학재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였다. 그때까지 농공장학재단은 매년 학기마다 장학금 지원 금액과 수혜자 수를 농공 분야인 농업토목 전공과 농업기계 전공에 통보하고, 장학금 수혜자는 10월 농공의 날 동창회 행사에서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를 학생들은 농공장학재단에 장학금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농공장학재단은 장학금 수혜 학생뿐만 학생 부모도 그 기쁨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학부모께 축하의 편지를 내도록 하였으며, 장학금 수여는 별도의 행사로서 학과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이러한 미담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대학 외부에는 한 학과의 동문들이 설립하여 이룩한 농공장학재단과 윤대섭 회장님의 숭고한 뜻을 전하고자 동창회의 표지 인물, 중앙 일간지의 ‘~이 만난 사람’ 등의 대상 인물로 추진하였으나 윤 회장께서는 누구에게도 이를 내색하거나 자랑하지 말라 하시고, 이름이 나오면 소액 기부자들만 민망해할 것이니 일체 홍보를 못 하게 하시니 참으로 깊은 뜻에 민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전에도 몇 차례 논의가 있었던 윤대섭 회장님의 명예이사장 추대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법적인 명예이사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농공장학재단은 부득이 비법정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하여 기록으로 남겨 두었다.

농공장학재단의 재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그동안 장학재단의 실무를 담당했던 학과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 업무가 증가하면서 장학재단의 업무를 전담할 전문성과 전임 직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당장은 적절한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채용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뒤 장학재단과 농공동창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게 되었으니 다행한 일이다.

농공장학재단은 설립된 지 벌써 30년이 흘렀다. 그사이 서울대학교 농공학 분야의 많은 학생들은 장학금으로 공부하였고, 졸업 후에도 각 분야에서 훌륭한 인재로 일하고 있으니 장학재단의 자랑과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학문 분야의 통합과 융합에 따라 농공장학재단도 그 이름이 변하면서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으로 변한 듯하다. 차제에 장학재단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보다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의 개발과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 지금처럼 장학금 지급 대상을 두 전공의 학사 및 대학원 과정의 학생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농공학 분야를 전공할 우수한 신입생까지 확대하여 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국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장학재단의 기본 정신과 뜻이 아닌가 한다. 세계에는 아직 우수한 한국의 농업토목과 농업기계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곳이 많다.

이사장 재임 시 20년사를 발간하였는데 어느 새 10년이 지났다. 늦었지만 농공시스템 공학장학재단 30년사의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30년사가 모든 서울대학교 농공학 동문에게 즐겁고 보람된 추억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제12대 장학재단 이사장 이정재(농공 69)

큰바위 얼굴 윤대섭 회장님

미국은 신생 독립국에서 민주국가가 되도록 기초를 닦은 네 대통령을 기억하고, 그 이념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러시모어산에 큰바위 얼굴로 새겼다. 그러나 미국작가 나다니엘 호오손은 그의 소설에서 큰바위 얼굴은 지위가 높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을 돋고 믿을 수 있으며 정의로운 이웃이라고 쓴다.

매달 한 번 이석우 선배님과 함께 윤대섭 회장님을 찾아뵙고 있다. 코비드가 유행하기 전에는 같이 점심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론 여의치 않다. 특히 회장님께서 편찮으시거나 해서 거동도 힘드시면 몹시 걱정을 했었는데, 근래에는 눈에 띄게 회복이 되고 계셔서 한층 마음이 놓인다.

1997년 즈음 동창회 총무 겸 재단의 간사로 재단 살림을 맡은 적이 있었다. 현재의 재단과 달리 당시는 재단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아서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당시 교수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여러 업무에 정신이 없었던 차에 이 시기를 놓치게 됐고, 이사회에 불려가 회장님께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다. 그 이후로는 회장님을 보면 마치 호랑이 같았던 아버님을 뵙는 것 같아 멀찍이 피하고는 했었다.

세월이 좀 지나서 동창회장도 맡고 재단 이사장도 맡고 하면서 자주 회장님을 뵙는 기회가 생겼다. 이상하게도 자꾸 별수록 겉으로는 꼬장꼬장 하시지만 품이 넓은 분임을 알게 되었다. 정년은퇴를 전후로 동창회와 관련이 멀어 지면서 별 기회가 없었는데, 이석우 선배님의 부름을 받아 회장님께 문안을 드리게 된 것이다.

회장님과 이석우 선배님, 그리고 나는 10년 터울이다.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내게는

10년, 20년 후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 주시는 분들이라 언제나 소중하다. 우리의 얘기 소재는 정해진 게 없지만 세상이 하도 복잡하니까 얘깃거리가 떨어질 날은 없다.

이번에 재단 30년사를 정리하는 기회가 있었다. 지난 20년사는 정하우 선생님께서 아주 매끈하게 정리해 주셔서 초기에 재단이 정립되기까지와 학과의 변천에 따른 장학사업의 변화가 일목요연하다. 그래서 이번 30년사에 포함될 내용이 20년사 이후의 행정 처리를 주로 하게 되면 뭔지 부족할 것 같아 그간 장학사업의 참여자들의 광범위한 소감이나 포부 및 성공담을 담았으면 했는데, 너무 조급한 기일 때문에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게 되었다.

10년사를 정리하는 일이 개선이 되었으면 해서 역사를 편찬하는 것과 같이 매년 조금씩 이라도 자료를 축적한 사초를 만들어 두었다가 해당되는 연차에 일괄하여 정리하고 편찬하면 좋겠다고 이사회와 회장님께 말씀 드렸다. 이렇게 되면 동문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이 될 수 있어, 오래두고 읽고 회고할 수 있는 연사가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혹시 10년사의 정리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도록 회장님을 뵙 때 자료를 모았으면 좋겠다 싶어 뵙 때마다 오고 간 얘기를 대강 적어 보았다.

윤 회장님께서는 개성의 정미소를 운영하는 맥에서 둘째로 태어나셔서 유년기는 대략 무난하게 지내신 것 같았다. 당시 윤 회장님 맥에서 운영하던 정미소는 50마력이나 되는 원동기가 있었고, 작업 라인도 벼와 쟁반 그리고 수수를 동시에 도정할 수 있도록 세 라인이 설치된 만큼 인동에서 제일 컸다고 하셨다. 그럼에도 일본의 산미정책에 휩쓸려 쟁반과 수수로 연명하셨다고 하니 그 참상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우리나라가 전화로 휩싸인 6·25는 윤 회장님께는 현실이었고, 극복해야 할 시련이었다. 6·25때에 대학 2학년이였는데, 우선 몸을 피했다가 9·28 수복 후 학교에 가니 학교는 모두 불타고 없었다고 한다. 할 수 없이 직원 집에서 기숙하다 방학을 맞아 귀향하게 됐다. 어찌어찌해 도강증을 구해서 이북이 고향인 친구들을 귀향시킨 말씀을 하신다. 전세가 불리해져 후퇴하는 국군의 식량을 도정해 주기도 하면서 지냈는데, 결국 1·4 후퇴를 맞게 되었다.

개성역의 동창 친구가 마지막 기관차가 남아 있으니 서두르라는 얘기를 전해 주셨다 하신다. 개성택에는 팔순의 조부모님과 회갑을 맞으신 부모님이 계셨으나 부모님께서 “조부모님을 모셔야 하니 너희들이나 가거라” 하셔서 이미 남한에 계시는 형님을 찾아 형수님을 모시고 서울로 오게 되었고, 네 분을 영영 다시 뵙지 못하시게 됐다.

당시 윤회장님의 형님이 부산에 계신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형수님과 부산을 가려는

데, 다행히 서울역에 아는 분이 있어 미군이 운영하는 기차로 부산에 가게 되었다. 타항에서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이 형님의 사업을 1년 동안 돋게 되었다.

그 후 학교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학과장님은 이창구 선생님이셨다. 이창구 선생님께서는 학생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시고 전국의 동문이나 관계기관에 졸업생을 취직시키신 분이다. 당시에 남영희 선배님 같은 분이 개량과장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부탁이 쉬웠다고 하신다. 특히 기억나는 분이 경남 개량과장 이수걸 선배님이다.

부산에서 피란살이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한 학기 수업료를 내고 나니 아무래도 학업을 지속할 형편이 되지 않아 이창구 선생님께 자퇴를 말씀 드렸더니 “너 같은 사람이 대학을 안 다니면 누가 다니냐” 하시면서 장학금도 마련해 주시고, 용돈자리도 마련해 주셨다. 이때의 감사한 마음이 농공장학재단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되셨단다.

윤 회장님께서 학교생활을 할 때 교수님들께서 교재를 만드시거나 판서를 하실 일을 맡기시면 등사를 해 드렸다고 하신다. 이렇게 일거리를 구하고 이창구 선생님의 도움으로 학교를 마치게 되었다.

학교 졸업여행으로 김제곤 동문과 같이한 남도여행도 좋았다고 기억하신다. 이창구 선생님의 배려로 경남 일대를 방문하게 됐는데, 경남도 개량과장께서 업무용 차량을 내주셨단다. 당시는 차량을 타고 여행하는 것 자체가 특권이었던 시절이어서 모든 이가 좋은 대우를 해 주셨다고 한다. 중간에 들른 공사현장에서 기성고 문제로 도와 현장 측에 이견이 있었는데, 현장을 측량해서 대략 일치하는 숫자를 제시했더니 문제가 풀리게 되었고, 모두가 좋아했다고 회상하신다.

졸업 후에 처음 진출한 사업은 일양냉장이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냉장회사는 단열처리가 가장 큰 난제다. 지금은 2인치 스티로폼 패널을 세 겹 또는 다섯 겹을 쓰지만 당시는 코르크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리저리 수소문을 하니 심종섭 선배께서 농림부 산림국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담당 과장님과 계장님 모두 동문이셨다. 찾아뵙고 필요성과 타당성을 말씀드리니 굴참나무에서 30톤의 코르크를 채취하는 허가서를 만들어 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고 하신다.

윤 회장님께서는 사업에서 가장 큰 성취를 이룬 때로 광석과 수산물 수출, 그리고 냉동창고 등 창고업을 하던 대원무역 시절로 생각하시는 듯하다. 말씀 중에 이때의 이야기가 특히 많고, 그때마다 그리운 눈빛이 역력하셨다. 아마 짊은 폐기로 개척의 길을 걷던 때문이라리라. 그중에 의미가 있는 몇 가지 일화를 추려 보았다.

먼저 일본에서 수입하던 냉동펌프를 제작하신 일화는 우리나라 초기 기술 발전사를 보는 뜻하다. 일본 공장을 방문해서 외양을 눈대중으로 익혀 오신 뒤 국내에서 주물과 판금을 통해 제작하셨는데, 후에 그 설계도를 관련 기관들에게 전해서 종래 수입하던 냉동펌프를 자급하게 됐다고 하신다.

우리도 처음 대학에 입학해서 교재를 구하지 못해 등사판을 구하기도 하고, 선배가 후배에게 물려주기도 하면서 학문을 익혀 왔다. 외국에 유학을 나갔던 사람 등은 심심치 않게 저작권을 침해한 나쁜 이로 오해를 받으면서도 오늘날 기술 한국을 이루지 않았는가? 당시의 외국서적 값이 지나치게 비싸서, 싱가포르에서 덕용으로 출판된 소프트커버 책을 쓰던 일이나, 그나마도 몇 손을 걸쳐 물려 쓰던 일이 생각난다.

다음으로 재미있게 소개해 주시던 일이 공업용 다이아몬드 수입이다.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유리칼 제작의 필수품이어서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인천 판유리 공장(동아산업)에 납품을 할 수 있었다고 하신다. 그러시면서 성냥 한갑의 공업용 다이아몬드 값이 얼마일지 생각해 보았느냐고 물으신다. 치기 어린 중고등학교 때 “홍콩에서 라이타 돌 한 가마를 수입했으니 알아 모시라”고 해서 웃기던 코미디언 서영춘의 재담이 생각난다.

여러 말씀 중에도 코끝이 찡한 사연은 스텐실이다. 윤 회장님께서 학업을 마치는 데는 등사기와 스텐실이 큰 몫을 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무역을 하면서도 수익이 상당했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종전 후 20여 년이 지나고 필자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도 대부분의 간행물이 스텐실을 썼으니 꽤 오랫동안 사업거리가 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한다.

윤 회장님이 종이 수입을 하면서 사업이 가장 크게 번창하게 되었다고 하신다. 당시는 수입을 하려면 수출을 통해 달러가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달러를 확보하려고 많은 일을 하셨다고 하신다. 당연히 당시의 수출할 수 있는 것은 농수산물이 거의 전부라 서남해안을 두루 도시면서 적당한 농수산물을 일본으로 수출하셨다. 광석도 팔고, 해조류인 톳을 쪄서 말려 변질이 되지 않도록 하기도 하고, 미역을 말리거나 염장해서 수출할 때 감태로 색을 내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온갖 생각을 다 하셨단다. 앞서 얘기한 냉동창고나 냉동펌프 등 사업이 이런 농수산물 무역과 관계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렇게 확보된 달러로 여러 가지 무역을 하셨는데, 신문지 수입으로 세 배가 넘는 수익을 얻어 확고한 기반을 다지셨다 하신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헐벗은 산을 생각하면 펄프를 만들 길이 없었을 것이다. 마치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서 우리가 겪는 형편을 생각해 보면 쉽게 짐작이 간다. 이 밖에 우리나라에서 얻기 어려운 타이어공장이나 재생타이어 등 사

업도 구상은 했었으나 원료의 공급이나 품질을 예상하기 어려워 포기한 얘기도 하시면서 “고생이 많고 힘들었어” 그러신다.

윤 회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마치 삼국지처럼 재미있고 변화가 많지만 곳곳에 스승에 대한 은혜와 동문의 정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절실히 스며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당신이 어려우실 때 도움을 주신 이창구 선생님의 일화를 말씀하실 때는 같은 직업을 가진 내가 한없이 부끄러워지곤 한다. 옛말에 혼자되는 효자는 없다는 말이 있다. 당연히 자식이 노력해야 효자가 되지만, 부모도 항상 칭찬을 하셔야 한다는 뜻이다. 이창구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으로도 물론 훌륭하시지만,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칭송하는 제자를 두신 것이 정말 부럽다.

“오늘날 이렇게 훌륭하게 기업을 일구시고, 학교에 큰 도움을 주신 동력이 무엇입니까?”라고 여쭤더니, “기술이 완성될 때의 성취감이지.”라고 하신다.

회장님께서는 오랫동안 기업을 하시면서 한 번도 실패를 겪으신 적이 없는 것으로 이름이 있으시다. 그래서 “기업을 하시면서 실패 없이 지금의 성과를 내신 데 무슨 묘수가 있습니까?”하고 여쭈니 “규정과 법을 지킨다는 것을 신념으로 삼은 덕이라”고 하신다.

성취감과 정의, 이 말씀이야말로 젊은 세대가 가슴에 심어야 할 사상이라 믿는다. 교과서가 아닌 삶에서 이런 평범한 진리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큰바위 열굴이 아닐까?

1960년대 농과대학은 심훈 선배의 “상록수 정신”이 살아 있었다. 선배를 따라 야학도하고, 봉사도 하고, 농업발전을 얘기하곤 했지만, 산업이 발달되지 못해 졸업 후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더욱이 나는 ROTC를 지원하였으므로 졸업 후 군인이 되기로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학 후반은 그저 암울한 기억이 많다. 그런 중에도 신관의 사각잔디에서 열리는 동창회 날만은 가슴 두근거리며 기다렸다. 그 당시 동창회는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모이셔서 우리의 앞날을 얘기해 주시는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즈음의 동창회에서는 “후배를 위해 기금을 모으자”거나 “언젠가는 우리 전공에 진학하는 모든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 보자”와 같은 말씀들이 있었고, 여러 난관을 거쳐 오늘날 자랑스러운 기금을 확보하게 되었다. 몇 푼 되지는 않지만 나도 그 대열에 합류하여 한손 거들기도 했다. 그러나 윤대섭 회장님의 참여가 없었다면 그야말로 찻잔 속의 태풍에 머무르고 말았을 것이다.

농과대학은 수원에 자리 잡은 1904년에서 꼭 100년이 되던 해인 2003년에 관악캠퍼스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꼭 10년 후인 2013년에 말 그대로 “농공학 전공 재학생 전부에게 장

학금을 줄 수 있게” 되었다. 40여 년 전에 동문들이 모여서 다짐한 것을 이룬 것이다. 물론 이렇게 이끌어 온 은사님들과 선후배의 피땀이 거름이 되었지만 윤대섭 회장님의 학교사랑, 동문 사랑과 베품의 정신이 아니었다면 어찌 가능했을까 싶다.

세밀이라 연말 정산에 이른 때 윤 회장님께 문안을 드리게 되었다. 그래도 백억 가까운 장학금을 대학에 지원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다. “학교에 기부하니 재산이 더 많이 불게 되네.”

사람과 금수를 구분하는 것은 오직 사랑뿐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진심으로 학교와 후배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없이 어찌 사재를 터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으며, 어찌 사람으로 그런 결과가 당연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

선후배와 회장님의 배려로 어렵게 학업을 마친 동문이 많다. 학교는 이런 사실을 기리기 위해 학과에 기부자와 수혜자의 명패를 붙여 놓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당연히 많은 동문들이 성공가도를 걷고 있고, 동창회 날이나 동기 모임에서 영웅담이 많다. 윤 회장님께서 몸소 실천하시는 동문애와 인연의 소중함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재생산되도록 많은 동문이 재단활동에 참여하고, 또 그 결과가 미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선순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더불어, 내 마음의 큰바위얼굴이신 윤대섭 회장님의 건강이 마냥 좋아지시면 좋겠다.

제13대 장학재단 이사장 장세권(농기계 70)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설립 30주년을 보내며

1990년에 2명을 시작으로 30년간 1,7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114억 원의 기본재산을 조성하여 서울대 학과단위 최고의 장학재단으로 성장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만들고 그동안 가꾸어 오신 동문 선후배님들과 기부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농공동창회 부회장을 맡은 기간(2013~2014)에 농공장학재단의 이사로 선임되었고 26대 농공동창회장으로 선출되어 2014년 10월부터 규정에 따라 농공장학재단의 이사장을 2년간 겸임하였습니다.

농공학과 농업기계전공(현. 바이오시스템공학)이 처음 생긴 1970년도 신입생 중 대학원으로 바로 진학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이유는 모두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몇 명은 사회 생활 중에 뒤늦게 대학원에 진학해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힘겹게 학비를 대주시는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빨리 취직을 해서 대학 뒷바라지에 기울어진 집안 경제를 도와야 하는 절박한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당시에는 대학 졸업하고 군대 마친 후 대학원 가서 몇 년을 더 보내는 것은 부모의 등을 휙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으니 요즘 기준으로는 상상이 되지 않을 것 입니다. 자식을 대학에 보내는 자체가 매우 힘들어 대학진학률이 10% 수준에 불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모두가 대체로 비슷한 여건에서 학교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공부도 잘했고 졸업하고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하여 누구보다 먼저 임원이 된 우리 동기가 재학 중 경제문제로 학업을 중단할 지경에서 젊은 은사님의 사재로 마련한 학비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가 중요한 학창시절의 위기에서 그분의 학비 지원 덕분에 순조롭게 졸업해서 훌륭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 다행이었지만 만약 그 시절에 좋은 장학제도의 도움을 받아 대학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면 더 큰 인재가 되어 사회에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1990년도에 농공과 대선배님들이 시작한 장학사업이 지금의 기본재산 114억 원의 기금으로 성장한 데는 다들 아시는 대로 윤대섭(49학번) 명예이사장님이 평생 농약사업으로 키운 기업의 주식을 포함한 막대한 출연금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2015년 전후는 전례가 없는 저금리시대로 예금이자를 기금의 운영수익으로 하는 대부분의 장학기금이 1.5~1.8%의 저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우리는 기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업주식에서 매년 5% 수준의 배당을 받은 덕분에 많은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장학재원이 많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만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는 늘 어려운 논쟁 대상입니다. 당연히 인재양성과 학문연구에 기여한다는 정관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재양성을 위하여 변하지 않는 원칙은

첫째, 능력은 있으나 돈이 없어 공부를 하기 어려운 학생과

둘째, 훌륭한 학문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뛰어난 학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서울대생은 가난한 집안의 자녀가 많았고 국립대라 등록금이 싸서 오게 됐다는 학생이 많았으며 그렇게 들어와서 어렵게 졸업을 하고 사회의 지도자로 성장함으로써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되곤 했다지만 요즈음의 서울대에는 가난한 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사

교육에 많은 비용을 들일 수 없는 가난한 집안 출신은 입학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워졌고 예전에 비해 평균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출신이 늘어나면서 부잣집 자제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들을 찾아내 지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다음이 문제인데, 서울대는 각종 외부 장학금이 많아 혜택을 받은 상당수 학생들 외의 나머지 다수에게 본 장학금을 나누어 주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장학금을 받게 되어 아무래도 장학금에 대한 고마움이나 자부심이 희박해지는데 여유 있는 학생들까지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 과연 좋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래의 소수 엘리트를 키우는 측면에서는 우수장학생은 등록금 전액에 생활 보조금까지 지급하여 학업에만 전념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학부생이 몇 년간 장학금을 수령하고 정작 졸업 후에는 의학이나 법학대학원으로 가는 경우와 타 대학 출신이 많은 대학원 생에 학부기반성향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정도를 정하는 문제는 장학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일입니다.

최근 정부는 학령인구절벽위기를 대비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융복합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과·학부의무규정을 70년 만에 폐지하여 학생선택권을 확대하는 법령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필요한 조치이긴 하겠지만 대학의 교육환경에 엄청난 변화와 파장을 초래하리라 예상됩니다. 1994년 학생선택권확대를 명분으로 학부제가 도입되어 초래된 일부 학과들의 모집난으로 인해 존폐위기를 겪게 되고 농공학과도 토목전공은 지역시스템, 기계전공은 바이오시스템공학부로 나뉘어 전혀 엉뚱한 학과와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00년대를 전후로 졸업 후 오랜만에 모교 행사에 참여한 동문들은 전혀 생소한 학과명칭에 어리둥절하며 낯설어했고 교수님들은 환경변화에 따른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동문들과의 연대감을 지키려고 애쓰던 기억이 납니다.

25년도 입시부터 대학 자율로 무(無)학과 또는 무(無)전공선택이 가능해져 실질적으로 학부제가 폐지되면 학생들의 전공선택 또는 수강선택 과정에서 학과별로 전방위 학내경쟁이 치열해지면 1994년도 상황 이상의 변화와 충격이 초래될 것이므로 미리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이미 잘 구축된 우리 장학재단이 좋은 학생들을 유치하는 남다른 경쟁력이 될 수 있으므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장학재단은 법률에 따라 정부의 엄격한 감독을 받으며 정관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창회 회장이 이사장을 맡아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재산은 투명하고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장학사업은 혁신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실제로 혁신적인 운영은 쉽지 않았고 논쟁은 많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는 어려웠습니다. 이사로 2년의 경험 후 동창회장으로 2년 동안 기존 이사님들의 도움을 받으며 재단이사장 직무를 수행하였지만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후에 동창회장의 임기가 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사장임기도 1년으로 줄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었습니다.

동창회장이 재단이사장이 되는 현 제도에서 1년 임기의 이사장이 형식상의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하여는 거꾸로 동창회장은 최소 2년 이상의 재단이사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출하는 운영상의 묘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농공동창회장은 막대한 기금을 운영하는 막중한 책임을 겸하는 자리이므로 장래 동창회장이 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미리 재단이사로 선임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험을 쌓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재임 기간 동안 많은 도움을 주셨던 선후배 이사님들께 감사 드리며 특히 이사회에 빠짐없이 참가하시어 후배들의 모범이 되어 주셨던 윤대섭 명예회장님께서 2015년에 자랑스러운 제17회 관악대상을 수상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훌륭한 선배님들이 만드신 장학사업이 더욱 발전하고 우수한 인재를 키워 미래의 한국농업을 이끌게 하는 자랑스러운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15대 장학재단 이사장 남상일(농기계 74)

농업 전문 엔지니어의 길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 입학한 지 올해로 50년째.

지난 세월이 어제 같아서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 남은 날을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마음이 담담하게 일어난다.

지금 나 자신을 불러 본다면 굳이 농업 전문 엔지니어였다고 부르고 싶다. 젊은 나이에 기업의 중앙기술연구소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큰 기회였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고민했던 경험은 엔지니어로서뿐 아니라 농업인으로

서 역사의식을 갖게 했던 경험이었다.

전문 엔지니어로서 첫 번째 마주쳤던 일은 우루파이 라운드의 극복이었다. 지금은 거의 잊혀져 가는 역사의 전환점이었지만 우루파이 라운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농업기계 분야는 결국 국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시대적 허들을 넘어야 했다. 이에 대한 국가적 해법은 우선, 수출 가능한 고유모델 트랙터를 개발해서 수출하는 것이었다. 마침 홀륭한 후배 님들과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을 모을 수 있었고 농림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당시 이름 기준)의 솔직한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의 기계 개발 역량은 고유모델 트랙터의 개발을 담보하기에는 취약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부족한 자료와 기술 역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접촉과 교섭을 이어나갔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수출 가능한 트랙터에 새로운 디자인의 외형을 얹어서 수출설적으로 계상되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온기로 남아 있다.

농업 전문 엔지니어로서의 실패담도 지금은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조직배양 씨마늘 개발 실패담을 소개한다. 우리 연구소 초창기에 우연히 마늘의 씨마늘 조직배양 분야에서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 연구를 확장하기 위해서 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우수한 마늘 품종으로 일본의 아오모리 마늘을 선정했고 이를 대상으로 조직배양 씨마늘 연구에 매진했다. 일본 현지에서의 포장 실험 결과도 2년 연속 잘 나오면서 희망을 갖게 되었지만, 일본 측으로부터 한국산 씨마늘에서 검출된 신종 마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로 일본에서의 지속적인 활동에 제한이 걸렸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 농업 분야의 역량은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어서 일본 측의 제한에 대항할 방법이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오모리 마늘의 국내 재배 적지를 찾을 수 없어서 중도 포기해야만 했다. 기초 분야 연구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면서 경험을 축적한 농업 전문 엔지니어들에게는 새로운 시대적 임무가 주어졌다. 우리나라로 한때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을 받았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응당한 경제적 원조를 저개발 국가들에게 지원해야 하는 국제적 임무를 지게 되었다. 저개발국가들이 요구하는 지원 요구 분야는 다양하지만 농업 개발 분야는 가장 대표적인 요구 사항 중의 하나다. 필자는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에서 ODA 관련 일을 해 보았고 현재는 ODA의 EDCF 차관 사업의 일환으로 에티오피아에서 농업기계 공급 및 농업 기계화 지원, 농업교육센터 기획 및 설치에 대한 책임 컨설턴트로서 5년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업 전문 엔지니어

로서 보람을 느끼는 일이며 나 자신이 대학원생 시절에 당시 선진국 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경험을 이제는 아프리카의 우방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일은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농업교육센터는 10ha 규모의 부지 2개소에 각각 강의동, 기숙사, 개방형 식당, 농기계 보관 및 교육장, 그린하우스 종묘장, 재배 실습 포장, 농기계 연습 포장 등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 개발 경험을 현재의 에티오피아 경제의 발전 단계와 현지 농산물 소비 시장에 대한 조사 결과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구축했으며 교육 대상자에 대한 기준과 지원 규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현지에서는 기대가 큰 상황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농업의 의미는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 이런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 각 국가는 서로 다른 처지에서 농업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우루과이 라운드는 당시의 세계무역 질서를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 바꾸는 모멘텀을 만들었다. 그리고 WTO 체제는 국제 경제를 세계화의 시대로 이끌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의 변화는 경제경영의 사조를 지속 가능한 경제라는 표제로부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라는 새로운 가치관과 경영환경을 공유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 필요한 농업 전략을 개발하는 일은 오늘의 농업인들에게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 환경은 좁은 경작지 규모의 문제로 나날이 생산원가 경쟁력을 상실하는 구조에서 탈출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도 진행 중인 도시화의 물결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시화의 흐름은 지역사회의 소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신제품의 개발과 주거 환경, 관광 매력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농업 전문 엔지니어에게는 과거의 생산 위주 가치관에서 벗어나 가치사슬 경쟁전략과 세계화에 바탕을 둔 새로운 발상이 요구되고 있다.

1970년의 세계 곡물 총생산량은 약 11.9억 톤이었으며 2021년의 세계 곡물 총생산량은 약 30.7억 톤으로 1970년 대비 약 2.6배 꾸준히 직선적으로 증가했다. 세계 총인구는 1970년 약 37억 명이었으며 2021년의 세계 총인구는 약 79.1억 명으로 1970년 대비 약 2.1배로 역시 직선적으로 지속 증가했다. 기술의 발전은 인구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곡물 생산량을 증가시켜 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제 수준의 발전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식품에서 육류에 대한 요구를 높이고 있으며 위생적인 가공 및 기호식품의 수요를 강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이상 기후의 발생과 지역분쟁에 의한 공급망의 재편은 시장에 새로운 소용돌이와 새로운 기회를 형성한다.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과 문화 경쟁력의 형성은 새로운 제

품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 주는 효과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가운데에서 새로 운 기회를 찾는 것은 앞으로 농업 전문 엔지니어들의 활동 영역이 될 것이며 이들의 성공이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 소멸의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18대 장학재단 이사장 박관우(농토목 79)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며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설립 30주년 기념 장학재단 3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학재단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농공학과에 장학재단을 보유하고 있음에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습니다.

비록 제가 맡은 기간(2020년 5월~2022년 12월) 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이사회를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장학재단 운영에 별다른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이 활성화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어 세계화의 흐름에 걸맞은 우수한 인재가 배출되기를 희망하며 학과에서는 재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설정을 위해 관청, 업계, 학계 등 졸업생들과 대화의 장을 많이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재단설립 30주년 기념 30년사 발간을 축하드리며 장학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장학금 수혜자 소감

— 대학원생

김준규(지역시스템공학 10)

든든한 농공장학재단과 함께한 인연

고등학교 시절 흔히 말하는 고3의 전형적인 삶을 보내 오고, 두 번의 시도 끝에 상경하게 되어 처음 정신차리고 맞이한 서울의 풍경은 눈 내린 낙성대공원이었습니다. 신입생이라면 무엇을 하더라도 풋풋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스스로에게 학업이 중요한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못잡은 터라, 관악을 자꾸만 벗어나고 싶어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전공을 진입하여 다시금 동기, 선후배님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시작할 즈음, 학과사무실 복도에 있던 장학재단의 명단과 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 학과의 대선배님들은 이름도 얼굴도 모를 수 있는 후배들을 위해 재단에 돈을 기부하는가. 강의를 들으러 가면서,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강의실 명 “윤대섭강의실”. 도대체 이 과에서는 무엇이 서로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군대도 다녀오고 4학년을 마치며 진로를 고민하던 때, 가까운 학번의 선배들과 술잔을 기울며, 상담을 했을 때, 어느 누구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본인 일마냥 진지하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감사함을 느끼고, 단순하게는 농공장학재단에서 지원이 든든하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연구와 학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습관처럼 연구실을 나가고, 밤새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며, 해 뜨는 것을 보며 오늘도 카페인과 담배로 벼侑구나 싶을 때, 문득 주변을 둘러보

게 되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이야기를 하다가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학업을 이어 가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본인이 아닌 주변과의 비교의식이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취업도 하고 돈도 벌고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 가는데, 대학원 진학을 위해, 돈을 벌지 못하고, 학자금 대출에 아르바이트, 그리고 함께 병행하는 연구실에서의 연구. 이것들을 모두 감당하기에, 학위가 그 값어치를 하겠냐는 걱정들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어 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본인의 연구와 그 과정에서 성장한 연구자의 성취감은 대 단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이러한 여유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학원 과정 동안에 농공장학재단의 든든한 지원과 주변과 현 상황에 대한 고민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여유가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학위 수여 후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학생이라는 신분과 금전적인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농공장학재단의 지원, 그리고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교수님, 선배, 동기, 후배들 모든 농공동창분들이 정말 위대한 기회이자 기쁨이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24시간 지내 보면, 가족이나 애인보다도 가장 오랜 시간 함께 있었던 것이 대학원 생활을 함께한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공장학재단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의 혜택, 연구의 동기부여로 그 존재가치가 충분히 높지만, 그 이상의 농공학의 끈끈함과 소통을 이루어 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면, 농공장학재단과 관련된 모든 것이 함께한 농공동창분들 모두의 손길이 한땀한땀 새겨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그러한 든든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저의 연구자 인생에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김마가(지역시스템공학 11)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중학생 시절 친구들과 학교 투어를 하며 교정을 밟은 지 4년 만에 이번에는 입학생으로 다시 관악캠퍼스에 돌아왔다. 친구들과 서울대입구역에서 캠퍼스까지 걸어가며 다시 여기서 만나자고 다짐을 했었는데 신입생이 되어 다시 캠퍼스를 찾으니 모든 게 새롭고 낯설었다.

철없던 시절 정든 고향과 친구들을 떠나서 홀로 서울에 왔을 때, 걱정이 많이 되었고 자주 쓸쓸했었다. 익숙한 이 하나 없이 낯선 환경에서 외로울 때가 많았고, 그래서 그때는 학과 동기들, 선배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좋았다. 혼자서는 뭐든지 느리고 버거웠는데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 작은 일에도 같이 웃고 떠들면서 함께 공부하고 술 한 잔 나누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그때 만난 소중한 인연들 덕분에 서울 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부생 시절을 보낸 것 같아 인연을 만나게 해 준 지역시스템공학과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준 농공장학재단에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버겁게 느껴질 때, 옆에서 부족한 학비를 충당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휴학을 하는 친구들을 기억한다. 나보다 더 힘들게 열심히 사는 친구들을 보면 서 농공장학금이 주는 건 단순히 등록금이 아니라고 느꼈다. 농공장학금이 있었기에 좋은 인연들과 함께 할 시간과 하고 싶었던 학교생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날들, 앞으로의 고민을 하던 서투른 걸음을 가져 볼 수 있었고, 그건 그때나 지금이나 큰 힘이 되는 경험이다.

당시의 인연들과 고민이 이어져 지금은 대학원에 진학 후 학업을 이어 가고 있다. 학업에서 찾은 흥미와 열정을 이어 가고 싶은 마음에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고 있을 때, 더러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휴학을 선택하거나 꿈을 접기도 했다. 지금도 이어지는 아르바이트와 휴학으로 학비를 어렵게 충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옆에 있는데, 다시 한번 농공장학재단에 큰 감사의 말을 전한다. 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두었을 때, 학비는 고민할 부분이 아니었고 오히려 지금 가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의 다짐이 얼마나 성취를 이루어 낼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보며 그게 얼마나 큰 혜택이고 도움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다.

부족한 글로 감사의 말을 전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어떻게 갚아 나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여전히 배움은 어렵고 나아가야 할 길이 멀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농공분야에 기여하고 또다시 후배들에게 이 좋은 기회를 돌려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겠다. 앞으로 살아가며 받은 만큼 더욱 베풀 수 있도록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나아가야겠다.

지역시스템공학전공 농공동창회 회고담

나의 20대 전체를 몸담은 지역시스템공학과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회고담을 써내려 가는 지금, 머릿속에는 2012년 새내기로 입학해서부터 시간가는 줄 몰랐던 학부 시절, 고민과 방황의 석사과정, 그리고 지난 10년의 시간을 통해 마지막 결실을 맺은 박사과정까지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제게 있어서 대학원 진학은 큰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어떠한 것에 도전함에 있어서 망설임이 없었던 저에게 대학원에서의 시간 동안 다양한 프로젝트와 연구,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만큼 학자로서의 자세,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를 확고히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물’이라는 키워드에서 시작한 꿈은 현재, 세계적인 식량, 수자원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농업용수 분야 연구자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석사 및 박사과정을 거치면서 수업과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지식을 얻고 견문을 넓힐 수 있었으며, 국제학회에서의 다양한 연구자들과의 지식 공유, 각 국가에서의 테크니컬 투어 등을 통해 느꼈던 것들과 경험을 통해 지식만큼이나 소중한 열정과 동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값진 시간과 경험은 농공장학재단이 없었다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시스템공학 전공에 입학하여 학부 2학년 때부터 박사 학위를 받은 지금까지 농공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격려와 지지는 제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을 고민 없이 해 나갈 수 있도록 큰 힘과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이루어지는 농공동창회 행사를 통해 우리 과를 빛내 주시고 많은 발자취를 남겨 주신 선배님들과 꾸준히 소통할 수 있었고, 우리 과를 향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선배님들을 보며 내가 하고 있는 공부, 꾸고 있는 꿈에 대한 자긍심과 용기를 갖고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까지 도달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라는 교수님들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제 한계를 마주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렇듯 스스로의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알게 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조금 더 나아가

고, 또 부딪히고, 나아가고를 반복하며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동안 더 단단해졌고, 앞으로의 제 앞날에 마주할 더 고된 시간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를 온전히 배웠습니다. 박사 학위라는 무게가 주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아직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농공학 분야의 박사로서 철학을 가지고 학자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저 또한 선배님들께서 보여 주신 대로 후배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농공장학재단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 농공장학재단과 선배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지역시스템공학 13)

농공학과에서 배운 유대

2013년 처음 지역시스템공학과에 들어섰을 때의 설렘과 기대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처음 부모님 곁을 떠나 시작한 대학 생활은 때론 두려웠지만 많은 동료, 선후배님들의 조언과 배려 그리고 농공장학재단의 많은 지원은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에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감사의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대학 생활을 회고해 보았을 때, 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는 “유대”가 아닐까 합니다. 지역시스템공학과에서 교수님들께서는 열정적으로 학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주시며,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배움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아가 교수님이시기 이전에 선배님으로서 함께 과 행사에 참여해 주시며 고민, 진로 등에 대한 조언을 아낌없이 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교류는 제게 끊임없는 성장의 기회가 되었고, 자신감을 갖고 농공분야에 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지역시스템공학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인 과방에서 동료, 선후배님과 함께했던 지역시스템공학&설계 팀 프로젝트 활동, 마이티 카드게임 등은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과방에서 때론 함께 공부하고 노력하며 성장하고, 때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친밀한 관계를 쌓으며 끈끈한 유대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의 전문적인 역량 향상의 기회뿐만 아니라, 제게 더욱 넓고 다양한 관계의 구성과 그 협력으로 나오는 시너지 효과의 거대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돌이켜 보면 이 모든 소중한 경험을 편안히 가능하게 해 준 것은 아낌없는 농공장 학재단의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지원해 주신 등록금으로 저는 학비에 대한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열정적으로 농공분야에 매진해 올 수 있었습니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해 주신 농공장학재단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게 주어진 기회와 지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해 나가는 농공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병훈(지역시스템공학 14)

배움의 자양분, 농공동창회

2014년 지역시스템공학과에 입학하면서 서울로 상경한 필자는 어느덧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타지에서 올라와 공부하면서, 학부시절에는 독립된 삶을 살기 위해 과외와 아르바이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다. 생활비와 함께 적지 않은 등록금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었으나, 농공동창회 선배님들의 지원으로 큰 어려움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학부시절부터 현재까지 농공동창회의 지원을 꾸준히 받아 왔고, 이러한 기간 동안 많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선배님들이 각 분야에서 나름의 성과를 이루고 있는 데에는 이러한 지원이 자양분이 되었음을 모두 마음 속 깊이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

농공학회는 장학사업뿐만 아니라, 매년 준비된 자리를 통해 선배님들과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전공이다. 학위 과정 동안 홀로 공부에만 몰두하다 보면 나아갈 방향을 놓치기 쉽지만, 먼저 길을 닦아 놓으신 다양한 분야의 선배님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통해 나름 나아갈 방향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다. 앞으로도 농공이라는 학문을 지속적으로 공부해 나가야 할 필자에게는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감사함을 잊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농공동창회의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농공학과의 끈을 유지하면서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정진하려 한다. 추후에는 선배님들이 전해 주신 가치와 이념을 실천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김동수(지역시스템공학 15)

든든한 지원군이자 스승, 농공장학금

학부와 대학원 석사과정을 지나 어느덧 우리 전공에 몸담은 지 7년째가 되었다. 박사과정에 입학하고 미숙하면서도 바쁜 첫해를 보내고 있는 와중 올해가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이 설립된 지 30년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학부 시절부터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서 이 특별한 30주년을 기념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대단히 영광스럽다.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은 지난 30년 동안 많은 청년들에게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 나의 동기들도 농공장학금의 수혜를 받으며 각자의 꿈을 실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농공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학부 시절 농공장학금은 나에게 있어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지방에서 올라온 나는 입학 후 곧바로 생활과 거주에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마주쳤다. 학교에 함께 입학하였던 나의 친구들은 각자 아르바이트와 과외로 채워진 삶을 살곤 했다. 나 또한 당시에는 우리 전공에 진입하기 이전인 1학년으로서 농공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에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돈이 되는 각종 일을 했었던 기억이 남아 있다. 조금이라도 등록금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교내장학금을 비롯해 기타 교외장학금을 알아보고 신청했었으나 조건이 까다롭거나 적은 액수의 장학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2학년이 되어 주어진 농공장학금의 기회는 나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 농공장학금을 통해 전반적인 생활 측면에서의 부담이 줄었고,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방학에는 남는 시간을 활용해 근처 청소년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다. 학부 4년간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의 지원과 배려 덕분에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학부를 졸업할 즈음 나는 여느 동기들과 같이 진로 선택의 고민에 빠졌다. 마음 한쪽에 는 항상 학문과 연구의 뜻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늘 장애물이 되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농공장학금은 내가 갈망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스승과 같은 존재였다.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대학원에 진학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든든한 지원군의 도움이 보장된 환경에서 내가 대학원 진학을 망설일 필요는 없었다. 이처럼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은 단순히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이 아니라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나의 성장을 도와준 또 한 명의 스승이다.

마지막으로, 저의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가 받은 사랑과 관심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이 더 많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기원한다.

김시내(지역시스템공학 16)

학업 여정에 불을 밝혀 준 농공장학재단

지역시스템공학과에 진입한 2017년부터,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한 현재 까지,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농공장학재단의 지원으로 학비에 대한 큰 부담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고, 더 큰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연구자로서의 긴 여정을 시작한 지금의 나는 단순히 학위취득을 넘어 ‘좋은 연구자’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흔히들 열심히 노력한 만큼 더 많은 성취와 행운을 누리게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과 성취의 배경에는 외부요인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개인의 가능성 믿는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마음이 잘 만들어진 사람은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고, 적극적인 배움과 도전을 통해 결국엔 더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돌이켜 보면, 학창 시절의 나는 그다지 단단한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다. 새로운 도전에 주저했고, 종종 나의 행동이 주어진 목표와 배치될 때면 나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학에 와서 후배들을 위해 재정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선배님들과 인생을 배울 수 있는 스승님, 함께 웃고 의지할 수 있는 동기들을 만나면

서, 내 뒤에는 날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회피하지 않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조금씩 쌓아 오면서 지금은 훨씬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특히 선배님들께서 마련하신 농공장학재단은 나에게 재정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동기와 자신감을 준 소중한 선물이다. 지금까지 내가 이를 수 있었던 학문적 성과와 앞으로의 도전에 대한 열정은 선배님들께서 마련하신 농공장학재단의 지원 덕분에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이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느리더라도 꾸준히 학문에 정진하여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언젠간 농공학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의 긴 학업 여정에 불을 밝히고 지원의 손길을 내어준 농공장학재단과 장학재단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나 또한 선배님들의 뜻을 본받아 내가 받은 것을 남에게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앞으로도 많은 후배들이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길, 그들도 내가 받은 것처럼 꿈을 키우고 발전시킬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김다인(지역시스템공학 17)

관심과 사랑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김다인입니다. 우선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30주년을 맞이하여 축하의 글을 쓰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장학재단에게 감사드립니다.

학사를 입학한 2017년부터, 어느덧 제가 지역시스템공학과에 재학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갓 졸업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가 농공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이분야는 정말 공부할 것들이 무궁무진하고, 농공학의 여러 선후배님들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항상 저희에게 장학금이라는 혜택을 베풀어 주신 것은 저희가 뛰어나거나 우수해서라기보다는 저희의 대학 생활을 응원하시는 마음에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은 사회인이 되기 전에 준비를 하는 단

계며,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공학 재단에서 저희에게 주시는 장학금은 학업에 열중하고 진로를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저에게 사회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저의 일신의 목적만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주변 사회를 둘러보고 제가 받은 혜택보다 더 많은 것을 베풀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장학재단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저희는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에서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선배님들께서 농공학의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농공학과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후배들을 향한 선배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 덕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겠습니다. 언제나 뒤에서 묵묵히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농공 동문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선배님들께서 몸소 보여 주신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더 큰 꿈을 펼쳐 나가 학교를 밝게 빛내는 사람이 되고, 저 또한 선배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계속 이어 나가 후배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진심이 선배님들께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농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제(바이오시스템공학 04)

제 삶의 획기적인 전환점

벌써 관악을 떠난 지도 3년이 지나 4년차 겨울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지났는데, 생각해 보니 대학에 입학한 지도 20년이 다 되어서 그 기억도 이제는 가물가물합니다. 그럼에도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인생의 꽃과 같은 시기인 대학생활 동안 많은 방황으로 앞길을 잘 정하지 못하고 서른이 넘어서야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던 그 감정만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저는 오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글을 씁니다. 먼저 이것 하나는 확실한데, 농공동창회 장학재단에서 제공해 주시는 농공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이 장학금은 제 삶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동문들이 그렇듯 이 장학금도 본인들이 수여할 수 있는 많은 장학금 중 하나

라고 생각 될 수도 있지만, 이 뜻깊은 지원은 농공학을 전공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가능성의 문을 열어 주는 귀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의 방황을 마치고 늦은 나이에 학문의 길을 걷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미래에 대한 많은 고민과 경제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해 쉬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모든 대학원생에게 지원되는 농공장학금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학업을 이어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장학금이라는 것이 단순히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것 이기도 하지만, 우리 동문들께서 모아서 조성해 주신 장학재단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힘입어 저는 그 길었던 학위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이를 발판 삼아 경상국립대학교 생물산업기계공학과의 교수직에 오르게 되었으며, 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학재단에서 베풀어 주신 소중한 기회를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 학부생활과 대학원 생활동에 저는 농공학분야에 크게 기여를 한다거나, 혹은 학과에 여러 일에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참여하지 못해 마음 한켠에 항상 부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문적 업적을 쌓아 가며 농공학 분야에 더욱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 사람의 교육자로서 후학을 양성하여 우리 농공학 분야에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귀 장학회의 지원은 제가 이 분야에서 더 큰 발자취를 남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학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후배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이 분야에 대한 열정을 고취시키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공계 전공 학생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상승과 양질에 일자리 부족에 따른 이공계 진학 기피 현상은 상대적으로 비인기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학과 동문들에게도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공장학회의 이러한 관대한 지원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 분야의 잠재력 있는 학생들에게 그 능력을 펼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의 제가 농공학분야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도와주신 장학재단과 선후배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농공학 분야의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힘쓰는 장학재단의 활동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였다

2008년에 시작되었던 저의 대학 생활이 어느덧 15년의 세월이 지나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 이 새삼 놀랍습니다. 저는 관악과는 다르지만, 경상남도 진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이곳 캠퍼스도 대학생들의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활기찬 학생들을 보면서 저의 지난 학교 생활을 곧잘 돌아보게 됩니다.

신입생 때의 철없는 모습, 그리고 첫 후배를 맞이한 2학년,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가 농업 기계 분야에서 더 많은 가능성은 보고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을 하고, 중간에 능력의 부족함을 느껴 한 번 뜻을 꺾었다가 농업기계의 경계 안에서 다시 시작해 보자 하여 대학원에 복귀 후 박사학위를 받기까지의 13년 기억은 제 성인으로서의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공 진로에 대한 고민, 저의 미래에 대한 고민, 제가 농공학계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등으로 수없이 흔들리던 때에도, 맡은 연구에서 무언가 성취를 보이겠다는 욕심을 내며 새로운 시도를 할 때에도, 제가 무언가를 행하고 생각함에 있어서 더 많은 시간과 여유를 준 것은 농공장학금이었습니다. 사실 서울대학교의 등록금은 인생의 배움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자면 한없이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업과 연구로 바쁘고 성인으로서 집안의 지원을 바라기엔 염치없고 민망할 수 있는 처지의 대학원생인 저에게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문제 없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또한 등록금을 해결한다는 것보다도 더 큰 의미였던 것은 사회에서 활약하고 계신 훌륭한 선배님들이 제가 나아가는 길을 응원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기에 이렇게 장학 지원을 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저뿐만이 아니라 일찍 사회에 나가 있는 제 또래들을 보면 가슴 졸이시던 부모님의 시름을 덜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수많은 혼들림과 역경 속에서도 물 선배님들의 격려와 지지에 힘입어 학위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장학재단을 통해 학업과 연구를 이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행운인지를 되새기며, 우리 장학재단과 농공동창회의 선후배 동문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장학재단과 농공장학금이 없었더라면, 금전적인 문제 이전에

제가 나아가는 방향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 훨씬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이고, 지금의 저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0주년을 맞아, 저는 장학재단의 지원에 힘입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후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다짐합니다. 아직도 미숙하고 또 서툰 구석이 많지만, 선배님들처럼 최고의 위치에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것이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에서 그치는 것 이 아니라 후배들에게 인생에 대한 조언과 지식,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분야에 매진할 수 있는 용기를 전할 수 있는 농공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학업을 장려하고 또 지지해 주신 동문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정수(바이오시스템공학 대학원 11)

학비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에 더 열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다

장학재단이 어느덧 30년을 맞이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선배님들 덕분에 저 또한 농공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이는 새로운 학과에서 석사학위 공부를 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렇게 늦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진로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하던 학부생 시절을 지나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원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준에 수학 하던 신소재공학과가 아닌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바이오시스템공학과를 선택한 것은 저에게는 큰 변화이자 큰 결심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대학원 생활부터는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헤쳐 나가자고 다짐하였기에 학비 마련 또한 하나의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농공장학금은 이러한 경제적인 고민을 덜어 주고 학비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에 더 열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농공장학금은 후배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배님들의 헌신과 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 또한 후배가 생길 것이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늘 마음 한 켠에 품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선, 학업을 잘 마치고 농공분야에 긍정적인 기

여를 하여 선배님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후배들에게는 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형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현재는 모든 학위 과정을 마치고 바이오시스템공학과에 부임하여 후배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선배님들의 배려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한 학과로 돌아와서 후배들에게 제가 배우고 느낀 것들을 돌려줄 수 있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장학금을 받을 당시의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슴에 간직하면서, 앞으로 학부, 대학원생을 교육·지도하고 이들 또한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형 영향력을 끼치고 농공분야의 발전을 이루어 나갈 인재들로 키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저희 학과의 학생들 또한 농공장학금이라는 기회를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바이오시스템공학과의 우수한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선 후배 간의 끈끈함과 따뜻한 경험을 얻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그리고자 하는 것처럼 이들 또한 사회에 나가 다른 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베풀며 선배님들의 유지를 이어 나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주년을 맞이하는 장학재단에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 전하며,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만나 볼 수 있도록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받은 은혜 이상으로 베풀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감사의 글을 마칩니다.

김응찬(바이오시스템공학 11)

학업에 대한 열정을 키워 갈 수 있는 계기

공부에 전념하며 서울대학교 진학에 꿈을 두었던 고등학교 시절이 지나, 어느덧 신입생이 되어 타지에서 올라와 자취생활을 하며 자유를 만끽하던 새내기 시절이 어제인 마냥 기억이 생생합니다. 과 동기들과의 술자리는 물론이며, 게임을 좋아했던 저는 친구들과 밤을 새면서 게임을 했고, 자연스레 학업은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성적은 기대했던 대로 나오지 않았으나, 감사하게도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수여해 주셨고, 살면서 처음으로 받아 본 장학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하여 처음 받아 본 성적에 낙담하며 반성하기는커녕, 학업에 열중하자는 다짐은 마음속 깊은 한 곳에 묻어 둔 채 주어진 자유를 더 즐기며 놀기에 바빴습

니다. 군대를 다녀온 이후 조금은 철이 들었는지 조금씩이라도 계획을 세워 과제 및 시험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자 하였고, 복학한 이후 처음으로 기대했던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입생 때 농공장학재단의 장학금을 받았을 때와는 달리 당당하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이는 이후 제 학업에 대한 열정을 키워 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복학 후 4학년이라는, 늦으면 늦은 시간이었으며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농공장학재단 선배님들께서 수여하신 장학금을 통해 꿈을 한 층 더 키울 수 있었고, 그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고민 없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학부생이었던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전공 수업은 물론이며 배우고 싶은 학문에 대한 수업을 마음껏 들을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학우들과의 즐거운 추억을 쌓고 원하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등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복학한 이후 학비를 벌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즐기며 제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갖게 해 준 농공장학재단이 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저뿐만 아니라 학과 동기들, 선후배들 등 농공인으로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았을 생각을 하니 농공장학재단의 이러한 취지가 감명 깊게 다가왔고, 어느 새부턴가 저도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엿한 선배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빠르게 흘러, 군대 시절 2년을 제외하고 별써 열 번째 관악산에서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갓 새내기가 되었을 무렵부터 어느덧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먹고 자며 생활하다 보니, 저의 고향보다 더 내 집같이 포근하고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관악을 떠나 낯선 타지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날도 오겠지만, 저의 인생과 청춘이 스며들어 있는 관악에서의 소중한 시간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10년이 넘는 관악에서의 시간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또한 지금의 저를 있게 해 준 장학재단 및 선배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저 또한 인정받는 농공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여 조금이나마 장학재단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농기계 분야의 한 인재가 되기까지 앞으로도 꿈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열심히 나아가 보려 합니다.

학부에서 대학원, 연구자까지

여러 선배님들의 소감문 사이에서 제가 시간을 말하기에는 다소 민망하지만, 제가 학부에 입학한 지도 11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입학한 후로부터 박사학위를 취득하기까지 쭉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에 몸담으면서, 다른 동창분들처럼 농공장학재단의 지원 덕에 금전적 걱정을 덜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공한 농업공학 분야에 계속 몸담고 현재까지도 농업공학 관련 연구자로 일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농공장학재단의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입학할 때 바이오시스템공학, 지역시스템공학, 바이오소재공학, 조경의 4가지 전공이 뮤인 모집단위로 입학하였습니다. 공학을 전공하고 싶었던 저는 바이오소재공학반에 배정받았음에도 바이오시스템공학이나 지역시스템공학에 진입하겠다고 동기들, 그리고 바이오소재공학 전공의 선배들에게 가감 없이 말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학번이 마지막으로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지역시스템공학이 같은 모집단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지역시스템공학, 농공학의 두 축이 모집단위가 분리되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각설하고, 고민 끝에 결국은 조금 더 관심이 있던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에 입학하였으며, 동일 전공으로 대학원에도 진학하였습니다. 연구실의 첫 학생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꾸준한 노력과 동창들의 도움에 힘입어 다양한 연구결과를 내고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 과정 중에 있어서도 농공장학재단의 지원으로 학비 부담 없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표 농업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 그 것도 전공 출신과 동일 분야인 농업공학부의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재에도 관련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많은 동문님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공학에 몸담고 있으므로 더욱이 이러한 농공동창회의 중요성을 크게 느낄 수 있고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바이오시스템공학이란 전공을 선택한 것이 후회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수기를 적다 보니, 선배님들과 동기들에게 도움받은 것들이 많은 만큼 제가 과연 그만큼 농공동창회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농업공학 분야 연구와 인재개발에 정진하여 선배님들

께 받은 도움을 후배들에게 그대로, 혹은 더하여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지원을 통해 저를 농업공학 분야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장학재단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농공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소감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우(바이오시스템공학 13)

학문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베풀 목 역할

학교에서 맞이하는 10번째 겨울, 철부지 신입생을 화사하게 맞이해 주었던 교정의 모습이 오늘은 유난히 쓸쓸하고 차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논문과의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금, 다가올 졸업에 대한 기대와 20대를 함께 보낸 학교를 떠나는 아쉬움이 공존하는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를 떠나기 전, 학부 시절부터 박사과정인 지금까지 오롯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준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및 동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함과 안도감이 듭니다.

학부와 대학원 시절은 학문을 갈고 닦는 배움의 시간이자, 제 인생의 큰 전환기였습니다. 농공 분야의 훌륭하신 교수님과 선배님들로부터 학문에 대한 열정과 연구자의 자세를 배웠고, 사랑하는 동기 및 선후배들과 즐거운 추억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지식의 배움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지혜와 슬기로움으로 제 인생을 풍요롭게 해 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농공시스템공학 장학금은 이런 소중한 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 주는 든든한 베풀 목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양극화와 세대 갈등이 심각해져 서로 간의 배려와 존중이 무색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후배들을 위해 기꺼이 장학 기금을 마련해 주신 농공 선배님들께 존경심과 감사함이 듭니다.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은 다른 전공 및 단과대학에서 찾아보기 힘든, 모두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자랑이자 농공인의 앞길을 비춰 주는 등대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졸업생이 우수한 기업과 기관에 진출하고, 꾸준한 대학원 진학률을 유지하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년을 맞이한 장학재단에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부끄럽지 않은 농공인으로 성장하여 제가 받은 것 이상으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부족한 감사의 인사를 마칩니다.

김경대(바이오시스템공학 14)

학과 내에서 선후배와의 소중한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가져

지금까지 농공동창회 장학재단의 후원을 받아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로 인하여 저는 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이 저에게 학문적인 발전을 꾀하고 농공분야에서의 연구에 진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농공동창회 장학재단의 지원 덕분에 대학 생활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학업에만 전념할 뿐만 아니라, 박사 진학을 결정할 수 있는 여유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제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학재단의 지원으로 학과 내에서 선후배와의 소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과 내에서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 도움과 지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선후배 간의 유대감은 학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큰 보람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농공동창회 장학재단의 후원은 학과 관련 연구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학문적인 욕망을 증진시키고 농공분야에서의 연구에 앞장서 발전시킬 것입니다. 장학재단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제가 받은 지원이 학문과 연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동창회 장학재단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 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받은 지원에 부끄럽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 내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연구를 업으로 삼아도 되겠다는 확신을 가져…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시스템공학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노승우입니다. 다년간 농공장학금의 혜택을 받음으로서 농공장학재단 선배님들께 감사한 감정을 마음 한 켠 간직하고 있던 와중에 이렇게 장학재단의 30주년을 맞아 소감문을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8년 전 바이오시스템공학과에 학부생으로 입학한 후로 저는 오랫동안 어린 학생 티를 벗지 못하였습니다. 고된 수험생활을 겪어서 그런지 신입생 때부터 공부보다는 노는 것을 우선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은 점점 하향세를 그리게 되었고 장학금과는 거리가 먼 대학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성공적인 대학 입시가 부모님께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뒷바라지를 해 주셨기 때문임을 망각한 철없는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은퇴하시고 저도 졸업 준비 및 대학원 입시 준비를 위해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면서 금전적 요소가 저의 생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몸소 느끼고, 그간 부모님께서 저의 경제적 뒷받침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에 입학하고 나서 학비를 직접 벌어 내야 했을 때는 처음에는 막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아르바이트와 연구를 병행해야 했다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쩌면 연구자의 길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농공장학금의 금액은 상상 이상이었고, 저는 연구를 업으로 삼아도 되겠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고 연구를 이어 나가며 느낀 점은 학부 때는 혼자서 열심히 공부해 시험으로 평가받는 단거리 경주라면 연구는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하는 장기 마라톤이라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해 오면서 느낀 점은 현재의 저 자신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가르쳐주신 학과의 교수님들과 저를 지도해 주신 지도교수님, 제 연구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님들과 제 연구를 열심히 도와준 후배님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연구를 이어 올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제가 받아 온 여러분의 도움을 제 후배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단한 노력을 통해 농공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자로 성장

하고 후배 연구자들의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농공학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학재단 30주년을 축하드리며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서 장학금을 주는 연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동주(바이오시스템공학 17)

공부와 인간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계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공학과에 석박통합과정으로 재학 중인 문동주라고 합니다. 바이오시스템공학과에 입학을 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이오시스템공학과에서 지낸 대학 생활이 풍성하고 뜻깊었기 때문에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동기들, 선후배, 교수님들과 함께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과가 있나 싶을 정도로 바이오시스템공학과에서의 과 생활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가능하게 해 준 것 중 하나가 바로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의 지원이었습니다. 학업, 과 생활, 아르바이트를 모두 병행했던 학기에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아등바등 노력하다 결국 학업과 과 생활이라는 토끼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학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이후로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학업 성적도 많이 올라 최종적으로는 우수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 생활을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교수님들, 선후배들, 동기들과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조언들을 들을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바이오시스템공학과에 잔류하여 공부를 깊게 해 봐야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장학재단의 지원 덕분입니다. 학비 부담 없이 공부와 인간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장학재단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학비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야만 가능했던 이 모든 경험들에 대한 감사함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학재단의 지원 덕분에 제가 7년간 이룬 모든 것들은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학문에 전념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적어 보며, 앞으로도 이 경험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훗날 후배들도 학

업과 과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선뜻 지원할 수 있는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학재단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많은 학생이 농공장학재단의 도움을 통해 자라나는 새싹에서 나무로 성장하였으며, 이들이 사회로 나가 열매를 맺고 다시 새로 자라는 새싹들에게 베풀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신 장학재단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류지원(바이오시스템공학 17)

덕분에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다

제가 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에 새내기로 입학한지도 어느덧 7년이 되어 갑니다. 신입생 때에는 사실 우리 전공에서 배우는 학문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었는데, 어느새 해를 거듭하여 우리 전공 대학원에 석박통합과정으로 입학을 하고, 앞으로 우리 분야에서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느껴집니다. 지난 시간 동안 늘 농공장학금을 통해 저를 비롯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신 농공장학재단과 귀중한 재원을 마련해 주신 선배님들께 이 글을 빌려 감사하는 마음을 표합니다.

재단 30년을 기념하여 장학금수혜자로서 감사의 글을 올리지만,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정말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었음에도 감사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이라는 곳에 처음 와서 이것 저것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많았던 학부생 시기 동안에는 매 학기 내야 하는 등록금이 큰 금액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저를 비롯한 많은 동기들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과외나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농공장학금을 통해 그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어서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장학재단은 적지 않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학부를 졸업할 즈음, 하나님 취업을 하여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친구들 틈에서 학업을 이어 나가겠다는 결심을 했을 때에는 물론 우리 전공 분야 공부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도 있지만, 앞서간 동문 선배님들께서 후배들의 학업과 분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으로 후원을 해 주시는 든든함이 있었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점은 학부 시절부터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 항상 마음속에 자랑이자 자부심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학생이다 보니 대학원에서의 학업과 연구에 매진하는 것 이외에 전공과 재단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거의 없지만, 향후에는 저도 동문 선배님들의 걸음을 따라 농공 분야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배들을 위해 귀한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점에 대해 늘 감사드리며, 저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농공 분야에 함께 몸담아 분야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느덧 30주년을 맞이한 재단에 깊은 감사와 축하를 보내드리오며, 선배님들의 앞선 노고를 잘 이어받아 앞으로 저희 세대가 주역이 되었을 때에는 더욱 빛나고 활발히 운영되는 농공동창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소감문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바이오시스템공학 19)

연구자가 되기 위한 자신감의 원천

친애하는 농공장학재단 장학관님과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김재현입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통해 제 학업과 개인적인 성장에 대한 비전과 희망이 확고해졌습니다. 이 지원은 제 학업 및 연구에 큰 힘이 되었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먼저, 장학재단에서 주신 장학금은 제 학비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열정을 더욱 높여 주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항상 무한한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저 자신을 믿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연구자가 되기 위한 자신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또한 장학재단의 장학금은 다양한 학문적·문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

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며 전문성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학술 대회 참가, 연구 프로젝트 진행 등을 통해 학문과 사회 참여의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영역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제게 주어진 기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교외 활동을 통해 리더십과 팀워크를 배양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농공학의 이론과 실무를 결합하며 미래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길렀습니다.

나아가 장학재단의 장학금은 제게 지속적인 동기 부여와 책임감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제게 자신감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발전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회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학재단의 따뜻한 지원 덕분에 제가 이루고자 했던 꿈과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 지원은 제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에,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농공장학재단이 제공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미래에는 더 나은 연구와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또한, 후배들에게도 이 기회를 나누어 주어 농공학 분야에서 새로운 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 지원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희망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지원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도 기회의 문을 열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농공학 분야에서 제 역할을 다하며, 선배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문과 연구에 더욱 헌신하여 농공학 분야에 기여하고자 다짐합니다.

장학재단의 가치 있는 노력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늘 뜻깊은 마음으로 이곳에서 받은 지원에 보답하고자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농공학 동문 여러분과 장학재단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성장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학업 및 학과 생활 영위할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바이오시스템공학과 19학번 한규하입니다. 저는 지난 2023년 2월에 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바이오시스템공학과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재학 중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에 입학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매년 겨울에 학교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통해 학교를 견학하는 새내기를 보면서, 저의 대학 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신입생 때를 떠올리면, 코로나 이전의 마지막 학번으로 입학하여 선배님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바이오시스템공학과는 정말로 끈끈하고 즐거웠습니다. 학과 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18학번부터 15학번까지 다양한 세대의 선배님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2020년 2학기부터 2021년 1학기까지는 바이오시스템공학과 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회장으로서의 활동을 통해 학과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년도에는 많은 행사가 취소되었고, 비대면으로 첫 행사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면서 후배들과의 교류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코로나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 간의 연결을 도와 더 활기찬 학과 생활을 이루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또한, 2021년부터 현재까지는 박영준 교수님 연구실에서 인턴과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구에 대한 궁금증으로 지원했는데, 벌써 4년 차가 되었습니다. 졸업까지 앞으로 4년이 넘게 남아 있는데, 제가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가끔 의문이 듭니다.

이제까지 저의 5년간의 바이오시스템공학과 학생으로서의 경험을 돌아보면, 농공시스템장학재단의 소중한 지원을 받아 편안하고 안정된 학업 및 학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장학재단의 지원으로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어 주셨기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학문에 쏟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재단에서 학과 학생들에게 보내주시는 따뜻한 도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장학재단의 지원이 저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를 명심하고 더 나은 성과를 이루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장학재단이 3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장학재단을 통해 많은 학생이 지원받

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학과 내의 활기찬 문화를 뒷받침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장학재단의 지원을 통해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아 학과를 높여 나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장학금 수혜자 소감

— 학부생

김도경(지역시스템공학 22)

어느 시기에 농공장학금을 받으셨나요?

2학년 1학기에 받았습니다.

농공장학금을 받은 후기를 알려 주세요!

장학금을 받고 부모님께서도 뿌듯해하셨고, 다음 학기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제 학업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서, 제 노력이 인정되었음을 알게 되어 영광스러웠습니다. 더불어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어 준다는 점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았습니다.

이 장학금은 학생들의 학업 노력과 성과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장학금 수여는 제 학업 진로와 더불어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농공장학금의 수여는 저에게 막대한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더욱 높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성취해 나갈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학금의 가치와 의의에 대해 저는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의 학업과 미래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농공장학금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농생대 타 전공과의 차별성을 두어 과에 대한 만족도와 학습 의지 및 열정에 이바지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장학금은 저희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고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더 좋은 성적을 얻고 학업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농공장학금 수여는 학생들에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판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은 학생들의 학업 노력과 성취를 인정받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시스템공학 전공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으며 학과에 대한 애정과 열정에 장학금도 이바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농공장학금이 개선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환급형보다는 장학금 지급 시기를 등록금 기간으로 해서 지급해 주시거나 타 장학금처럼 등록금을 낼 때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농공장학재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 주세요.

장학금을 받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자 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승상(지역시스템공학 20)

어느 시기에 농공장학금을 받으셨나요?

3학년 1학기.

농공장학금을 받은 후기를 알려주세요!

군 휴학하고 나서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고 군대에 들어가려던 찰나 과사무실에서 농공장학금을 받아 보는 것이 어떤지에 관해서 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받을 정도의 뛰어난 인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저는 이 메일을 받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에 일단 지원했더니 합격하여서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군 휴학이 끝난 뒤 복학하게 되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공장학금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교내장학금보다 지원 시기가 더 늦어서 교내장학금이나 다른 장학금 지원이 모두 끝난 상황에서도 받을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고, 또 학과와 연관되어 학과사무실에서 직접 컨택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공장학금이 개선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특별하게 개선돼야 할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공장학재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 주세요.

장학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 휴학의 이유로 아직 사용한 비용은 아니지만, 전액의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니는 것은 현재 여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비단 쉬운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럼에 있어서 제가 이런 장학제도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수(지역시스템공학 19)

어느 시기에 농공장학금을 받으셨나요?

3학년 1학기에 받았습니다.

농공장학금을 받은 후기를 알려 주세요!

저는 원래,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기부터 정책이 바뀌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농공장학금을 받게 되어 매우 행복하였고 지금까지 제가 지역시스템공학과에 진학하여 공부한 것에 대해 보상받는 느낌이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한, 장학금을 받고 나서 다음에도 받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는 동기부여도 된 것 같습니다.

농공장학금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납니다. 먼저, 동기부여입니다. 농공장학금의 수혜를 받는 학생은 다음 학기에도 장학금을 받기 위해 이를 생각하며 동기가 부여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성적 향상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애교심이 더욱더 고취되는 것 같습니다.

농공장학금이 개선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번이 첫 수혜시기라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농공장학재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 주세요.

농공학도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제게 장학금 수혜의 기회를 주신 분들과 같은 훌륭한 사람으로도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김주석(지역시스템공학 18)

어느 시기에 농공장학금을 받으셨나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받았습니다.

농공장학금을 받은 후기를 알려 주세요!

장학금을 받아 금액적인 부담감을 줄여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며, 다음 농공장학금을 목표로 다시 삼아 학업에 대한 열정 또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농공장학금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노력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학업에 동기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줄여 학기 중 학업에 더 시간적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공장학금이 개선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장학재단에 대해 모르는 학생이 없도록 신입생 때 공식적으로 한 번 안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공장학재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 주세요.

여러번 농공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만큼 저도 나중에 농공장학재단에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다시 학교로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이를 발판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후(지역시스템공학 18)

어느 시기에 농공장학금을 받으셨나요?

4학년 1학기에 처음 받았습니다.

농공장학금을 받은 후기를 알려 주세요!

처음으로 국가에서 나오는 장학금이 아닌 농공장학금을 받았는데 국가장학금과는 다르게 스스로가 어떤 기준을 만족시켰다는 점에서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지역시스템공학과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꼈고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농공장학금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대구에서 올라와서 스스로 생활, 등록금 등 모든 지출을 충당해야 했는데 농공장학금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외나 근로장학생 등에 대한 부담이 더 줄어 들 수 있으며 앞으로 받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농공장학금이 개선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군대를 갔다 오는 남학우가 대부분인데 직전 학기 성적이라는 조건 때문에 곤란한 남학우 가 많습니다. 어차피 학년 수 제한이 있으니 직전 학기보다는 전 학기 성적으로 기준을 바

꾸는 것을 희망합니다.

농공장학재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 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최우석(지역시스템공학 19)

어느 시기에 농공장학금을 받으셨나요?

2학년 1학기, 2학기에 받았습니다.

농공장학금을 받은 후기를 알려 주세요!

장학금을 받고 나니 직전 학기에 성실하게 학과 수업을 듣고 공부한 부분에 있어서 뿌듯함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고, 다음 학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공장학금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조금 전에 언급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학과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학과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공장학금이 개선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크게 개선할 부분 없이 현행 유지해도 충분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농공장학재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 주세요.

농공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끊임없는 지원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학과에 애정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학번 복학생 전성민입니다

어느 시기에 농공장학금을 받으셨나요?

2학년 1학기에 받았습니다.

농공장학금을 받은 후기를 알려 주세요!

원래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특별히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행복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자 부모님이 좋아하셨고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공장학금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줍니다.

학업에 더욱 정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십니다.

농공장학금이 개선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직전 학기 성적이 없다면 대상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대로 인한 복학생의 경우 예외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공장학재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느 시기에 농공장학금을 받으셨나요?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에 받았습니다. 현재 3학년 1학기까지 수료하고 병역으로 휴학 중

에 있습니다.

농공장학금을 받은 후기를 알려 주세요!

장학금은 학습을 장려하시는 차원에서 수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받은 학생으로서, 그동안 농공학 수학에 들여온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차원에서나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의 격려 차원에서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농공학도로서의 동기부여도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힘을 다시 농공학에 씀으로써 성적도 올라가고, 그로 인해 다시 농공장학금을 받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뿌듯하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농공장학금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농공학도에게 접근성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장학금들은 신청 과정에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농공장학금은 농공학을 수학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신청 자체가 매우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건을 갖추어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찌 되었든 신청 과정 자체는 농공학도에게 열려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장학금을 받아도 그것이 학업 장려의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공장학금은 그러지 않고 충분히 유의미한 도움을 주어 농공학 공부에 힘을 받게 됩니다.

농공장학금이 개선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솔직하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적어야 한다면 수여 대상 우선순위 같은 지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공장학재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 주세요.

후배로서 많이 부족하지만, 농공장학재단의 지원으로 힘을 얻고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농공학 수학과 연구에 힘을 쏟음으로써 은혜에 보답하고, 선배님들이 닦아 놓으신 농공학의 길을 더 빛낼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어느 시기에 농공장학금을 받으셨나요?

2학년 1학기에 받았습니다.

농공장학금을 받은 후기를 알려 주세요!

저는 지방에 거주하다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후 주거 비용을 비롯한 생활비와 등록금을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함과 죄송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과외나 아르바이트로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는 있지만 학업과 병행하다 보니 생활비 전체를 스스로 충당하기는 힘들었고 학업에도 소홀해짐을 느꼈습니다. 농공장학금을 받은 후에는 그러한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농공장학금이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에서 지역시스템 공학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임을 알게 되고, 제가 선택한 전공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두터워졌으며,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선배님들께 받은 선의를 이 전공을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다짐하였습니다.

농공장학금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농업은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요즘 전 세계의 식량 확보를 위해 꼭 발전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중에서 농공학은 거대한 발전을 이룬 첨단 공학과 농업을 이어 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농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농공장학금은 단순히 농공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농공장학금이 개선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농공장학금을 받은 학생으로서 불편함이나 단점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농공장학재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 주세요.

제게 장학금이라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학금을 받은 경험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나눔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감을 마음에 깊게 새기고 누군가에게 제가 받은 선행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은(지역시스템공학 19)

어느 시기에 농공장학금을 받으셨나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에 받았습니다.

농공장학금을 받은 후기를 알려 주세요!

우선 처음 농공장학금을 받았을 당시, 열심히 학교생활을 했을 뿐인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농공장학금으로 인해 학비에 대한 부담이 줄었으며 다음에도 장학금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학업에 더 열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농공장학금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농공장학금은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여 주어 학생으로서 학업에 더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줄어든 만큼, 나에 대해 돌아보고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공장학금이 개선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농공장학재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 주세요.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 농공장학금을 주신 덕분에 학교 생활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고, 미래의 저에게 더 투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시기에 농공장학금을 받으셨나요?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에 받았습니다.

농공장학금을 받은 후기를 알려 주세요!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학비에 대한 부담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학비는 물론, 학기 중에 생활비와 교통비, 식비까지 부담하다 보면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 역시 잦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농공장학금’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농공학과 선배님이 마련해 주신 기금 덕분에 학비의 부담을 크게 덜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스스로의 적성을 탐색하고 도전하는 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4학년이 되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느낍니다. 농공장학금이 아니었다면 금전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며 다양한 경험을 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선배님들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은혜를 다시 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정진하고자 합니다.

농공장학금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서류 제출과 과정이 필요 없이 큰 금액의 액수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지역시스템공학’을 전공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큰 금액을 지원해 주는 장학금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공장학금이 개선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농공장학재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 주세요.

본의 아니게 대학 생활을 하며 농공장학재단에 많은 도움을 받아 왔습니다.

농공창의경진대회에 참여하며 기술과 농학을 결합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농공장학금을 통해서 학기 중의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저는 기업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을 이루어 가며 부를 쌓을 수 있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부를 사회에 나누는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기에, 제가 받았던 도움을 기꺼이 누군가에게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박선재(지역시스템공학 20)

어느 시기에 농공장학금을 받으셨나요?

2학년 2학기에 받았습니다.

농공장학금을 받은 후기를 알려 주세요!

해당 학기에 농공장학금을 받은 후 가장 먼저 ‘학비를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곧 장학금을 받은 것에 있어 부끄럽지 않도록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이후 학비를 조달하는 데 시간을 빼앗기지 않아 학업에 집중할 수 있어 성적이 향상되었고, 봉사 동아리와 같이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활동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농공장학금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농공장학금의 가장 큰 장점은 해당하는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추후에 사회에 나가 농공장학재단에 후원을 하게 되고, 이것이 장학금의 형태로 다시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시스템이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농공장학금이 개선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있어서는 현재 개선될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공장학재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 주세요.

학비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점이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얼른 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신분이 아닌 농공장학재단에 후원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고재준(지역시스템공학 18)

어느 시기에 농공장학금을 받으셨나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에 받았습니다.

농공장학금을 받은 후기를 알려주세요!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등록금 걱정을 끼치지 않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지역시스템공학전공에 다니며 농공장학금을 받고 다닌다고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과에 대한 애정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덕분에 현재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농공장학금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어느 정도 학교생활을 성실히 했다면 3학년 때부터는 등록금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서울대 전체를 둘러보아도 이렇게 많은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는 학과는 보기 드뭅니다. 따라서 우리 과에 대한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공장학금이 개선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학년 때는 전액 장학금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려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농공장학재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 주세요.

덕분에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시기에 농공장학금을 받으셨나요?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에 받았습니다.

농공장학금을 받은 후기를 알려 주세요!

적지 않은 돈을 장학금으로 받게 되어 그만큼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했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복학 이후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마음가짐과 맞물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으며, 농공학도로서의 진로를 꿈꾸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농공장학금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과 농공학도로서의 학생들의 의지만 있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계속해서 학과와 재단과의 인연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준다고도 생각합니다.

농공장학금이 개선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농공장학재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 주세요.

항상 후배들에게 큰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느 시기에 농공장학금을 받으셨나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에 받았습니다.

농공장학금을 받은 후기를 알려주세요!

2학년 1학기에 농공장학재단으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은 날, 그날의 기분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지역시스템공학과는 다른 과와 달리 농공장학금을 준다는 것을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막상 실제로 받게 되니 얼떨떨하면서도 감개무량했습니다.

얼떨떨한 감정은 농공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주변 학우들에 비해서 제 학점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처럼 성적에 목매어서 수업을 듣기보다 여러 분야의 수업을 들으며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관심 분야를 듣는다고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수업보다 저 자신에 중점을 두다 보니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공부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수업 내용 중에서 호기심이 생기는 일부 내용만을 심화해서 공부하고, 과제 또한 관심사에만 집중해서 해결하다 보니 수업에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낮은 학점을 받게 되었고,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다시 학점을 위해 고등학교 때처럼 성적에 목매는 공부를 해야 하는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방황의 시기에서 수여한 농공장학금은 제 공부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 너를 위한 공부와 활동을 해라. 농공장학금의 이러한 격려 덕분에 여러 공부를 접하던 중 평생을 배우고,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농공장학금을 받은 뒤로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1학년 때는 장학금을 받지 못하여 따로 과외나 알바를 하면서 학비를 충당하였는데, 2학년이 되고 나서는 알바 시간을 줄이면서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 시간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날 여유도 생겼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마음이 맞는 동기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하는 취미 활동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과는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분야에 관해 공부하는지 들으며 지역시스템공학과 수업을 대하는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농공장학금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농공장학금은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었고, 학비에 대한 걱정을 덜어서 그 시간에 동아리나 봉사 같은 다른 활동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농공장학금이 개선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초과 학기를 수강하는 재학생에게도 농공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농공장학재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 주세요.

제 대학 생활의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농공학을 빛내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현(바이오시스템공학 18)

얼마 전 막 수능을 끝내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관악캠퍼스에 면접을 보러 오는 것을 보며, 6년 전 면접을 보러 왔던 저의 모습과 입학 후 지금까지의 제 학교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입학 후 좋은 친구이자 동료인 동기들과 따뜻한 선배님들, 그리고 착한 후배들과 즐겁게 놀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이오시스템공학과에 많은 애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부터 학부연구생으로 연구실에 들어와서 졸업을 했고, 곧바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지금까지 바이오시스템공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 감사하게도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었고, 소중한 장학금 덕분에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학비를 위해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농공장학재단의 지원이 더욱 감사히 느껴졌습니다.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의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학과에 대한 자부심과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져다주었습니다. 현재 바이오시스템공학과의 원우회장으로서 어디 가서 저희 학과에 대해 설명할 때마다 저는 꼭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학과의 큰 자랑이자 저 같은 후배들에게는 든든한 기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열리는 농공의 날에는 농공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재단의 발전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든든한 선배님들을 만나 뵙고 저와 같은 후배들과 소통하며 응원해 주셨고, 선배님들을 따라 농공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연구자가 되기로 다

짐하였습니다. 사실 몇몇 선배들과 동기들은 관련 분야가 아닌 다른 산업에서 종사하거나 학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각자의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과 목표를 가지고 있기에 잘 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바이오시스템공학과에 입학을 했고, 6년이라는 시간을 다니면서 농공학이라는 분야를 정말 멋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빼어지지 않을 중요한 산업이며, 농업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농공학 분야의 한 연구자가 될 수 있음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러 산업에서 다양한 첨단 공학 기술을 적용하고 발전하는 것처럼 농업 분야에서도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연구자가 되려고 합니다.

선배님들께 받은 응원과 사랑을 후배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선배님들과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학문과 연구에 전념할 것입니다. 끝으로 장학재단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태호(바이오시스템공학 18)

관악캠퍼스의 일원이 되고 벌써 6번째 겨울을 맞습니다. 짧다면 짧다고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학교에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몸으로 느낍니다. 되돌아보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후 1년 동안 저는 서울대학교의 학생이라는 사실에 지나치게 만족하고 더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고 나니, 그 다음 제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지 못했고, 이제는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단순한 해방감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로는 성인이었지만 내면은 성장하지 못한 채 고등학생 수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2학년이 되어 농공학장학금의 수혜를 입고 나서는 마음가짐을 새로이 다잡게 되었습니다. 선배님들의 출연으로 소중하게 모인 장학금이 저에게 전달된 만큼 제가 더욱 더 정진하지 않으면 재단의 성의를 저버리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저로 인해 혜택을 입지 못한 학우들의 기회까지 헛되이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서울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제 부모님과 친척분들에게도 또 다른 자랑거리가 되었고, 저도 이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며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3학년이 되어서도 전액 장학금 수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또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가까운 학번의 선배들 외에도 멀리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대선배님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따뜻함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도 받은 만큼 후배들에게 베풀고 이 끈끈함이 앞으로도 이어지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그 생각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습니다.

코로나 전후로 학교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이어진 소통의 단절로 가까웠던 동기들과도 어색해지고, 선후배 사이에서의 돈독함을 느끼기 어려워졌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수업 방식도, 과제 제출도 모두 편리해졌지만 배움에 있어 항상 부족함이 있다고 느낍니다.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기술의 발전은 지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삶이 편리해지는 것과 행복해지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농공학장학금을 통해 배운 나눔의 덕목을 가슴으로 기억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잊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에 감사드립니다.

부록 2

장학재단의 정관과 각종 기록물

장학재단의 정관 및 각종 규정

1) 장학재단의 정관 변경 사항

장학재단의 발전과 소속된 대학의 명칭, 조직 개편 그리고 관악이전에 따라 정관에서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부록 표와 같다. 농공장학재단의 정관은 편의상 생략하고,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면 [부록 표 1-1-1]~[부록 표 1-1-9]와 같다.

[부록 표 1-1-1] 제1차 정관변경(1991. 3. 12.)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9인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u>11</u> 인

[부록 표1-1-2] 제2차 정관변경(1992. 2. 24.)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1인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u>13</u> 인

[부록 표 1-1-3] 제3차 정관변경(1994. 5. 24.)

개정 전	개정 후
<p>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3인</p>	<p>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u>15인</u></p>

[부록 표 1-1-4] 제4차 정관변경(1998. 12. 11.)

개정 전	개정 후
<p>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수들의 학문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농공학 분야의 인재 양성 및 학문 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2번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 내에 둔다.</p> <p>제4조 (사업) 1항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p> <p>1) 농공학과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2) 농공학과 교수의 연구 활동 및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3)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p> <p>제5조 2항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 학생 및 교수에 한한다.</p>	<p>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u>농업생명과학대학</u> 내의 농공학을 전공하는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수들의 학문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농공학 분야의 인재 양성 및 학문 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2번지 서울대학교 <u>농업생명과학대학</u> 내에 둔다.</p> <p>제4조 (사업) 1항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p> <p>1) <u>농공학을 전공하는</u>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2) <u>농공학을 전공하는</u> 교수의 연구 활동 및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3)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p> <p>제5조 2항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서울대학교 <u>농업생명과학대학</u> 학생 및 교수 종 <u>농공학을 전공하는</u> 자에 한한다.</p>

[부록 표 1-1-5] 제5차 정관변경(2004.7.2.)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2번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내에 둔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u>서울특별시</u> 관악구 신림 9동 산 56-1 서울대학교 <u>농업생명과학대학</u> 상록관 내에 둔다.

[부록 표 1-1-6] 제6차 정관변경(2011. 6. 1.)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내의 농공학을 전공하는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수들의 학문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농공학 분야의 인재 양성 및 학문 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내의 <u>농공학(지역시스템공학, 바이오시스템공학, 이하 동일)</u> 을 전공하는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수들의 학문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u>농공학(지역시스템공학, 바이오시스템공학, 이하 동일)</u> 분야의 인재 양성 및 학문 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록 표 1-1-7] 제7차 정관변경(2020. 3. 13.)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이라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u>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u> ”이라 한다.

[부록 표 1-1-8] 제8차 정관변경(2020. 9. 23.)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 (회계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회계 원칙) (1)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2) 이 법인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시한다.

[부록 표 1-1-9] 제9차 정관변경(2021. 8. 2.)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 (법인 공여 수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 및 교수 중 농공학을 전공하는 자에 한한다.	제5조 (법인 공여 수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2) 장학제도 관련 사항

장학제도 관련 사항으로 특별장학기금조성과 운영 방안은 [부록 표 1-2-1], 장학생 선발규칙은 [부록 표 1-2-3]~[부록 1-2-4], 장학재단 운영 관련 사항은 [부록 표 1-2-5]에 수록되어 있다.

(1) 농공동창회의 특별장학제도 사항

[부록 표 1-2-1] 특별장학기금의 조성과 운영 방안(1982. 12. 17.)

농공동창 특별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방안

1. 기금의 조성

- 1) 농공동창 중 원로 중견 회원으로서 명예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의 회사로 이루어진다.
- 2) 일백만 원(₩1,000,000)을 1구좌로 하고, 1구좌 이상을 기금으로 한다.
- 3) 장학기금의 명칭은 회사하신 분의 호, 이름, 기타의 명칭으로 정한다.
- 4) 기본 기금의 증식과 장학금 지급 내역은 영구적으로 기장 보존한다.

2. 기금의 운영

- 1) 개인명의 장학금은 회사자별의 별도 계좌로 한다.
- 2) 기금의 증식은 이자수입, 기타 운영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기본 기금의 확대를 위하여 동창 회원 중 원하는 분은 기존명칭의 기금에 임의로 기여할 수 있다.

3. 수혜자 결정

- 1) 수혜 대상자는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한다.
- 2) 수혜자의 결정은 특별 장학기금 운영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수혜 학생은 장래 농공동창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답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농공동창회와 장학재단의 관계 설정

[부록 표 1-2-2] 농공동창회 회칙의 변경 사항(1992. 10. 3.)

회칙 제13조(신설) 본회는 제3조 4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에 농공장학재단을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이사장은 동창회장이 겸임한다.
2. 임원은 재단의사회에서 선임하여 동창회 확대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기타 운영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재단 정관에 따른다.

(3) 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 사항

[부록 표 1-2-3] 장학생 선발 규칙(1992. 3. 25.)

장학생 선발 규칙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

1. 장학생 자격 요건

- (1) 애국사상·효친사상이 투철하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학생
- (2) 학과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 (3) 학과장의 추천이 있는 학생
- (4) 직전 학년의 1, 2학기 평균성적이 4.3 기준 3.0 이상인 학생

2. 결격사유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없다.
- (1) 휴학, 군입대, 질병, 기타 사유로 장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자
 - (2) 다른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장학금의 수혜가 있는 자
 - (3) 기타 재단 장학사업의 취지 및 장학금 지급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3. 구비서류

장학생 추천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추천서 1부
- (2) 전학년도 성적증명서 1부

4. 기타

- (1) 2학기 장학생 추천대상이 되는 1학기 장학금 수혜자 중 2항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학년에서 보궐,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1학기에 이어 2학기에 재추천하는 장학생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중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부록 표 1-2-4] 장학생 선발 규칙의 추가 사항

장학생 선발 규칙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

1996. 2. 장학생 선발 규칙에서 장학생을 추천하는 사유를 첨부하도록 이사회에서 결정하다.

2003. 2. 장학생 선발 규칙에서 장학생의 출신 고등학교를 명시하도록 이사회에서 결정하다.

(4) 장학재단의 운영 관련 사항

[부록 표 1-2-5] 자문위원회 규칙(2003. 6. 20.)

자문위원회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농공장학재단의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1)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임명직 위원은 농공장학재단 이사로 역임하셨던 분으로 이사장이 추천한다.
- (3) 당연직 위원은 장학재단 이사장과 상임이사로 한다.
- (4) 위원장은 장학재단 이사장이 겸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1) 장학재단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
- (2) 장학재단 기금의 운영에 대한 자문
-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임무)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상임이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6조(회의소집)

- (1)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이사회와 연석으로 개최할 수도 있다.

3)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정관(2022. 12. 31. 현재)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내의 농공학(지역시스템공학, 바이오시스템공학 이하 동일)을 전공하는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수들의 학문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농공학(지역시스템공학, 바이오시스템공학 이하 동일) 분야의 인재 양성 및 학문 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제단법인 서울대학교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9동 산56-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상록관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농공학을 전공하는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2) 농공학을 전공하는 교수의 연구 활동 및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 3)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
- (2) 제1항의 목적 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 (3) 제2항의 수익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법인 공여 수익의 수혜자)

- (1)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 (2) 다음 각 호의 2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

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3) 이 법인의 기본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7조 (재산의 관리)

(1) 제6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대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자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 재산 및 보통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 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자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 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 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 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 원칙)

- (1)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2) 이 법인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시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 외의 채무 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 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 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의 총액이 100만 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 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15인
 - 2) 감사 2인
- (2)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제17조 (상임이사)

-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2) 상임이사의 업무 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 방법)

-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 (2) 임기 전에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

- (1)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 간에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 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2)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

야 한다.

제21조 (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 (1) 이사장은 이사회에 호선으로 선출하고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 (이사장의 직무 대행)

-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2) 이사장이 퇴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결산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6)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전술하는 일
- (7)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 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 (의결 정수)

-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 는 의장이 결정한다.
- (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여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3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 한다.

제3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 (공고 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경인일보나 경기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타 이사장이 공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범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장	이철주	서울시 성동구 광장동 18-1 극동아파트 5-206	1990. 3. 29.부터 1994. 3. 29.까지(4년)
이사	정진호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14 신동아아파트 7-1102	"
이사	안재숙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5-11	"
이사	윤오섭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7-3	"
이사	윤대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7	"
이사	유한홍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529-30	1990. 3. 29.부터 1992. 3. 29.까지(2년)
이사	고재근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36-1 대림아파트 1-901	"
이사	정창주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52-3 현대아파트 104-504	"
이사	신동수	서울시 관악구 봉천11, 1628-22	"
이사	김재곤	서울시 송파구 분정동 150 훼미리아아파트 304-503	1990. 3. 29.부터 1992. 3. 29.까지(2년)
이사	배정길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20 현대아파트 81-1108	1990. 3. 29.부터 1991. 3. 29.까지(1년)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1990년 3월 29일)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4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학재단의 설립 과정 및 관련 기록물

장학재단의 설립은 1989년 2월 농공동창회 확대임원회의의 결의를 통해 시작되었다. 이후 수차례 준비모임을 가지면서 정관, 이사회 구성 등에 세부사항에 대해 준비하였다. 이 과정을 [부록 표 2-1-1]에 정리하고, 더불어 장학재단의 설립 취지문과 설립 당시 예산결산 사항을 [부록 표 2-1-2]와 [부록 표 2-1-3]에 수록하였다.

[부록 표 2-1-1] 장학재단 설립 준비 과정

- 1) 1989. 2. 10.(대림정): 농공동창회 확대임원회의에서 재단설립 추진 발의함.
- 2) 1989. 7. 14.(우리집): 농공동창회 임원회의에서 명칭, 정관, 이사선임, 추진위원회 문제 등을 토의 및 설립 신청서류와 예상 문제점을 검토함.
- 3) 1989. 9. 28.(우리집): 농공동창회 임원회의에서 허가절차, 농공동창회 총회 의결사항 등을 검토 및 설립추진 위원(안) 구성함.
- 4) 1989. 10. 9.(농대): 농공동창회 총회에서 정관에 필요한 제반사항(명칭, 목적, 사업내용, 임원선임 등)을 토의함. 추진위원회를 의결, 재단설립에 관한 제반사항은 추진위원회에 일임하되 창립이사선임은 농공동창회 임원회의에서 주인하기로 의결함.
- 5) 1989. 10. 20.(우리집): 재단설립 추진모임에서 창립이사선임(안), 이사선임 기준 토의, 정관(안) 검토함.
- 6) 1989. 11. 3. (우리집): 농공동창회 확대임원회의에서 창립이사선임 주인함.
- 7) 1989. 11. 9 (반포회관): 재단 창립이사회에서 정관을 의결하고 향후 2년간 사업계획 및 재단설립 취지문 작성, 신청서류 등을 검토함.
- 8) 1989. 11. 10.~1989. 12. 31.: 재단설립 신청서류 준비함.
- 9) 1990. 1. 8.: 수원시 교육청에 장학재단법인 설립 신청서를 접수함.
- 10) 1990. 3. 29.: 장학재단설립 허가서를 취득함.
- 11) 1990. 4. 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재단설립 등기부 등본을 취득함.
- 12) 1990. 4. 17.: 수원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취득함.
- 13) 1990. 4. 20.: 수원시 교육청에 법인설립을 등기하고 재단설립 완료함.
(※ 상기의 괄호 안의 “우리집”: 정하우 명예교수의 역삼동 자택을 의미함)

[부록 표 2-1-2] 장학재단 설립취지문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 설립 취지문

인류 역사와 함께 태동한 농업은 지구촌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존속되어야 할 기간산업으로서 이를 뒷받침하는 농업과학 및 기술은 필연적으로 발전 계승되어야 할 분야이다. 농업공학은 이와 같이 농업과학 및 기술의 한 분야로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는 학문으로 정의되고 있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공학에서 담당하는 분야로는 개간, 간척 등을 통한 농지의 확대, 저수지, 양수장 등의 설치에 의한 농업용수원의 확보, 경지정리, 수리구조물의 설치 등과 같은 농지의 정비, 작물의 생육에 알맞은 관개배수, 농작물의 파종, 재배, 관리, 수확 등에 필요한 각종 농업기계, 수확된 농산물의 건조, 조제, 가동 및 저장에 필요한 각종 농산가공기계 등이 있으며, 농촌의 생활환경개선과 관련되는 분야로는 농촌주택, 축사 및 저장시설, 수질오염의 방지, 농업용 열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인 이용 등이 있다.

나아가서, 과학문명 및 산업기술이 발전과 더불어 생물공학의 농업에의 응용, 환경조절시설을 갖춘 식물공장, 각종 농업기술의 진단을 위한 Expert System, 농업생산시설 및 농업기계의 자동화, 농업노동력의 감소에 대비한 농업용 로봇의 개발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공학은 전통적인 관념에서의 농업발전은 물론 첨단적인 농업기술의 개발 및 육성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공학의 학문적 탐구와 인재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대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공업 분야의 발전에 따라 도농 간의 소득격차의 심화, 농산물의 수입 개방에 따른 국제 경쟁력 상실, 농촌문화의 퇴폐와 전통성 상실 등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궁극적인 대책은 농업기술개발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물론 농업기반의 조성, 농업구조의 개편, 경영형태의 개선, 농업기계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귀결될 것이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는 1943년에 창설된 이래, 1989년 현재 1,400여 명의 학사, 140여 명의 석사, 40여 명의 박사를 배출한 한국 농공학의 산실로서 본 학과의 졸업생들은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이들 동창생들이 1966년에 농공동창회를 결성하여 모교의 발전 및 농공학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장학기금의 확대조성과 장학사업의 확장의 필요성에 대한 농공동창회원의 뜻을 모아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을 설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본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의 설립취지는 전통적인 농업과학 및 기술의 계승발전은 물론, 새로운 과학과 첨단기술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농업에 응용하기 위하여

첫째,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의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공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고,

둘째,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의 교육 및 연구 시설의 확충과 동 학과의 교수들에게 학문탐구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 발전시키는데 있다.

1990. 1.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 설립자 대표 이 철 주 (인)

[부록 표 2-1-3] 1990년도 예산결산 사항(1989. 12. 13.~1990. 12. 31.)

1. 기본재산(1990. 4. 3.~1990. 12. 31.)

(1) 수입부

항목	결산액	비고
기본재산 기금	50,000,000	농공동창회의 출자(89.12.13)
기본재산 이자	3,704,354	
계	53,704,354	

(2) 지출부

항목	결산액	비고
차기 이월금	50,000,000	
보통재산 이월금	3,704,354	
계	53,704,354	

2. 보통재산(1989. 12. 13.~1990. 12. 31.)

(1) 수입부

항목	금액	비고
출연금	62,000,000	
보조금	2,705,193	농공동창회 지원금
보통재산 이자	3,382,877	
법인회계 이월	3,704,354	기본재산 이자
계	71,792,424	

(2) 지출부

항목	금액	비고
차기 이월금	5,527,724	
장학금	3,276,000	
재단설립비용	800,000	
회의비	118,700	
운영비	70,000	
기본재산 증자	62,000,000	
계	71,792,424	

장학재단은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1990년 3월 29일에 법인설립허가를 발급받았다. 이후 2021년에 서울대학교 농공학과의 두 전공의 명칭이 바뀐 관계로 장학재단의 명칭이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으로 수정해서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법인 설립 허가를 간청하였다. 이와 관련된 법인설립허가서와 명칭변경허가증,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기록으로 [부록 그림 2-1-1]~[부록 그림 2-1-4]에 수록하였다.

제 2-1-1-1

법인설립허가서

법정 제 32조 및 공식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거 아래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1. 법인명: 朝鮮法人 仁德大學農工獎學財團
2. 대표자: 金 昊 國
3. 소재지: 우정사 경상구 사문동 108-2
4. 경영자: 박 철

1990년 3월 29일

행정청장의 서명 및 서명에 대한
증명 제 10조 제 11항 제 11조의 서명
법인의 허장을 발급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

제 2-1-1-2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용)

법인번호: 123-456-78900

법인명: 朝鮮法人 仁德大學農工獎學財團
대표자: 金 昊 國
소재지: 우정사 경상구 사문동 108-2
영업장소: 108-2
전화번호: 051-123-4567
설립일자: 1990. 3. 29.

사업자등록증	1	2	3	4	5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영업장소					
전화번호					
설립일자					

부록 2-1-1-2

[부록 그림 2-1-1] 농공장학재단 법인설립허가서(1990. 3. 29. 설립 당시)

[부록 그림 2-1-2] 농공장학재단법인 사업자 등록증

제 2021-40호

법인설립허가증

「법인」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아래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 법인명 : 세한설립 서울특별교육공사(법·공학장학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88-1
- 대표자 : 박현우(생년월일 : 1962. 2. 18.)
- 성명 : 박현우

2021년 7월 5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특별시 교육감

제발급

* 설립허가일 : 2021. 7. 5.

* 법인마련 : 소외자 부정

구 분	별정 번	별정 주	비고
소외자	제2021-4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88-1	서울특별시 교육감 신임대 1588-1

[부록 그림 2-1-3]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법인설립허가증(2021. 7. 5.)

사업자등록증

[면세법인사업자:본점]

등록번호 : 104-82-32726

법인명(영문) : 세한설립 서울특별교육공사(법·공학장학재단)

대표자 : 박현우

제정년월일 : 2020년 04월 04일 법인등록번호 : 10410-000-000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88-1(서울특별시 교육감 신임대 1588-1)

전화번호 : 02-555-1234567890
팩스번호 : 02-555-1234567890
이메일주소 : 제2021-40호@naver.com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제정번호 : 104-82-32726
등록증정부처 : 관세청

2020년 06월 17일

관세세무사장

고지장

[부록 그림 2-1-4]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사업자등록증(2020. 6. 17.)

연도별 장학생 명단 및 장학금 지급액 통계

농공동창회의 장학사업은 초기에 농공동창회가 직접 장학업무를 주관한 기간(1968~1990)과 농공장학재단의 출범과 함께 재단이 장학업무를 주관하도록 한 기간(1991~현재)으로 구분된다. 두 시기를 구분하여 장학금 수혜한 학생들의 명단과 지급금액을 [부록 표 3-1]과 [부록 표 3-2]에 수록하였다.

[부록 표 3-1]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령자 명단과 지급액(1968~1990)

연도	학기	전공	성명(학위과정, 학년)	지급액(원)	합계(원)
1968	1	농공학	-		
	2	농공학(1명)	윤병호(4)	15,000	15,000
1969	1	농공학(2명)	이재영(4), 김철중(3)	30,000	30,000
	2	농공학(2명)	이재영(4), 김철중(3)	30,000	30,000
1970	1	농공학(2명)	김철중(4), 권희교(3)	40,000	40,000
	2	농공학(2명)	김철중(4), 권희교(3)	44,000	44,000
1971	1	농공학(2명)	오병환(3), 윤재호(3)	46,000	46,000
	2	농공학(2명)	유철근(4), 윤재호(3)	54,000	54,000
1972	1	농공학(2명)	윤재호(4), 김동환(3)	68,000	68,000
	2	농공학(2명)	윤재호(4), 김동환(3)	67,800	67,800

[부록 표 3-1]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령자 명단과 지급액(1968~1990)(계속)

연도	학기	전공	성명(학위과정, 학년)	지급액(원)	합계(원)
1973	1	농업토목전공(1명) 농업기계전공(1명)	이승우(4) 이정원(4)	35,700 35,700	71,400
	2	농업토목전공(1명) 농업기계전공(1명)	이승우(4) 이정원(4)	30,000 30,000	60,000
1974	1	농업토목전공(1명) 농업기계전공(1명)	전재화(4) 김경욱(4)	35,000 35,000	70,000
	2	농업토목전공(1명) 농업기계전공(1명)	전재화(4) 김경욱(4)	40,000 40,000	80,000
1975	1	농업토목전공(1명) 농업기계전공(1명)	고홍석(4) 이대연(4)	68,850 68,850	137,700
	2	농업토목전공(1명) 농업기계전공(1명)	고홍석(4) 이대연(4)	75,000 75,000	150,000
1976	1	농업토목전공(1명) 농업기계전공(2명)	박한기(4) 김상현(4), 박경구(석1)	85,300 170,600	255,900
	2	농업토목전공(1명) 농업기계전공(2명)	박한기(4) 김상현(4), 박경구(석1)	85,300 169,900	255,200
1977	1	농업토목전공(2명) 농업기계전공(2명)	권진봉(4), 박광수(4) 남상일(4), 이원남(4)	187,000 187,000	374,000
	2	농업토목전공(2명) 농업기계전공(2명)	권진봉(4), 박광수(4) 남상일(4), 이원남(4)	187,000 187,000	374,000
1978	1	농업토목전공(2명) 농업기계전공(2명)	윤치욱(4), 이종식(4) 김석진(4), 김찬영(4)	202,800 202,800	405,600
	2	농업토목전공(2명) 농업기계전공(2명)	윤치욱(4), 이종식(4) 김석진(4), 김찬영(4)	202,800 202,800	405,600
1979	1	농업토목전공(2명) 농업기계전공(2명)	안치일(4), 이봉영(4) 이종갑(4), 장광윤(4)	216,400 216,400	432,800
	2	농업토목전공(2명) 농업기계전공(2명)	안치일(4), 이봉영(4) 이종갑(4), 장광윤(4)	216,400 216,400	432,800
1980	1	농업토목전공(2명) 농업기계전공(2명)	김근원(4), 이용직(4) 문성채(4), 이중용(4)	265,500 265,500	531,000
	2	농업토목전공(2명) 농업기계전공(2명)	김근원(4), 이용직(4) 문성채(4), 이중용(4)	277,500 277,500	555,000

[부록 표 3-1]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령자 명단과 지급액(1968~1990)(계속)

연도	학기	전공	성명(학위과정, 학년)	지급액(원)	합계(원)
1981	1	농업토목전공(2명)	박병태(4), 신태은(4)	373,800	747,600
		농업기계전공(2명)	강영선(4), 김용현(4)	373,800	
	2	농업토목전공(2명)	박병태(4), 신태은(4)	373,800	747,600
		농업기계전공(2명)	강영선(4), 김용현(4)	373,800	
1982	1	농업토목전공(2명)	박병흔(4), 이무종(4)	447,000	894,000
		농업기계전공(2명)	나용운(4), 한철수(4)	447,000	
	2	농업토목전공(2명)	박병흔(4), 이무종(4)	447,000	894,000
		농업기계전공(2명)	나용운(4), 한철수(4)	447,000	
1983	1	농업토목전공(2명)	이환우(4), 허선후(4)	469,000	938,000
		농업기계전공(2명)	김치환(4), 이영권(4)	469,000	
	2	농업토목전공(2명)	이환우(4), 허선후(4)	469,000	938,000
		농업기계전공(2명)	김치환(4), 이영권(4)	469,000	
1984	1	농업토목전공(2명)	김춘삼(4), 이병국(4)	450,000	900,000
		농업기계전공(2명)	유의경(4), 이환승(4)	450,000	
	2	농업토목전공(2명)	김춘삼(4), 이병국(4)	450,000	900,000
		농업기계전공(2명)	유의경(4), 이환승(4)	450,000	
1985	1	농업토목전공(4명)	김현준(4), 권기대(4)	450,000	1,500,000
		농업기계전공(4명)	이상진(4), 이한구(4)	300,000	
			송석한(4), 이비용(4)	450,000	
			김기영(4), 박복응(4)	300,000	
	2	농업토목전공(3명)	김현준(4), 권기대(4)	450,000	1,200,000
			김석철(4)	150,000	
			송석한(4), 이비용(4)	450,000	
			국인석(4)	150,000	
1986	1	농업토목전공(4명)	문병두(4), 박종민(4)	500,000	1,600,000
		농업기계전공(4명)	이기은(4), 최장호(4)	300,000	
			유한상(4), 정길호(4)	500,000	
			조상기(4), 차재윤(4)	300,000	
	2	농업토목전공(4명)	문병두(4), 박종민(4)	500,000	1,600,000
			이기은(4), 최장호(4)	300,000	
			유한상(4), 정길호(4)	500,000	
			조상기(4), 차재윤(4)	300,000	

[부록 표 3-1]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령자 명단과 지급액(1968~1990)(계속)

연도	학기	전공	성명(학위과정, 학년)	지급액(원)	합계(원)
1987	1	농업토목전공(5명)	김종덕(4), 조정묵(4), 성근열(4), 신경수(4), 한광훈(4)	500,000 450,000	1,900,000
		농업기계전공(5명)	백주형(4), 정승영(4) 변창덕(4), 손영선(4), 임동수(4)	500,000 450,000	
	2	농업토목전공(5명)	김종덕(4), 신경수(4) 이두철(4), 최은철(4), 한광훈(4)	500,000 450,000	1,900,000
		농업기계전공(5명)	백주형(4), 정승영(4) 변창덕(4), 손영선(4), 오동환(4)	500,000 450,000	
1988	1	농업토목전공(3명)	윤성수(4), 이은재(4)	1,000,000	2,500,000
		농업기계전공(3명)	우유진(4) 권순환(4), 김기웅(4)	250,000 1,000,000	
	2	농업토목전공(3명)	윤성수(4), 우유진(4) 이은재(4)	1,000,000 250,000	2,500,000
		농업기계전공(3명)	권순환(4), 김기웅(4) 박권재(4)	1,000,000 250,000	
1989	1	농업토목전공(3명)	김광수(4), 김민근(4), 송한용(4)	1,602,000	3,204,000
		농업기계전공(3명)	심규돈(4), 이승훈(4), 이종순(4)	1,602,000	
	2	농업토목전공(3명)	김광수(4), 김민근(4), 송한용(4)	1,602,000	3,204,000
		농업기계전공(3명)	심규돈(4), 이승훈(4), 진제용(4)	1,602,000	
1990	1	농업토목전공(3명)	김광오(4), 김윤용(4), 나정균(4)	1,638,000	3,276,000
		농업기계전공(3명)	김한태(4), 이기택(4), 이상주(4)	1,638,000	
	2	농업토목전공(3명)	김광오(4), 나정균(4), 박대현(4)	1,638,000	3,276,000
		농업기계전공(3명)	김한태(4), 민 곤(4), 이상주(4)	1,638,000	

[부록 표 3-2]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령자 명단과 지급액(1991~2022)

연도	학기	전공	성명(학위과정, 학년)	지급액(원)	합계(원)
1991	1	농업토목전공(4명)	김동선(4), 손옥주(4), 정상호(4), 최병옥(4)	2,402,000	4,804,000
		농업기계전공(4명)	고국원(4), 정용철(4), 최원익(4), 우상하(석1)	2,402,000	
	2	농업토목전공(4명)	김동선(4), 손옥주(4), 정상호(4), 최병옥(4)	2,402,000	4,804,000
		농업기계전공(4명)	고국원(4), 정용철(4), 최원익(4), 상하(석1)	2,402,000	
1992	1	농업토목전공(5명)	신상호(4), 신형주(4), 하좌근(4), 윤성수(석2), 이도섭(석2)	3,247,500	6,495,000
		농업기계전공(5명)	김국환(4), 연홍석(4), 이광제(4), 조병관(4), 우상하(석2)	3,247,500	
	2	농업토목전공(5명)	신상호(4), 신형주(4), 임효선(4), 하좌근(4), 윤성수(석2)	3,247,500	6,495,000
		농업기계전공(5명)	김국환(4), 유동호(4), 이광제(4), 조병관(4), 우상하(석2)	3,247,500	
1993	1	농업토목전공(5명)	강민구(4), 이강민(4), 정형석(4), 우철웅(석2), 최병옥(석2)	3,655,000	7,310,000
		농업기계전공(5명)	김대호(4), 신상규(4), 류일훈(3), 임도형(2), 김채주(석2)	3,655,000	
	2	농업토목전공(5명)	강민구(4), 이강민(4), 정형석(4), 우철웅(석2), 최병옥(석2)	3,817,000	7,599,000
		농업기계전공(5명)	김대호(4), 신상규(4), 류일훈(3), 정영주(3), 김채주(석2)	3,782,000	
1994	1	농업토목전공(5명)	김강석(4), 박수훈(4), 배연정(4), 유기섭(4), 고광돈(석1)	4,410,500	8,857,000
		농업기계전공(5명)	김민수(4), 류일훈(4), 이동열(4), 전성필(2), 김대호(석1)	4,446,500	
	2	농업토목전공(5명)	박수훈(4), 배연정(4), 유기섭(4), 정종홍(4), 고광돈(석1)	4,303,500	8,643,000
		농업기계전공(5명)	김민수(4), 류일훈(4), 이동열(4), 신유성(2), 김대호(석1)	4,339,500	
1995	1	농업토목전공(5명)	박우식(4), 배승종(4), 장주흠(4), 최승만(4), 고광돈(석2)	5,006,500	10,013,000
		농업기계전공(5명)	이재훈(4), 신유성(3), 이성욱(3), 박주현(2), 김대호(석2)	5,006,500	

[부록 표 3-2]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령자 명단과 지급액(1991~2022)(계속)

연도	학기	전공	성명(학위과정, 학년)	지급액(원)	합계(원)
1995	2	농업토목전공(5명)	박우식(4), 배승종(4), 장주흠(4), 최승만(4), 고광돈(석2)	5,006,500	10,013,000
		농업기계전공(5명)	이재훈(4), 신동준(3), 이성욱(3), 박주현(2), 김대호(석2)	5,006,500	
1996	1	농업토목전공(5명)	김성일(4), 김성필(4), 라준엽(4), 이대희(4), 엄명철(박1)	5,952,000	11,753,000
		농업기계전공(5명)	박정인(4), 신유성(4), 이성욱(4), 최창호(4), 김우기(석1)	5,801,000	
1997	2	농업토목전공(5명)	김성일(4), 김성필(4), 라준엽(4), 이대희(4), 엄명철(박1)	5,952,000	11,786,000
		농업기계전공(5명)	박정인(4), 신유성(4), 이성욱(4), 최창호(4), 김종순(석2)	5,834,000	
1998	1	농업토목전공(5명)	김준희(4), 박승찬(4), 서교(4), 서동욱(4), 강문성(박1)	6,483,000	12,862,000
		농업기계전공(5명)	김종언(4), 임정호(4), 김경출(3), 현충호(3), 최현준(석2)	6,379,000	
1999	2	농업토목전공(5명)	김대일(4), 서교(4), 서동욱(4), 이강민(4), 강문성(박1)	6,360,000	12,776,000
		농업기계전공(5명)	김종언(4), 임정호(4), 김경출(3), 현충호(3), 정병학(석1)	6,416,000	
2000	1	농업토목전공(5명)	김성태(4), 김형진(4), 전종안(4), 편기현(4), 이호재(박1)	6,483,000	12,834,000
		농업기계전공(5명)	남기찬(4), 박영준(4), 정철호(4), 이기재(3), 이정엽(석1)	6,351,000	
2001	2	농업토목전공(6명)	김성태(4), 김형진(4), 전종안(4), 조운(4), 원정윤(박1), 권명준(석1)	8,270,000	16,555,000
		농업기계전공(6명)	박영준(4), 현충호(4), 구승범(3), 이호석(3), 이종수(석2), 이주완(석1)	8,285,000	
2002	1	농업토목전공(5명)	김기성(4), 이경도(4), 이동호(4), 최용준(4), 김성필(박1)	6,925,000	13,850,000
		농업기계전공(5명)	공대광(4), 김정욱(4), 윤승환(4), 최선종(4), 안은수(석1)	6,925,000	
2003	2	농업토목전공(5명)	김기성(4), 이경도(4), 이호상(4), 최용준(4), 송인홍(석1)	7,073,000	14,208,000
		농업기계전공(5명)	구승범(4), 제영호(4), 이광희(3), 조훈구(3), 안은수(석1)	7,135,000	

[부록 표 3-2]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령자 명단과 지급액(1991~2022)(계속)

연도	학기	전공	성명(학위과정, 학년)	지급액(원)	합계(원)
2000	1	농업토목전공(5명)	김은수(4), 김재형(4), 조호석(4), 강민구(박1), 장민원(박1)	8,969,000	20,086,000
		농업기계전공(6명)	박종혁(4), 조정효(4), 정왕조(3), 채희연(박1), 최상현(석1), 황진성(석1)	11,117,000	
2001	2	농업토목전공(6명)	김재형(4), 임재천(4), 황선일(4), 강민구(박1), 장민원(박1), 송인홍(석2)	10,835,000	19,503,000
		농업기계전공(5명)	김상범(4), 조훈구(4), 이대웅(3), 김유용(박1), 백승규(석2)	8,668,000	
2002	1	농업토목전공(5명)	정형택(4), 최은호(4), 김락중(3), 조영현(석1), 허 준(석1)	9,564,500	21,145,500
		농업기계전공(6명)	가상현(4), 권상옥(4), 임수인(3), 김유용(박1), 박영준(석2), 모창연(석2)	11,581,000	
	2	농업토목전공(6명)	김만수(4), 전기설(4), 이민권(3), 배승종(박1), 김재형(석1), 조영현(석1)	11,572,000	20,740,500
		농업기계전공(5명)	박기준(4), 박종혁(4), 전홍규(3), 안용구(석2), 김은수(석1)	9,168,500	
2003	1	농업토목전공(4명)	강동성(4), 김만수(4), 정명재(4), 서 교(박1)	7,499,000	17,122,000
		농업기계전공(5명)	이덕호(4), 진우성(4), 최상명(3), 장금송(박2), 이호상(석2)	9,623,000	
	2	농업토목전공(5명)	장태일(4), 한이철(4), 황세운(3), 박미정(박1), 심상원(석1)	10,035,000	17,481,000
		농업기계전공(4명)	김민정(4), 박백순(3), 이왕희(3), 서 민(석1)	7,446,000	
2004	1	농업토목전공(3명)	황세운(4), 박성직(3), 장태일(석1)	6,500,000	14,629,000
		농업기계전공(4명)	이왕희(4), 최준호(4), 백영기(3), 이희영(박1)	8,129,000	
	2	농업토목전공(4명)	황세운(4), 권성길(3), 이은정(3), 한이철(석1)	8,466,000	14,966,000
		농업기계전공(3명)	정훈의(4), 이상훈(3), 황성규(석1)	6,500,000	
	2	농업토목전공(3명)	김태곤(4), 신정범(3), 김웅구(석1)	7,322,000	14,361,000
		농업기계전공(3명)	이상훈(4), 한 성(4), 황성규(석2)	7,039,000	
	2	농업토목전공(3명)	김태곤(4), 신정범(3), 조영경(석1)	7,322,000	14,449,000
		농업기계전공(3명)	윤순호(4), 이민욱(3), 황성규(석2)	7,127,000	

[부록 표 3-2]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령자 명단과 지급액(1991~2022)(계속)

연도	학기	전공	성명(학위과정, 학년)	지급액(원)	합계(원)
2005	1	농업토목전공(3명) 농업기계전공(3명)	신정범(4), 황종섭(3), 김옥경(석1) 양재일(4), 이동욱(4), 심성보(석1)	7,907,500 7,861,500	15,769,000
	2	농업토목전공(3명) 농업기계전공(3명)	황종섭(3), 신정범(석1), 오윤경(석1) 송황재(3), 이기욱(석1), 이상훈(석1)	8,659,000 8,659,000	17,318,000
2006	1	농업토목전공(3명) 농업기계전공(3명)	박종욱(4), 서일환(석1), 이창구(석1) 송황재(3), 주창규(석1), 황기영(석1)	9,151,000 9,151,000	18,302,000
	2	농업토목전공(3명) 농업기계전공(3명)	송익균(3), 이은정(석2), 함영주(석2) 심민진(3), 박세홍(석1), 이성대(석1)	8,721,000 9,032,000	17,753,000
2007	1	농업토목전공(3명) 농업기계전공(3명)	김종곤(3), 노수각(박1), 정한석(석1) 김준용(4), 심민지(석1), 임애리(석1)	10,137,000 10,137,000	20,274,000
	2	농업토목전공(3명) 농업기계전공(3명)	김종곤(3), 이상현(석1), 흥은미(석1) 김효진(4), 김수철(석1), 임애리(석1)	10,137,000 9,973,000	20,110,000
2008	1	농업토목전공(3명) 농업기계전공(3명)	황순호(3), 이창구(박1), 유재인(석1) 천세환(4), 조현호(석1), 최진웅(석1)	10,949,000 10,881,000	21,830,000
	2	농업토목전공(8명) 농업기계전공(8명)	황순호(3), 남원호(박1), 이제명(박1), 이성용(석2), 흥은미(석2), 김용희(석1), 유재인(석1), 윤득노(석1) 박진혁(4), 남주석(석2), 임애리(석2), 박수현(석1), 서현권(석1), 손현목(석1) 오주선(석1), 최진웅(석1)	30,024,000 29,787,000	59,811,000
2009	1	농업토목전공 (10명)	황순호(4), 김현정(석2), 유재인(석2), 이상현(석2), 이성용(석2), 한용운(석2), 흥은미(석2), 권경석(석1), 김용희(석1), 정기웅(석1)	37,807,000	
		농업기계전공 (10명)	강병곤(4), 박수현(석2), 손현목(석2), 오주선(석2), 최진웅(석2), 백수정(석1), 서현권(석1), 이재정(석1), 이진웅(석1), 이춘구(석1)	38,314,000	76,121,000
	2	농업토목전공 (10명)	황순호(4), 남원호(박2), 이은정(박2), 이형진(박2), 흥은미(박1), 권경석(석2), 김용희(석2), 윤득노(석2), 박정안(석1), 최지선(석1)	37,976,000	
		농업기계전공 (10명)	현은제(4), 박수현(석2), 최진웅(석2), 서현권(석1), 김소희(석1), 김준용(석1), 백수정(석1), 심동국(석1), 이재정(석1), 이진웅(석1)	38,652,000	76,628,000

[부록 표 3-2]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령자 명단과 지급액(1991~2022)(계속)

연도	학기	전공	성명(학위과정, 학년)	지급액(원)	합계(원)
2010	1	농업토목전공 (12명)	정다운(4), 이영연(3), 흥민기(3), 이형진(박2), 이성웅(박1), 흥은미(박1), 박정안(석2), 윤득노(석2), 송상현(석1), 은상규(석1), 이태석(석1), 최지선(석1) 권혁정(4), 김 협(4), 흥성표(4),	43,720,000	
		농업기계전공 (12명)	박수현(박1), 박수정(석2), 이진웅(석2), 조현호(석2), 김소희(석1), 김준용(석1), 박성민(석1), 심동국(석1), 최종우(석1)	44,855,000	88,575,000
	2	농업토목전공 (12명)	이현우(4), 이영연(3), 정찬민(3), 최지선(석2), 김재현(석1), 송상현(석1), 은상규(석1), 이성복(석1), 이태석(석1), 이한귀(석1), 최순균(석1), 하태환(석1)	44,701,000	
		농업기계전공 (12명)	김현재(3), 조윤수(3), 김송현(2), 박수현(박1), 김소희(석2), 김준용(석2), 백수정(석2), 신창섭(석2), 김동현(석1), 박성민(석1), 장정욱(석1), 최종우(석1)	44,624,000	89,325,000
2011	1	농업토목전공 (15명)	김계웅(3), 이상현(박2), 송상현(석2), 은상규(석2), 이성복(석2), 이태석(석2), 최순균(석2), 강진규(석1), 김광민(석1), 김지혜(석1), 박지훈(석1), 송정현(석1), 이 인(석1), 이한귀(석1), 하태환(석1)	58,247,000	
		농업기계전공 (15명)	조윤수(4), 손대식(3), 이윤주(3), 남주석(박2), 선우훈(박1), 신창섭(박1), 이춘구(박1), 김준용(석2), 박성민(석2), 심동국(석2), 양민호(석2), 최종우(석2), 김동현(석1), 장정욱(석1), 최규정(석1)	53,223,000	111,470,000
	2	농업토목전공 (15명)	김계웅(3), 이성웅(박2), 송상현(석2), 은상규(석2), 이성복(석2), 이태석(석2), 이한귀(석2), 하태환(석2), 황순호(석2), 강진규(석1), 김지혜(석1), 박나영(석1), 박지훈(석1), 송정현(석1), 이 인(석1)	57,233,000	
		농업기계전공 (15명)	김송현(3), 이준민(3), 남주석(박2), 선우훈(박2), 신창섭(박1), 이진웅(박1), 이춘구(박1), 김동현(석2), 박성민(석2), 양민호(석2), 장정욱(석2), 최종우(석2), 김원경(석1), 정 수(석1), 최규정(석1)	55,586,000	112,819,000

[부록 표 3-2]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령자 명단과 지급액(1991~2022)(계속)

연도	전공	성명(학위과정, 학년)	지급액(원)	합계(원)
2012	농업토목 (45명)	김진환(4), 유진명(4), 윤석환(4), 김계웅(4), 민경민(4), 박병필(4), 이교영(4), 전강배(4), 채승훈(4), 임동수(4), 신우철(3), 이상협(3), 이호식(3), 김진욱(3), 위문규(3), 윤민용(3), 이병화(3), 류정훈(3), 이상협(3), 정일웅(3), 채종성(2), 강병우(2), 김마가(2), 박성호(2), 류혜선(2), 배연정(박2), 배연정(박1), 이윤희(석2), 김재현(석2), 이한규(석2), 하태환(석2), 황순호(석2), 강진규(석2), 김지혜(석2), 박나영(석2), 박지훈(석2), 송정현(석2), 이 인(석2), 안지현(석1), 최우석(석1), 김태완(석1), 윤서영(석1), 이현만(석1), 전상민(석1), 민슬기(석1)	181,300,000	352,805,000
	농업기계 (43명)	김지환(4), 박재현(4), 백가영(4), 이다경(4), 송대섭(4), 이규석(4), 백승환(4), 박기현(3), 박수용(3), 오근찬(3), 전찬우(3), 양명균(3), 정조애(3), 김용운(3), 유승아(2), 유자혁(2), 김선미(2), 이소희(2), 이정환(2), 이종안(2), 정현용(2), 김병창(2), 김용찬(2), 김준용(박2), 김준용(박1), 김영림(박1), 김장호(박1), 하종우(박1), 선우훈(석박), 신창섭(석박), 이진웅(석박), 장경제(석박), 박성민(석박), 장정욱(석2), 최규정(석2), 김원경(석2), 김동현(석2), 정 수(석2), 장지훈(석1), 조우재(석1), 권태형(석1), 정대현(석1), 안성욱(석1)	171,505,000	
2013	농업토목 (54명)	김영현(4), 신우철(4), 위문규(4), 유강환(4), 윤민용(4), 이병화(4), 이상협(4), 이호식(4), 정일웅(4), 한현상(4), 강병우(3), 김귀훈(3), 김태진(3), 박성호(3), 박원일(3), 이상호(3), 이용근(3), 이종환(3), 전지훈(3), 김계영(2), 김도연(2), 김우재(2), 김준서(2), 박관용(2), 윤푸른(2), 이건용(2), 이민형(2), 이상익(2), 이예슬(2), 이태훈(2), 정승연(2), 정하중(2), 조경현(2), 최혜숙(2), 한승현(2), 배연정(박2), 황순호(박2), 은상규(박2), 강진규(박1), 황순호(박1), 김태완(석2), 민슬기(석2), 안지현(석2), 윤서영(석2), 윤주열(석2), 이현만(석2), 전상민(석2), 김계웅(석1), 김락우(석1), 민슬기(석1), 박세준(석1), 박하야린(석1), 여욱현(석1), 하정수(석1)	190,000,000	375,235,000
	농업기계 (45명)	강동협(4), 김라리(4), 박수용(4), 박재현(4), 소인섭(4), 송대섭(4), 이윤주(4), 전찬우(4), 감승환(3), 김병창(3), 김선미(3), 김성은(3), 류고운(3), 유승아(3), 이소희(3), 정현용(3), 강다은(2), 고현훈(2), 김도엽(2), 김성민(2), 박상배(2), 박찬훈(2), 박찬희(2), 신주연(2), 윤상우(2), 이경진(2), 이승진(2), 이예슬(2), 정효림(2), 최세은(2), 홍석주(2), 김준용(박2), 김영림(박2), 김장호(박2), 김영림(박1), 김장호(박1), 장경제(석박), 박성민(석박), 정 수(석2), 조우재(석2), 백승환(석1), 염승민(석1), 최정문(석1), 추 선(석1), 하종우(석1)	185,235,000	

[부록 표 3-2]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령자 명단과 지급액(1991~2022)(계속)

연도	전공	성명(학위과정, 학년)	지급액(원)	합계(원)
2014	농업토목 (47명)	이상호(4), 박원일(4), 김귀훈(4), 전지훈(4), 이상익(3), 윤푸른(3), 박관용(3), 이도길(3), 정하중(3), 김우재(3), 정승연(3), 한승현(3), 김계영(3), 조경현(3), 김범준(2), 윤상원(2), 정다현(2), 박은지(2), 강솔뫼(2), 김정민(2), 이현무(2), 최민용(2), 한상현(2), 송우진(2), 이현지(2), 강진규(박), 박지훈(박), 송정현(박), 이상연(석), 김락우(석), 여욱현(석), 조예슬(석), 손정우(석), 이인걸(석), 김계웅(석), 윤태강(석), 이상협(석), 김솔희(석), 박세준(석), 하정수(석), 민슬기(석), 최혜숙(석), 박진석(석), 최승필(석), 김연욱(석), 신혜수(석), 방재홍(석)	180,000,000	
	농업기계 (51명)	유승아(4), 한성수(4), 박가현(4), 김성은(4), 이재은(4), 정현용(4), 김선미(4), 형건우(4), 안길환(4), 류고운(4), 김병창(4), 최세은(3), 흥석주(3), 이예슬(3), 심유승(3), 이승진(3), 신주연(3), 이소희(3), 김용운(3), 박찬훈(3), 박상배(3), 정우진(2), 손관희(2), 박성훈(2), 김덕진(2), 이재민(2), 김지은(2), 황인호(2), 문민기(2), 이창협(2), 조현문(2), 이아영(2), 이명철(석), 정세웅(석), 백승환(석), 정예슬(석), 흥원선(석), 정은성(석), 양명균(석), 안성욱(석), 장경제(석박), 정대현(석), 노영민(석), 염승민(석), 최정문(석), 추 선(석), 정 수(박), 김홍배(박), 김장호(박), 정혜승(석), 박지운(박)	354,464,000	
2015	농업토목 (51명)	윤푸른(4), 김준규(4), 박관용(4), 김연욱(4) 조승래(4), 최솔아(4), 이지후(4), 박영재(4) 정하중(4), 김우재(4), 김준서(4), 이용근(4) 박혜민(3), 정다현(3), 이현지(3), 한상현(3) 박은지(3), 최혜숙(3), 김창범(3), 강솔뫼(3), 하승아(3), 이현무(3), 김준서(3), 박진석(3), 김태진(3), 박성호(3), 장호영(2), 이탁규(2), 송은한(2), 김동욱(2), 김주형(2), 양영진(2), 전성호(2), 이민재(2), 박세준(박), 김락우(박), 김계웅(박), 하태환(박), 이승노(석), 흥민기(석), 방재홍(석), 류정훈(석), 이상연(석), 김락우(석), 여욱현(석), 조예슬(석), 손정우(석), 이인걸(석), 김계웅(석), 윤태강(석), 김동근(석)	176,500,000	
	농업기계 (43명)	박상배(4), 고현훈(4), 신주연(4), 정상진(4), 이예슬(4), 흥석주(4), 이상훈(4), 고동주(4), 이재은(4), 강다은(4), 조현문(3), 손관희(3), 김덕진(3), 최세은(3), 이아영(3), 정우진(3), 배진석(2), 유호길(2), 정혜린(2), 이윤지(2), 안길준(2), 조수현(2), 강승훈(2), 양승보(2), 문민기(2), 김홍배(박), 오주선(박), 박지운(박), 조우재(박), 이명철(박), 장경제(박), 주경선(석), 윤희섭(석), 전찬우(석), 박신제(석), 흥원선(석), 정예슬(석), 정은성(석), 이명철(석), 양명균(석), 정세웅(석), 정혜승(석), 조윤수(석)	160,528,000	

[부록 표 3-2]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령자 명단과 지급액(1991~2022)(계속)

연도	전공	성명(학위과정, 학년)	지급액(원)	합계(원)
2016	농업토목 (37명)	김준규(4), 김준서(4), 김창범(4), 김태진(4), 박은지(4), 윤후른(4), 이지수(4), 전지훈(4), 정다현(4), 하승아(4), 한상현(4), 양영진(3), 이건용(3), 장호영(3), 전성호(3), 강진수(2), 류제연(2), 박성범(2), 양경모(2), 오석주(2), 유석현(2), 허재민(2), 여욱현(박), 이상연(박), 김락우(박), 박세준(박), 박관용(석), 신샛별(석), 신용훈(석), 심은혜(석), 이도길(석), 이민형(석), 정승연(석), 류정훈(석), 방재홍(석), 이승노(석), 흥민기(석)	155,000,000	310,000,000
	농업기계 (35명)	손관희(4), 이정환(4), 정우진(4), 배진석(3), 안중석(3), 이창협(3), 장미리(3), 정혜린(3), 최원준(3), 김영현(2), 남궁휴(2), 송유리(2), 이수아(2), 박지운(박), 박하나(박), 양명균(박), 오주선(박), 이명철(박), 장경제(박), 정은성(박), 조우재(박), 구종범(석), 박상배(석), 박희수(석), 신인경(석), 정상진(석), 김동욱(석), 박신제(석), 윤희섭(석), 이창주(석), 임재운(석), 전찬우(석), 정혜승(석), 조봉진(석), 주경선(석)	155,000,000	
2017	농업토목 (41명)	김석현(4), 이건용(4), 이민재(4), 이태훈(4), 채종성(4), 최혜숙(4), 강솔뫼(3), 강진수(3), 김우진(3), 김재석(3), 김정환(3), 김지현(3), 박마음(3), 박성범(3), 송우진(3), 양경모(3), 조경현(3), 고석우(2), 곽지혜(2), 김승언(2), 김시내(2), 김영민(2), 민준기(2), 이재원(2), 정연호(2), 조상범(2), 오부영(박), 김귀훈(석), 김마가(석), 김태진(석), 신샛별(석), 윤후른(석), 이도길(석), 이승찬(석), 이현지(석), 전지훈(석), 김준규(석), 박관용(석), 신용훈(석), 이민형(석), 정승연(석)	147,500,000	295,000,000
	농업기계 (42명)	정혜린(4), 이소희(4), 손관희(4), 박찬훈(4), 한현우(3), 이준영(3), 이재민(3), 윤상우(3), 양승보(3), 남궁휴(3), 김영현(3), 김상연(3), 김도엽(3), 한경범(2), 최혜지(2), 이건하(2), 안세범(2), 박효진(2), 노길호(2), 남규현(2), 김채영(2), 김 선(2), 정대현(박), 전찬우(박), 이명철(박), 박신제(박), 김동욱(박), 정우진(석), 이정환(석), 이아영(석), 윤창호(석), 박희수(석), 박동혁(석), 조봉진(석), 정상진(석), 임재운(석), 이창주(석), 신인경(석), 박혜린(석), 박선영(석), 박상배(석), 구종범(석)	147,500,000	

[부록 표 3-2]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령자 명단과 지급액(1991~2022)(계속)

연도	전공	성명(학위과정, 학년)	지급액(원)	합계(원)
2018	농업토목 (42명)	강진수(4), 김우진(4), 양경모(4), 김정민(4), 김주형(4), 김지현(4), 한상현(4), 김재석(4), 고석우(3), 김승언(3), 정효혁(3), 류제연(3), 이병연(3), 김시내(3), 김영인(2), 손재민(2), 구경희(2), 김용준(2), 김진섭(2), 박종원(2), 이은준(2), 김다인(2), 나소진(2), 이혜민(2), 임형규(2), 한창희(2), 신용훈(박), 류정훈(박), 이상연(박), 이승찬(박), 방재홍(박), 윤푸른(박), 이태훈(석), 김준규(석), 김태진(석), 김석현(석), 김귀훈(석), 이종혁(석), 김마가(석), 이현지(석), 전지훈(석), 이상익(석)	157,025,000	317,025,000
	농업기계 (42명)	김덕진(4), 심소희(4), 윤상우(4), 이수아(4), 김범수(4), 이재민(4), 이준영(4), 한현우(4), 김선(3), 김채영(3), 한경범(3), 문지현(3), 유호길(3), 윤순규(3), 류지원(2), 이재우(2), 정조현(2), 지세민(2), 송해원(2), 윤철환(2), 조대호(2), 황희지(2), 김슬기(2), 김동욱(박), 임재운(박), 박상배(박), 손현목(박), 최규정(박), 박희수(석), 이정환(석), 정우진(석), 강민석(석), 강지현(석), 안다빈(석), 김재은(석), 박동혁(석), 박선영(석), 박혜린(석), 윤창호(석), 이아영(석), 손관희(석), 한희조(석)	160,000,000	
2019	농업토목 (46명)	김지현(4), 정연호(4), 김동욱(4), 장성주(4), 곽지혜(4), 김시내(4), 전성호(4), 김다인(3), 김용준(3), 김진섭(3), 이기훈(3), 임형규(3), 김정환(3), 박성범(3), 유석현(3), 이은준(3), 전병호(3), 김동희(3), 박종원(3), 이혜민(3), 황유진(2), 김영현(2), 김주석(2), 박성재(2), 장주환(2), 고재준(2), 김지환(2), 임지환(2), 정승주(2), 정영준(2), 김귀훈(박), 김마가(박), 김석현(박), 김준규(박), 김지혜(박), 김태진(박), 윤푸른(박), 이현지(박), 전지훈(박), 최영배(박), 강솔뫼(석), 박유미(석), 박진석(석), 이상익(석), 이종혁(석), 장호영(석)	142,975,000	282,975,000
	농업기계 (39명)	이준영(4), 유호길(4), 이호성(4), 이승윤(4), 문지현(4), 윤철환(3), 오주이(3), 김경민(3), 선명훈(2), 김예술(2), 정기성(2), 전우상(2), 이유진(2), 김용현(2), 김민재(2), 강태호(2), 임재운(박), 손현목(박), 윤창호(석), 김정선(석), 김상연(석), 홍은미(석), 이지영(석), 양도이(석), 신혜정(석), 김범수(석), 한현우(석), 정우진(석), 장규진(석), 이가언(석), 안다빈(석), 손관희(석), 박지용(석), 김지태(석), 김재은(석), 김재석(석), 강지현(석), 강민석(석), 한희조(석)	140,000,000	

[부록 표 3-2]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령자 명단과 지급액(1991~2022)(계속)

연도	전공	성명(학위과정, 학년)	지급액(원)	합계(원)
2020	농업토목 (34명)	김동희(4), 이혜민(4), 고재준(3), 정승주(3), 신정우(3), 고륜영(2), 정영훈(2), 이다연(2), 임수혁(2), 김동욱(2), 문채윤(2), 서원찬(2), 신영수(2), 장유창(2), 전혁진(2), 정예은(2), 최우석(2), 윤후른(박), 이현지(박), 김귀훈(박), 김마가(박), 김석현(박), 김준규(박), 김지혜(박), 김태진(박), 조정화(박), 최영배(박), 김시내(석), 장성주(석), 곽지혜(석), 박유미(석), 이종혁(석), 정영준(석), 정효혁(석)	140,000,000	
	농업기계 (46명)	유현재(4), 김슬기(4), 박효진(4), 류지원(4), 강태호(3), 김민재(3), 노길호(3), 김용현(3), 최종훈(2), 한윤석(2), 안지현(2), 이현우(2), 최영한(2), 한규하(2), 양현서(2), 임재운(박), 윤창호(박), 최수정(석박), 김응찬(석박), 김재은(석박), 김지태(석박), 박정호(석박), 양도이(석박), 이지영(석박), 이창협(석박), 임동우(석박), 한현우(석박), 강민석(석), 강지현(석), 이윤홍(석), 김다빈(석), 김경대(석), 김대현(석), 김범수(석), 김재석(석), 김정선(석), 박지용(석), 신혜정(석), 안다빈(석), 유정상(석), 유후길(석), 이가언(석), 최우리(석), 한진섭(석), 흥은미(석), 황인호(석)	140,000,000	280,000,000
2021	농업토목 (37명)	김지환(4), 흥주표(4), 고륜영(3), 임수혁(3), 구경희(3), 김용준(3), 김진섭(3), 도연희(3), 문채윤(3), 성민수(3), 임형규(3), 김동욱(3), 이다연(3), 장유창(3), 정예은(3), 차준현(3), 조민경(2), 한성민(2), 길도형(2), 이승상(2), 임재열(2), 장은혁(2), 이상익(박), 최영배(박), 박진석(박), 이종혁(박), 김석현(박), 조정화(박), 서병훈(석), 장성주(석), 정효혁(석), 곽지혜(석), 김동수(석), 김시내(석), 서예진(석), 유석현(석), 정영준(석)	133,223,000	
	농업기계 (43명)	남규현(4), 이현우(3), 고명진(3), 박수빈(3), 윤철환(3), 김태현(2), 탁 훈(2), 김병진(2), 이수빈(2), 이수현(2), 박동혁(박), 김정선(박), 안다빈(박), 윤창호(박), 김응찬(석박), 김주신(석박), 김지태(석박), 노승우(석박), 류지원(석박), 박병주(석박), 박정호(석박), 양도이(석박), 이창협(석박), 동우(석박), 김범수(석), 신혜정(석), 이지영(석), 최원준(석), 흥은미(석), 강경민(석), 조솔지(석), 김경대(석), 김다빈(석), 김대현(석), 김성제(석), 박승진(석), 유정상(석), 유후길(석), 이윤홍(석), 최우리(석), 한진섭(석), 황예빈(석), 황인호(석)	135,388,070	268,611,070

[부록 표 3-2]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령자 명단과 지급액(1991~2022)(계속)

연도	전공	성명(학위과정, 학년)	지급액(원)	합계(원)
2022	농업토목 (40명)	구경희(4), 김동욱(4), 도연희(4), 문채윤(4), 박성범(4), 서창민(4), 정휘환(4), 김동희(4), 임지환(4), 김용준(4), 김태준(4), 정예은(4), 임재열(3), 장은혁(3), 고재준(3), 김주석(3), 이나경(3), 한성민(3), 김동현(2), 윤득경(2), 이윤근(2), 박선재(2), 윤득경(2), 박진석(박), 정효혁(박), 이민형(박), 곽지혜(박), 김시내(박), 장성주(박), 정영준(박), 김시내(석), 서예진(석), 유석현(석), 장성주(석), 강솔뫼(석), 김동수(석), 김다인(석), 서병훈(석), 이혁진(석), 조상범(석)	142,844,900	
	농업기계 (40명)	박규민(4), 정수민(4), 탁 훈(3), 강태호(3), 전우상(3), 강경민(2), 안다빈(박), 유정상(박), 김경대(박), 김범수(박), 김정선(박), 김대현(박), 김응찬(석박), 양도이(석박), 노승우(석박), 박병주(석박), 박찬우(석박), 황희수(석박), 강민우(석박), 김용현(석박), 류지원(석박), 박정호(석박), 이창협(석박), 임동우(석박), 장규진(석박), 김다빈(석), 최원준(석), 김채영(석), 강경민(석), 김다래(석), 김대영(석), 김성제(석), 김주신(석), 노정민(석), 박승진(석), 변서정(석), 성세정(석), 송지수(석), 조솔지(석), 황예빈(석)	144,611,770	287,456,670

장학재단에서 지급한 장학금이 지역시스템공학, 바이오시스템공학 두 전공의 전체 장학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최근 5년인 2019년에서 2023년 기간에 대해 통계로 정리하여 [부록 표 3-3], [부록 표 3-4], [부록 표 3-5]에 제시하였다. 2023년 기준 농공장학금으로 지급된 3억 1,000만 원은 전체 장학금(7억 8,000만 원)의 약 40% 수준이다. 농공장학금을 포함하여 두 전공 등록학생이 받는 총 장학금 7억 8,000만 원은 총 등록금(2023년에 8억 9,000만 원)의 약 88%(대학원 88%, 학부 86%)에 달한다.

[부록 표 3-5]에서 전공별로 보면, 2023년도 농공장학금으로부터 받은 수혜율은 학부 과정에서 지역시스템공학은 29%, 바이오시스템공학은 5%에 이르고, 대학원 과정에서 지역시스템공학은 78%이고 바이오시스템공학은 63%에 달합니다. 그러나 농공장학금과 동원장학재단을 포함한 교내외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합한 총금액의 수혜율로 보면, 학부 과정에서 지역시스템공학은 96%이고, 바이오시스템공학은 78%에 이르며, 대학원과정에서 지역시스템공학은 100%이고, 바이오시스템공학은 83%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등록 학생의 대부분이 장학금으로 걱정 없이 학업에 임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부록 표 3-3] 연도별 등록 학생 수 및 등록금 현황

(단위: 명, 1,000원)

연도	지역시스템공학				바이오시스템공학			
	학부		대학원		학부		대학원	
	학생 수	등록금 총계	학생 수	등록금 총계	학생 수	등록금 총계	학생 수	등록금 총계
2019	118	351,050	30	116,088	114	339,150	42	161,881
2020	107	318,325	41	157,910	106	315,350	61	234,457
2021	90	267,750	38	145,490	95	282,625	67	257,100
2022	87	258,825	29	111,779	93	276,675	62	238,766
2023	85	252,875	24	92,262	106	315,350	60	229,979

[부록 표 3-4] 연도별 수혜 장학금 현황

(단위: 1,000원)

연도	지역시스템공학						바이오시스템공학					
	농공장학금		기타 장학금		장학금 총계		농공장학금		기타 장학금		장학금 총계	
	학부	대학원	학부	대학원	학부	대학원	학부	대학원	학부	대학원	학부	대학원
2019	71,287	75,490	214,428	40,598	285,715	116,088	35,300	104,700	249,540	12,906	284,840	117,606
2020	28,348	111,652	182,998	45,751	211,346	157,403	15,609	124,391	234,533	21,891	250,142	146,282
2021	51,878	88,122	127,628	57,368	179,506	145,490	9,800	130,200	183,073	40,591	192,873	170,791
2022	48,733	75,161	164,009	32,813	212,742	107,974	20,825	131,541	187,102	43,275	207,927	174,816
2023	74,584	72,367	169,367	19,892	243,950	92,259	14,875	145,125	232,134	46,637	247,009	191,762

농공장학금: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의 장학금

기타 장학금: 동원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의 합계

장학금 총계: 농공장학금과 기타 장학금의 총계

[부록 표 3-5] 연도별 총 장학금 수혜율 및 농공장학재단 기여율

(단위: %)

연도	전체 장학금 수혜율				농공장학금 수혜율				전체 장학금과 농공장학금의 비율			
	지역시스템공학		바이오시스템 공학		지역시스템공학		바이오시스템 공학		지역시스템공학		바이오시스템 공학	
2019	81	100	84	73	20	65	10	65	25	65	12	89
2020	66	100	79	62	9	71	5	53	13	71	6	85
2021	67	100	68	66	19	61	3	51	29	61	5	76
2022	82	97	75	73	19	67	8	55	23	70	10	75
2023	96	100	78	83	29	78	5	63	31	78	6	76

농공동창회 및 장학재단의 장학기금 모금 자료

농공동창회는 1967년도부터 장학기금을 모금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의 모금은 졸업생들이 많이 진출한 기관을 중심으로 시작하였다. 이후에 졸업생들이 많은 각 기관과 기업에서 활동하는 중간 간부급 이상에 속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모금활동을 진행했다. 돈의 가치가 지금과는 달랐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액면 모금액에 비해 적지 않는 금액이었고, 참으로 많은 동창들이 정성스럽게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간으로 보면 1967~1990년까지의 연도별로 모금된 내역을 [부록 표 4-1]~[부록 4-19]에서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1988년까지는 금전출납부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농공동창회 총회 시의 찬조금은 포함하지 않았다. 1989년과 1990년의 자료는 별도로 보고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부록 표 4-20]에서는 장학재단이 운영되는 기간 중에서 1999년도에 특별히 모금한 내역이 수록되었다. 한편 [부록 표 4-21]은 1979년부터 1989년까지 특별히 거액을 기부하신 개인과 단체를 연도별로 정리하였고, [부록 표 4-22]는 1990년부터 2011년 까지 장학재단으로 출연한 내역을 연도별로 수록하였다.

[부록 표 4-1] 제1, 2차 장학기금 모금(1967. 2.~1971. 1.)

(단위: 원)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모교교수	조 광 희	5,000	1949	송 영 수	3,000	1952	이 필 수	2,000
	박 성 우	3,000		안 재 속	2,000		최 상 균	2,000
	최 재 갑	3,000		유 한 열	3,000		박 빙 수	2,000
고농6	이 창 구	5,000		윤 선 병	3,000		방 경 수	5,000
고농9	이 수 결	2,000		윤 오 섭	3,000		이 상 호	3,000
고농10	남 영 희	10,000		주 재 흥	1,000		이 창 호	2,000
고농18	박 기 승	10,000		김 락 중	2,000		조 철 상	1,500
민 병 섭	3,000	김 성 래		3,000	한 찬 택		1,000	
한 육 동	3,000	김 시 원		3,000	한 춘 연		1,500	
1943(고농)	김 원 숙	2,000		박 문 규	2,000		강 예 목	2,000
1945(전)	임 영 춘	5,000		백 은 기	3,000		김 남 혁	1,500
	김 학 영	3,000		서 정 찬	2,000		김 윤 태	1,500
	박 노 옥	1,500		윤 대 섭	5,000		박 경 하	1,500
	이 한 영	3,000		이 성 태	2,000		신 영 우	1,500
	조 용 칠	5,000		이 철 주	3,000		안 우 손	2,000
	김 환 종	5,000		이 회 만	2,000		엄 태 영	2,000
	노 태 래	2,000		최 현 국	2,000		여 승 현	1,500
	나 도 석	2,000		황 은	3,000		이 계 안	1,000
	이 기 춘	3,000		김 병 혁	1,000		이 달 형	2,000
	이 상 용	3,000		신 유 범	2,000		이 상 구	1,000
1946(전)	이 종 호	5,000		신 준 우	1,000		이 종 모	1,500
	임 은 진	3,000		오 완 수	2,000		이 재 기	2,000
	전 기 순	1,500		이 규 형	1,500		정 구 현	1,500
	정 진 호	3,000		이 희 영	3,000		정 창 주	3,000
	최 귀 열	3,000		조 철 우	1,000		곽 종 희	3,000
	여 운 철	3,000		차 균 도	3,000		김 남 식	1,000
	함 준 호	5,000		황 희 담	1,000		김 덕 만	1,500
1947	손 규 복	3,000		고 재 군	3,000		이 상 춘	1,000
1948	김 철 기	3,000	1951	김 영 규	1,500		김 진 목	1,500
	박 자 현	1,000		김 재 곤	2,000		박 양 진	1,500

* 고농은 농학과 토지개량 전공을 1943(고농)은 고농의 농업토목학과 졸업을 의미함, 그리고 1944~46(전)은 서울 대 농대 전문부 소속을 의미함.

[부록 표 4-1] 제1, 2차 장학기금 모금(1967. 2.~1971. 1.)(계속)

(단위: 원)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1955	신언곤	1,500	1956	이만춘	1,500	1958	정동성	1,000
	신현주	1,500		이상규	1,000		정두호	1,000
	엄병현	2,000		이중기	1,500		정봉수	1,000
	이영렬	1,500		임경배	1,500		조수형	1,000
	장재중	2,000		정진옥	1,500		차봉기	1,000
	정우창	1,500		차준형	1,500		한중희	1,000
	조영기	1,500		한상욱	1,500		한휘석	1,000
	최규홍	1,000		권오완	1,000		홍민선	1,000
	최한식	1,000		김기성	1,000		홍승만	1,000
	강인평	1,500		김영수	1,500		홍종진	1,000
	김두식	1,500		김주창	1,500		고학균	1,500
	김영철	1,000		노재홍	1,000		김남훈	1,000
	김종성	1,500		문장호	1,500		김문기	1,200
	김지환	1,500		박수용	1,000		김정환	1,000
	노승봉	1,500		박준기	1,500		김홍윤	1,000
	노진표	3,000		손낙률	1,500		민병선	1,000
	박승룡	1,500		신광식	2,000		박동현	1,000
	박윤근	5,000		이계홍	1,000		박재룡	1,000
	박준용	1,500		이근복	1,000		송석은	1,000
	박창용	1,500		이상명	1,200		신일선	1,500
	박하선	1,000		최찬식	2,000		신희복	1,000
	복진하	1,500		황경구	1,500		유범식	1,000
	서승덕	1,500		황용진	1,000		유석형	1,000
	신동수	1,500	1957	김종무	1,000		안재완	1,000
	안병성	1,500		도재휴	1,000		오세훈	1,000
	오무영	1,500		박완순	1,000		이강섭	2,000
	오세인	1,500		윤우성	1,500		이광식	1,000
	유근학	1,500		이병열	1,000		이수장	1,000
	윤충섭	1,500		장문한	1,000		정종수	1,000
	이계은	1,500		장세영	1,000		조범호	1,500

[부록 표 4-1] 제1, 2차 장학기금 모금(1967. 2.~1971. 1.)(계속)

(단위: 원)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1959	지근진	1,500	1961	서대하	1,000	1964	이상인	1,000
	한상용	1,000		이건일	2,000		임병호	1,000
	강인상	1,000		이동엽	1,000		박정도	2,000
	강득천	1,000		이상만	1,000		합계	243명 421,900
	김광석	1,000		이성묵	1,000			
	김영창	1,000		이승하	2,000			
	김재진	1,000		이용국	1,000			
	김종혁	1,000		이인형	1,000			
	김종호	1,000		이찬우	2,000			
	김진광	1,000		전용운	1,000			
	김진혁	1,000		조서일	1,000			
	김철희	1,000		한승수	1,000			
	류기송	1,000		김병규	1,000			
	박중걸	1,000		김윤배	1,000			
	변양석	1,000		김종성	1,000			
	송현갑	1,000		우철식	1,000		화폐가치	
	이방기	1,000		최영호	1,000		1,000원(1967년) = 30,630원 (2022년)	
	이병철	1,000		황정일	1,000		1,000원(1970년) = 21,188원 (2022년)	
1960	이순혁	1,000	1962	신건성	1,000			
	이황의	1,000		이광호	1,000			
	이석우	1,000		이덕주	1,000			
	전진환	500		장길평	2,000			
	주경노	1,000		김교복	1,000			
	정하우	1,000	1963	류관희	1,000			
	최예환	1,000		류성곤	1,000			
	최을표	2,000		심재구	1,000			
	한중석	1,000		윤학기	1,000			
	김영배	1,000		이광규	1,000			
	박영현	1,000		이기대	1,000			
	박원규	1,000		이상익	1,000			

[부록 표 4-2] 제3차 장학기금 모금(1972. 2.~1973. 1.)

(단위: 원)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모교교수	박성우	5,000	1952	김영규	2,000	1956	신동수	2,000
	최재갑	5,000		김재곤	3,000		오세인	3,000
	박영관	5,000		이상호	3,000		유근학	2,000
	변보엽	10,000		이창호	2,000		윤충섭	2,000
고농 6	이창구	10,000		한준연	2,000		임경배	2,000
1943(고농)	한욱동	5,000		김윤태	2,000		한상욱	2,000
1945(전)	김정학	3,000		안우손	2,000		권오완	2,000
	조용칠	5,000		엄태영	3,000		김영수	2,000
1946(전)	이기준	5,000		여승현	3,000		김원수	3,000
	전기순	3,000		이종모	2,000		김주창	2,000
	정진호	5,000		정창주	5,000		문장호	2,000
1946	여운철	5,000		김덕만	2,000	1956	박준기	3,000
	함준호	5,000		이상춘	1,000		신광식	3,000
1947	손규복	3,000		김진묵	2,000		신재인	2,000
1948	김철기	5,000		박양진	2,000		이근복	5,000
	송영수	5,000		신언곤	2,000		최찬식	3,000
	안재숙	3,000		신현주	2,000		황경구	2,000
	유한열	5,000		엄병현	2,000		박완순	1,000
	윤선병	5,000		장재중	3,000		박홍무	2,000
	윤오섭	5,000		조영기	2,000		윤우성	1,000
	김성래	5,000		최규홍	5,000		이덕우	3,000
1949	윤대섭	10,000		최한식	1,000		이성직	2,000
	이철주	5,000		강인평	5,000		이재호	2,000
	최현국	5,000		김두식	2,000		이해명	2,000
	황은	5,000		김영기	2,000		장문한	1,000
1950	신준우	2,000		노승봉	2,000		장세영	1,000
	오완수	5,000		박윤근	10,000		정두호	2,000
	이규형	2,000		박준용	2,000		조수형	1,000
	이희영	5,000		박하선	1,000		차봉기	1,000
1951	고재군	5,000		복진하	2,000		한종희	1,000

[부록 표 4-2] 제3차 장학기금 모금(1972. 2.~1973. 1.)(계속)

(단위: 원)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1958	홍승만	2,000	1960	한중석	1,000	1964	이기명	2,000
	홍종진	1,000		강관수	2,000		이상익	1,000
	고학균	3,000		박노석	2,000		이상인	1,000
	김정환	3,000		박영현	1,000		이승규	2,000
	민병선	1,000		박원규	2,000		임병호	1,000
	박재룡	2,000		이인형	1,000		구자욱	2,000
	신일선	2,000		한승수	1,000		권상필	2,000
	신희복	1,000		권무남	3,000		김무열	2,000
	유범식	1,000		백남웅	2,000		김인섭	4,000
	안연우	1,000		신용호	2,000		김일수	2,000
	오세훈	2,000		우철식	1,000		김철중	2,000
	이광식	1,000		조진구	3,000		문성홍	2,000
	이수장	1,000		조병진	1,000		이왕우	2,000
	정종수	1,000		훌판기	2,000		이종태	2,000
	조범호	2,000		황선태	2,000		장정수	2,000
1959	한상용	1,000	1962	김수태	2,000	1966	구진철	2,000
	강인상	1,000		남광현	2,000		노상하	2,000
	김광석	1,000		맹춘하	2,000		이석건	2,000
	김재진	1,000		박준근	2,000		이재영	1,000
	김종혁	2,000		이규복	2,000		금동혁	2,000
	김진광	1,000		이덕주	1,000		이종택	2,000
	김철회	3,000		이종호	2,000		정영근	2,000
	류기송	1,000		구요한	2,000	1968	한상남	2,000
	박종걸	1,000		김교복	1,000		노경찬	2,000
	변양석	2,000		김량	2,000		윤수철	2,000
	유시창	2,000		김택구	2,000		이동현	2,000
	이방기	1,000		류성곤	1,000		장동일	2,000
	이석우	1,000	1963	목세균	2,000	화폐가치 1,000원(1972년) = 16,731원 (2022년)	합계	179명 449,000
	이순혁	1,000		박원옥	1,000		박재구	1,000
	이황의	1,000		이기대	1,000			
	정하우	3,000						

[부록 표 4-3] 연간 기금 모금(1973. 1. 27.~1973. 10. 8.)

(단위: 원)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고농10	남영희	10,000		이계홍	1,000		허유만	2,000
1944(전)	임영춘	10,000		황용진	2,000	1964	이왕우	1,000
1945(전)	김학영	3,000		정봉수	1,000		김경덕	2,000
	나도석	5,000	1957	최종용	2,000		김돈	3,000
1946(전)	정진호	10,000		김홍윤	1,000	1965	류혁근	2,000
	최귀열	5,000	1958	송석은	1,000		윤경섭	3,000
	노태래	10,000		강득천	1,000		정해원	3,000
	고무영	3,000	1959	변창선	2,000	1966	최현섭	3,000
1948(전)	박용하	5,000		최예환	2,000	1967	서상룡	2,000
	주재홍	3,000		윤영일	2,000		최영해	2,000
1949	이희만	3,000	1960	이동엽	1,000		김영일	3,000
1951	이필수	10,000		이성묵	1,000		김주연	3,000
	이계안	5,000		전용운	2,000	1969	김현영	3,000
1953	이달형	5,000		박정수	2,000		오병환	3,000
1954	이영렬	3,000	1961	정지윤	2,000		윤재호	3,000
	김종성	2,000		최광웅	2,000		윤희원	3,000
1955	박윤근	15,000	1962	김재인	2,000			
	손낙률	3,000		신건성	1,000			
1956	이계진	3,000	1963	류관희	1,000	합계	54명	183,000

[부록 표 4-4-1] 연간 기금 모금(1973. 10. 9.~1974. 10. 2.)

(단위: 원)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1945(전)	김학영	5,000		박창룡	1,000		박상현	3,000
1948	안재숙	5,000		이중기	2,000		임종성	3,000
1949	유한홍	10,000	1957	이병렬	1,000		이천희	3,000
1951	최상균	2,000	1960	이근후	3,000		최우현	3,000
	강예묵	5,000	1963	정일웅	3,000	1968	정백	3,000
1953	이재기	5,000	1965	남용희	3,000	1970	문계송	3,000
	김영기	2,000	1966	안건영	3,000			
1955	김영철	1,000	1967	김동환	3,000	합계	22명	72,000

[부록 표 4-4-2] 연간 기금 모금(1973. 10. 9.~1974. 10. 2.)

(단위: 원)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1945(전)	박노옥	6,500	1953	최남규	6,000	1961	김영창	2,000
	홍순억	10,000		김남혁	5,000		송현갑	1,000
1946(전)	김명환	6,000	1953	김형철	5,000	1963	조병진	2,000
	이상용	5,000		이재기	5,000	1963	김대년	3,000
	장규식	6,000		이종모	5,000	1965	방효석	3,000
1948	박용화	10,000	1954	최천락	4,000		이승찬	3,000
	유석인	6,000		민대홍	4,000		이재영	1,000
	최원식	6,000		백종철	3,000		정병호	3,000
1949	김시원	5,000	1954	장봉래	4,000	1966	김태철	3,000
	박문규	3,000		정락한	4,000	1967	송태명	3,000
	이성태	3,000		정우창	5,000		이상호	3,000
1950	차균도	3,000	1955	최규홍	3,000	1969	이영일	3,000
1951	김경수	3,000		오무영	1,000		입회비	36,000
	김성배	5,000		이해명	10,000			
1952	방경수	5,000	1958	김문기	2,300			
	심은보	10,000	1959	강인상	3,000	합 계	53명	227,800

[부록 표 4-5-1] 제4차 모금 현황(1974. 10. 9.~1976. 9. 15.)

(단위: 원)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모교교수	박성우	50,000	1952	최상균	15,000	1956	이계은	50,000
	최재갑	30,000		이상호	50,000		이종기	20,000
	박영관	30,000		이창호	30,000		임경배	30,000
고농 6	이창구	20,000		한춘연	30,000		정진옥	50,000
고농10	남영희	50,000		김윤태	30,000		한상우	20,000
1944(전)	임영춘	30,000		안우순	20,000		권오완	20,000
1945(전)	김학영	50,000	1953	엄태영	30,000		김영수	20,000
	조용칠	50,000		이재기	30,000		김주창	20,000
	한성금	50,000		이종모	30,000		문장호	20,000
	전기순	50,000		정구현	50,000	1956	박준기	20,000
1946(전)	정진호	30,000	1954	정창주	50,000		손낙률	20,000
	여운철	10,000		김진묵	10,000		신광식	15,000
	함준호	50,000		박양진	2,000		최찬식	20,000
	노태래	20,000		신언곤	3,000		황경구	20,000
	손규복	20,000		신현주	200,000		장세영	20,000
1947	송영수	20,000	1955	최한식	50,000		한중희	20,000
	유한열	10,000		강인평	50,000	1957	한휘석	20,000
	안재숙	5,000		김두식	22,000		홍승만	20,000
	윤선병	20,000		김영기	30,000		홍종진	20,000
	윤오섭	30,000		김영철	30,000		고학균	20,000
	이기춘	10,000		김종성	50,000		김문기	15,000
1949	김시원	20,000	1955	박승룡	30,000		민병선	20,000
	백은기	20,000		박준용	20,000		박재룡	20,000
	이성태	50,000		박창용	30,000		신일선	13,000
	최현국	10,000		복진하	30,000	1958	오세훈	20,000
	오완수	15,000		서승덕	20,000		이광식	20,000
1950	이희영	15,000		신동수	50,000		정종수	20,000
	고재군	15,000		오세인	50,000		조범호	20,000
1951	김영규	15,000		유근학	50,000		지근진	20,000
	김재곤	15,000		윤충섭	30,000		한상룡	20,000

[부록 표 4-5-1] 제4차 모금 현황(1974. 10. 9.~1976. 9. 15.)(계속)

(단위: 원)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1959	김광석	20,000		송현갑	20,000	1960	이근후	20,000
	김종혁	20,000		유시창	20,000	1961	권무남	20,000
	김진광	20,000		이석우	20,000		조진구	5,000
	김철희	20,000		이순혁	5,000	1963	심재구	10,000
	류기송	20,000		이황의	20,000		이승규	5,000
	박종걸	20,000		정하우	20,000			
	변양석	20,000		한종석	20,000			
						합계	109명	2,910,000

[부록 표 4-5-2] 제4차 모금 현황(1974. 10. 9.~1976. 9. 15.)

(단위: 원)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1957	이해명	2,000		이종일	3,000	1972기	나정우	2,000
	차봉기	2,000		전재화	3,000		오준석	3,000
	1960	박영현		정상옥	3,000		이태형	3,000
	1963	김대년		한명규	3,000		전경구	3,000
	1964	장정수		황영섭	3,000		손광인	3,000
	1965	김경덕		안병찬	3,000		신흥균	3,000
	1966	이승찬		이대연	3,000		양승한	3,000
	1967	윤경섭		윤상진	3,000		오용주	3,000
1968	1968	정병호		정도웅	3,000		이태호	3,000
	1969	고홍석	3,000	1970기	장세권	1972기	연산강	
	1970	권희교	3,000	1971토	윤병순		사업소	16,000
	1971	김기석	3,000	1972토	김상필		16명	
	1972	김형경	3,000		김영민		최찬식	80,000
							외 3명	
							합계	55명
								192,000

[부록 표 4-6] 연간 기금 모금(1976. 9. 16.~1977. 9. 29.)

(단위: 원)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1943(고농)	한욱동	20,000	1955	유근학	10,000	1972	김중식	3,000
1948	김철기	20,000		김종성	10,000		나정우	3,000
	최현국	10,000		오무영	20,000		조태영	3,000
1949	황 은	20,000	1959	송현갑	10,000	1973		
	백은기	20,000	1969	정한희	3,000			
1950	오완수	10,000	1970	박찬수	3,000			
1954	최규홍	10,000		구영길	3,000		합계	17 명
								178,000

[부록 표 4-7] 연간 기금 모금(1977. 10. 7.~1978. 9. 13.)

(단위: 원)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1943(고농)	한욱동	10,000		김규식	5,000		박승제	3,000
1948	김철기	30,000		김풍진	5,000		신현명	3,000
1949	최현국	5,000		김현중	5,000		윤산	3,000
	황은	10,000		류기철	5,000		이영기	5,000
1950	오완수	25,000		서기동	5,000		이채식	3,000
	김종성	5,000		윤철호	5,000		임영태	3,000
1955	박윤근	30,000		이성규	5,000		김철기	5,000
	유근학	5,000		이성철	5,000		박광수	5,000
1956	노재홍	20,000		최시홍	5,000		박병덕	5,000
1958	김정환	10,000		김현성	5,000		박창범	5,000
1959	이순혁	10,000		박준걸	5,000		이영화	5,000
	최예환	30,000		성민기	5,000		정하설	5,000
1960	박원규	10,000		이석영	3,000		고한목	5,000
1969	신재천	3,000		이성렬	5,000		김재덕	5,000
	남호우	5,000		이수만	5,000		나무석	5,000
1970토	민동식	3,000	1972기	남영식	5,000		남상일	5,000
	박창규	3,000		이계형	5,000		박시우	5,000
1970기	박한기	3,000		강인섭	3,000		박재련	5,000
	윤병기	3,000		남충희	5,000		박종윤	5,000
	이영대	5,000		원인희	5,000		신현기	5,000
1971토	임종완	3,000	1973토	조명환	5,000		우호길	5,000
	전수현	3,000		차대우	3,000		이원남	5,000
1970기	김의환	5,000		최석택	3,000		이재우	5,000
	이재훈	5,000		홍성호	3,000		주기석	5,000
1971기	조영길	3,000		고상돈	3,000		최창현	5,000
	조한근	5,000		김상현	3,000		최희홍	5,000
	최명길	3,000	1973기	김진배	3,000			
1971토	강희진	5,000		명승국	3,000			
	권진봉	5,000		박명성	3,000	합계	84 명	507,000

[부록 표 4-8] 연간 기금 모금(1978. 10. 9.~1979. 9. 27.)

(단위: 원)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고농10	남영희	500,000		유시창	10,000		박상민	5,000
1948	박용하	20,000		이방기	20,000	1971 기	전찬영	5,000
	유한홍	30,000		이석우	10,000		정광진	5,000
1949	최현국	20,000		이황의	50,000		강봉구	5,000
1950	신준우	30,000		정하우	10,000		김 승	5,000
	김경수	5,000		주경노	15,000		김형진	5,000
1951	김영규	10,000	1960	박원규	10,000		박 철	5,000
1953	정구현	20,000		최연우	20,000	1972 토	송종현	5,000
1954	이영렬	10,000	1961	권무남	15,000		윤병구	5,000
	김조웅	20,000	1962	장길평	15,000		윤치욱	5,000
1955	박승룡	12,000		구요한	20,000		이종식	5,000
	서승덕	10,000		김교복	20,000		최영호	5,000
	김태선	50,000		김대연	20,000		최진규	5,000
1956	신재인	30,000		목세균	20,000		강정만	5,000
	이계홍	30,000		심재구	20,000		김영복	5,000
1957	정두호	5,000		유성곤	20,000	1972 기	사공문	5,000
1958	김문기	30,000		윤석복	20,000		오형일	5,000
	강인상	50,000		이광규	20,000		홍성준	5,000
	곽영철	50,000		이기대	20,000	1974 토	김태운	5,000
	김광석	10,000		이기명	20,000		유인상	5,000
	김성삼	20,000		이상익	20,000	1974 기	김석진	5,000
	김세겸	50,000		이상인	20,000		고종탁	5,000
	김재진	20,000		이석호	20,000		기우석	5,000
1959	김종혁	10,000		임병호	20,000		김기태	5,000
	김진광	10,000		정일웅	25,000		김옥준	5,000
	김진혁	30,000		허유만	20,000	1975 토	노재화	5,000
	김철희	10,000	1964	김무열	10,000		박찬수	5,000
	박종걸	10,000	1966	이석건	20,000		이 석	5,000
	변양석	10,000	1970 토	전영용	5,000		이철우	5,000
	유기송	10,000	1971 토	류근택	5,000		조국광	5,000

[부록 표 4-8] 연간 기금 모금(1978. 10. 9.~1979. 9. 27.)(계속)

(단위: 원)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1975 기	최정식	5,000		박근배	5,000		한명범	5,000
	홍동완	5,000		성익경	5,000		한영조	5,000
	김만수	5,000		유수남	5,000		황 현	5,000
	김익현	5,000		윤병곤	5,000			
	김종민	5,000		윤효철	5,000			
	김종원	5,000		최민철	5,000			
	김현성	5,000		최희승	5,000	합계	107명	1,890,000

[부록 표 4-9] 연간 기금 모금(1979. 9. 28.~1980. 9. 24.)

(단위: 원)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1945(전)	고농10	남영희	40,000		김영기	10,000		유범식	30,000
	이한영	10,000	박하선	30,000	유석형	30,000			
	전기순	15,000	복진하	10,000	유성현	30,000			
	정진호	10,000	이만춘	30,000	정종수	10,000			
	최귀열	30,000	임경배	5,000	조범호	10,000			
	함준호	10,000	1956	김기성	47,000	지근진	50,000		
	노태래	15,000		김병혁	30,000	1959	변창선	30,000	
	김영수	10,000		김원수	30,000		이병철	20,000	
	주재홍	30,000		김도중	30,000		이순혁	10,000	
1949	김성래	30,000		김주창	10,000		최예환	10,000	
	윤대섭	50,000		노재홍	10,000		한중석	10,000	
	이성태	20,000		문장호	10,000	1960	박영현	20,000	
	이규형	15,000		손락률	27,000		안화섭	20,000	
	김경수	10,000		이근복	30,000		이동열	20,000	
	김성배	30,000	1957	김종무	30,000		이용국	20,000	
	김진철	30,000		이덕우	10,000		배정길	20,000	
	박덕영	10,000		이병렬	30,000		신용호	20,000	
	박빈수	30,000		이해명	30,000		조병진	20,000	
1952	이창호	8,000		장세영	30,000		지인섭	20,000	
	한찬택	30,000		정동성	30,000	1962	김수태	15,000	
	한준연	10,000		조수형	30,000		김준규	20,000	
	강예록	30,000		차봉기	30,000		남광현	10,000	
	김남혁	30,000		한중희	10,000		김 량	20,000	
	정구현	10,000		홍승만	10,000		류관희	40,000	
	김덕만	30,000		홍종진	10,000		박원옥	20,000	
	김진록	10,000	1958	김정화	20,000		우관희	20,000	
	박양진	10,000		민병선	10,000		윤학기	20,000	
1954	신현주	17,000		박재룡	15,000	1964	권상필	20,000	
	이상춘	10,000		박종효	30,000		김무열	10,000	
	최규홍	20,000		신일선	10,000		김성태	20,000	
	김두식	15,000		오세훈	10,000		성기원	20,000	

[부록 표 4-9] 연간 기금 모금(1979. 9. 28.~1980. 9. 24.)(계속)

(단위: 원)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1965	이왕우	20,000	1971 토	박한기	5,000	1976 토	강범구	5,000
	장정수	20,000		임종완	5,000		김성욱	5,000
	조성동	10,000		전수현	17,000		나요섭	5,000
	한한수	20,000		윤병순	7,000		박성우	5,000
	강철주	20,000	1971 기	이성홍	15,000		신세영	5,000
	서형하	20,000		박금주	5,000		오석창	5,000
	성명제	20,000		김상필	17,000		이봉영	5,000
	이승찬	20,000		나정우	17,000		최홍식	5,000
	고동준	20,000		윤병구	5,000		곽광진	5,000
1966	김만수	20,000	1972 토	최진규	15,000		곽효성	5,000
	김태철	10,000		이상진	5,000		구영모	5,000
	나우정	20,000		임민혁	5,000		권영제	5,000
	윤경섭	17,000		장광윤	5,000		김남전	5,000
	이재영	20,000		김재원	5,000		김동욱	5,000
	주광한	10,000		박성수	5,000		김병관	5,000
1967	박상현	17,000	1973 토	박용섭	5,000	1976 기	김철수	5,000
	송태명	20,000		서택동	5,000		김형준	5,000
	윤창원	15,000		오원룡	5,000		배영환	5,000
	조홍제	20,000		원인희	15,000		서형덕	5,000
	최우현	17,000		최정환	5,000		송병근	5,000
1968	구자웅	20,000		황경선	5,000		신흥렬	5,000
	이종일	10,000	1973 기	고재영	5,000		오원동	5,000
	김현영	17,000		류호택	5,000		윤홍상	5,000
	안병찬	17,000		이석봉	5,000		이성범	5,000
1969	이남호	10,000	1974 토	박광수	15,000		이순재	5,000
	이영일	20,000		원창희	5,000		이재천	5,000
	이정재	5,000	1974 기	이 준	5,000		이종갑	5,000
	정도웅	5,000	1975 기	김만수	20,000		전재현	5,000
	홍병만	20,000	1975 토	고덕구	5,000		정우현	5,000
1970 토	구영길	5,000		노재화	15,000		조송호	5,000
	박창규	10,000		우병국	5,000	합 계	185명	2,802,000

[부록 표 4-10] 연간 기금 모금(1980. 9. 25.~1981. 9. 30.)

(단위: 원)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고농	조광희	30,000		이덕우	20,000		한석순	20,000
고농 6	이창구	400,000		임영목	30,000		구영길	5,000
고농10	남영희	150,000		정난교	30,000		박창규	7,000
1951	박덕영	20,000		한화석	30,000		이영대	30,000
1953	안우손	10,000		홍민선	30,000		임종완	5,000
	이종모	10,000		김남훈	50,000	1971 토	윤병순	10,000
	백종철	30,000		김홍윤	30,000	1972 토	이종식	15,000
1954	신성기	30,000		신희복	30,000	1973 토	안치일	5,000
	정낙환	30,000		안연우	10,000		고상돈	5,000
1955	박승룡	10,000		오세훈	10,000		고재영	5,000
	박준용	25,000		유석형	20,000		김만석	5,000
	오세인	20,000		이광식	25,000		김상현	5,000
	윤충섭	10,000		이수장	30,000		김진배	5,000
	이계은	30,000		김재진	10,000		명승국	5,000
	이만춘	30,000		김홍기	30,000		박승제	5,000
	이상규	10,000		박남주	30,000		유호택	5,000
	이중기	10,000		이병철	10,000		윤 산	5,000
	강성관	30,000		이창식	50,000		이석봉	5,000
	김기성	30,000		정갑주	30,000		이영기	5,000
1956	김도중	30,000	1960	권순국	20,000		이채식	5,000
	손택률	30,000		이인형	20,000		이호상	5,000
	이강세	30,000	1963	김택구	20,000		장성구	5,000
	이계진	30,000		장문균	15,000	1974 토	김철기	5,000
1957	황용진	30,000	1964	구자옥	20,000		고종탁	4,000
	김광배	30,000		김인섭	20,000		기우석	5,000
	김일상	30,000		윤석용	20,000		김기태	5,000
	박완순	30,000	1966	김태철	10,000	1975 토	박병태	1,000
	박홍무	30,000	1968	한만용	17,000		박찬수	5,000
	신민식	30,000	1969	임병구	20,000		손정익	4,000
	이강섭	30,000		정도웅	5,000		신태은	4,000

[부록 표 4-10] 연간 기금 모금(1980. 9. 25.~1981. 9. 30.)(계속)

(단위: 원)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우홍석	4,000		최승렬	5,000		입회(토)	120,000
	이 석	5,000		최영주	4,000		입회(기)	100,000
	조국광	4,000		홍동완	5,000	합 계	140명	2,384,000

[부록 표 4-11] 연간 기금 모금(1981. 10. 1.~1982. 9. 30.)

(단위: 원)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고농 6	이창구	600,000		유현근	20,000		이태호	5,000
1948	최원식	30,000		이재영	20,000		임민혁	5,000
1951	김경수	15,000		백풍기	20,000		최승조	5,000
	김형제	10,000		제종근	20,000		강인섭	5,000
1954	구본숙	30,000	1967	백현기	20,000	1973 토	김재원	5,000
	김남식	10,000	김경욱	20,000	박용섭		5,000	
	박양진	10,000	노경찬	20,000	안치일		5,000	
	이영렬	20,000	유철근	20,000	원인희		5,000	
	최한식	10,000	이종일	20,000	차대욱		5,000	
1957	최종용	30,000		정 백	20,000		최석택	15,000
1959	주경노	15,000		한명규	10,000		홍성호	5,000
1960	김영배	20,000		권진봉	20,000	1974 토	김광식	5,000
	윤영일	20,000		김현중	5,000		박광수	5,000
	이상만	20,000		서기동	5,000		박병덕	5,000
	이찬우	20,000		윤철호	10,000		윤춘경	5,000
	임규성	20,000		이성규	10,000		이신호	5,000
	조서일	20,000		이성홍	10,000		이영화	5,000
1961	구교문	20,000	1971 기	이규승	10,000	1975 기	정하설	5,000
	박정수	20,000	강정만	5,000	최진동		5,000	
	황선태	20,000	강태원	5,000	박근배		5,000	
1964	김성태	20,000	1972 기	사공문	5,000	1976 토	서상교	20,000
	유경학	30,000		신흥균	5,000	양천익	5,000	
1965	곽중삼	20,000		양승한	5,000	1978 기	최만엽	5,000
	김 돈	17,000		오형일	5,000		입회(토)	135,000
	남용희	20,000		이계형	5,000		입회(기)	95,000
	방효석	20,000		이상진	5,000	합 계	121명	1,787,000

[부록 표 4-12] 연간 기금 모금(1982. 10. 1.~1983. 9. 30.)

(단위: 원)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1946(전)	정진호	1,000,000		전재화	20,000		전창석	5,000
1951	김형재	20,000	1969	이대연	17,000		정운양	5,000
1960	권순국	30,000	1970 기	김의환	15,000		조수신	5,000
	이건일	20,000		박상민	10,000		허총구	5,000
	우철식	20,000		이규승	10,000		강원재	5,000
1961	윤병호	20,000	1972 토	윤병구	10,000		강인식	5,000
	이정남	10,000		김광식	5,000		김동국	5,000
	김수태	30,000		김철기	5,000		김은수	5,000
	김순규	30,000		윤춘경	15,000		성낙곤	5,000
	류신우	30,000		이상국	5,000		신민종	5,000
	맹춘하	20,000	1974 기	우호길	5,000		신범수	5,000
	박준근	30,000	1975 토	박관우	5,000		양유승	5,000
1962	신건성	30,000		김승현	5,000		우성봉	5,000
	양상홍	30,000		서동준	5,000	1979 기	이종환	5,000
	유순형	30,000		윤여홍	5,000		이창규	5,000
	이광호	20,000		전건영	5,000		이태서	5,000
	이영주	30,000		정병호	5,000		장영창	5,000
	이흥우	30,000	1976 기	나용운	5,000		정우원	5,000
	장길평	30,000	1978 기	최희동	5,000		정찬건	5,000
	장동원	30,000		권혁돈	5,000		한철수	5,000
	박정도	20,000		김용훈	5,000		홍경수	5,000
1964	송신호	20,000		박병훈	5,000		홍명렬	5,000
	조성동	10,000		박석기	5,000		황인수	5,000
1966	이창구	20,000	1979 토	서광섭	5,000	1970 기	70 동기	100,000
1967	금동혁	20,000		양희구	5,000			
	윤여두	20,000		이무종	5,000			
1968	권희교	17,000		이석민	5,000			
	김형경	10,000		이종식	5,000	합 계	79 명	2,044,000

[부록 표 4-13] 연간 기금 모금(1983. 10. 1.~1984. 9. 30.)

(단위: 원)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1946(전)	김환종	1,000,000	1965	정병호	20,000		입회'84	160,000
	정진호	1,000,000	1967	이승우	30,000	1963	63동기	1,000,000
1958	안재완	20,000		김재우	20,000			
1962	이종호	20,000	1969	오병환	10,000			
1964	김철중	20,000		윤재호	10,000	합 계	10 명	3,310,000

[부록 표 4-14] 연간 기금 모금(1984. 10. 1.~1985. 10. 4.)

(단위: 원)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1949	윤대섭	2,000,000		안상용	5,000		우종구	5,000
	김삼래	5,000		오중환	5,000		유의경	5,000
1978 토	김혁년	5,000		이병국	5,000		이상재	5,000
	김영배	5,000		이상만	5,000		이준신	5,000
1978 기	하재은	5,000		이수길	5,000		이환승	5,000
	강재호	5,000		이우종	5,000		장우진	5,000
1981 토	고재환	5,000		이종호	5,000		정기철	5,000
	곽효경	5,000		전정철	5,000		정병관	5,000
1981 기	김대환	5,000		정용환	5,000		조영석	5,000
	김병진	5,000		정해철	5,000		조태연	5,000
	김성준	5,000		정현열	5,000		홍석호	5,000
	김준석	5,000		김진영	5,000		홍순호	5,000
	김춘삼	5,000		김택식	5,000		홍지향	5,000
	노경수	5,000		김홍주	5,000	1970 기	70동기	130,000
	박원득	5,000		손상순	5,000	1964	64동기	1,000,000
	박재희	5,000		안 휘	5,000	합 계	45명	3,350,000

[부록 표 4-15] 연간 기금 모금(1985. 10. 9.~1986. 9. 23.)

(단위: 원)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1946	이봉국	172,146		정봉수	5,000		김영상	5,000
	정진호	1,000,000		최중섭	5,000		김우택	5,000
1949	윤대섭	20,000,000	1980 기	허영화	5,000		김혁주	5,000
	박노홍	20,000	1981 토	이형주	5,000		박복용	5,000
1961	우철식	20,000	1981 기	김유남	5,000		박세환	5,000
	이정남	10,000		민경복	5,000		방연규	5,000
	정지윤	10,000		이상복	5,000		백신원	5,000
	현창순	20,000		김래현	5,000		서진원	5,000
	홍판기	20,000		김창환	5,000		송석환	5,000
1964	김무열	10,000		김현준	5,000		송승훈	5,000
1967	박상현	10,000		박봉기	5,000		유봉환	5,000
1968	이종일	20,000		박영관	5,000		유치영	5,000
1969	성낙원	10,000		박종만	5,000		윤기직	5,000
	오병환	10,000		이상진	5,000		이비용	5,000
	박동우	10,000	1982 토	이석한	5,000		이우상	5,000
1970	박찬수	10,000		이성수	5,000		이원석	5,000
	임종완	10,000		이시복	5,000		이효섭	5,000
1971 기	남상일	15,000		이을범	5,000		정상완	5,000
1972 기	임민혁	10,000		이행우	5,000		조병룡	5,000
1973 기	김상현	5,000		임선택	5,000		조용백	5,000
	박승제	10,000		전수근	5,000		팽기석	5,000
1974 기	이재우	15,000		황명수	5,000		황병훈	5,000
1975 토	이 석	10,000	1982 기	국인석	5,000	1965	65동기	1,000,000
1978 기	허 명	5,000		김기영	5,000			
1979 토	차재선	5,000		김대식	5,000			
1979 기	이영민	5,000		김성옥	5,000	합 계	74 명	22,682,146

[부록 표 4-16] 연간 기금 모금(1986. 10. 9.~1987. 10. 12.)

(단위: 원)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모교교수	박성우	2,000,000	1974 기	주기석	20,000		입회(기)	130,000
1946	이봉국	254,619	1975 기	이수철	10,000	1956	56동기	200,000
1968	김형경	20,000	1978 토	최덕순	10,000	1966	66동기	1,000,000
	김진수	10,000	1978 기	박희진	10,000			
1970 토	박동우	10,000		백유선	10,000			
	윤병기	20,000	1979 기	장영창	5,000			
1970 기	최명길	30,000		입회(토)	100,000	합 계	59명	3,839,619

[부록 표 4-17] 연간 기금 모금(1987. 10. 14.~1988. 10. 4.)

(단위: 원)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1960	서대하	20,000		도광수	5,000		김기영	5,000
	이홍주	20,000	1983 토	최식중	5,000		문성덕	5,000
1961	정지윤	10,000		하현철	5,000		박서신	5,000
	지인섭	20,000	1983 기	김일영	5,000		박수찬	5,000
	최영호	20,000		강희웅	5,000		박종필	5,000
1973 토	조명환	30,000		고재일	5,000		변창덕	5,000
1974 토	이신호	10,000		구지희	5,000		서정건	5,000
1974 기	남상일	10,000		김광호	5,000		신종필	5,000
1980 기	인효석	20,000		김종덕	5,000		오동환	5,000
	김병주	5,000		라일웅	5,000		우종인	5,000
1981 토	김종원	5,000		박영조	5,000		이제홍	5,000
	김종인	5,000		성근열	5,000		이진한	5,000
	변종억	5,000		신경수	5,000		전유일	5,000
	이현용(토)	5,000	1984 토	신동석	5,000		정승영	5,000
	최은철	5,000		윤광렬	5,000		조명제	5,000
1981 기	김성민	5,000		윤상묵	5,000		최영구	5,000
	백주형	5,000		윤종원	5,000		입회(토)	135,000
	손영선	5,000		정영신	5,000		입회(기)	120,000
	이강은	5,000		정태성	5,000	1967	67동기	300,000
	이주형	5,000		조정록	5,000			
	차경진	5,000		최병권	5,000			
	김경탁	5,000		최용진	5,000			
1982 토	김 육	5,000		홍종상	5,000	합 계	113명	980,000

[부록 표 4-18] 연간 기금 모금(1988. 10. 9.~1989. 9. 30.)

(단위: 원)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1951	고학균	2,000,000	1972 토	김 승	30,000	1977 토	김학원	10,000
1960	이동엽	10,000	1972 기	신흥균	20,000	1981 기	안 휘	10,000
1963	이상인	11,000	1975 기	허찬행	10,000	1968	68동기	1,000,000
1967	김동환	20,000	1976 기	배영환	20,000	합 계	10 명	3,141,000

[부록 표 4-19] 연간 기금 모금(1989. 10. 9.~1990. 9. 30.)

(단위: 원)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1966	정익신	20,000		김태용	20,000	1981 토	정현열	10,000
1970 토	이재훈	20,000		오규창	40,000	1959	59동기	2,000,000
1974 토	이신호	10,000		우광성	30,000	1969	69동기	1,000,000
1974 기	최창현	30,000		이강훈	10,000	합 계	9 명	3,190,000

[부록 표 4-20] 제5차 기금 모금(1999. 10. 9.~2000. 10. 8.)

(단위: 원)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기별	성명	금액
1948	안재숙	200,000		이황의	50,000		정도웅	100,000
1950	신준우	50,000		정하우	50,000	1970	박창규	50,000
1951	김진철	50,000		권순국	100,000	1972	사공문	250,000
1952	한찬택	100,000		박원규	100,000	1973	이석봉	50,000
1953	정구현	100,000	1963	류관희	100,000	1974	김철기	50,000
	정창주	1,000,000		김무열	50,000		김재철	50,000
1955	김두식	50,000	1964	김철중	2,500,000		이용직	50,000
	박창용	50,000		장병욱	50,000		이중용	50,000
	유근학	1,000,000		정진우	50,000		조성인	50,000
1956	권오완	1,000,000	1965	한정남	50,000	1981	김성준	50,000
1957	장세영	100,000	1966	노상하	50,000	1982	백세환	50,000
	홍종진	50,000		이석건	100,000		이석한	50,000
1958	홍승만	1,000,000	1967	김동환	100,000	1983	김태영	50,000
	고학균	50,000		박승우	100,000		박종민	100,000
	김문기	100,000	1968	김경욱	50,000			
	유범식	100,000	1969	이정재	50,000	합 계	46 명	9,550,000

[부록 표 4-21] 연도별 농공동창회의 장학기금 다액 기부자와 금액

(단위: 1,000원)

연도	월 일	기부자	금액	연도	월 일	기부자	금액
1979	8. 22.	남영희	500	1986	7. 8.	이봉국	172
1980	10. 9.	남영희	150		10. 9.	56동기	200
1981	6. 4.	이창구	400		10. 27.	박성우	2,000
1982	3. 22.	이창구	600		10. 29.	66동기	1,000
1983	3. 3.	정진호	1,000	1987	3. 11.	이봉국	254
	10. 6.	이창구	1,000		10. 20.	57동기	1,000
	10. 9.	정진호	1,000		10. 20.	67동기	300
	10. 11.	63동기	1,000	1988	10. 10.	68동기	1,000
	12. 9.	김환종	1,000		2. 18.	고재군	2,000
1984	10. 9.	64동기	1,000		10. 9.	59동기	2,000
1985	9. 28.	윤대섭	2,000		10. 9.	69동기	1,000
	10. 12.	65동기	1,000		12. 13.	동창회	25,000
	11. 7.	정진호	1,000		12. 13.	정진호	3,000
	12. 27.	윤대섭	20,000		12. 13.	윤대섭	22,000

[부록 표 4-22] 연도별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농공장학재단)의 다액 기금출연자와 금액

(단위: 1,000원)

연도	월 일	출연자	금 액	연도	월일	출연자	금 액
1989	12. 13.	동창회	50,000	1998	3. 30.	윤대섭	50,000
1990	7. 19.	이철주	2,000	1999	3. 31.	윤대섭	50,000
	7. 19.	유한홍	10,000		12. 28.	윤대섭	10,000
	10. 8.	윤대섭	10,000		12. 29.	윤대섭	10,000
	10. 10.	임영춘	30,000		12. 30.	윤대섭	50,000
	12. 11.	권오완	300		12. 30.	동창회	9,550
	12. 28.	윤대섭	10,000			정창주	(1,000)
1991	7. 9.	유근학	1,000			유근학	(1,000)
	10. 12.	이진우	1,064			권오완	(1,000)
	10. 22.	김원세	10,000			홍승만	(1,000)
	11. 20.	61동기	1,000			김철중	(2,500)
	11. 20.	배정길	1,000			동 문	(3,050)
	12. 16.	윤대섭	10,000	2000	12. 1.	윤대섭	50,000
1992	3. 4.	고재균	1,000		12. 1.	윤대섭	20,000
	9. 24.	정창주	1,000		12. 1.	윤대섭	10,000
1993	3. 3.	윤대섭	10,000	2001	12. 1.	윤대섭	10,000
	10. 10.	이상호	1,000		12. 1.	윤대섭	50,000
1994	3. 22.	윤대섭	10,000		12. 28.	윤대섭	10,000
	3. 30.	동창회	33,000	2002	12. 1.	윤대섭	50,000
	3. 30.	이 자	10,000		12. 1.	윤대섭	20,000
	6. 1.	고재균	3,000		12. 1.	윤대섭	10,000
1995	8. 26.	김환종	5,000		12. 23.	이종용	1,000
	10.	이창구	5,000	2003	1. 23.	정하우	2,000
	10.	추모회	5,000		10. 16.	장길평	10,000
1996	2. 14.	김환종	5,000		11. 11.	최찬식	5,000
	2. 14.	윤대섭	20,000		12. 1.	윤대섭	10,000
	2. 14.	고재균	3,000		12. 1.	윤대섭	10,000
	2. 14.	지근진	2,000		12. 1.	윤대섭	100,000
	2. 14.	동창회	10,000		12. 1.	이병철	2,000
	8. 20.	유한홍	10,000		12. 18.	이종용	1,000
1997	2. 10.	윤대섭	20,000		12. 30.	윤대섭	50,000
	3. 28	윤대섭	25,000				

주: ()는 농공동창회의 출연(9,550,000원)에 포함된 내용임

[부록 표 4-22] 연도별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농공장학재단)의 다액 기금출연자와 금액(계속)
(단위: 1,000원)

연도	월 일	출연자	금 액	연도	월 일	출연자	금 액
2004	12. 27.	장병욱	1,000	2012	12. 24.	윤대섭	30,000
	12. 27.	윤대섭	100,000		12. 26.	윤대섭	298,900
	12. 27.	윤대섭	50,000		3. 13.	정종훈	1,000
	12. 27.	윤대섭	10,000		3. 19.	윤병호	1,000
	12. 27.	윤대섭	10,000		3. 30.	유화증권	200,000
	12. 27.	윤대섭	10,000		11. 23.	구본무	10,000
	12. 30.	윤대섭	50,000		12. 21.	손영환	500
2005	12. 26.	윤대섭	10,000		12. 21.	정종훈	500
	12. 30.	윤대섭	10,000		12. 21.	윤병호	500
	12. 30.	윤대섭	10,000		12. 21.	배정길	500
	12. 30.	윤대섭	150,000		12. 21.	이정원	500
	12. 30.	윤대섭	50,000		12. 21.	정하우	500
	12. 30.	윤대섭	50,000		12. 24.	일동통상(주)	200,000
	12. 28.	윤대섭	20,000		12. 28.	윤대섭	729,000
2006	12. 28.	윤대섭	20,000		12. 28.	김명희	38,950
	12. 29.	윤대섭	100,000		12. 28.	윤수현	219,625
	12. 29.	윤대섭	20,000		12. 28.	윤태현	778,100
	12. 29.	윤대섭	190,000		12. 28.	박연진	100,400
	12. 29.	윤대섭	10,000		12. 29.	나정우	1,000
	12. 29.	윤대섭	100,000		12. 26.	윤대섭	240,584
	12. 14.	윤대섭	10,000		12. 26.	윤대섭	82,824
2007	12. 21.	윤대섭	10,000		12. 26.	윤대섭	102,900
	12. 21.	윤대섭	20,000		12. 29.	윤대섭	10,000
	12. 21.	윤대섭	20,000		12. 30.	윤대섭	40,000
	12. 21.	윤대섭	20,000		12. 31.	윤대섭	200,000
	12. 21.	윤대섭	167,412		12. 22.	윤대섭	204,274
	12. 21.	윤대섭	101,656		12. 22.	윤대섭	180,950
	12. 21.	윤대섭	82,045		12. 22.	윤대섭	131,319
2008	12. 21.	윤대섭	36,620		12. 22.	윤대섭	116,325
	3. 31.	윤대섭	500,000		12. 22.	윤대섭	37,936
	12. 16.	윤대섭	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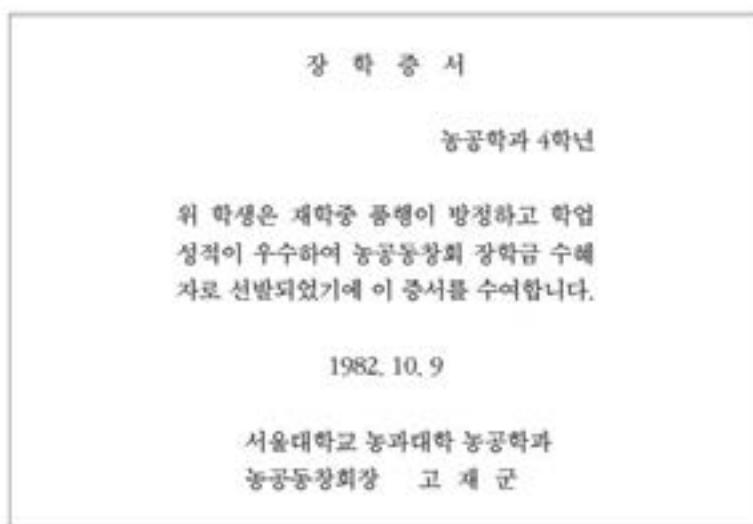
[부록 표 4-22] 연도별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농공장학재단)의 다액 기금출연자와 금액(계속)
(단위: 1,000원)

연도	월 일	출연자	금 액	연도	월 일	출연자	금 액
2010	12. 22.	윤대섭	34,639	2013	12. 27.	윤대섭	405,375
	12. 29.	윤대섭	50,000		12. 27.	윤대섭	92,795
	12. 30.	윤대섭	300,000		12. 27.	윤대섭	235,450
	3. 31.	윤대섭	200,000		12. 27.	윤대섭	22,325
	12. 28.	윤대섭	280,800		12. 29.	이홍주	5,000
	12. 28.	윤대섭	335,880		3. 29.	유화증권	200,000
	12. 28.	윤대섭	335,880		12. 27.	박원규	3,000
	12. 28.	윤대섭	163,800		10. 6.	(주)세영티엠 (이정원)	5,000
	12. 28.	윤대섭	66,820		10. 6.	장세권	10,000
	12. 28.	윤대섭	140,000		10. 12.	노상하	5,000
2011	12. 28.	윤대섭	130,000	2018	12. 27.	(주)쏘일테크 엔지니어링 (윤상목)	5,000
	3. 31.	윤대섭	200,000		12. 28.	문성채	3,000
	12. 27.	윤대섭	300,000	2021	9. 25.	윤수현	220,454
	12. 27.	윤대섭	800,530	2022	8. 25.	홍순호	5,000
	12. 27.	윤대섭	477,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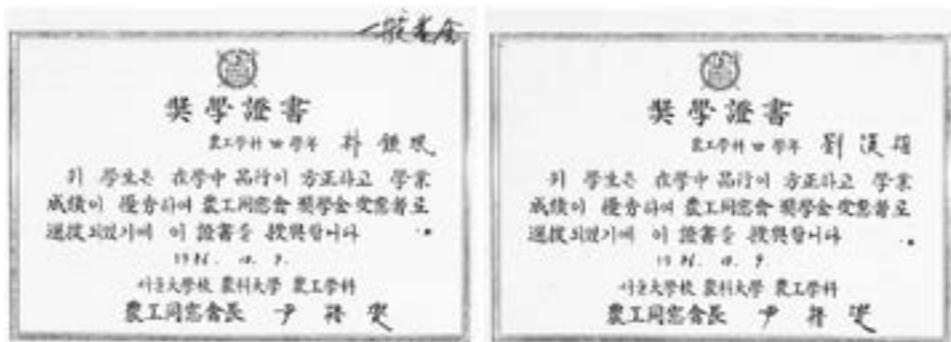
장학증서의 변천

1) 농공동창회의 장학증서

농공동창회의 장학사업은 1968년도 제2학기에 시작하였지만, 장학증서는 제8대 고재군 회장 때에 처음 수여하였다. 초기 장학증서의 원본을 확보하지 못해 1982년 농공동창회 준비 과정에 남은 기록을 여기에 수록하였다([부록 그림 5-1-1] 견본 참조). 이후 1985년에 시행된 특별장학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일반 장학금과 구분하여 장학증서를 만들어 수여하였다. 농공동창회의 장학증서는 [부록 그림 5-1-2]에 수록하였으며, 개인명의의 특별장학증서는 [부록 그림 5-1-3]에 그리고 단체명의의 장학증서는 [부록 그림 5-1-4]에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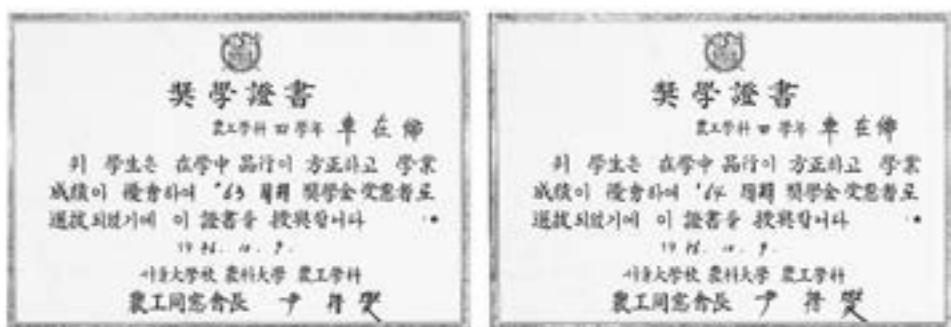
[부록 그림 5-1-1]
농공동창회의 장학증서 견본



[부록 그림 5-1-2] 농공동창회의 장학증서(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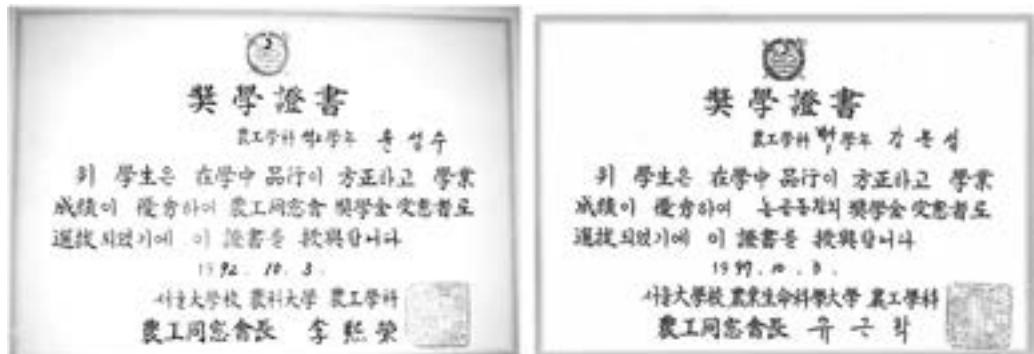
[부록 그림 5-1-3] 개인명의의 특별장학증서 (1986)



[부록 그림 5-1-4] 단체명의의 특별장학증서(1986)

2) 장학재단의 장학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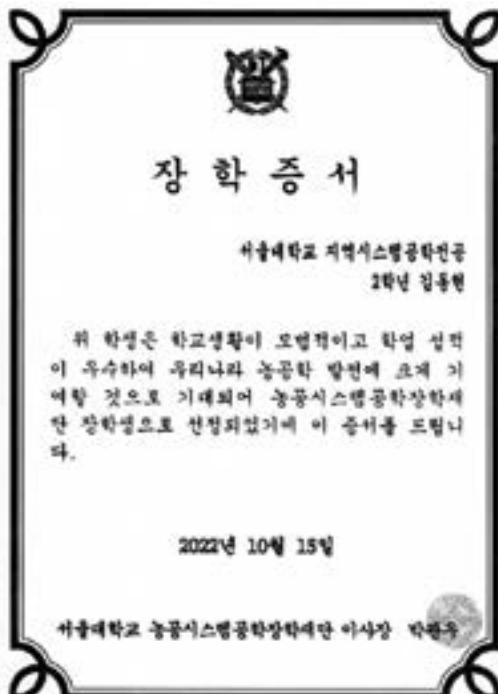
장학재단의 장학증서는 1990년도 제2학기부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농공동창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를 수여하였고, 2011년에 가서 수여주체를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수록하면 [부록 그림 5-2-1]~[부록 그림 5-2-3]과 같다.



[부록 그림 5-2-1] 장학재단 초기 장학증서(1992(좌) & 1997(우))



[부록 그림 5-2-2] 장학재단 장학증서(2008(좌) & 2011(우))



[부록 그림 5-2-3]
장학재단 장학증서(최신 2022)

30
1990
-2022



서울대학교 농공시스템공학장학재단 30년사 편찬위원회